

본 회의록에 수록된 원고 및 사진 사용 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4. 4. 11.(목), 10:00
- ▣ 장 소 : KW컨벤션센터(대전시)
- ▣ 참석위원 : 박은경(위원장), 김규호, 김순희, 김태영,
이완우, 이한상, 이한상, 임영애, 최영호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 |
|------------------|---|------------|
| 【심의사항】 4건 | | 비 고 |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
| 1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 공개 |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
| 2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 공개 |
| 3 | 남원 대복사 동종 | 공개 |
| | <소위원회 운영 계획> | |
| 4 | 동산문화재 지정 조사대상 선정 및 국외반출·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 | 공개 |
| 【검토사항】 9건 | | |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
| 5 | 윤효손 신도비 | 공개 |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
| 6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 공개 |
| 7 |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 | 공개 |
| 8 | 도은선생집 | 공개 |
| 9 | 조선팔도고금총람도 | 공개 |
| 10 |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 | 공개 |
| 11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공개 |
| 12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공개 |
| 13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 공개 |
| 【보고사항】 2건 | | |
| 14 | 2024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공개 |
| 15 | 공예(동종) 분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추진 계획 보고 | 공개 |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4-02-001

1.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가. 심의사항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조사 대상으로 추천한(’17.5.26.)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23.6.28.) 및 과학조사(’23.8.7.~8.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4.2.27.~’24.3.28.)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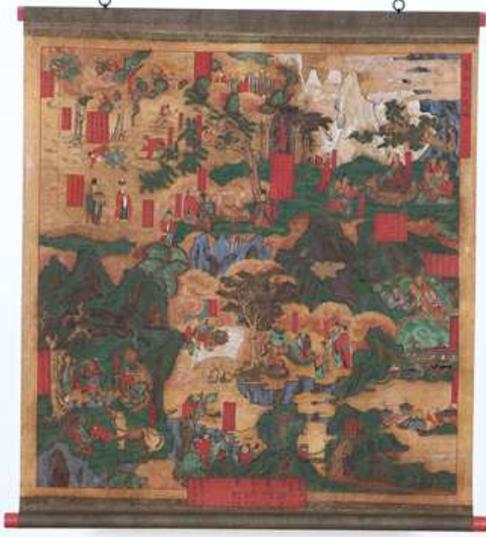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2003.2.3. 지정)
- 명 칭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順天 松廣寺 靈山會上圖 및 八相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송광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 수 량 : 9폭(영산회상도 1폭, 팔상도 8폭)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영산회상도 마본채색, 팔상도 견본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25년(조선 영조 1)
- 제작자 : 표 참조

<지정 대상 현황>

| 연번 | 명칭 | 사진 | 규격(cm, 세로×가로) | 제작자 |
|----|----------------|--|--------------------------------------|--|
| 1 | 영산회상도 |  | 전체 258.0×196.0cm 화면 220.5×184.8cm | 의겸(義謙), 회안(回眼), 양운(良云), 채인(採仁), 왈민(曰敏), 광척(宏陟), 해종(海宗), 취한(就閑), 민희(敏熙), 자민(自旻), 영현(穎賢), 지운(智雲) |
| 2 | 팔상도 '도솔래의상' |  | 전체 147.0×126.7cm 화면 123.8×117.0cm | 행종(幸宗), 향민(向敏) |

| 연번 | 명칭 | 사진 | 규격(cm, 세로×가로) | 제작자 |
|----|----------------|----|--------------------------------------|---------------------------|
| 3 | 팔상도 '비람강생상' | | 전체 146.5×125.9cm 화면 122.3×116.1cm | 회안(回眼), 자민(自敏), 만연(萬連) |
| 4 | 팔상도 '사문유관상' | | 전체 146.5×126.2cm 화면 123.9×116.0cm | 회안(回眼), 만연(萬連) |
| 5 | 팔상도 '유성출가상' | | 전체 146.8×126.8cm 화면 123.6×117.4cm | 채인(採仁), 민희(敏熙) |

| 연번 | 명칭 | 사진 | 규격(cm, 세로×가로) | 제작자 |
|----|----------------|---|--------------------------------------|---------------------------|
| 6 | 팔상도 '설산수도상' |  | 전체 145.9×127.0cm 화면 124.2×117.4cm | 양운(良云), 취한(就閑) |
| 7 | 팔상도 '수하항마상' |  | 전체 147.1×126.8cm 화면 126.0×117.7cm | 즉심(卽心), 명습(明習) |
| 8 | 팔상도 '녹원전법상' |  | 전체 147.5×127.0cm 화면 123.5×117.5cm | 봉안(鵬眼), 양오(良悟), 금척(巨陟) |

| 연번 | 명칭 | 사진 | 규격(cm, 세로×가로) | 제작자 |
|----|----------------|---|--------------------------------------|-----------------------------------|
| 9 | 팔상도 '쌍림열반상' |  | 전체 147.0×127.2cm 화면 123.7×118.1cm | 봉안(鵬眼), 최우(最祐), 영현(穎賢), 지운(智雲)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전남 순천 송광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팔상도는 영산전에 봉안되었던 총 9폭 1조의 보기 드문 완형을 갖춘 매우 귀중한 사례이다. 후불탱인 영산회상도는 조선 영조 원년(1725)에 불화승 의겸(義謙)의 주도하에 回眼, 良云, 採仁, 曰敏, 宏陟, 海宗 등 12명이 참여하였다. 팔상도는 幸宗, 向敏, 回眼, 自敏, 萬連, 採仁, 敏熙, 良云, 就閑, 卽心, 明習, 鵬眠, 良悟, 亘陟, 最祐, 穎賢, 智雲 등 총 17명에 의해 조성된 불화이다.

<표.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팔상도(1725년)의 화기에 보이는 화승>

| 위치 | 명칭 | | 화승 |
|-----|-------|-----|---|
| 중앙폭 | 영산회상도 | | 金魚 義謙 回眼, 良云, 採仁, 曰敏, 宏陟, 海宗, 就閑, 敏熙, 自旻, 穎賢, 智雲 |
| 좌우폭 | 팔상도 | 제1폭 | 兜率來儀相 幸宗, 向敏 |
| | | 제2폭 | 毘藍降生相 回眼, 自敏, 萬連 |
| | | 제3폭 | 四門遊觀相 回眼, 萬連 |
| | | 제4폭 | 踰城出家相 採仁, 敏熙 |
| | | 제5폭 | 雪山修道相 良云, 就閑 |
| | | 제6폭 | 樹下降魔相 卽心, 明習 |
| | | 제7폭 | 鹿苑轉法相 鵬眠, 良悟, 亘陟 |
| | | 제8폭 | 雙林涅槃相 鵬眠, 最祐, 穎賢, 智雲 |



<송광사 영산회상도 화기 부분>

영산회상도는 전체 세로 258.0cm, 가로 196.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후불탱 중에서 중대형급에 속하며, 더욱이 팔상도 8쪽을 갖춘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영산회상도는 조선 후기에 성행하는 군도 형식의 후불탱이다. 그런데 본존 석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법을 청하는 청문자(사리불) 도상이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청문자(사리불)를 비롯하여 청중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법화경』 내용에 충실한 영산회상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불화에 청문자(사리불) 도상이 그려진 것은 조선 전기 16세기 소수의 불화에 이어, 조선 후기 청주 보살사 패불(1649년), 공주 갑사 패불(1650년), 진천 영수사 패불(1653년), 안성 청룡사 패불(1658년), 안성 칠장사(1710년), 송광사 영산회상도(1725년) 등이 있다. 초기에 보살형으로 보이다가 이후 장삼과 가사를 걸친 비구형으로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보살사
패불(1649년)



갑사
패불(1650년)



영수사
패불(1653년)



청룡사
패불(1658년)



송광사
영산회상도(1725년)

<조선 후기 청문자 도상 사례>

본 영산회상도는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 위주에 황색과 청색을 활용하였고, 육신의 선은 굵고 가늘이 없는 유려한 선을 구사하였다. 제작을 주도한 화사는 조선 후기 거장 의겸(義謙)인데 18세기 조계산을 거점으로 전라 지역과 경남 지역을 넘나들며 초대형 패불 5점을 비롯해 여래도, 관음도 등 수많은 대작을 탄생시킨 화승으로도 주목된다. 게다가 의식집에 입각한 불화 제작의 거장이기도 하다.

팔상도 여덟 화폭은 전체 (각)세로 123~126cm, 가로 116~118cm 크기로, 방형에 가깝다. 각 폭마다 중심이 되는 복수의 장면을 배치하고, 장면 간에는 산악, 수목, 전각, 성벽, 구름 등으로 경계를 지었다. 팔상도의 구성이 초기 팔상도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자연경물의 배치에서 일반 회화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어 불교 회화, 불교설화, 산수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리고 8폭 모두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화제명을 적고, 장면마다 역시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어 텍스트 근거는 물론 설화도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또한 『월인석보』 팔상관화(1459년 편찬), 『석씨원류응화사적』(명대)의 도상의 계승과 변화, 새로운 도상 창출 등을 살펴보면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하단 중앙에 마련된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적고, 제작자를 일일이 밝혀두어, 화승 뿐만 아니라 시주질과 연화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팔상도(기존 지정명칭 후불탱·팔상탱)는 총 9폭 1조의 보기 드문 완형을 갖춘 매우 귀중한 사례로,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화면 전체적으로 변색이 진행되어 어두운 느낌을 주며, 바탕배(본지)의 박락과 안료의 박락이 군데군데 확인되어 앞으로 보존에 있어서 주의할 요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인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1724~1725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불화 조성불사 때 조성된 작품으로, 18세기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겸과 그 제자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영산회상도는 의겸이 수화승이 되어 回眼, 良云, 彩仁, 日敏, 宏陟, 海宗, 致閑 敏熙 등과 함께, 팔상도는 幸宗 向敏, 회안 등 17명의 화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는데, 영산회상도를 제작한 화승 대부분이 팔상도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어 팔상도 역시 의겸의 총 지휘 아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영산회상도는 『법화경』 서품에 등장하는 많은 권속을 묘사함으로써 영산회상의 내용을 압축, 묘사한 영산회상도이지만 대응전에 후불탱으로 봉안되는 석가후불탱과 달리 그림 하단부에 설법을 듣는 청중들과 사리불까지 배치시킴으로써 『법화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묘사한 說法會上과 請法像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즉 석가여래의 설법회상 하단에 사리불이 설법을 청하는 장면을 표현하여 영산회상이 재현될 당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1653년 영수사 괘불탱과 유사한 구성을 취하면서도 구도와 세부처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권속의 수를 대폭 줄여서 석가모니 중심의 구도를 보여주는 한편 사리불의 모습을 실제 승려와 흡사하게 묘사한 점 등에서 의겸의 뛰어난 화풍을 엿볼 수 있다.

송광사 팔상도는 의겸이 석가모니 및 전법제자들의 행적을 도상화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여러 장면들을 응용하여 廣欽, 就眼 등과 함께 제작한 운흥사 팔상도(1719년)의 도상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에 한 상에는 4~8 정도의 장면을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각 장면마다 화제를 적은 점, 전각과 나무[雙松], 구름 등을 이용하여 장면을 구분하는 방법, 황색과 붉은색,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한 점 등은 한 상에 1~2장면만을 간단하게 그린 용문사 팔상도(1709년)와는 다른 의겸계 팔상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송광사 팔상도는 현존하는 조선 후기의 팔상도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팔상도 중 하나이자

조선 후기 최고의 화승 의겸의 화풍을 이어받은 화승들이 제작한 작품으로, 이후 4년 뒤에 조성된 쌍계사 팔상도(1728년) 및 선암사 팔상도(1780년) 등 의겸이 활동하던 호남 및 지리산 일대의 팔상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18세기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겸과 그 일파의 대표작이자 의겸의 전성기의 화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영신회상도와 팔상도가 함께 남아있는 작품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1725년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弼閑의 화주로 의겸과 화원들이 협업과 분업을 통해 제작한 불화이다. 영산회상도는 이 시기 제작된 다른 영산회상도와 달리 본존 석가여래를 비롯하여 6위의菩薩, 10대 제자, 사천왕상, 팔금강, 호법신장, 제석·범천, 주악천녀, 아사세왕(阿闍世王)과 사부대중 등 수많은 권속을 화면 가득히 등장시켜 영축산에서 범화경을 설법하는 당시의 모습을 짜임새 있는 구도와 섬세한 필치로 장엄하게 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명도가 다른 청·백색을 가미한 설채법을 사용하여 장엄하고도 숭고한 종교적·예술적 감성을 발현한 18세기 전반기의 불화를 대표한다.

조선 전기에 제작된 팔상도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변상관화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팔상의 각 주제가 간략하면서도 극대화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 1709년에 제작된 예천 용문사 팔상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日本 華光院, 천은사와 운흥사 팔상도(도난, 소재 불명), 그리고 송광사 팔상도 등 몇 해 차이를 두고 제작된 일련의 팔상도에서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이른바 중국 명에서 제작된 『釋氏源流應化事跡』¹⁾이 17세기 조선으로 전래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야기되고, 급기야 팔상도 도상을 주도하게 된다. 다만, 일본 화광원 본과 천은사 본은 일부 도상에서 『석보상절』의 여운도 남아 있어 조선 후기 팔상도로 완전히 정착되기 전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송광사 팔상도는 『석보상절』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작자가 취사선택하여²⁾ 각 相의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래서

1) 『석씨원류응화사적』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석가모니의 열반 후 불법의 진과 과정을 기술하고 그림으로도 수록한 불서이다. 승려 보성이 1423년 南京의 大報恩寺에서 초간하였으며 이후 1425년, 1450년, 1486년, 1556년 등에 걸쳐 再版되었다(송일기, 「禪雲寺版 <釋氏源流>의 刊行事實」,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014, pp.242~243). 우리나라에 유입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은 선운사와 불암사에서 재판된다. 선운사 본은 명의 1556년 본과 친연성이 있고, 불암사 본은 1468년 본을 바탕으로 하였다. 선운사 본은 불암사 본과 내용 면에서 동일하지만 변상관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선운사 판의 변상관화는 모두 408항목이고 불암사 판은 모두 400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판의 형식도 선암사 판은 그림을 위에, 관련 내용을 아래에 배치한 이른바 ‘上圖下文’의 구성이고, 불암사 판은 우측에 그림을, 좌측에 관련 내용을 배치하여 ‘右圖左文’의 형식을 보인다(최연식, 「조선 후기 『석씨원류』의 수용과 불교계에 끼친 영향」, 『보조사상』 11, 보조사상연구원, 1998, 참조).

조선 후기 팔상도는 조선 전기 팔상도의 중심 내용만을 도설한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사적 장면을 함께 도설하여 화면이 서사적 구성을 띠고, 화면의 구성과 내용이 풍성하고 다채롭다. 이러한 서사적 내용 구성을 능숙하게 구현한 작품이 바로 <송광사 팔상도>이며, 이후 쌍계사 팔상도(1728년), 영은사 팔상도(1760년), 통도사 팔상도(1775년), 보경사 팔상도(18세기 후반), 선암사 팔상도(1780년) 등 18세기에 조성된 팔상도는 <송광사 팔상도>의 전형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송광사 팔상도>는 운흥사 팔상도와 거의 같은 구성과 양식을 갖추고 있으나, 운흥사 팔상도가 오래전 도난당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송광사 팔상도>의 학술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팔상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대주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각 소주제 간의 서사적 유기성과 가장 강조해야 할 주제의 배치와 표현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송광사 팔상도>는 주제와 주제 간의 흐름과 배치, 그리고 부각시킬 주 내용과 주 내용을 이어주는 부수적인 내용들을 시의 적절하게 안배하였다.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붉은색과 녹색의 강한 보색 대비를 주조색으로 하고, 백색, 군청, 황토색, 백색, 금니 등 중간 색조를 적절하게 배풀어서 종교화가 지니는 강렬한 에너지와 온화한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준다. 불화의 윤곽선은 주로 먹 선을 사용하였다. 석가의 일대기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과 사건을 위조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 相마다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이목구비와 표정, 옷차림과 주름, 손과 발톱까지 미세한 부분과 동작까지 섬세한 필선으로 묘사하여 높은 필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함께 제작되어 지금까지 전하는 점, 이 시기 제작된 다른 영산회상도와 다르게 영축산의 범화경 설법 장면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는 점, 조선 후기 팔상도의 전형이 되고 있다는 점, 색채와 구도, 필선 등 수화승의 겸의 필력과 화풍, 화격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1725년에 의겸이 여러 보조화승들과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로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전[팔상전]이라는 단일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일시에 조성되어 봉안된 사례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며 이는 불교문화권에서 석가의 일생을 불화로 시각화했던 조선시대의 독자적인 신앙 형태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

2) 조선 후기에 제작된 팔상도는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수록된 도상 중 60여 개가 주축을 이룬다(신지연, 「朝鮮時代 釋迦 八相圖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pp.26~29).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하여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수화승 의겸의 지휘 하에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팔상도 각 폭이 통일된 필선과 색채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화제로 구성된 팔상의 인물들은 섬세한 필치로 묘사하고 전각, 소나무, 구름 등을 이용해 공간성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등 구성과 표현에 있어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이처럼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조선시대에 독자적으로 발전한 팔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 형태를 영산회상도와 함께 완결성 있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조선 후기에 유통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을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로 완벽하게 재해석해 낸 불화이다. 이에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국보로써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팔상도(기존 지정 명칭 후불탱·팔상탱)는 9폭 1조 구성의 작품으로, 중앙폭과 좌우의 화폭 전체를 갖춘 사례이다. 9폭 모두 바탕베(본지)의 박락과 안료의 박락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작품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9폭 모두 화면 하단 중앙에 주지묵서의 화기를 갖추고 있다. 팔상도는 제1~8폭 모두 화면 상단 향우측에 주지묵선의 화제란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 묵서로 화제명이 적혀 있고, 팔상도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9폭 모두 송광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팔상도는 조선 영조 원년(1725)에 금어 의겸(義謙)을 비롯해 총 24명의 화승이 참여한 대작이다. 영산회상도 1폭을 중심으로, 석가의

생애 중 주요 사건을 8폭에 담은 팔상도(兜率來儀相, 毘藍降生相, 四門遊觀相, 踰城出家相, 雪山修道相, 樹下降魔相, 鹿苑轉法相, 雙林涅槃相)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회상도

①도솔래의상

②비람강생상

③사문유관상

④유성출가상

⑤설산수도상

⑥수하항마상

⑦녹원전법상

⑧쌍림열반상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팔상도(1725년)>

먼저,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제자를 비롯해 청중들을 대상으로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화면은 크게 상하로 구분되며, 상단에는 결가좌한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 앞쪽에 보살 6위, 그 뒤쪽으로 십대제자, 분신불, 팔금강, 사천왕, 동자상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본존 석가의 대좌 앞쪽에 탁자가 배치되어 있다. 탁자 위에는 향과 공양물 등이 놓여 있다. 이 탁자 앞에 본존 석가를 향해 비구형의 청문자가 앉아 있다. 그 양측으로 석가의 설법도량에 모여든 청문성중들이 배치되어 있다. 조선 후기 군도 형식의 전형적인 영산회상도이나, 석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법을 청하는 청문자 도상이 그려져 있어 특징적이다.

본존 석가모니는 수미단 위의 연화좌에 결가부좌하였는데, 오른손은 향마인을 결하고, 왼손은 복부 앞에 두었다. 안면과 육신은 살색을 바르고, 윤곽선은 가는 먹선으로 처리하였다. 눈은 눈머리와 눈꼬리를 수평으로 그었고, 눈썹은 녹색을 바르고 먹선으로 눈썹을 그렸는데, 마치 풀잎을 연상케 하며, 머리 쪽에서 꼬리 쪽 방향으로 처지게 그려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코는 콧등을 가는 먹선으로 그리고, 콧방울은 이중으로 겹쳐 그렸다. 입술은 붉은색을 바르고 먹선으로 위·아래 입술의 경계와 윤곽선을 그렸다. 상호는 이목구비가 단정하며 온화한 모양이다. 두부는 완만하게 퍼진 지발에 육계는 삼각형 모양으로 솟은 형태이며,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를 갖추고 있다. 대의는 붉은색 바탕에 주문은 백색의 이중원권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지문 역시 백색의 소형 화문을 장식하였으며, 대의 가장자리는 하늘색으로 띠를 둘렀다. 본존의 몸에는 연판형의 이중광배를 갖추고 있다.

본 영산회상도의 본존 주변을 권속들이 에워싼 모습은 조선 후기 군도 형식을 대표한다. 본존 석가의 상호는 온화한 인상을 보여주며, 신체는 안정감 있게 균형 잡힌 모습이다. 특히, 화면 하단의 중앙에 청문자(사리불)를 비롯하여 청중들을 배

치시킴으로써 법화경 내용에 충실한 영산회상도이다. 조선시대 불화에 청문자 도상이 그려진 대표적 사례로 조선 전기 16세기 불화에 이어, 조선 후기에는 청주 보살사 괘불(1649년), 공주 갑사 괘불(1650년), 진천 영수사 괘불(1653년), 안성 청룡사 괘불(1658년), 안성 칠장사(1710년), 송광사 영산회상도(1725년), 천은사 아미타불회도(1776년) 등이 있다.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본존)>



<영산회상도 하단(청문자)>

전체적으로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 위주에 황색과 청색을 활용하였고, 필선은 굵고 가늘이 없는 선을 유려한 선을 구사하였으며, 섬세한 필치를 보여준다. 화기는 화면 하단의 중앙에 마련된 화기란 외에 하단의 백색 테두리에도 묵서로 제작시기 및 화승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제작자는 금어(金魚) 의겸(義謙), 회안(回眼), 양운(良云), 채인(採仁), 왈민(曰敏), 굉척(宏陟), 해종(海宗)이 참여하였다.

다음 팔상도를 살펴보면, ①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은 마야부인의 탁태몽을 주제로 한 것이다. 화폭은 전체 세로 147.0cm, 가로 126.7cm의 크기로, 방형에 가까운 화폭이다. 주요 장면은 <瞿曇貴姓>, <乘象入胎>, <摩耶託夢>, <淨飯聖王> 등으로, 이들 장면은 궁중의 전각, 구름, 산악 등으로 각각 구획되었다. 화면 상단 향좌측에 석가족의 조상 瞿曇에 관한 <瞿曇貴姓> 장면을 배치하고, 화면 향우측 위쪽에서 향좌측으로, 백색의 투명 대원광에 싸인 석가의 전신 호명보살이 육아백상을 타고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乘像入胎>, 향좌측 중간의 마야부인의 육신 태중으로 들어가는 <摩耶託夢> 장면을 각각 배치하였다. 이어 향우측 아래쪽에는 정반왕궁 전각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이 앉아 바라문에게 꿈 해몽을 듣는 <淨飯聖王> 장면이다.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4장면마다 역시 주색 바탕에 묵서의 방제를 두어 설화 장면을 보조하고 있으나, <淨飯聖王> 장면 위쪽의 도상 및 방제는 훼손된 상태이다. 마야부인의 입태 후 천인들의 공양 장면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쌍계사 팔상도(1725년)의 도솔래의상에 보이는 장면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도솔래의상 화폭의

하단에 동일한 방식으로 화기를 적고 있다. 여기에 證明비구는 初爛, 處寬이고, 敬
 畫는 幸宗, 向敏으로 밝히고 있다.



①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畫題



乘象入胎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②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은 석가가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그림으로, 전체 크기는 세로 146.5cm, 가로 125.9cm 이다. 주요 장면은 <樹下誕生>, <周行七步>, <九龍灌浴>, <仙人占相>, <從園還城> 등으로, 이들 장면은 궁중의 전각, 수목, 구름 등으로 구획되었다. 하단 향우측의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부인의 겨드랑이로 부터 태자가 탄생하는 장면인 <樹下誕生>을 비롯해, 그 위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을 옮기면서 <周行七步>,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외치는 모습, 구름이 뿜어낸 물에 태자가 목욕하는 <沐浴九龍> 장면 등을 표현하였다. 이어 향좌측 아래에는 탄생한 태자를 태우고 정반왕궁으로 돌아오는 <從園還城> 장면을 배치하고, 바로 그 위쪽에는 아사타선인이 태자의 미래를 예언하는 <仙人占相> 장면이 그려져 있다.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그리고 화면 중앙 하단에 적힌 화기에는 金魚 回眼, 自敏, 萬連 比丘를 밝히고 있다.



②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樹下誕生 장면



九龍灌浴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③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은 태자가 카필라성의 동서남북 4개의 문으로 나가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다. 화폭은 전체 세로 146.5cm, 가로 126.2cm

크기이다. 화면 향우측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동문에서 노인을 만나는 <路逢老人> 장면, 남문에서 병자를 보는 <道見病臥> 장면, 서문에서 죽은 자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는 <路觀死屍>, 북문에서 승려를 만나는 <得遇沙門> 등의 장면이 각각 그려져 있다. 장면 간에는 성문과 수목, 구름 등으로 경계를 지었다.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역시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그리고 하단 중앙에 마련된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적고, 제작자는 敬畫 回眼, 萬連이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③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路逢老人 장면(東門)

路觀死屍 장면(西門)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④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은 태자가 야밤에 궁을 나와 성을 빠져나가는 출가 장면을 그린 것이다. 화폭 전체 크기는 세로 146.8cm, 가로 126.8cm이다. 주요 장면은 <宮女昏睡>, <初啓出家>, <夜半踰城>, <車匿還宮> 등으로, 전각과 구름, 수목으로 경계를 지었다. 하단의 향우측에 궁의 수문장이 잠들어 있고, 태자가 탄 말이 궁전을 떠나는 <初啓出家> 장면, 향좌측에는 부인과 태자가 앉는 2개의 의자중 태자의 빈 자리를 표현하였고, 주변의 시녀들이 깊이 잠든 <宮女昏睡> 장면, 이어 위쪽에 태자가 천인과 사천왕의 도움을 받아 성을 빠져나가는 <夜半踰城> 장면, 향우측 중간에 마부 차익이 환궁하여 태자의 관과 의복을 바치면서 정반왕과 태자비 등에게 태자의 출가를 알리는 <車匿還宮>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각 장면은 아래에서 시작하여 위로 갔다가 향우측 중간으로 이동한다.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역시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그리고 하단 중앙에 마련된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적고, 제작자는 金魚 採仁, 敏熙가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④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初啓出家 장면



宮女昏睡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⑤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은 출가한 태자가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면서 수행하는 장면이다. 화폭 전체는 세로 145.9cm, 127.0cm 크기이다. 자연경관 속에 <金刀落髮>, <車匿辭還>, <勸請廻宮>, <詰問林僊>, <遠飼資糧>, <牧女獻糜>, <禪河澡浴>, <諸天供養> 등을 배치하였고, 장면 간에는 산, 수목, 구름 등으로 경계를 지었다. 특히, 본 화폭의 주제와 관련하여 청록산수 외에 상단 향우측의 설산은 백색을 다용하여 강조하였다. 하단 향좌측에 노송 아래에 태자가 칼을 들고 머리를 자르는 <金刀落髮> 장면,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태자 앞에 서있는 淨居天의 모습, 태자가 벗은 관과 옷을 앞에 두고 마부 차익과 칸타카가 같이 앉아 있는 <車匿辭還> 장면이 함께 그려졌다. 향우측에는 차익이 칸타카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는 <車匿還宮> 장면이 있고, 바로 위쪽에는 정반왕의 명을 받아 태자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표현되었는데, 수레에 식량을 실어 다리를 건너는 장면, 태자에게 궁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는 <勸請廻宮> 장면 등이 그려졌다. 상단에는 석가가 6년간 고행에서 벗어나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받고, 니련선하 강물에 목욕하는 <樹下六年苦行>, <牧女獻糜>, <禪河澡浴>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역시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그리고 하단 중앙에 마련된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적고, 제작자는 金魚 良云, 就閑이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⑤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金刀落髮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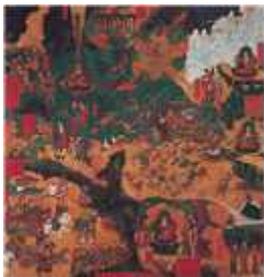


樹下六年苦行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⑥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은 석가가 마왕 파순을 물리치고 정각을 이룬 광경이다. 화폭은 전체 세로 147.1cm, 가로 126.8cm 크기이다. 장면은 <魔女眩媚>, <魔

軍拒戰>, <魔軍拽瓶>, <天人獻草>, <七佛作證>, <成等正覺> 등으로, 주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배치되었으며, 산과 나무, 바위, 구름으로 경계를 짓고 있다. 장면 전개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어진다. 하단 향우측에 수행하는 석가의 백호에서 나오는 빛이 魔宮을 비추는 장면, 과순이 태자를 유혹하기 위해 보낸 3명의 여인이 추한 노파로 변하는 <魔女眩媚> 장면이 동시에 그려졌고, 반대편 향좌측에는 과순이 태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담은 수레를 끌고 오는 <魔軍拒戰>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어 중단 향우측에 마군들이 태자 앞에 놓인 병을 쓰러뜨리기 위해 줄을 잡아당기는 <魔軍拽瓶> 장면, 반대편에 천인이 풀을 바치는 <天人獻草> 장면이 배치되었다. 상단에는 정면향으로 결가좌한 항마인의 석가의 정수리에서 7불이 등장하여 태자가 깨달은 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七佛作證> 장면, 그 주변에 쓰러지는 마군의 모습이 각각 표현되었다. 그리고 향우측에 설산과 밤하늘의 칠성을 배경으로 결가부좌한 석가가 드디어 정각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成等正覺>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녹색 산수와 황색계 구름을 적극 활용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돋우고, 정각의 장면에는 설산과 밤하늘 별자리를 배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역시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하단 중앙의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적고, 제작자는 敬畫 卽心, 明翳이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⑥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魔軍拽瓶 장면



七佛作證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⑦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은 석가가 정각 후 화엄대법을 설하고,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는 광경을 담고 있다. 화폭은 전체 세로 147.5cm, 가로 127.0cm 크기이다. 화면 상단에 배치된 <華嚴大法>을 비롯하여, <轉妙法輪>, <小兒施土>, <初建戒壇>, <布金買地> 장면 등을 배치하고, 이들 간에 산과 나무, 구름, 성곽 등으로 경계를 지었다. 먼저 상단에 오색방광을 배경으로 석가가 노사나불의 모습으로 설법인을 결하여 화엄경을 설하는 <華嚴大法> 장면을 부각하였다. 그 좌우에 문수·보현보살을 비롯하여 제자, 보살, 성문중들이 에워싼 모습이다. 이어 하단 향우측에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는 <轉妙法輪> 장면, 이어 향좌측에 비구·비구니 등의 결계와 수계를 위해 단을 만드는 <初建戒壇> 장

면, 석가에게 아이들이 흙 쌀을 보시하거나, 탑을 만드는 등의 <小兒施土>, <群兒造塔>, <取土造家> 장면 등이 함께 그려져 있다. 그리고 화면 상단의 향좌측에 산과 구름으로 구획하고, 須達長者가 석가를 위해 祇陀太子의 정원에 기원정사를 건립하는 <布金買地> 장면이 배치되어 있다.



⑦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華嚴大法 장면



轉妙法輪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의 화제명은 상단 향우측에 주색 바탕에 묵서로 적었고, 역시 각 장면마다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그리고 하단 중앙의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기술하고, 金魚 回眼, 自敏, 萬連 比丘가 제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⑧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은 열반에 든 석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화폭 크기는 전체 세로 147.0cm, 가로 127.2cm 이다. 하단 향우측에 제자, 보살, 천인 등에 둘러싸인 석가의 <雙林涅槃> 장면을 배치하고, 이어 그 옆(향좌측)에 늦게 도착한 가섭을 위해 관속에서 발을 내미는 <佛現雙足> 장면, 위쪽으로 석가의 열반을 전해 듣고 도솔천에서 내려온 마야부인을 위해 석가가 관에서 나와 설법하는 <佛從棺起> 장면, 이어 성 밖으로 관이 움직이며 나가는 <金棺自舉> 장면, 그리고 화면 상단에 세간의 불로는 관을 태우지 못하는 <凡火不燃> 장면을 비롯해, 드디어 관이 불에 타는 장면 <聖火自焚>, 다비 후 사리를 수습하고 사리를 분배하는 <均分舍利> 장면 등이 배치되어 있다. 장면 간에는 산악, 구름, 성곽 등으로 경계를 지었다. 마지막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은 하단에 석가가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하는 모습을, 상단은 다비후 사리를 나누는 모습이 주요 장면으로 표현되었다. 화제명은 앞의 화폭과 동일하게 향우측에 위치하고, 각 장면 역시 주지묵서의 방제를 두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화기에는 시주자와 연화질을 기술하고, 화승은 鵬眼, 最祐, 穎賢, 智雲이 담당하였다.



⑧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雙林涅槃 장면



均分舍利 장면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1725년)>

○ 문헌자료

영산회상도의 화기는 화면 하단에 백지묵서, 주지묵서로 적혀 있다. 팔상도의 화기는 화면 하단 중앙에 주지묵서로, 화제 및 방제는 주지묵서로 기술되어 있다. 화제는 일부 바탕베(본지)의 훼손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화기 및 방제 등은 별첨 참조].

○ 지정사례

팔상도(팔상탱)의 보물 지정 사례는 용문사 팔상탱(1709년, 4폭), 송광사 후불탱·팔상탱(1725년, 9폭),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1728년, 8폭),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1775년, 8폭) 등이 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팔상도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 고경스님(校勘), 송천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編著), 『한국의 불화 화기집』,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 김정희, 「쌍계사 팔상도의 도상 특징과 義謙派 팔상도」, 『강좌미술사』 58,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2022.
- 박수연, 「朝鮮後期 八相圖의 特徵」, 『불교미술사학』 4, 통도사정보박물관·불교 미술사학회, 2006.

□

○ 현 상

송광사 영산전 내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함께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송광사정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화면은 채색이 일부 탈락되고 사방변아의 백색이

탈락되었지만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화기도 잘 남아있다.

○ 내용 및 특징

1. 영산회상도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도1]는 1725년에 수화승인 金魚 義謙을 비롯하여 回眼 등 12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석가모니가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시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화면은 세로 258.0cm, 가로 196.0cm의 방형 패널형으로 삼배 6매를 가로로 이어서 화폭을 구성하였다. 인물들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구름으로 화면을 2분하여 상단에는 연화대좌 위에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앉아 있는 석가모니와 가섭과 아난을 포함한 10대 제자, 사천왕, 팔부중을, 상단과 하단 사이에는 6위의 보살, 화면 하단에는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는 비구형 청문자와 범천, 제석천 등 천부상과 제왕들, 주악천녀, 청문중 등이 배치되었다.



<도1.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25년, 마본채색, 전체 258.0×196.0cm(화면 220.5×184.8cm), 전남 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

석가모니는 전신을 감싸는 거대한 광배를 배경으로 결가부좌하였으며, 본존 앞에는 향로와 공양물이 놓인 불탁이 있어 영산회상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도2]. 붉은색의 화염으로 둘러싸인 두광과 신광은 연봉형으로, 광배의 안쪽 테두리는 살짝 굴곡을 주고 두광 내부는 화문, 신광 내부는 三鈷杵로 장식하였다.

이처럼 연봉형이면서 광배의 안쪽 테두리에 굴곡을 주는 표현은 주로 경상도 지역,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불화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며, 광배 안쪽 테두리를 삼고저로 장식한 것은 의겸이 수화승이 되어 조성한 진주 청곡사 괘불탱(1722년)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후 의겸이 그린 고성 운흥사 괘불도(1730년), 나주 다보사 괘불도(1745년), 개암사 괘불탱(1749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겸의 독자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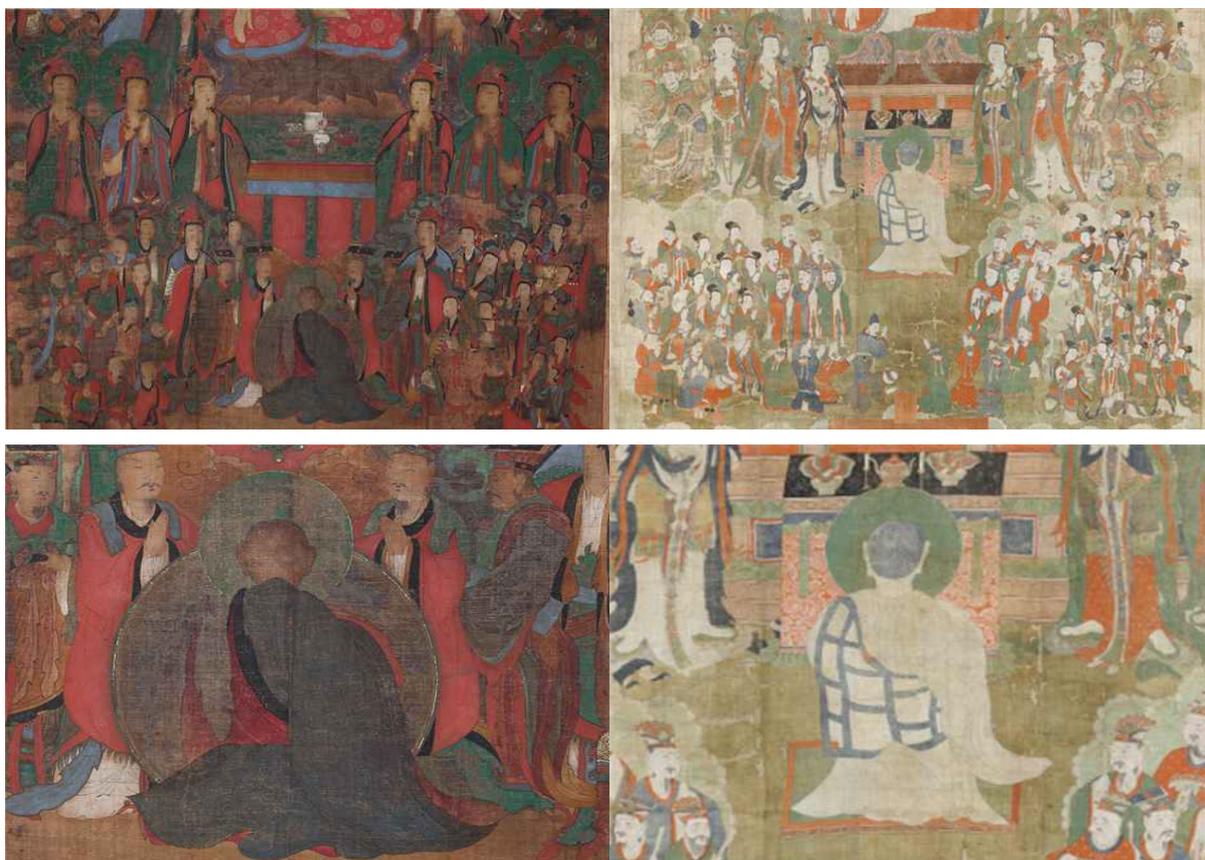
<도2. 송광사 영산회상도 석가모니 부분>

본존은 건장한 신체에 뾰족한 육계와 작은 이목구비를 갖추고 어깨를 살짝 덮은 홍색의 대의를 걸쳤다. 대의 바탕에는 雲文과 渦卷狀이 결합된 원형의 주문양과 소형의 花文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하였다. 사천왕이나 비구형 청문자, 재가신도 등의 얼굴은 가늘면서도 비수가 있는 선으로 주름선을 따라 먹으로 연하게 바림하였으며, 유연한 자세와 자연스러운 의습선 등이 돋보인다. 석가모니 앞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비구형 청문자는 실제 승려의 뒷모습을 그린 듯 구부정한 어깨와 민머리, 의습선의 자연스런 처리 등이 돋보인다. 승려의 머리 전체를 발목으로 표현한 점은 의겸이 1723년에 조성한 흥국사 16나한도(1723년)의 나한의 민머리 표현과 일치한다.

인물들의 신체는 당당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얼굴 형태는 전반적으로 둥근 편이며, 좌우 얼굴의 비례는 균형이 잡혀있고 이목구비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채색은 朱와 綠靑, 群靑이 주조를 이루는데, 담채의 경향이 강하다. 각종의 문양과 세부 묘사에는 황색계열의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천부상과 주악천인상, 사천왕의 의복과 악기 등 일부에는 金泥를 칠하였고 제자상의 가사에는 圓文이나 唐草文만

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문양이 억제된 편이다.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존상을 비롯한 세부의 표현은 의경의 주도하에 제작된 송광사 응진당 영산회상도(1724년)와 큰 차이가 없으나 하단에 뒷모습을 보이는 비구형 청문자와 좌우에 여러 재가신도들을 묘사하는 등 화면 구성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도3]. 또한 화면 하단 중앙에 표현된 비구형 청문자를 비롯한 하단부의 모티프는 진천 영수사 괘불탱(1653년)[도4]의 도상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존상의 수를 간략하게 줄이면서도 권속들이 본존을 에워싸듯이 배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본존을 부각시키는 등 배치방법에 변화를 주었다.



<도3. 송광사 영산회상도 부분>

<도4.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부분, 1653년>

본존이 앉아 있는 대좌의 전면 중앙에 뒷모습으로 표현된 청문자상은 조선 전기의 변상도인 廣平大君夫人 申氏 발원 <妙法蓮華經變相版畫>(1459년)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청문자가 비구형이 아닌 보살형으로 표현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반면, 16세기의 公山本寺 간 <妙法蓮華經>(1531년,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 貝葉寺 간 <妙法蓮華經變相版畫>(1564년), 17세기의 송광사 <妙法蓮華經變相版畫>(1607년, 보림사 소장), 大屯寺 간 <佛說阿彌陀經變相版畫>(1660년), 符仁寺 간 <禪門祖師禮懺法變相版畫>(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佛巖寺版 <釋氏源流應化事蹟 法華妙典 變相版畫>(1673년) 등에서는 비구형 청문자가 등장하고 있다.

불화에서는 금선묘 영산회상도(미국 호놀룰루미술관 소장)에서 설법회상과 보살형 청문자가 결합된 도상이 처음 나타나며, 17세기 이후에는 보살사 괘불탱(1649년), 영수사 괘불탱(1653년), 청룡사 괘불탱(1658년), 칠장사 대영산회괘불탱(1710년) 등에서 인물군상이 비구형 청문자와 함께 표현되어 있어, 송광사 영산회상도의 비구형 청문자를 이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영산회상도의 보살형 청문자는 영산회상에서 석가여래에게 법을 청했던 수많은 보살들을 대표해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송광사 영산회상도에서와 같은 비구형 청문자는 고려시대 소자본 법화경사경변상도(호암미술관 소장)에 석가모니 설법회상의 좌측에 있는 승형인물에 ‘舍利弗’이라고 적힌 존명에 의거하여 사리불로 추정된다. 「법화경」 제2 방편품에는 사리불이 석가모니에게 청법을 함에 석가여래가 여래의 법은 너무 어려워 여래만이 이해할 수 있을 뿐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거절하지만 사리불의 3번에 걸친 간곡한 청에 설법을 하는 내용이 있으며, 제3 비유품에서는 사리불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외심을 풀고 깨달음을 얻음에 따라 석가여래가 사리불이 미래세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내려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영산회상도에서 석가모니에게 청법하는 비구형 청문자는 사리불을 표현한 것이며, 송광사 영산회상도의 비구형의 청문자상과 인물군상은 이와 같은 도상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 하단에 위치한 화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도5]. 중앙의 붉은 바탕의 화기에는 조성연대와 시주질, 연화질이 기록되었으며, 중앙 화기 좌우의 백색 변아에는 각각 시주질이 적혀있어 좌우 화기는 후에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옹정 3년(1725) 을축년 5월에 松廣寺 八相繪로 조성, 봉안되었으며, 初爛, 以齊, 處寬, 衛鼎 등 증명을 비롯하여 지전, 공양주, 금어, 목수, 대선사, 산중노덕, 삼강, 별좌, 화주, 前嚙秩 등 연화질과 斗峯 등 45인의 시주(좌우변아 시주 포함)에 의해 조성되었다. 화기에서 ‘팔상회’라고 지칭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영산회상도는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같은 해 팔상도와 함께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5. 송광사 영산회상도 화기>

불화의 조성화원은 金魚 義謙을 비롯하여 回眼, 良云, 採仁, 曰敏, 宏陟, 海宗, 就閑, 敏熙, 自旻, 顯賢, 智雲 등 12명이다. 동참화승들은 의겸과 함께 여러 작품들을 조성하였는데, 차화사 회안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화승으로, 1723년 여수

홍국사 관음보살도를 시작으로 홍국사 응진전 영산회상도와 16나한도(2·4·6존자도)와 1724년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16나한도, 사자도, 1725년 송광사 오십삼불도, 팔상도(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1726년 실상사 지장시왕도, 1729년 해인사 영산회상도에 이르기까지 의겸이 주도한 불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수묵과 채색이 조화를 이루는 배경, 황토색 바탕에 홍색과 녹색이 조화를 이루는 설채법, 존상의 원만한 상호 표현 등에서 의겸의 화풍이 잘 드러난다. 採仁은 1722년부터 1730년 무렵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의겸과 총 13번에 걸쳐 함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외에 양운은 팔상도 설산수도상, 취한은 팔상도 설산수도상, 민희는 팔상도 유성출가상, 자민은 팔상도 비람강생상, 영현은 팔상도 쌍림열반상, 지운은 팔상도 쌍림열반상 구성에 참여하였다.

2. 팔상도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는 모두 8폭으로, 영산회상도와 함께 1725년에 조성되었다. 세로 146.5~147.5cm, 가로 125.9~127.2cm의 견본채색화로, 2~4명의 화승들이 한 상을 분담하여 그렸다. 이 팔상도는 원래 송광사 영산전에 영산회상도의 좌우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송광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부분에 화면이 박락된 부분이 있지만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채색은 황색 바탕에 적색과 녹색을 위주로 청색과 분홍색, 백색 등을 얹게 설채하여 밝으면서도 환한 느낌을 준다. 각 장면 옆에는 붉은 바탕에 각 장면의 내용을 적은 방제가 적혀 있다.

<①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도솔래의상[도6]은 護明菩薩이 마야부인에게 잉태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瞿曇貴姓, 乘象入胎, 摩耶託夢, 淨飯聖王 등이 표현되어 있다. 각 장면은 구름과 산, 전각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물들이 작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상단 향좌측에는 사냥꾼이 도적으로 몰린 少瞿曇에게 활을 쏘는 장면[瞿曇貴姓]이 구름 속에 묘사되어 있으며, 향우측 상단에서 향좌측 하단으로 六牙白象을 탄 호명보살이 천인들을 거느리고 入胎殿의 마야부인에게 내려오는 장면[乘象入胎], 얼핏 잠이 든 마야부인이 뱃속으로 호명보살이 들어오는 꿈을 꾸는 장면[摩耶託夢]이 크게 묘사되었다. 하단 향우측에는 마야부인의 태몽을 들은 정반왕이 바라문을 불러 해몽을 듣는 장면[淨飯聖王]이 배치되었다. 도솔래의상에 표현된 장면 중 주목되는 것은 석가족의 조상인 瞿曇[Gautama, Gotama]이 귀한 종족이었음을 밝힌 ‘구담귀성’ 장면이다[도7]. 여기에는 소구담[왕]이 도적으로 몰려 나무에 묶여서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과 그릇 안에서 한 쌍의 남녀가 태어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釋氏原流應化事蹟』의 瞿曇貴姓[도8]에 실려 있는 것과 동일한 장면이 그려져 있어 『석씨원류응화사적』을 참고하여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6. 도솔래의상>



<도7. 도6의 부분(구담귀성)>



<도8. 『釋氏原流應化事蹟』 瞿曇貴姓>

[화제]

「昔少瞿曇隱於甘蔗院時捕賊人執捉以王令貫身射之大瞿曇以天眼觀之神足飛來曰我徒何罪酷乃是乎囚盛吐血二哭持還精舍呪願曰化成人却後十月左則成男右則成女此爲淨飯之先世也」

「大瞿曇下來」

「少瞿曇所居處」

「此捕賊人妄犯」

「護明菩薩從兜率降王宮化日輪駕白象九十九億諸天子先從後擁而下菩薩入於大術胎中」

諸天亦入各胎願爲從屬造揚佛法其時周昭王十三年癸丑七月十五日夜半也」

「金團天子選其家」

「菩薩入胎之後諸天人等常隨奉供焉」

「善相波羅門熟示之告曰必懷聖子讚嘆而返」

<②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비람강생상[도9]은 마야부인이 룸비니동산에서 태자를 낳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樹下誕生, 周行七步, 九龍吐水手, 仙人占相, 從園還城이 묘사되었다. 화면 하단 향우측에는 청색의 기암괴석과 녹색의 나무, 지그재그로 둘러진 난간 안에서 마야부인이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오른쪽 허리에서 태자를 낳는 장면[樹下誕生]이 배치되었고, 그 위로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본 뒤 북쪽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걸은 후 오른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天上天下 唯我爲尊’의 탄생계를 외치는 장면[周行七步]과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뿜어 태자를 씻어주는 장면[九龍吐水] 등 태자탄생과 관련된 장면이 그려져 있다.

구룡토수 아래에는 태자 탄생 후 일행이 태자를 태우고 정반왕궁으로 돌아가는 장면[從園還城], 정반왕이 阿私陀 선인을 불러 태자의 미래를 점치니 선인이 ‘태자가 세간에 머물면 이상적인 왕이 되고, 출가하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는 장면[仙人占相]이 그려져 있다. 비람강생상에서는 인물 및 각 장면이 작게 그려진 반면 배경이 되는 수목과 구름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



<도9. 비람강생상>

[화제]

「太子託胎月滿母遊於國至無憂樹下攀樹枝太子右脇而生地湧金蓮奉太子身其時帝釋以

橋尸迦衣奉之則周昭王十四年甲寅四月初八日也沐浴已周行七步目顧四方作獅子吼聲六種震動放大光明貫太微宮昭王聞而奇之刻石而埋之也」

「太子誕生將浴之際冷溫二井忽然湧出諸天人等下來競欲沐浴九龍先自吐水灌沐如是諸天返自無聯矣」

「冷井溫井」

「天龍八部衆擁護也」

「諸天眷等各持物色供養太子也」

「或云光照太微宮」

「或云覆弊魔宮」

「諸天人等散花」

「無數釋種後擁而去也」

「王將欲太子還城時毘首羯磨天人及四大天王並爲童子頭爲螺髮躬馭寶輦而還也」

「仙人占相阿私陀仙等永見太子飯王出示之仙余抱慰太子悲泣不已王問子何不悅曰太子具三十二相必爲人天師轉大法輪我等年老不久命終不聞說法故自悲云云後登空而去也」

「阿私陀仙人等」

「言胎已蓋早訂常身爲度生以還來今垂化跡也」

<③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사문유관상[도10]은 태자 탄생 후 아사타 선인의 예언을 기억한 정반왕이 태자가 성장하자 혼인을 시키고 궁성 안에서 온갖 욕망을 다 채우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나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본 作瓶天子가 더 늦기 전에 태자가 스스로 깨달아 속세 출가하도록 노인과 병자, 시체 등으로 변해 출가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즉 태자가 카필라성의 동·남·서·북 4문으로 나가 동문에서는 노인, 남문에서는 병자, 서문에서는 시신을 보고, 북문에 나갔을 때 승려를 만나는 路逢老人, 道見病臥, 路觀死屍, 得遇沙門이 도해되었다.

네 장면은 향우측 상단의 동문의 노봉노인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남문의 도견병와, 서문의 노도사시, 북문의 득우사문이 배치되었다. 동문으로 나간 태자 일행이 노인으로 변한 정거천을 만나는 장면[路逢老人]에는 마차를 탄 태자, 태자를 호위하는 인물들, 악기를 연주하는 樂士 등 많은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 아래로는 남문으로 나간 태자 일행이 거적을 깔고 누워있는 병자를 바라보는 장면[道見病臥]이 배치되었고, 雙松을 경계로 향좌측에는 서문에 나가 장례행렬을 만나는 장면[路觀死屍]이 배치되었다. 여기에서 상주들이 시신을 천에 들들 말아 어깨에 이고 가는 모습은 인도의 전통적인 장례모습을 묘사한 듯 하다. 서문 위로는 북문에 나가 비구의 모습으로 변한 淨居天을 만나 ‘세상에서의 삶은 생로병사로 한결같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므로 출가하여 한적

한 곳에서 수행하며 방편을 구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행하면 세간의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해탈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장면[得遇沙門]이 묘사되었다. 이 장면은 노봉노인, 도견병와, 노도사시에서와 달리 태자가 마차에서 내려 두 손을 합장하고 사문과 만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도10. 사문유관상>

[화제]

「初出東門作瓶天子作老人頭白背曲駐錫羸太子問馭者是何人也答曰老人又曰何謂老人曰始自兒童次第遷變形枯色衰餘命無歲故老人曰唯此一人老也曰一切皆然也太子還宮不悅」

「復遊南門作瓶天子化作病人身瘦色瘦氣喘命危太子問馭者曰此是何人曰病人曰皆如是否曰亦然太子聞之不悅也」

「復遊西門作瓶天子又作死屍出於路上太子見之心其慘惻尤不堪驚若之志廻駕還宮端坐思惟人人貴賤若(下)受(上)(上)盡無常卽至時無有異也」

「復遊北門淨居天人化作沙門於太子所太子問曰汝何人曰我是比丘世間無常我修聖道超於彼岸語已登空而去太子發悟自恍還永出家王不許」

「城中婦女出見太子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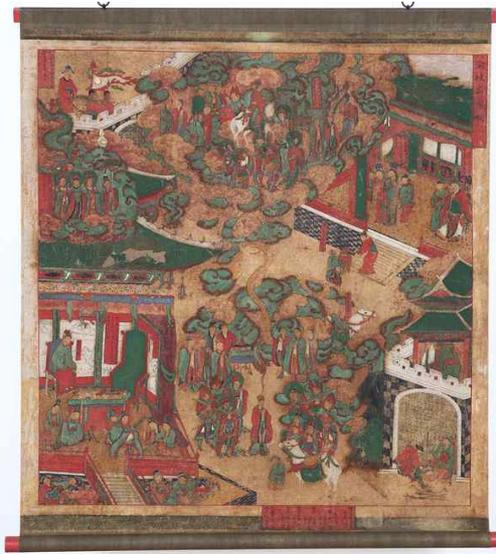
「摩耶夫人來見太子所」

「太子初啓出家王其不悅太子復言汝能與我四願卽不出家王曰何願曰一不老二小莊三無病四不死王曰汝願世誰得之不許出家回勅君臣日夜嚴守又勅輸多那陪加防察又曰國今無嗣若生一子卽聽出家太子卽指輸陀腹有胎出家後六年羅候生認子釋疑也」

<④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유성출가상[도11]은 말을 타고 성을 넘어 출가하는 태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宮女昏睡, 初啓出家, 夜半踰城, 車匿還宮 등의 장면이 배치되었다. 네 문으로 나가 老病死를 본 후 태자는 “내가 만약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픔, 괴로움을 끊지 못하면 궁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만약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지 못하거나 또다시 법륜을 굴릴 수 없다면 돌아와 부왕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은혜와 사랑의 정을 다하지 못하면 돌아와 마하과자과티와 야수다라를 만나지 않으리라”라는 말을 남기고 출가하였다. 태자가 호법신들의 호위 속에 마부 車匿에게 말을 준비시키는 장면, 태자가 궁전을 떠나는 장면, 수문장과 시녀들이 잠들어 있고 태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장면, 담을 뛰어 넘는 장면, 차익이 태자가 출가하였음을 알리는 장면 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 장면 역시 여러 이야기들을 묘사함에 있어 인물을 작게 그려 복잡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여유롭게 보인다.

유성출가의 여러 장면에서도 구름으로 각각의 장면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단 향우측에는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문이 굳게 닫힌 성벽 아래서 잠에 빠져 있는 모습과 태자가 출가를 고하는 장면[初啓出家]이 그려져 있으며, 향좌측에는 출가하는 날 밤 태자비의 궁에서 여러 시종이 잠들어 있는 모습[宮女昏睡]이 그려져 있는데 의자에 앉은 야수다라 비 맞은 편 태자의 자리가 비어있어 태자가 출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출가하는 날 밤 태자가 천인 및 사천왕의 도움으로 애마 칸타카를 타고 아무도 모르게 성을 빠져나와 출가하는 장면[夜半踰城]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사천왕이 말의 발을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야반유성의 왼쪽(향우측)에는 마부 차익이 돌아와 태자의 옷과 관을 바치면서 정반왕과 이모 마하과자과티(Mahāprajāpatī Gautamī)와 태자비 야소다라(Yasodharā)에게 태자의 출가사실을 알리는 장면[車匿還宮]이 배치되었는데, 태자의 출가소식을 들은 이모와 태자비는 옷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끼고 있고, 정반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태자의 출가소식을 듣고 있다.



<도11. 유성출가상>

[화제]

「生而異之萬事偕通故名悉達字天中天踰城時卽壬申二月初入日夜半時年十九歲也」

「太子座處也」

「耶輸假寐」

「國內侍人皆假寐諸天來奉悉達之儀也」

「五百壯士擐甲持矛晝夜巡警無暫休息焉」

「夜半踰城帝釋執盖四天王奉馬四足而去也」

「健陟馬還來」「乳母耶榆但見奴馬哀痛囚極悲号度日也」

「人馬從來人亦未至飯王哀痛不禁愁」

「車匿還宮獻衣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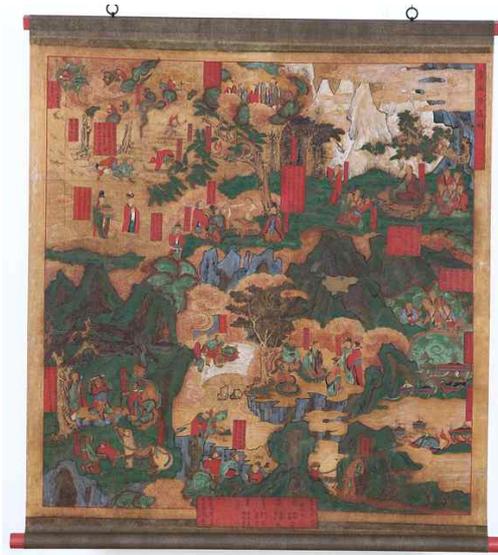
<⑤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설산수도상[도12]은 출가한 태자가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金刀落髮, 勸請廻宮, 遠飼資糧, 牧女獻糜, 禪河澡浴, 諸天供養 등 다양한 장면이 표현되었다. 산에서의 수행 장면을 표현해서인지 다른 相보다 나무와 수목의 표현이 많으며, 활엽수와 침엽수를 그려 깊은 산속의 느낌을 잘 전달하였다. 앞의 네 상은 주로 궁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각과 소나무, 구름 등으로 나눈데 비해 설산수도상은 설산에서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산과 나무 등으로 장면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雪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침엽수와 함께 흰색의 호분을 칠하였으며, 산 모양도 뾰족하게 묘사하여 실재감을 느끼게 하였다.

하단 향좌측에는 늘어진 소나무 아래 태자가 칼을 들고 직접 머리를 자르는 장면[金刀落髮], 차익과 칸타카가 태자의 옷과 관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장면, 淨居

뜻이 사냥꾼으로 몸을 바꿔 자신이 입고 있던 가사를 태자의 옷과 바꿔 입고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태자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배치되었다.

하단 중앙의 쌍송 옆에는 차익이 칸타카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는 장면[車匿還宮], 정반왕의 명을 받아 태자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표현되었는데, 이 장면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구름 속에 幡과 가마의 윗부분만 표현되었다. 그 위로는 교진여 등 여러 대신들이 좋은 수레와 명예를 갖추고 찾아와서 나무 아래 풀을 깔고 선정에 든 태자에게 궁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는 장면[勸請廻宮]을 비롯하여 고행하는 태자를 위해 멀리서 먹을 것을 실어 나르는 장면[遠飼資糧], 태자가 공양받을 자리를 살필 때 용왕 妃가 연화좌대를 들고 나타나고 용왕이 태자가 쓴 鉢을 받으려 하자 제석천이 金翅鳥로 化하여 발우를 빼앗아 하늘로 가지고 가서 탑을 만드는 장면, 6년 고행의 무상함을 깨달은 태자가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을 받고[牧女獻糜] 니련선하로 가서 목욕하는 장면[禪河澡浴], 목욕 후 강가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마왕이 방해하자 樹神이 나뭇가지를 내려 태자를 도와주는 장면, 태자가 목욕한 물을 그릇에 담아 天宮으로 올라가는 천인들과 물을 푸기 위해 그릇을 들고 오는 장면, 태자가 목욕한 물을 먹은 물고기들과 조개 등 모든 생물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장면 등이 설산을 배경으로 표현되어 있다.



<도12. 설산수도상>

[화제]

「樹下六年苦行也」

「太子父飯王選出橋陣如等五人令尋太子深山窮谷聊無定處故懈怡桓盤岐路也」

「請迎太子不得許諾而廻宮之儀也」

「請迎太子之儀也」

「橋陳如等不離左右車匿亦然踰春於八夜樓雪嶺於六年也」
 「人馬辭還悲泣」
 「牧女獻粥」
 「選友等」
 「天神指河岸」
 「太子聽林仙處」
 「尸多林中」
 「太子修行之際詣泥蓮河測間浣衣沐浴波旬變高河岸菩薩莫能出岸阿斯多木神構樹枝低河岸攀得出岸帝釋獻衣善生女奉粥龍女獻座感動天地也」
 「帝釋獻衣」
 「飯王以送資糧」
 「太子追往諸仙苦行林中國送大夫及親屬勸請廻宮太子不許也」
 「阿斯那木神低樹」
 「虛空裝神聞地神之告三十三天諸天下來汲水也」
 「聚落神體拜」
 「地神聳出」
 「帝釋化爲此人」
 「天人汲水來之往之」
 「菩薩粥訖鉢擲水中龍王大喜持去帝釋化爲金翅鳥奪去也」
 「馬舌舐哀嘶」
 「帝釋奉還建塔」
 「人辭愴應主之心也」
 「菩薩浴畢地神唱言諸天太子捨金輪入雪山取糞掃衣今已洗浣諸天聞已競取此水將還天宮也」
 「龍女泥蓮多耶手執寶座從池聳出獻於菩薩菩薩受已將還龍宮建塔也」
 「魚龜飲浴水皆生天上也」
 「帝釋化爲金翅鳥奪盂矣」
 「淨居天子化作獵士被袈裟而來太子以寶服換質其衣曰此是真出家也」
 「善生女獻粥無垢天子獻袈裟」

<⑥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수하항마상[도13]은 태자가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들의 온갖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으로, 淨居天人獻草, 魔女眩媚, 魔軍拒戰, 魔軍拽瓶, 地神作證, 菩薩降魔, 成等正覺 등이 묘사되었다. 화면 향우측에는 태자의 백호에서 나오는 빛이 魔宮을 비추는 장면과 마군들이 병목에 매인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

는 모습[魔軍拽瓶], 납월(12월) 8일 드디어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묘사되었으며, 향좌측에는 향좌측에는 마왕 파순이 태자를 방해하기 위해 8만4천의 군대를 이끌고 갖가지 무기를 담은 수레를 끌고 오는 장면[魔軍拒戰], 정거천이 풀을 바치는 장면[淨居天人獻草], 길상초 위에 걸가부좌한 부처가 禪定印을 한 오른손을 풀어 무릎 위에 얹고 地神에게 증명을 부탁하니 부처님의 머리 정수리에서 태자와 과거의 6불[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을 나타내어 태자가 깨달음을 이루었음을 증명하였다는 장면[地神作證], 마왕과 무리들이 지옥으로 곤두박질하듯 떨어지는 모습이 산과 나무 등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다.



<도13. 수하항마상>

[화제]

「牧女先來獻粥」

「菩薩詣菩提場天人獻草其草青緣猶如孔雀項毛柔軟滑澤過浥去諸佛皆回此草而成正覺也」

「淨居天人獻草」

「魔王送妙意天女三人」

「魔有三女端正無倫共來菩薩前呈諸姿態欲壞梵行時菩薩慈心定力三女皆變爲老醜羸弱之狀等相顧老愧而退也」

「媚女取毒於定心媼羸變質」

「一切賢聖皆以作訂之儀也」

「天龍衛護之矣」

「地神踊躍而作訂」

「波旬領兵來儀也」

「天魔波旬拒諫領兵五十餘屬詣太子所欲作侵害不能障道魔自退散也」

「波旬將諸兵欲爲害道而發怒号令日汝若不起擲汝海中菩薩答云汝先動我淨瓶然後擲我卽時魔等盡力而不能動瓶焉」

「菩薩終不起去波旬益号令菩薩言汝雖過去一辟支佛供養功德今爲第六天天王我卽過去歲供養無數諸佛功德無量如何擲之乎魔日汝事誰訂菩薩曰此地神已訂卽時地神聳出魔降」

「無數地神從地從出作訂也」

「魔等懺罪」

「覆弊魔宮也」

「七佛作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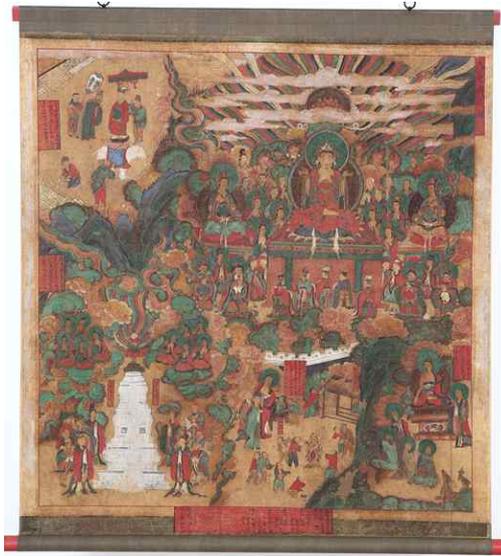
「臘月八夜見明星而悟道」

<⑦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녹원전법상[도14]은 정각을 이룬 석가모니가 鹿野園에서 첫 설법한 장면을 비롯해 성도 후 부처님의 전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야기를 표현한 것으로, 華嚴大法을 중심으로 轉妙法輪, 小兒施土, 布金買地, 初建戒壇 등이 도해되었다.

상단에는 오색서광이 비치는 화려한 구름 속에 석가모니가 『화엄경』을 설하는 장면[華嚴大法]과 수닷다장자가 제타태자의 동산에 기원정사를 세우는 장면[布金買地]이 그려져 있다. 화엄대법은 중앙의 넓은 대좌 위에 석가모니가 두 손을 어깨 위로 올려 설법인을 곁하고 곁가부좌하였으며, 그 주위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하여 보살과 성문중, 앞에는 설법을 청하는 이들이 배치되었다. 석가모니 위로는 오색의 광명과 흰색의 구름이 드리워있으며, 그 안에 석가모니의 정각을 축하하듯 11구의 여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석가모니의 주위에는 ‘華嚴大法’ 장면은 화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강조된 반면 포금매지는 화면 한쪽 구석에 작게 도해되었다.

화엄대법 아래로는 녹야원에서 다섯 제자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하는 장면[轉妙法輪], 비구와 비구니의 結戒와 受戒를 위하여 단을 만드는 장면[初建戒壇], 석가모니가 걸식 중에 만난 아이들이 흙 쌀을 보시하자 후에 국왕으로 태어나서 탑을 세우리라는 수기를 주는 장면[小兒施土]이 배치되어 있다.



<도14. 녹원전법상>

[화제]

「一法乘兮共勸塵勞之城起道樹詣鹿林初度橋陳五人等也」

「須達長者見佛生信以金布地買於祇洹太子園造立精舍以佛爲首千二百五十人常衛略飛其○也」

「佛與阿難入城乞食群兒途中造作倉庫以土爲實積於其中兒見佛來一掬施佛以此功德後受阿輸迦王造於多塔之報偉不可測也」

「取土造家」

「群兒○塔」

「少兒施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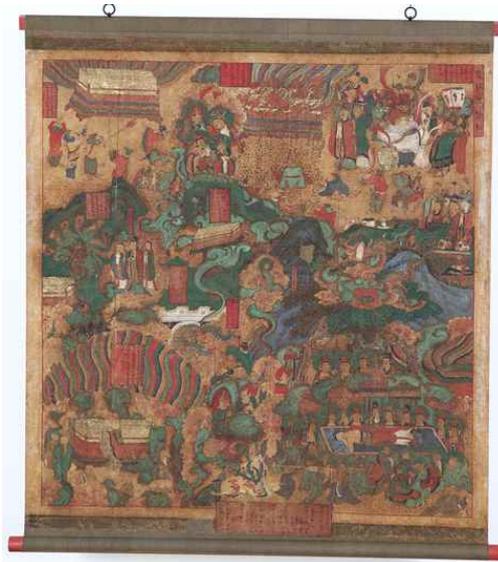
「孤獨園中樓至菩薩請佛立戒壇而王重表三空爲入佛法壇上置舍利十方諸佛天龍八部雲集擁渡」

<⑧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쌍림열반상[도15]은 팔상도의 마지막 장면으로, 석가모니가 사라쌍수 아래에서 입멸하는 장면과 열반을 즈음한 때의 여러 가지 일화를 그렸다. 하단 향우측의 雙林涅槃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佛現雙足, 佛從棺起, 凡火不燃, 聖火自焚, 均分舍利的 내용이 그려져 있다.

하단은 석가모니가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하는 모습, 상단은 다비와 함께 사리를 나누는 모습이 주로 표현되었다. 하단 향우측에는 오른팔을 베고 왼팔을 배에 올린 채 옆으로 누워 열반하신 석가모니를 제자, 천신, 보살들이 둘러싸고 슬퍼하는 모습[雙林涅槃]이 배치되었으며, 향좌측에는 스승이 열반한 사실을 뒤늦게 안 가

섭이 도착하여 관을 어루만지며 슬피 울자 석가모니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미는 장면[佛現雙足], 아들의 열반 소식을 듣고 도솔천에서 내려온 마야부인을 위해 석가모니가 관에서 나와 설법하며 위로하는 장면[佛從棺起] 등이 그려져 있다. 그 위로는 성 밖으로 관이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장면[金棺自擧], 다비를 위해 관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는 장면[凡火不然], 석가모니의 가슴에서 心火가 일어나 스스로 관이 타는 장면[聖火自焚], 사리를 수습한 후 향성바라문의 의견에 따라 8국의 대신이 사리를 나누고[均分舍利]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사리탑을 세우는 장면 등 다비 및 사리수습과 관련된 내용이 표현되었다.



<도15. 쌍림열반상>

[화제]

「拘尸羅城中人見此棺舉恭敬禮拜供養」

「阿那律多乘天訃告」

「佛母持衣鉢錫等而下來聞說偈悲号不已也」

「摩耶經云世尊以神力自開金棺便從棺合掌而起一一孔中放大光明中各有千佛爲母說偈語已還闔金棺也」

「金棺自擧出入東西南北四門之內外徐徐乘空示現大衆大衆悲号大哭震動世界迷悶躡地也」

「九火不然拘尸羅城中三十六極力士以宝炬投香倭上皆自珍滅不能荼毘一切皆自悲号也」

「聖火自焚四天王及江河等神欲取舍利先以香水注火火不少滅皆自懺悔而無然退也」

「處胎經云大迦葉從摩伽提國將五百弟子來至佛所聞佛滅度悲泣世尊以天耳聞之卽從棺裡雙出而足迦葉手摩不勝悲泣耳」

「人臣優婆吉均分舍利八斛四斗舍利三分一與諸天二與龍衆三與八王各持還本建塔供養也」

<조성개요>

각 폭에는 화면 하단 중앙에 붉은색의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다. 화기에는 팔상도의 조성연대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산회상도에 八相繪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1725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팔상도 조성불사를 주도한 승려는 功德主이자 化主인 月谷 弼閑과 別座인 주지 원해이다. 이들은 송광사 오십삼불도(1725년)의 腹藏囊에서 나온 回向發願文에 發願弟子로 기록되어 있으며, 회향발원문과 함께 나온 黃稍幅子와 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 등에도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1724~1725년 송광사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불화조성 불사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시주자는 學順, 文信, 崔起望, 世英, 智玄, 鵬三, 震察, 快湜 등으로, 대부분 가선대부, 통정대부 등 공명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찰 내에서 중요한 인물 또는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주목되는 인물은 기망으로, 기망은 53불 회향발원문에 대시주로 등장하는 최기망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최기망은 불조전 오십삼불도 중 三身·五方佛이 포함된 七佛圖의 傍題에 ‘施主折衝崔起望’이라고 적혀있으며, 1746년 『承政院日記』에 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된 기록이 있어 折衝將軍을 지낸 武官으로 짐작된다. 1상~6상에는 시주자의 이름만 적혀 있지만, 7상과 8상에는 이름과 함께 시주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7상의 시주자인 진찰은 망조부 가선대부 洪仁聞 부부를 위해 시주하였는데, 홍인문은 53불도회향발원문에 최기망과 함께 대시주로 기록되어 있어 집안 대대로 불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8상의 시주자 쾌식은 망부 訓練僉正 洪繼漢을 위해 시주하였으며, 1759년 여수 흥국사 노사나괘불탱 조성 시에는 가선대부로서 부모님의 영가를 위해 대시주로 참여하였다.

조성화원은 총 17인으로, 각 폭에 2인~4인이 한 조가 되어 각 폭을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양운, 취한, 민희, 자민, 영현, 지운은 영산회상도 조성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의겸의 제자로 의겸과 함께 1724년~1725년의 송광사 불화조성불사에 참여하였다.

<송광사 팔상도의 시주질과 연화질>

| 연번 | 작품명 | 施主 | 緣化秩 | | | | | | |
|----|-------|-------------|-------------------------|--------------------------------|------------------|-------------------------|-----|----|----|
| | | | 證師 | 持誦 | 供養主 | 金魚 | 鍊木手 | 別座 | 化主 |
| 1 | 兜率來儀相 | 通政大夫 學順 | 初燭, 處寬 | 再緣, 照敏, 慧宗 | 敏天, 最定 | 幸宗, 向敏 | | 圓解 | 弼閑 |
| 2 | 毘藍降生相 | 嘉善大夫 文信 | 初燭, 以齊 | 再緣, 照敏, 惠迪, 守仁, 慧宗 | 肅鵬, 宗認 | 回眼, 自敏, 萬連 | | 圓解 | 弼閑 |
| 3 | 四門遊觀相 | 通政大夫 崔起望 | 初燭, 處寬 | 再緣, 照敏 | 敏天, | 回眼, 萬連 | | 圓解 | 弼閑 |
| 4 | 躡城出家相 | 嘉善大夫 世英 | 初燭, 處寬, 偉鼎 | 再緣, 照敏, 慧宗 | 敏天, 宗認 | 採仁, 敏熙 | | 圓解 | 弼閑 |
| 5 | 雪山修道相 | 智玄 | 初燭, 以齊 | 惠迪, 守仁, | 大日, 就軒, 漢逢 | 良云, 就閑 | | 圓解 | 弼閑 |
| 6 | 樹下降魔相 | 通政大夫 鵬三 | 以齊, 偉鼎 | 惠迪, 守仁, | 守眼 | 卽心, 明習 | | 圓解 | 弼閑 |
| 7 | 鹿苑轉法相 | 通政大夫 震察 | 初燭, 處寬, 偉鼎 | 再緣, 照敏, 慧宗 | 敏天, 守眼, 大日 | 鵬眼, 良悟, 亘陟 | | 圓解 | 弼閑 |
| 8 | 雙林涅槃相 | 快湜 | 初燭, 以齊, 處寬, 偉鼎 | 惠迪, 守仁 | 最定, 就軒, | 鵬眼, 最祐, 穎賢, 智雲 | 報隱 | | |

○ 지정사례

<영산회상도 지정사례>

| 연번 | 지정종별 | 지정명칭 | 조성연대 | 소재지 | 지정연월일 |
|----|------|------------------------|-------|-----------------------------------|-------------|
| 1 | 보물 |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벽화 | 1435년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봉정사 | 2009.04.22. |
| 2 | 보물 | 영산회상도 | 1565년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동아대학교 박물관 | 2007.07.13. |
| 3 | 보물 |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 1681년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 1987.07.16. |
| 4 | 보물 |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 1686년 | 경상북도 청도군 박곡길 590 | 2017.12.26. |
| 5 | 보물 | 과계사 영산회상도 | 1707년 | 대구광역시 동구 과계로 741 과계사 | 1995.01.10. |
| 6 | 보물 |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 1724년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49-368, 봉림사 | 2009.02.23. |
| 7 | 보물 |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 1725년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 길 100 송광사 | 2009.02.23. |

| 연번 | 지정종별 | 지정명칭 | 조성연대 | 소재지 | 지정연월일 |
|----|-------|-------------------------|-------------------|-------------------------------------|-------------|
| 8 | 보물 | 해인사 영산회상도 | 1729년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 1997.08.08. |
| 9 | 보물 |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 1731년 |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상송리 산 12번지 수다사 | 2010.02.24. |
| 10 | 보물 | 불영사 영산회상도 | 1733년 | 경상북도 울진군 불영사길 48 불영 사 | 1997.08.08. |
| 11 | 보물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 | 1736년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 2023.08.24. |
| 12 | 보물 |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 1749년 | 경상북도 청도군 헐티로 1375-9 용 천사 | 2017.12.26. |
| 13 | 보물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신흥 사 | 2022.10.26. |
| 14 | 보물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 | 1769년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0 불국 사 | 2013.02.28. |
| 15 | 유형문화재 | 정수사 영산회상도 | 1731년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장곡리 381 정수사 | 2005.11.07. |
| 16 | 유형문화재 | 진주 청곡사 영산회상도 | 1750년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로 1440번길 138 청곡사 | 2000.01.31. |
| 17 | 유형문화재 | 홍천 수타사 영산회상도 | 1762년 |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로 473 수타사 | 1998.09.05. |
| 18 | 유형문화재 |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경상북도 영덕군 장수면 장육사 1길 172 장육사 | 2005.11.07. |
| 19 | 유형문화재 | 청송 대전사 영산회상도 | 1740년 또는 1750년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42-6 대전사 | 2021.06.17. |
| 20 | 유형문화재 | 양산 통도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 1775년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 2014.03.20. |
| 21 | 유형문화재 | 영광 불갑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 1777년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번 지 불갑사 | 2011.08.26. |
| 22 | 유형문화재 | 공주 마곡사 영산회상도 | 1788년 | 충청남도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 2007.10.30. |
| 23 | 유형문화재 | 원광사 영산회상도 | 1791년 |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3-22 원 광다 | 2008.12.16. |
| 24 | 유형문화재 |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 1792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흥국사 | 2014.08.29. |
| 25 | 유형문화재 | 나주 죽림사 극락전 영산회상도 | 18세기 초반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 1번지 죽림사 | 2009.03.20. |
| 26 | 유형문화재 | 문경 김룡사 영산회상도 | 1803년 | 경상북도 문경시 김룡길 372 김룡사 | 2018.12.20. |

| 연번 | 지정종별 | 지정명칭 | 조성연대 | 소재지 | 지정연월일 |
|----|-------|-----------------------|----------------|--------------------------------|-------------|
| 27 | 유형문화재 | 제천 신륵사 극락전 영산회상도 | 1805~ 1814년 | 충청북도 제천시 월악산로4길 신륵사 | 2020.11.06. |
| 28 | 유형문화재 | 장안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 1856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로 482 장안사 | 2008.04.02. |
| 29 | 유형문화재 |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 1882년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 2006.11.25. |
| 30 | 유형문화재 | 남양주 견성암 영산회상도 | 1882년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 견성암 | 2022.08.23. |
| 31 | 유형문화재 | 장안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 1882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로 482 장안사 | 2008.04.02. |
| 32 | 유형문화재 | 진관사 영산회상도 | 1884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사 | 2002.03.15. |
| 33 | 유형문화재 | 안성 칠장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 1886년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 2010.03.23. |
| 34 | 유형문화재 | 수원 청련암 영산회상도 | 1891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74-1 청련암 | 2009.05.21. |
| 35 | 유형문화재 |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 1894년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오대산로 176 월정사성보박물관) | 2020.08.21. |
| 36 | 유형문화재 | 봉은사 영산회상도 | 1895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 봉은사 | 2007.09.20. |
| 37 | 유형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 1896년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동화사 | 2012.01.30. |
| 38 | 유형문화재 | 과주 보광사 영산회상도 | 1898년 | 경기도 과주시 광탄면 보광로 474-87 보광사 | 2018.04.30. |
| 39 | 유형문화재 | 산청 문수암 석가영산회후불탱 | 1901년 | 경상남도 산청군 마근담길 173-17 문수암 | 2005.10.13. |
| 40 | 문화재자료 | 청도 덕사 영산회상도 | 1817년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길 16-107 덕사 | 2014.10.20. |
| 41 | 문화재자료 | 문경 김용사 양진암 영산회상도 | 1894년 | 경상북도 문경시 김용길 372 김용사 | 2019.10.21. |
| 42 | 문화재자료 | 마하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 1901년 | 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 2003.09.16. |
| 43 | 문화재자료 | 마하사 영산회상도 | 1906년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성보박물관 | 2003.09.16. |
| 44 | 문화재자료 | 북천사 석가영산회상도 | 1921년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산 6 북천사 | 2005.12.27. |
| 45 | 문화재자료 | 연등사 영산회상도 | 1924년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로 17-3 연등사 | 2005.12.27. |

<팔상도 지정사례>

| 연번 | 지정종별 | 지정명칭 | 조성연대 | 소재지 | 지정연월일 |
|----|-------|-----------------|--------|-----------------------------------|-------------|
| 1 | 보물 | 예천 용문사 팔상탱 | 1709년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내지리) | 2001.10.25 |
| 2 | 보물 |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 1725년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 2003.02.03 |
| 3 | 보물 |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 1728년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 2003.02.03 |
| 4 | 보물 |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 1775년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정보박물관) | 1990.09.20. |
| 5 | 유형문화재 | 개운사 팔상도 | 1883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산 4-11 개운사 | 2006.07.06 |
| 6 | 유형문화재 | 경국사 팔상도 | 1887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경국사 | 2008.05.08 |
| 7 | 유형문화재 | 지장사 팔상도 | 19세기 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호국지장사 | 1999.05.19 |
| 8 | 유형문화재 | 안양암 팔상도 | 1917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0-1 안양암 | 2004.09.30 |
| 9 | 유형문화재 | 혜원정사 팔상도 | 1925년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13-5 번지 혜원정사 | 2002.05.06 |

○ 참고문헌

- 정보문화재연구원, 『韓國의 佛畫-松廣寺 本·末寺篇(下)』, 1998.
- 송광사정보박물관, 『송광사 불화』, 2004.
- 김다영, 「朝鮮 後期 浮休門中の 佛事와 義謙派 佛畫-順天 松廣寺 佛畫 造成 佛事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98, 국립중앙박물관, 2020.
- 김정희, 「쌍계사 팔상도의 도상 특징과 義謙派 팔상도」, 『강좌미술사』 58,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2022.
- 박수연, 「朝鮮後期 八相圖의 特徵」, 『불교미술사학』 4, 통도사정보박물관·불교 미술사학회, 2006.
- 이영중,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5, 한국미술사학회, 1997.
- 정우택, 「조선후기 석가팔상도와 초본」, 『밑그림 이야기 佛畫草』,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2013.



○ 조사내용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원래 영산전에 봉안된 불화이다. 팔상도가 봉안된 영산전은 대웅전 전방에 위치한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작은 규모의 건물이다. 현재 그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송광사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림의 제작 시기는 1725년이다.

松廣寺 靈山殿에 제작 봉안되어 오랜 세월 예배 신앙되어 오는 과정에서 화면의 손상, 안료가 탈·박락, 오염, 그리고 장황의 변형 등이 있었으나 2013년 보존처리를 통해 완전하지 않지만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지정 당시 액자식으로 장황되어 있었으나, 이는 1970년 수리 당시 변형된 것으로 2013년 보존처리 시 고증을 거쳐 원래의 족자 형식 환원하였다.³⁾

송광사 <약사전상량문>에 의하면, 영산전은 1637년에 無雲寮, 海清堂, 極樂殿, 法性寮 등과 더불어 소실되었다가 1640년에 약사전과 함께 중창되었다. 이후 1735년 중수되었다.⁴⁾ 1925년 대웅전, 명부전 법왕문, 약사전, 화엄전, 불조전 등과 더불어 번와 공사가 있었다. 1974년에는 약사전과 함께 보수가 이루어졌고, 1975년에 단청공사가 있었다. 1995년에도 보수공사가 있었다.

송광사 영산전 불화는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같은 해에 함께 제작되어 결본 없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대개 팔상도만 전하거나 함께 전하는 경우라도 두 불화가 시차를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산회상도>는 주로 대웅전이나 팔상전, 응진전의 후불도로 봉안된다. 주된 내용은 석가여래께서 영축산에서 諸大弟子들과 諸大菩薩이 운집한 가운데, 설법을 펼치는 장면을 도해한 것이다.

<팔상도>는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적을 八相으로 나누어 도해한 것이다. 팔상의 구성은 兜率來義相·毘藍降生相·四門遊觀相·踰城出家相·雪山修道相·樹下降魔相·鹿苑轉法相·雙林涅槃相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팔상도는 조선시대 이후, 18~19세기의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조선 전기 본은 단 폭으로 남아 있으며 대부분 국외(일본)에 현존한다. 도상의 구성상에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그려진 팔상도가 다른데, 그것은 팔상도의 토대가 되는 교본(Text)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전기 팔상도는 『釋譜詳節』(1447년), 『月印釋譜』(1459년)가 밑바탕이 되었으며, 조선 후기 팔상도는 17세기 후반경에 유입된 『釋氏源流應化事蹟』의 영향을 받았

3) 2013년 송광사 팔상도 보존처리보고서.

4) 『松廣寺史庫』 1편 4장 初創重建重修記文類 37절 편사잡록.

다. 『석씨원류응화사적』은 석가여래의 일대기와 석가여래의 열반 이후 서역과 중국에서의 불법 전파 사실을 기록한 불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648년과 1673년에 선운사와 불암사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팔상도는 佛傳으로부터 비롯되었고 佛傳 중 8개의 이야기를 특정한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취사선택하여 도해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팔상도의 底本이 되는 『月印釋譜』 「釋譜詳節序」에는 ‘繪成世尊成道之迹’이라 하여 석가여래의 행적을 그렸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팔상도의 화제는 『月印釋譜』 「釋譜詳節序」의 ‘八相은 兜率來儀 毘藍降生 四門遊觀 逾城出家 雪山修道 樹下降魔 鹿苑轉法 雙林涅槃’이라는 기록에 기인한다.

한편 『문중실록』에는 ‘八相成道之圖’라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조선 전기에 이미 석가여래의 팔상 장면이 그려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전하는 그림 중 가장 오래된 팔상도는 일본 金剛峯寺 팔상도(1535년)인데, 이 그림의 화기에 ‘釋迦八相兩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에는 팔상도라는 명칭이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그려진 팔상도에서는 ‘八相幀’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간혹 ‘八相繪’, ‘八相各部幀’, ‘畫成八相聖位’ 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14세기 일본의 작품인 持光寺 八相圖의 하부에는 ‘八相成道曼陀羅八軸’라는 목서가 남아 있어, 팔상만다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영향을 받은 이른 시기의 작품은 日本 華光院(1692년)와 泉隱寺 팔상도(1715년)가 있으나 화광사 본은 일본 소재이고, 천은사 본은 도난이다. 화광사 본은 탄생 장면은 『석보상절』과 관계가 깊고, 향우측의 장면은 『석씨원류응화사적』 도상을 수용하였다.

『석씨원류응화사적』의 영향을 받아 도상이 성립되어 각 相에 맞게 장면이 알맞게 정착된 것은 1719년에 제작된 운흥사 본이며, 이후 1725년에 송광사 팔상도에서 완전히 정착되어 전형 양식이 된다. <운흥사 팔상도>와 <송광사 팔상도>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판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배경이 되는 구름과 산수, 건물 등 크고 작은 모티프와 색채와 인물의 동세와 표정 등은 작자 나름의 개성과 창작 의지가 반영되었다. 아쉽게도 운흥사 팔상도는 오래전 도난당하여 그 소재가 불분명하고, <송광사 팔상도>는 주불화인 <영산회상도>와 함께 유존되고 있어 조선 후기 팔상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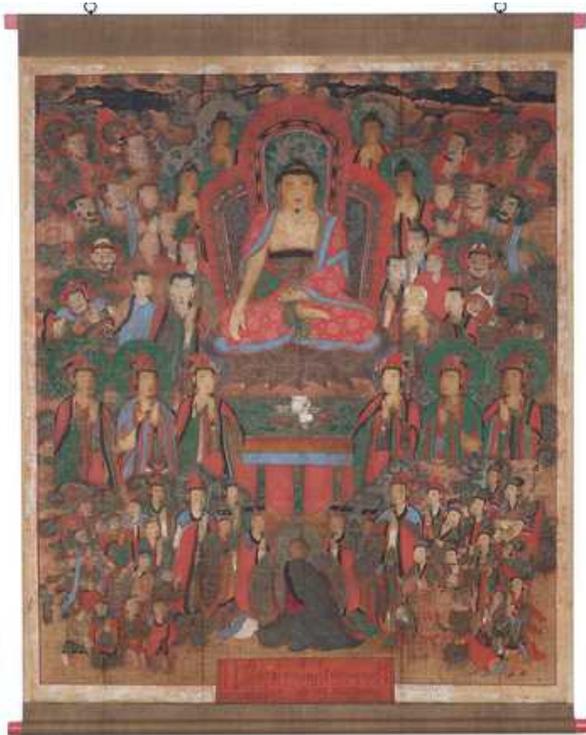
1. 영산회상도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삼베 6폭(한 폭은 대략 35.0~35.8cm)을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의 구성은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처럼 3단의 구성을 하고 있다. 하단은 帝釋과 梵天, 법을 구하는 사리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주위

5) 蔡春娟, 「釋迦八相圖之研究」, 『中國佛教學術論典』 90, 2003, pp.109~113.

로 악기를 연주하는 奏樂天女이 설법을 찬탄하고 아사세왕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법회를 듣기 위해 모여드는 모습이다. 대체로 청문자로 사리불과 법회에 일반 사부대중과 주악천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17세기 <영수사 영산회괘불도>의 구성을 계승하고 있다.

화면의 중단에는 6위의 보살이 합장하고 섰다. 6위 보살은 천의식 착의와 불의식 착의를 교대로 배치하였고, 천의의 색도 불고 푸른색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여 다채로움을 준다. 상단에는 향마촉지인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10대 제자와 4위의 辟支佛(또는 他方佛), 사천왕상, 팔금강, 천동 등이 석가여래 주변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다. 화면의 분할은 채색 구름으로 구분하였다. 본존불은 2중 연잎형 거신광배를 등지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광배의 테두리에는 三鈷杵文이 시문되어 있고, 手印은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다. 착의는 대의자락으로 노출된 오른쪽 어깨를 가린 변형 편단우견식이며, 가슴에는 군의를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었다. 대의는 붉은색이며, 대의에는 雲渦圓文이 주문양으로 멋스럽게 시문되어 있고 그 사이 여백에는 작은 꽃무늬가 베풀어졌다. 둥근 얼굴에 단정한 이목구비를 갖추었다. 육계는 있는 듯 없는 듯 표현하였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는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정상부에는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1725년>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도, 1653년>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석가여래를 비롯한 불·보살, 호법신중들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영산회상도와 달리, 영축산 설법 당시의 모습을 가장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구성 역시 위계와 중요도, 도설 내용의 유기적 관계에 따라 등장인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였다. 인물의 구성과 배치도 좌우를 거의 대등한 인물 수를 배치하여 화면의 안정감을 구축하였다.

화면의 배색은 적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그 외 군청, 황색, 백색과 일부에서는 금니를 사용하여 18세기 전반기의 성행한 미적 취향을 보여주고 있다. 존상들의 자세와 표정 등이 대체로 원만하고 생동적이며, 존상들 간의 관계도 흐트러짐 없이 유기적이다. 채색과 필선의 운용도 정교하고 유려하여, 형, 선, 색의 운용 면에서 뛰어난 畫格을 간직하고 있다.

이 그림은 1725년 5월에 제작되었다. 증명은 대선사 初燭, 以齊, 處寬, 偉鼎이 맡았으며, 일을 주관한 화주는 弼閑이 맡았고, 그림을 그린 화원은 義謙, 回眼, 良云, 採仁, 曰敏, 宏陟, 海宗, 就閑, 敏熙, 自旻, 顯賢, 智雲 등 12명이 참여하였다. 化主는 팔상도와 같고 증명은 참여 인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 수화사 의겸은 1724년에 제작된 <순천 송광사 석가여래삼존도> 제작에서도 수화를 맡았고, 그는 당시 조계산과 그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17세기 말에 태어나 숙종대~영조대에 걸쳐 약 50여 년간 호남과 지리산 유역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한 曹溪山門의 대표적 화승으로 통도사의 任閑과 더불어 18세기 불교 화단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였다. 1710년경 화업을 시작하여 1719년경 수화가 되었으며, 40여 년간 수십 명의 화승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그는 毫仙, 尊宿, 大正經이라는 존칭을 받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던 화승이다. 그의 문하에는 信鑑, 彩仁, 巨陟, 色敏, 澹密 등 18세기 후반의 화단을 이끌었던 다수의 화승들이 배출되었다.⁶⁾ 대형의 괘불에서 감로도에 이르기까지 불화 전 분야에 걸친 높고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6) 김정희, 「공주 감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및 복장유물」, 『보물 조선불화』, 문화재청, 2021, p.65.

<표1. 수화승 의점의 작품 현황>

| 연번 | 작품명 | 제작연대 | 재질 | 비고 |
|----|-------------------|-------|------|------------------|
| 1 | 진주 청곡사 영산회괘불도 | 1722년 | 마본채색 | 畫員 1/10 |
| 2 | 여수 흥국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 1723년 | 미상 | 소장처 미상, 畫員 1/9 |
| 3 |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 | 1723년 | 견본채색 | 畫員 1/11 |
| 4 |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 | 1723년 | 마본채색 | 畫員 1/5 |
| 5 | 순천 송광사 응진전 석가삼존도 | 1724년 | 견본채색 | 金魚 1/11 |
| 6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 1725년 | 견본채색 | 金魚 1/12 |
| 7 | 남원 실상사 지장보살도 | 1726년 | 견본채색 | 畫員 1/9, 동국대학교박물관 |
| 8 | 무주 안국사 영산회괘불도 | 1728년 | 마본채색 | 畫員 1/6 |
| 9 | 해인사 영산회상도 | 1729년 | 견본채색 | 毫仙 1/12 |
| 10 |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 1730년 | 마본채색 | 畫員 1/5 |
| 11 | 동학사 오송대암 관음지장도 원문 | 1730년 | | 畫員 1/1 |
| 12 | 고성 운흥사 석가여래삼세불도 | 1730년 | 마본채색 | 畫員 1/6 |
| 13 |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 1730년 | 마본채색 | 畫員 1/3 |
| 14 | 선암사 서부도전 감로도 | 1736년 | 견본채색 | 畫員 1/10 |
| 15 | 나주 다보사 영산회괘불도 | 1745년 | 마본채색 | 畫員 1/10 |
| 16 |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도 | 1749년 | 마본채색 | 畫員尊宿 1/13 |
| 17 | 천은사 칠성도 | 1749년 | 미상 | 소장처 미상, 金魚 1/4 |
| 18 | 구례 화엄사 삼신불도(노사나) | 1757년 | 견본채색 | 大正經 1/5 |

영산회상도 화기에는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조로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구성의 완전한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팔상도

팔상도는 폭이 62cm 가량 되는 매우 성긴 畫絹⁷⁾ 세 폭을 이어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 상단 중앙에는 복장낭을 매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대부분 비슷한 화견을 사용하였으나, 한 폭 내에서 상·중부와 하부의 조밀도가 현저히 다른 점이 관찰된다. 세부 도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광사 팔상도는 각 장면에 대한 소재목과 더불어 작품 해설을 곁들이고 있어 자칫 어떤 장면을 도해한 것인지 불분명한 장면도, 이를 통해 완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팔상도의 제작 전통은 도상뿐만 아니라 제작

7) 화견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직조한 생견으로 구조는 변화평직이다. 변화평직은 씨실 두올이 가지런히 붙어 있으며 두 올 사이를 날실이 지나가는 구조로 한국·중국·일본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화견구조이다.

태도까지 이후에 제작된 팔상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1 도솔래의상>



<제2 비람강생상>



<제3 사문유관상>



<제4 유성출가상>



<제5 설산수도상>



<제6 수하항마상>



<제7 녹원전법상>



<제8 쌍림열반상>

<① 도솔래의상(도솔래의상)>

화면의 좌측 상단 붉은색 방제란을 마련하고 내려쓰기로 ‘兜率來儀相’을 묵서하였다. 다섯 폭(9.5+22.0+40.0+32.2+23.1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에는 모두 4장면이 묘사되어있다. 화면의 전개는 화면 우측 상단에서 ‘之’字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우측 상단에 석가의 조상이 구담이라는姓씨를 받게 된 경위를 그린 ‘瞿曇貴姓’ 장면을 시작으로, 그 다음으로 호명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부인에게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이어서 화면 우측(향좌측) 하단에 마야궁에서 마야부인이 태자를 入胎하는 꿈을 꾸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화면 좌측(향우측) 하단에는 마야부인이 꿈을 꾸 내용을 정반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면과 장면을 구분하기 위해 산악과 채운, 건축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장면마다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과 해설을 달아 놓았다.

<운홍사 팔상도>부터 <도솔래의상>에 등장하는 구담귀성은, 즉 석가여래의 조상이 “구담이라는 성을 받는다”라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사실 팔상도의 구성상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아마도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나옹법통설을 부정하고 임제의 법맥을 내세운 임제태고법통설을 제기하고 18세기 이후 계파와 계보를 더욱 공고히 해 가고 있는 불교계의 분위기를 담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②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화면의 좌측 상단 변아에 붉은색 방제란을 마련하고 <비람강생상>이라 묵서하였다. 다섯 폭(19.85+22.7+33.6+27.8+22.9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은 다섯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장면과 장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敍事的으로 연결되어 있다. 좌측 하단의 마야부인이 무우수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를 출생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중앙에 태어난 태자가 사천왕의 호위를 받으며, 일곱 걸음을 떼면서 그 유명한 ‘天上天下唯我獨尊’을 외치는 장면을 배치하였다. 다시 좌측 상단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그곳에는 아홉 마리 용이 태자를灌浴하는 장면을 배치하였다. 九龍灌浴 주변에는 탄생을 축하하는 주악비천과 香華를 뿌리는 천인, 그리고 태자 탄생 시 홀연히 솟아올랐다는 濫井과 冷井이 묘사되어 있다. 우측 하단에는 태자를 가마에 태우고 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인 ‘從園還城(원림에서 성으로 돌아오다)’ 장면이 배치하였다. 태자는 毘首羯磨天이 변한 칠보 가마를 타고 있다. 가마는 동자로 변한 사천왕이며, 가마 주변에는 정반왕이 여러 동자들로 하여금 노란 옷을 입게 하고 손에는 金瓶과 보배지팡이를 들고 태자를 시중케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과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다시 이 從園還城 장면 위쪽에는 阿私隄 선인에게 태자의 관상을 보게 하는 仙人占相 장면을 배치하였다. 궁전 안에는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을 배경으로 정반왕이 의자에 앉아 관상을 보는 장면을 보고 있으며, 그 앞으로 아사타 선인이 태자를 감싸 안아 머리 위로 받들고 관상을 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③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화면의 좌측 상단 변아에 붉은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그곳에 ‘四門遊觀相’이라 묵서하였다. 화면은 총 4폭(10.0+8.70+53.1+49.8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은 모두 네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태자가 동남서북의 성문을 나와 보게 되는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문에서는 형편없는 노인으로 변한 작병천자를 만나는 ‘路逢老人’의 장면, 남문에서는 병자로 화환 작병천자를 만나는 ‘道見病臥’의 장면을, 서문에서는 시체로 변한 작병천자를 만나는 ‘路都死屍’ 장면을, 북문에서는 사문으로 변한 淨居天을 만나, 동·남·서·북문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생긴 번뇌를 털어놓는 장면인 得遇沙門이 그려져 있다.

사문유관상은 작병천자가 태자를 출가수행으로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老病死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인간사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고, 출가수행자의 길로 가도록 결심을 이끄는 장면이다.

구름과 성벽, 나무 등이 장면과 장면을 구분 짓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좌우의 화면을 양분하는 데 있어서 수묵으로 큰 소나무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화면 분할에 나무를 소재로 삼은 초기의 그림으로서 주목된다.

동서남북 문을 나와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등장하는 시종들의 숫자와 마차의 말의 숫자에 조금씩 변화를 두고 있다.

<④ 유성출가상(遊城出家相)>

화면 좌측 상단 변아에 붉은색 방제란을 마련하고 ‘유성출가상’이라 묵서하였다. 화면은 총 3폭(23.5+62.3+41.2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화면의 구성은 크게 궁녀혼수, 초계출가, 야반유성, 차익환궁 등 4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면 우측 하단에는 궁중 연회 장면이 화면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은 야반유성 장면을, 끝으로 화면 좌측 상단에는 차익환궁 장면이 배치되었다.

첫째 성안에서의 벌어진 연회 장면을 묘사하였다. 태자궁 내에는 태자와 태자비의 자리가 나란히 마련되어 있으나, 태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 그 앞으로 궁중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마당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추하게 너부러져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 위쪽에는 태자가 부왕에게 출가를 청하자 정반왕은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5백 명의 장사를 배치하여 성문을 엄중하게 경계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그 옆쪽에는 마부 차익이 애마 칸타카를 데려와 태자의 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태자는 제석과 범천을 비롯한 사천왕의 호위를 받으며 출가를 준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다시 그 옆쪽에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모두 졸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출가 당시 정거천의 여러 천신들이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과 궁녀들을 모두 혼수상태에 빠뜨려 태자의 출가를 돕는다는 夜半踰城 장면을 담아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면 좌측 상단에는 마부 차익이 태자의 의관을 가지고 돌아와 정반왕과 왕비에게 태자의 출가를 알리는 장면으로 화면이 마무리되고 있다.

<⑤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화면의 좌측 상단 변아 부분에 붉은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雪山修道相’이라 묵서하였다. 화면은 총 3폭(9.8+61.8+55.7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태자가 출가하여 육년 고행을 거치는 과정을 모두 6장면으로 묘사하였다. 화면의 우측(향좌측) 하단에는 예전 跋伽仙人이 고행하던 숲 속에 이르러 황금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金刀落髮 장면과 그 주변에는 왕이 대신들을 보내어 태자의 환궁을 요청하는 장면(勸請廻宮), 숲 속에서 여러 선인들에게 법을 묻는 장면(詰問林僊), 그리고 태자가 하루에 삼씨 한 톨과 보리 한 톨만 먹고 고행한다는 소식

을 듣고 정반왕이 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보내는 장면인 遠餉資糧 등의 이야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태자가 나무 아래에서 5명의 憍陳如(왕이 보낸 대신들 중 돌아가지 않고 태자를 보필하기 위해 남은 5인)들과 함께 6년간 고행하는 六年苦行 장면이 그려졌고, 주변으로는 까치가 둥지를 치고 알을 품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 똥이 몸을 더럽혔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는 육년고행 당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일을 모티프로 삼고 있다. 바로 앞쪽에는 고행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태자가 難陀와 波羅 등 두 牧女들로부터 우유죽 공양을 받는 장면(경전에는 牧女乳糜이라고 설하고 있으며, 본 그림에는 牧女獻粥이라고 쓰여 있고 등장인물도 경전에는 2명이나 이곳에는 3명이 등장한다)이 그려져 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6년 고행을 마치고 니련선하에서 목욕하는 장면인 禪河澡浴 장면이 그려져 있다. 니련선하 목욕 시 일어났던 ‘天神指河岸’, ‘地神聳出’, ‘阿斯那木神低樹’, ‘魚龍飲浴水皆生天’, ‘帝釋獻衣’, ‘淨居天人獻草’, ‘善生女獻粥’, ‘尼連茶耶龍女の寶座奉獻’ 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⑥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화면의 좌측 상단 변아 부분에 붉은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樹下降魔相’이라 묵서하였다. 화면은 총 3폭(25.0+61.8+39.4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정각을 이루기 위해 선정에 든 태자와 이를 방해하기 위한 마왕간의 치열한 대립 상황을 긴장감 있게 그려져 있다. 좌측 하단에는 마왕의 딸로 하여금 석가의 성도를 방해하는 魔女眩媚 장면을 그렸는데, 즉 마왕의 세 딸을 팔등신의 美女로 변신시켜 태자를 유혹하는 장면과 부처님의 설교를 듣고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한 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면의 우측 하단에는 ‘魔軍拒戰’ 장면이 그려졌다. 이 장면은 마왕 파순이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 象兵·馬兵·步兵·拒兵과 여러 병사들로 구성된 마군을 이끄는 장면이다. 좌측 중단에는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태자와 정병을 사이에 두고 마군의 무리와 대적하는 모습인 ‘魔衆拽鉞’ 장면이 그려 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결국 태자는 마군을 물리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菩薩降魔’와 이를 증명하는 ‘地神作證’, ‘七佛作證’, ‘魔子懺罪’ 등의 장면을 주변에 小주제로 배치하였다. 끝으로 좌측 상단에는 雪山을 배경으로 선달 8일 밤 明星을 보고 悟道하는 ‘成等正覺’ 장면을 배치하여 ‘樹下降魔’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고 있다.

<⑦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화면의 좌측 상단 변아 부분에 붉은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鹿苑轉法相’이라

묵서하였다. 화면은 총 3폭(55.6+61.4+10.0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깨달음을 이룬 이후 석가가 불법을 전파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크게 다섯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가는 노사나불의 몸으로 나타나 화엄경을 설하는 장면, 즉 ‘華嚴大法’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에는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는 모습인 轉妙法輪 장면이 그려졌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어린 아이가 석가에게 흠을 공양하자 석가가 그 아이에게 훗날 아소카왕이 되어 팔만 사천 개의 탑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 석가가 비구와 비구니의 결계·수계를 위한 삼중계단을 세우는 장면과 그 주변에는 삼중계단이 완성되자 지방제불과 여러 보살, 천룡팔부 대중이 예를 올리고 있다. 끝으로 수달장자가 석가여래의 사위국 설법을 기원하며 급고독원의 땅에 금을 갈아 정사를 세우는 장면이 화면 우측 상단을 채우면서 그림이 마무리 되고 있다.

<⑧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화면의 좌측 상단 변아 부분에 붉은 바탕의 방제란을 마련하고 ‘雙林涅槃相’이라 묵서하였다. 화면은 총 3폭(25.5+61.4+41.3cm)의 비단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다.

팔상도의 마지막 폭으로, 크게 6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왼쪽 아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장면(雙林入滅)을 시작으로 가섭존자가 두타행으로 멀리 가 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와 슬피 울자 석가가 관 밖으로 발을 보이며 위로하는 모습(佛現雙足)이 실감나게 묘사되었다. 그 위에는 마야부인이 공중에서 내려와 관에 꽃을 뿌리는 모습(佛母散花)과 관이 스스로 쿠시나가라성의 사방의 성문을 일곱 바퀴 돌아 다시 칠보 평상으로 돌아오는 장면(金棺自擧), 관에 불을 붙여 다비하는 모습, 활활 타오르는 관 사이로 오색영롱한 사리가 쏟아지는 모습(聖火自焚), 그리고 끝으로 석가모니의 사리를 균등하게 8개로 나누는 모습(均分舍利)이 입멸에서 다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연출되었다.

<조성개요>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각 폭에 참여한 화승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주요 참여자>

| 연번 | 화제 | 증명 | 화원 | 주요 시주자 | 화주 |
|----|-------|-------------|-------------------------------------|----------|----|
| 1 | 영산회상도 | 初爛 以齊 處寬 偉鼎 | 義謙 良云 採仁 曰敏 宏陟 海宗 就閑 敏熙 自旻 穎賢 智雲 | 金氏順化 柳繼俊 | 弼閑 |
| 2 | 도솔래의상 | 初爛 處寬 | 幸宗 向敏 | 通政大夫 學順 | 弼閑 |
| 3 | 비람강생상 | 初爛 以齊 | 回眼 自敏 萬連 | 嘉善大夫 文信 | 弼閑 |

| 연번 | 화제 | 증명 | 화원 | 주요 시주자 | 화주 |
|----|-------|-------------|-------------|-------------------|----|
| 4 | 사문유관상 | 初爛 處寬 | 回眼 萬連 | 通政大夫 崔起望 | 弼閑 |
| 5 | 유성출가상 | 初爛 處寬 偉鼎 | 採仁 敏熙 | 嘉善大夫 世英 | 弼閑 |
| 6 | 설산수도상 | 初爛 以齊 | 良云 就閑 | 智玄 | 弼閑 |
| 7 | 수하항마상 | 以齊 偉鼎 | 卽心 明習 | 通政大夫 鵬三 | 弼閑 |
| 8 | 녹원전법상 | 初爛 處寬 偉鼎 | 鵬眼 良悟 亘陟 | 通政震察爲亡祖父 嘉善洪仁聞 | 弼閑 |
| 9 | 쌍림열반상 | 初爛 以齊 處寬 偉鼎 | 鵬眼 最祐 穎賢 智雲 | 快湜爲亡父 訓練僉正洪繼漢 | 弼閑 |

팔상전의 주벽 후불도인 영산회상도는 의겸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였고, 그 좌우 벽면에 봉안된 8폭의 팔상도는 행종, 회안, 채인, 양운, 취한, 즉심, 봉안 등 다른 화승이 등장한다. 이들 화원은 영산회상도를 그린 수화원 의겸과 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여러 점의 불상이나 불화를 제작할 때 수화원의 지휘 아래 여러 명의 보조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시켜나가는 것은 불교 미술의 제작에 있어서 하나의 전통이었고, 여기서도 그러한 전통이 잘 보여주고 있다.

후불도와 팔상도 각 폭을 여러 명의 화사들이 분담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채와 구도, 필선, 인물의 묘사 등에서 하나의 작품처럼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불교 회화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義謙의 주도 아래, 여러 작품에서 그와 함께 작업 활동을 한 문과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모든 면에서 의겸의 화풍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가령 암석과 산수는 녹청과 군청 등 진채로 그렸고, 수목은 수묵으로 처리하여 의겸이 주도한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1723년)의 수묵 위주의 설채법을 절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겸은 전통 불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행 도상과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도상의 탐색과 도입에도 적극적인 화승이었다. 그는 주로 전라남도과 경상 서부 지역 사찰을 거점으로 활약하였으며, 그의 화적은 충청권까지 확대되어 나타나며 이후 많은 후배 화사들이 그의 화풍을 따랐을 만큼 한국 불교 회화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림 제작을 이끈 화주는 弼閑으로 모든 그림에서 동일하므로, 후불도를 그린 의겸을 수화승으로 하여, 그를 따르는 화승들이 분담하여 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박수연, 「朝鮮後期 八相圖의 展開」,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광희, 「송광사 영산회상도의 특징」, 『보물 제1398호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

- 및 팔상탱 보존처리 보고서』, 2014.
- 신지연, 「조선시대 석가팔상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梁雲奇, 「通道寺 八相圖 研究」,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영중,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영중,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15, 韓國美術史學會, 1997.
 - 李光雨 번역, 『석씨원류응화사적』 권1~4, 법보원, 2006.
 -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화기집』, 2011.
 - 문화재청, 『보물 조선불화』 I, 2021.



○ 현 상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불화의 봉안 전각은 영산전이다.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며, 총 9폭의 불화는 전각의 칸살이에 맞춰 배치되어 있었다. 즉 영산회상도는 1폭은 어칸 뒷벽(북벽) 중앙에 걸렸고, 8폭의 팔상도는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좌측벽 2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도솔래의상 2.비람강생상 3.사문유관상, 4.유성출가상 등이, 맞은편 우측벽 2칸에 영산회상도와 잇대어 5.설산수도상을 두고 이어 6.수하항마상 7.녹원전 법상 8.쌍림열반상 등을 걸었다. 칸살이보다 팔상도 화면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화면의 끝이 서로 겹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장황 방식은 원래 족자형이었으나 1980년대에 액자형으로 바뀌었고 이후 2013년~2014년 보존처리를 하면서 원형인 족자로 복원하였다. 보존 처리 당시 화면 꺾임, 안료 박락, 바탕천의 변색과 얼룩 등을 처리하여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불화들은 성보박물관에 수장 중이며, 영산전에서 성보박물관으로 이안된 시기는 국사전 16국사진영이 도난된 1995년 이후로 알려져 있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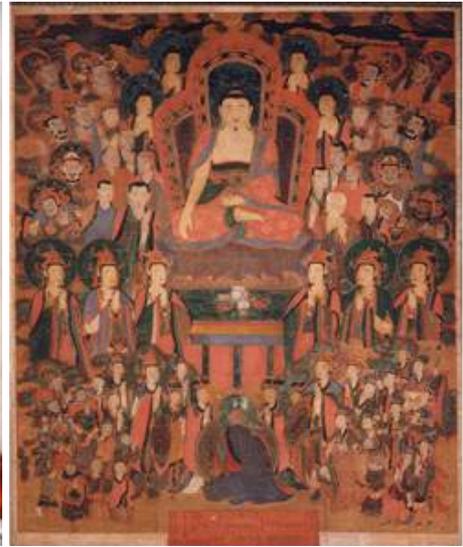
-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1725년에 5월에 수화승 義謙을 주축으로 총 18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불화이다. 영산회상도 화기에는 “靈山會上”과 같은 화제나 후불벽 봉안을 의미하는 “後佛幀[後佛圖]”보다는 “八相繪”란 용어를 사용해 해당 영산회상도가 팔상도의 주불화로 일괄 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의견이 제작한 팔상전, 영산전 봉안 불화는 1713년 제작한 보림사 팔상전 후불

탕, 1719년 운흥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1725년 송광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알려져 있다. 이중 보림사 팔상전 후불탱은 의겸이 奉覺을 수화승으로 모시고 제작한 불화로 실물은 전하지 않고 기록만 남아 있다. 운흥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역시 현재 소재 불명이지만 다행히 관련 기록과 사진이 전하고 있어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운흥사인 경우 영산회상도는 廣口를 수화승으로 모시고 의겸이 편수를 맡아 작업하였고 팔상도는 의겸이 수화승을 맡아 제작하였다. 의겸이 제작에 참여한 팔상전과 영산전에 봉안된 불화 가운데 영산회상도와 팔상도가 일괄로 남아 있는 예로는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가 가장 이른 시기 작품이며, 송광사 불화는 앞서 제작한 보림사와 운흥사 불화에서 차지했던 의겸의 참여 비중과 달리 송광사 불사는 의겸의 주도 하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9폭 모두 일괄 제작되었다.

-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에 기록된 화승의 명단으로 유추해 볼 때 이 9폭의 불화의 조성은 의겸이 총기획하고 화승 무리 가운데 역량이 있는 화승에게 팔상도의 제작을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산회상도는 의겸이 11명의 화승들을 이끌고 제작하면서 1.도솔래의상은 행종, 2.비람강생상과 3.사문유관상은 회안, 4.유성출가상은 채인, 5.설산수행상은 양운, 6.수하항마상은 즉심, 7.녹원전법상과 8.쌍림열반상은 봉안 등이 맡아 1~3명의 보조화승을 데리고 각 폭을 제작하였다.

1725년 의겸이 영산회상도를 맡고 다른 화승에게 팔상도의 제작을 분담하는 방식은 1719년 운흥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 제작 당시 의겸이 광구를 수화승으로 모시고 영산회상도를 제작하면서 팔상도 전체 제작을 이끈 경험에 바탕으로 한다. 1725년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제작할 때는 의겸은 자신이 제작해 본 팔상도는 다른 화승들에게 분담시키고 자신은 영산회상도 조성에 집중하였다. 이는 보림사와 운흥사 불사에서 드러나듯 영산회상도는 의겸의 불화라기보다는 수화승 봉각과 광구의 제작 의도가 반영된 불화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725년 송광사 영산전 불사는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의겸의 의도로 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정은 의겸이 제작한 <송광사 영산회상도>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다.



<운홍사 영산회상도, 1719년, 『불교문화재도난백서』(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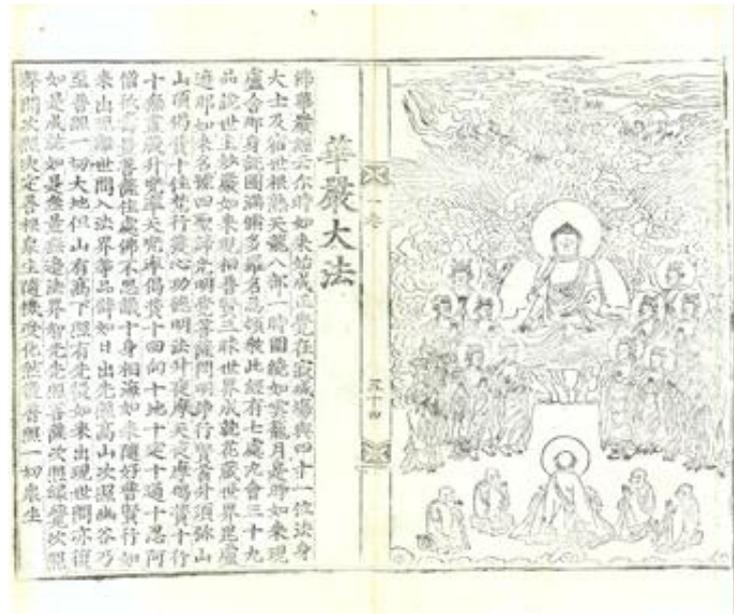
<송광사 영산회상도, 1725년>

- <송광사 영산회상도>(1725년)와 <운홍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19년)을 비교해 보면, 의겸은 송광사 불화를 조성할 때는 운홍사 불화와 마찬가지로 영축산에서의 설법 장면처럼 여러 군상이 모여 있는 복잡한 군도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전각 규모에 맞게 화면 규모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존상 구성도 변화였다. 가로형 화면이 세로형으로 비율이 바뀌게 되면서 이에 맞춰 석가불의 광배는 키형으로 변화를 주었다. 권속의 수와 배치도 변화를 주어 석가불 아래에 협시보살들을 6위보살로 축소하면서 제보살을 경계로 위에는 가섭과 아난을 십대제자와 사천왕, 팔금강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범천과 제석천을 포함한 천자와 신중, 천녀와 주악천녀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송광사 영산회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석가불 앞의 공양단과 비구형 聽聞者 도상이다. 특히 비구형 청문자 도상의 표현은 의겸이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 또한 『釋氏源流應化事蹟』에 근거해 출초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상이다. 청문자 도상은 조선 전기 영산회상도에 보살형으로 표현되다 조선 후기에는 <영수사 영산회괘불도>(1653년), <청룡사 영산회괘불도>(1658년) 등에서 비구형으로 표현되었다. 팔상도의 주불도인 영산회상도 가운데 비구형 청문자 도상이 표현된 예는 의겸이 제작한 <송광사 영산전 영산회상도>가 유일하며, 해당 형식은 당시 선운사와 불암사에서 개판된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화엄대법」에 표현된 축지인을 한 석가불과 그 앞에 설법을 청하는 비구를 차용한 것이다.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화엄대법, 1648년, 선운사판>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화엄대법, 1673년, 불암사판>

-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불화이다. 팔상의 개념은 인도, 중국, 한국 등 불교문화권에서 공유되었지만 팔상의 주제, 이를 구성하는 각 주제와 도상, 표현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팔상의 개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조선시대에 성립되었지만 독립된 신앙체계를 구축하며 독자적인 불교미술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주제면에서 팔상이지만 구성과 내용은 수십 개의 화제를 서사적으로 표현하였고, 우리나라 팔상도는 『月印釋譜』의 변상도에서 알 수 있듯 조선 초부터 1.兜率來儀相, 2.毘藍降生相, 3.四門遊觀相, 4.逾城出家相, 5.雪山修道相, 6.樹下降魔相, 7.鹿苑轉法相, 8.雙林涅槃相이란 팔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팔상도는 현재 30여 점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6점은 조선 전기에 조성된 팔상도로 일본, 독일 등 국외에 있고, 나머지 팔상도는 대부분 국내에 현전하며 조성 시기는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팔상도 중 <용문사 팔상도>(1709년)는 제작 시기가 앞서고 조선 전기 팔상도의 형식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용문사 팔상도> 이후 조선 전기 팔상도의 도상 근거가 되었던 『월인석보』의 변상도를 차용한 팔상도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기에 그 영향력이 약하다. 조선 후기에는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차용한 도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팔상도가 유행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불화가 <송광사 팔상도>(1725년)와 <통도사 팔상도>(1775년)이다.
- <송광사 팔상도>(1725년)는 의견이 앞서 제작한 <운흥사 팔상도>(1719년)를 그대로 잇고 있다. 현재 <운흥사 팔상도>는 소재를 알 수 없지만 알려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두 팔상도의 도상 배치와 표현 등이 거의 유사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운흥사 불사 때 의겸은 팔상도 제작을 전담하였다. 따라서 송광사 불사에서는 영산회상도를 새롭게 출초하면서 팔상도는 운흥사 팔상도 초본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의겸이 출초한 팔상도 초본에 의거해 행종, 회안, 채인, 양운, 즉심, 봉안 등의 팔상도 제작을 분담해 완성하였다. 이처럼 <송광사 팔상도>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화제를 각 相에 배치하여 새로운 팔상도 형식을 완성하였고 이를 같이 작업하는 화승들에게 제작을 맡김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의겸화파 화승들이 그린 <쌍계사 팔상도>(1728년)을 비롯해 <보경사 팔상도>(1776년), <선암사 팔상도>(1780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조선 후기 팔상도를 대표하는 典範이 되었다.

- <송광사 팔상도>의 각 상의 장면을 살펴보면, 1.도솔래의상에는 화면 하단 좌측에는 잠이 든 마야부인에게 六牙白象을 탄 護明菩薩이 천인들을 거느리고 마야부인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는 乘象入胎와 摩耶託夢 장면이 있다. 승상입태와 마야탁몽은 조선 전기 도솔래의상에 등장하는 주요 도상으로 송광사 본에서는 사선의 하강구도에 구름과 꽃비로 효과적으로 표현해 태몽으로 이루어지는 입태의 순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송광사본 도솔래의상에는 전통적인 도상 외에도 『석씨원류응화사적』에서 석가족의 조상인 왕이 수행 중 도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는 瞿曇貴姓과 이후 선인이 죽은 왕의 피가 뱀 흙을 사당에 모시고 사람으로 되기를 기원하자 열 달 후 남녀가 태어난 장면, 그리고 정반왕이 마야부인의 태몽을 해몽하는 淨飯聖王이 추가로 표현되었다. 2.비람강생상은 룬비니동산에서 마야부인이 태자를 낳는 장면으로 화면 하단에 無憂樹 가지를 친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가 태어나는 樹下誕生을 시작으로 태자를 씻은 九龍灌浴, 동남서북 사방을 걷는 周行七步, 가마를 타고 환궁하는 從園還城, 궁궐에서 아지타선인의 예언을 듣는 仙人占相이 표현되었다. <송광사 팔상도>에서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으로 종원환성, 선인점상이 추가되었다. 3.사문유관상은 태자가 성의 사문(四門)으로 나가 동문에서 노인, 남문에서 병자, 서문에서 시신을 보고 북문에서 바라문을 만나는 路逢老人, 道見病臥, 路觀死屍, 得遇沙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유성출가상은 새로 병사를 경험한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고 성을 넘는 장면으로 화면 중앙에 출가를 고하는 初啓出家, 천인과 사천왕의 도움을 받아 소리 없이 성을 넘는 夜半踰城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좌우 상하단에 깊은 밤 태자비와 시종이 잠든 宮女昏睡, 마부 차익이 왕과 왕비 태자비에게 태자의 출가를 알리는 車匿還宮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초계출가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화제를 그대로 옮겨왔다. 5.설산수행상은 출가 후 머리카락을 자르는 金刀落髮, 환궁을 권하고 고행하는 태자를 위한 먹을 것을 나르는 勸請還宮, 遠飼資糧을 비롯해 선인들이 고행의 이유를 묻은 詰問林僊, 용왕이 태자의 발을 받으려 하는 장면, 6년간의

고행을 묘사한 六年苦行, 고행의 무상함을 깨달은 태자가 우유죽 공양을 받는 牧女獻糜, 니런선하로 가서 목욕하는 禪河澡浴, 그 목욕물을 마신 물고기 등이 승천하는 장면, 제석천이 옷을 받치는 帝釋獻衣 등 수행과정 중에 일어난 수많은 일화를 유기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도상은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의거한다. 6.수하항마상은 깨달음이 다가오자 태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과 마군을 물리치고 항복 받는 장면으로 화면 하단부터 마왕이 8만 4천 군대와 무기를 싣고 오는 魔軍拒戰, 마왕이 딸이 태자를 유혹하다 노파가 되는 魔女眩媚, 태자 앞의 병을 움직이기 위해 마군들이 잡아당기는 魔軍拽瓶 등이 박진감 있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 제석천이 풀을 받치는 天人獻草, 길상초 위에서 태자의 깨달음을 자신에게 증명을 부탁하는 地神作證, 마왕을 제압하고 회계시키는 菩薩降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成等正覺과 제천이 성불을 찬탄하는 諸天讚賀 등이 화면 하단 좌측부터 상단 우측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표현되었다. 수하항마상의 대부분의 도상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화제이다. 7.녹원전법상은 전통적인 주제인 화엄대법과 첫 설법인 녹원전법 외에 급고독원정사를 짓는 위해 땅을 사는 布金賣地, 결계와 수계를 위한 계단을 세우는 初建戒壇, 석가가 본궁으로 환궁해 정반왕을 위해 설법하는 再環本國과 爲王說法, 석가 열반 후 왕이 될 아이가 흙을 보시한 小兒施土 등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도상이다. 특이한 점은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수록된 ‘화엄대법’은 축지인의 석가불을 주불로 한 변상도가 실려 있지만, 의견은 이 부분만은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의거해 도상에 변화를 주지 않고 조선 전기부터 지속되어 온 노사나불을 주불로 한 도상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8.쌍림열반도는 석가의 열반 장면으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든 雙林入寂과 사리를 나누고 탑을 세우는 均分舍利 외에도 입적 후 다비 사이에 일어난 갖가지 이적들이 표현되었다. 밀적금강역사가 이를 슬퍼하는 金剛哀戀, 하늘에서 마야부인이 꽃을 뿌리고 슬퍼하는 마야부인을 위해 부처가 다시 일어나 설법하는 佛母散華와 佛從棺起, 쿠시나가라성이 부처의 관을 차지하고자 하자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관이 움직여 여러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金棺不動과 金棺自舉, 가섭을 위해 부처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는 佛現雙足, 다비를 위해 불을 붙이지만 관에 불이 붙지 않고 오히려 부처의 심장에서 불이 일어 스스로 태웠다는 凡火不然과 聖火自焚 등 『석씨원류응화사적』에 의거해 표현하였다.



<송광사 팔상도 도솔래의상>



<송광사 팔상도 비람강생상>



<송광사 팔상도 사문유관상>



<송광사 팔상도 유성출가상>



<송광사 팔상도 설산수도상>



<송광사 팔상도 수하항마상>



<송광사 팔상도 녹원전법상>



<송광사 팔상도 쌍림열반상>

- <송광사 팔상도>는 『월인석보』 변상도에 의거해 구성되었던 조선 전기 팔상도의 도상과 형식에 조선 후기부터 유통되었던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다양한 화제를 수용하여 석가의 일생인 八相에 풍부한 서사성을 더하였다. 새로운 화제가 추가되면서 내용과 구성이 조선 전기 팔상도보다 복잡해졌으나, 의겸은 자신의 불화에서 즐겨 사용되는 특유의 황색 바탕을 배경 삼아 다양한 내용과 인물상을 섬세한 필치로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묘사하였고, 전

각 등의 구조물과 커다란 소나무를 이용해 공간과 시간의 구분과 전환, 다양한 구름 형태를 이용해 공간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여 한 화면에 다양한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 인물과 장면의 배경이 되는 암산, 토산, 설산, 계곡 등의 자연 풍광을 비롯해 코끼리와 말 등의 각종 동물과 새의 표현, 각종 도구와 무기에 이르는 작은 표현까지 빠짐없이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의겸이 1725년 송광사 불사의 일환으로 제작한 불화로서, 팔상도만이 아니라 주불화인 영산회상도까지 조선 후기에 유통된 『석씨원류응화사적』 도상을 차용해 일괄로 제작함으로써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의 새로운 형식과 조합을 완성하였다. 특히 팔상도는 의겸의 영향을 받은 화승들이 제작한 팔상도만이 아니라 18세기에 제작된 팔상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지정사례

- 보물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1) / 보물 쌍계사 팔상전 팔상도(1728).
- 보물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1725).
- 보물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34) / 보물 통도사 영산전 팔상탱(1775).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개운사 팔상도(1883).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경국사 팔상도(1887).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장사 팔상도(19세기 말).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안양암 팔상도(1917).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해국정사 팔상도(1925).

○ 참고문헌

- 『韓國의 佛敎繪畫-松廣寺-』, 국립중앙박물관, 1970.
- 김다영, 「朝鮮 後期 浮休門中の 佛事와 義謙派 佛畫-順天 松廣寺 佛畫 造成 佛事を 중심으로」, 『미술자료』 98, 2020.
- 김정희, 「쌍계사(雙溪寺) 팔상도(八相圖)의 도상 특징과 의겸파(義謙派) 팔상도」, 『강좌미술사』 58, 2022.
- 박수연, 「朝鮮後期 八相圖의 特徵」, 『불교미술사학』 4, 2006.
-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상)」, 『미술사연구』 8, 1994.
-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하)」, 『미술사연구』 9, 1995.
- 이영중, 「朝鮮時代 八相圖 圖像의 淵源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5, 1997.

- 정명희, 「1725년 義謙畫派의 송광사 불조건 五十三佛圖」, 『미술자료』 95, 2019.
- 최연식, 「조선후기 석씨원류의 수용과 불교계에 미친 영향」, 『보조사상』 11, 1998.

문헌자료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화제와 화기】

1. 영산회상도

1725년, 麻本彩色, 畫面 220.5×184.8cm, 松廣寺 所藏

백색바탕에 묵서

<좌측>

施主秩

○○

○○

成諗

○還

但宝

靈○

补○

普濟 比丘

圓淨

慈俊

巨心

懷寅

湛獲

鵬熙

見豁

見敏

白念

乃源

獲令

了廊 比丘

俊卓

察戒

思敏

有玄

宇察

瑞卓

性脫
明善
益和
竺典 比丘
妙願
燦宗

<우측>

巨卞

施主秩
宗悅
清日 比丘
眞云
誦敏
○澄
信令
星玄 比丘
福海
○還
了悟
○察 比丘
最云
德仁

적색바탕에 묵서

雍正三年乙巳五月日曹溪山松廣
寺八相繪畢敬安」

<상단>

施主秩 斗岑
比丘
巨卞
巨稱
以察

比丘

宝占

進祐

夢念比丘

好安

号侃

朗燭比丘

聖性

雪俊比丘

金氏順化

好忍

<하단>

竺玄

比丘

三信

神印

就演

比丘

孝海

景星

贊悅

比丘

性習

柳繼俊 保体

陟仁 比丘

太輝

貫洽

竹坦

柒卓

比丘

再戒

緣化秩

證明 初燭比丘

以齊比丘
處寬比丘
偉鼎比丘
持誦 再緣
 比丘
惠迪
 比丘
守仁
慧宗
 比丘
弼賢

金魚 義謙比丘
回眼
 比丘
良云
採仁
 曰敏
 宏陟
 比丘
 海宗

就閑 比丘
敏熙
自旻
 比丘
顯賢
智雲

大禪師
 俊益
 比丘
初燭
偉鼎
 比丘
巨海

山中老德

俊卞

比丘

俊悅

啟遠

比丘

省能 比丘

時住持廣善比丘

別座前住持圓解比丘

化主幹善道人彌閑比丘

三綱

必仁

慈澄

淨玄

供養主

敏天 比丘

守眼

最定

比丘

大日

就軒

漢擇

肅鵬

比丘

宗認

木手 報隱比丘

前啣秩

斗岑

思應

比丘

行俊

克行

比丘

捧璘

熙悟

比丘

得悟

道惠

比丘

起仁

朗眼

朗祐

比丘

策泐

覺孝

比丘

察玄

2. 팔상도

① 兜率來儀相

1725年, 絹本彩色, 畫面 123.8×117.0cm, 松廣寺 所藏

| |
|---|
| 護明廿廿從兜率降王宮化日 輪駕白象九十九億諸天子 先從後擁而下廿廿入於大術 胎中諸天亦入各胎願爲 從屬造揚佛法其時周昭 王十三年癸丑七月十五日夜 半也 |
|---|

| |
|---------|
| 金團天子選其家 |
|---------|

| |
|--------|
| 少瞿曇所居處 |
|--------|

| |
|-------|
| 大瞿曇下來 |
|-------|

| |
|--------|
| 此捕賊人妄犯 |
|--------|

昔少瞿曇隱於甘蔗院時捕賊人執捉以王
令貫身射之大瞿曇以天眼觀之神足飛
來曰我徒何罪酷乃是乎曰盛吐血二器持
還精舍呪願曰化爲人却後十月左則成男
右則成女此爲淨飯之先世也

善相波羅門熟示
之告曰必懷聖子
讚嘆而返

菩薩入胎之後諸天人等常隨奉供焉

施主 通政大夫
學順 比丘
緣化秩
證明 初烟比丘
處寬比丘
持誦 再緣比丘
照敏比丘
慧宗比丘
供養主 敏天比丘
最定比丘
敬畫 幸宗比丘
向敏比丘
別座 圓解比丘
化主 彌閑比丘

② 毘藍降生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2.3×116.1cm，松廣寺 所藏

[小畫題]

冷井
溫井

天龍八部衆擁護也

太子託胎月滿母遊於園至無憂樹下
攀樹枝太子右脇而在地湧金蓮奉
太子身其時帝釋以僦尸迦衣奉之則周
昭王十四年甲寅四月初八日也沐浴已周行
七步目顧四方作獅子吼聲六種震動放
大光明貫太微宮昭王聞而奇之刻石
而埋之也

太子誕生將浴之際冷溫二井忽
然湧出諸天人亦下來競欲沐
浴九龍先自吐水灌沐如是諸天
返自無聊矣

諸天眷亦各持物
色供養太子也

或云光照太微宮

或云覆弊魔宮

無數釋種後擁而
去也

王將欲太子還城時毘首羯磨
天人及四大天王並爲童子頭
爲螺髻躬馭寶輦而還也

諸天人亦散花

仙人占相阿私陀仙亦永見太子
飯王出示之仙衆抱慰太子悲
泣不已王問子何不悅曰太子具三
十二相必爲人天師轉大法輪我
亦年老不久命終不聞說法故自
悲云、後登空而去也

阿私陀仙人等

言胎已蓋早訂常身爲度
生以還來今垂化跡也

[書記]

施主 嘉善大夫」
文信 比丘」
緣化秩」
證師 初燭 比丘」
以齊 比丘」
持誦 再緣 比丘」
照敏 比丘」
惠迪」
守仁 比丘」
慧宗 比丘」
供養主 肅鵬」
宗認 比丘」
金魚 回眼」
自敏」
萬連 比丘」
別座 圓解 比丘」
化主 彌閑 比丘」

③ 四門遊觀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3.9×116.0cm，松廣寺 所藏

[小畫題]

城中婦女出見太子遊

初出東門作瓶天子作老人頭白背
曲駐錫羸太子問馭者是何人也答
曰老人又曰何謂老人曰始自兒童次第
遷變形枯色衰餘命無歲故老人曰唯
此一人老也曰一切皆然也太子還宮不悅

復遊南門作瓶天子化作病
人身瘦色癯氣喘命危太
子問馭者曰此是何人曰病
人曰皆如是否曰亦然太子
聞之不悅也

摩耶夫人來見
太子所

太子初啓出家王甚不悅太子復言汝能與我四
願卽不出家王曰何願曰一不老二少壯三無病四
不死王曰汝願世誰得之不許出家曰勅君臣
日夜嚴守又勅輸多那陪加防察又曰國今
無嗣若生一子卽聽出家太子卽指輸陀
腹有胎出家後六年羅候生認子釋疑也

復遊西門作瓶天子又作死
屍出於 路上太子見之心甚
慘惻尤不堪驚苦之志迴
駕還宮端坐思惟人々貴
賤受福若盡無常卽至
時無有異也

復遊北門淨居天人化作沙門於
太子所太子問曰汝何人曰我是
比丘世間無常我修聖道超於
彼岸語已登空而去太子發悟
自恍還永出家王不許矣

施主 通政大夫」
崔起望」
緣化秩」
證師 初燭 比丘」
處寬 比丘」
持殿 再緣 比丘」
照敏 比丘」
養主 敏天 比丘」
敬畫 回眼 比丘」
萬連」
別座 圓解 比丘」
化主 彌閑 比丘」

④ 踰城出家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3.6×117.4cm，松廣寺 所藏

人馬徒來人亦未至
飯王哀痛不禁愁

乳母耶輸但見奴
馬哀痛曰極悲号
度日也

健陟馬還來

車匿還宮獻衣冠

夜半踰城帝釋執盖
四天王奉馬四足而去也

太子座處也

生而異之萬事偕通故名悉達字
天中天踰城時即壬申二月初八日夜
半時年十九歲也

耶輸假寐

五百壯士擐甲持矛晝夜
巡警無暫休息焉

國內侍人皆假寐諸天
來奉悉達之儀也

施主 嘉善大夫「
世英 比丘」
緣化秩「
證師 初爛比丘」
處寬「
偉鼎 比丘」
持誦 再緣「
照敏比丘」
慧宗「
供養主 敏天比丘」
宗認「
金魚 探仁比丘
敏熙比丘
別座 圓解比丘」
化主 彌閑比丘」

⑤ 雪山修道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4.2×117.4cm，松廣寺 所藏

太子父飯王選出
橋陳如水五人令
尋太子深山窮
谷聊無乏處故
懈怡桓盤岐路
也

請迎太子不得許諾而
廻宮之儀也

請迎太子之儀也

樹下六年苦行也

橋陳如水不雉左右
車匿亦然踰春
於八夜棲雪嶺於
六年也

牧女獻粥

人馬辭還悲泣

天神指河岸

選友水

太子聽林仙處

尸多林中

太子修行之際詣泥蓮河測澆衣
沐浴波旬變高河岸菩薩莫能出
岸阿斯多木神構樹枝低河岸攀得
出岸帝釋獻衣善生女奉粥龍
女獻座感動天地也

帝釋獻衣

太子追往諸仙苦行林中
國送大夫及親屬勸
請廻宮太子不許也

飯王以送資
糧

虛空娑神聞地神之
告三十三天諸天下
來汲水也

阿斯那木神低樹

善生女獻粥
無垢天子獻袈裟

地神聳出

聚落神禮拜

帝釋化爲此人

菩薩粥訖鉢擲水中
龍大喜持去帝釋化
爲金翅鳥奪去也

馬舌舐哀嘶

天人汲水來之往之

帝釋奉還建塔

菩薩浴畢地神唱言諸天
太子捨金輪入雪山取糞
掃衣今已洗滌諸天聞已
競取此水將還天宮也

竜女泥蓮多耶手執
宝座從池聳出獻於廿廿
廿廿將還宮建塔也

人辭應主之心也

魚龜飲浴水皆
生天上也

帝釋化爲金翅鳥
奪盂去矣」

淨居天子化作獵士被袈裟而
來太子以宝換質其衣曰此是真
出家也

施主 智玄 比丘」
緣化秩」
證師 初烟」
以齊 比丘」
持誦 惠迪」
守仁 比丘」
供養主 大日」
就軒 比丘」
漢擇比丘」
金魚 良云比丘」
就閑比丘」
別座 圓解比丘」
化主 彌閑比丘」

⑥ 樹下降魔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6.0×117.7cm，松廣寺 所藏

臘月八夜見明星而悟
道

波旬將諸兵欲爲害道而
發怒号令曰汝若不起擲
汝海中菩薩答云汝先動
我淨瓶然後擲我即時
等盡力而不能動瓶焉

覆弊廣宮也

廣王送妙意天女三人

牧女先來獻粥

媚女敗毒於之心媼羸變質

廣有三女端正無倫共來
菩薩前呈諸姿態欲
壞梵行時菩薩慈心
之力三女皆變爲老醜
羸弱之狀等相顧羞愧
而退也

一切賢聖皆
以作訂之儀
也

天龍衛護
之矣

地神踊躍而作訂

魔等穢罪

淨居天人獻草

七佛作證

無數地神從地
聳出作訂也

菩薩詣菩提場天人獻草
其草青綠猶如孔雀項毛
柔軟滑澤過去諸佛皆曰
此草而成正覺也

菩薩終不起去波旬益号令菩薩言
汝雖過去一辟支佛供養功德今爲第
六天天王我即過去歲供養無數諸
佛功德無量如何擲之乎魔曰汝事
誰訂菩薩曰此地神已訂即時地神聳出
魔
降

天宏波旬拒諫領兵
五十餘屬詣太子所
欲作侵害不能障
道宏自退散也

波旬領兵來儀也

施主 通政大夫
鵬三 比丘
緣化秩
證師 以齊 比丘
偉鼎 丘丘
持誦 惠迪 比丘
守仁 比丘
供養主 守眼 比丘
敬畫 卽心 比丘
明習 比丘
別座 圓解 比丘
化主 彌閑 比丘

⑦ 鹿苑轉法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3.5×117.5cm，松廣寺 所藏

[小畫題]

一法乘分共翳塵勞之
誠起道樹詣鹿林初度
憍陳五人亦也

取土造家

群兒造塔

佛与阿難入城乞食群兒途
中造作倉庫以土爲實積
於其中兒見佛來一搦施佛
以此功德後受阿輪迦王造於
多塔之報偉不可測也

小兒施土

初建戒壇

光照八百由旬

須達長者見佛生信以金布地買
於祇佉太子園造立精舍以佛爲
首千二百五十人常衛略舉其槩也

孤獨園中樓至菩薩請佛
立戒壇而王重表三空爲
入佛法壇上置舍利十方諸
佛天龍八部雲集擁護

[畫記]

施主 通政震察
爲亡祖父嘉善
洪仁聞 兩主
緣化秩
 證明 初爛比丘
 處寬比丘
 偉鼎比丘
 持誦 再緣
 照敏 比丘
 慧宗
供養主 敏天比丘
 守眼比丘
 大日比丘
敬書 鵬眼比丘
 良悟比丘
 亘陟比丘

別座 圓解比丘
化主 彌閑比丘

⑧ 雙林涅槃相

1725年，絹本彩色，畫面 123.7×118.1cm，松廣寺 所藏

[小畫題]

大臣優婆吉均
分舍利八斛四
斗舍利三分一
与諸天二与龍
衆三与八王各
持還奉建塔
供養也

阿那律多乘天訃告

拘尸羅城中人見此棺
舉恭敬禮拜供養

聖火自焚四天王及
江河水神欲取舍利
先以香水注火不
少減皆自懺悔而
無然退也

金棺自舉出入東西南北
四門之內外徐乘空示現
大眾悲号大哭震動
世界迷悶蹙地也

佛母持衣鉢錫水而下來
聞說偈悲号不已也

處胎經云大迦葉從摩伽提國
將五百弟子來至佛所聞佛
滅度悲泣世尊以天耳聞之即
從棺裡雙出而足伽葉手摩
不勝悲泣耳

摩耶經云世尊以神力自
開金棺便從棺合拳
而起一孔中放大光明
中各有千佛爲母說偈
語已還闔金棺也

凡火不燃拘尸羅城中三十六
極力士以宝炬投香倭上皆
自珍滅不能荼毘一切皆自
悲号也

[畫記]

施主扶湜爲亡父訓」

鍊僉正 洪繼漢」

緣化秩」

證明 初爛 比丘」

以齊 比丘」

處寬」

偉鼎 比丘」

持誦 惠迪」

守仁 比丘」

供養主 最定 比丘」

就軒」

敬書 鵬眼 比丘」

最祐」

穎賢 比丘」

智雲」

鍊木手 報隱 比丘」

別座 圓解 比丘」

化主 彌閑 比丘」

화기는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불화 화기집』(201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24-02-002

2.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金弘道 筆 西園雅集圖 屏風)

가. 심의사항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13.8.19.)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0.4.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5.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4.2.27.~'24.3.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金弘道 筆 西園雅集圖 屏風)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좌(6폭)
- 규 격 : 전체 150.1×309.4cm
1폭 화면 122.7×47.5cm, 2폭 화면 122.7×51.5cm, 3폭 화면 122.7×51.3cm,
4폭 화면 122.7×51.4cm, 5폭 화면 122.7×51.5cm, 6폭 화면 122.7×47.5cm
- 재 질 : 견본수묵채색
- 형 식 : 병풍
- 조성연대 : 1778년(조선 정조 2)
- 제작자 : 김홍도(金弘道)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6폭 병풍은 그림의 완성도가 높은 1778년 9월의 기년이 있는 작품으로서, 김홍도의 회화 세계를 논하는 주요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또한 이후 유행한 <서원아집도> 병풍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작품으로서도 주목된다.
- 김홍도는 17세기 이래 조선에 유입된 구영본으로 대표되는 명대 <서원아집도>들을 토대로 작품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미불의 「서원아집도기」를 토대로 새로운 장면을 고안하고 섬세한 세부 묘사를 추가해 재창작하였기에, 이 작품은 동아시아의 <서원아집도>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동일한 주제를 그린 김홍도의 1778년 작 <선면 서원아집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는 강세황이 미불의 「서원아집도기」를 1777년에 미리 써 놓았던 것과 달리, 이 병풍에는 그림이 제작된 이후인 1778년 12월에 강세황이 김홍도를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하며 그 이유를 밝힌 내용이 적혀 있기에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하는 귀중한 문헌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이 작품은 김홍도의 뛰어난 인물화 솜씨 뿐 아니라 유기적이고 밀도 있는 화면 구성,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필치, 필법이 풍부한 산수화풍, 적절한 담채의 사용 등 공사간의 주문에 활발하게 응하며 창작하던 34세(1778년) 젊은 나이의 김홍도 화법의 다양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이 서원아집도는 김홍도가 34세 때인 1778년 가을에 그린 기년작으로 김홍도의 고사인물화풍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사인물도 발달 연구상 중요 기준작이 된다.
- 이 서원아집도에는 제5폭과 6폭에 걸쳐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姜世晁)의 긴 제발이 있어 창작과 비평 내지 감상의 양태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그 화제 화제의 내용은 조선시대 서원아집도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 이 서원아집도는 조선 후기에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 자기화하여 중국의 원형보다 더욱 큰 병풍 형식으로 재창안하여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작품이다.
- 이상의 여러 점에서 이 서원아집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 필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 병풍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아회(雅會)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며, 화원 화가를 대표했던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에 적혀 있는 강세황(姜世晁, 1713~1791)의 화평은, 안산 시절 시작된 김홍도와의 사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입증해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는 명대 구영(仇英)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였지만,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한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1폭 우측 상단에는 ‘戊戌菊秋下澣 金弘道’라는 관서가 적혀 있고 金弘道 아래로 ‘金弘道印’의 백문방인이 찍혀 있다. 5폭과 6폭에 걸쳐 14행의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제발이 있다. 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余曾見雅集圖 無慮數十本 當以仇十州所畫爲第一 其外瑣瑣不足盡記 今觀士能此圖 筆勢秀雅 布置得宜 人物儼若生動 至於元章之題壁 伯時之作畫 子瞻之寫字 莫不得其眞意 與畿人相合 此殆神悟天授 比諸十州之纖弱 不啻過之 將直與李伯時之元本相上下 不意我東今世 乃有此神筆 畫固不減元本 愧余筆法疏拙 有非元章之比 祇澹佳畫 烏能免覽者之誚也 戊戌臘月 豹菴題
- 제발 말미에는 ‘광지(光之)’의 백문방인이, 제발 시작 부분에는 ‘재주등산방학지(載酒登山放鶴旨)’의 주문(朱文) 원형 두인(頭印)이 찍혀 있다.
- 그림은 비단에 수묵담채로 그려져 있으며, 6폭의 연폭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다.
- 6폭의 병풍을 일자로 펼쳤을 때 전체 화면 크기는 122.7×300.7cm이며, 각 폭의 크기는 1폭 122.7×47.5cm, 2폭 122.7×51.5cm, 3폭 122.7×51.3cm, 4폭 122.7×51.4cm, 5폭 122.7×51.5cm, 6폭 122.7×47.5cm다.
- 그러나 이 크기는 실제 김홍도가 그린 그림의 전체 크기는 아니다. 각 폭의 접지 부분을 보면, 병풍틀 안으로 그림이 접혀 장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폭의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다른 폭들에 비해 크기가 작은 화폭들 뿐 아니라 51.5cm로 가장 화면이 큰 2폭과 5폭의 경우도 모두 양쪽으로 그려진 부분이 병풍틀 안쪽으로 접혀져 있다. 이렇게 병풍 접지 부분으로 각 폭의 그림이 양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풍을 일렬로 펴서 보면, 전체적으로 각 폭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색하다.
- 1폭 상단 우측의 김홍도 관서 부분인 “戊戌菊秋下澣”의 글씨 역시 병풍 테두리에 바짝 붙어 있으며, 5폭과 6폭에 걸쳐 있는 강세황의 제발 역시 글씨가 적힌 상단으로 여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제발 글자들 중 余, 乃, 元, 章은 글자 윗부분이 잘려져 장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원래 장황되었던 병풍 보다 크기가 작은 현재의 병풍틀에 맞추어 표구되면서

원본 그림에 변형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병풍을 모두 접었을 때 바깥에 노출되는 2쪽과 3쪽의 접지 부분과 4쪽과 5쪽의 접지 부분은 그림 위로 한지와 흰색 비단이 덧대어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원본 그림 위에 부착된 한지와 비단이 외부 노출로 마모되면서 접지 부분의 김홍도 그림도 손상되어 있다.

- 그림의 상하단 회장은 꽃과 석류 등의 넝쿨 문양이 있는 미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상회장 비단은 8.7cm, 하단 비단은 10.9cm로, 하단 표장 비단이 좀 더 넓다. 상하단 표장 비단과 그림 좌우의 가장자리를 따라 약 3.0cm 정도의 문양이 일정하게 있는 금색 비단이 전체 테두리를 두르고 있다. 금색 테두리 비단 바깥쪽으로는 흰색의 띠지를, 안쪽으로는 짙은 남색의 띠지를 들렀는데, 병풍 하단을 보면 띠지의 마감이 수평이 맞지 않게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보인다.
- 병풍 1쪽의 뒷면인 짙은 남색의 광목천 표장에는 제침을 뺀 흔적이 남아 있고 그 위로 1962년에 문화재관리과에서 붙인 덕4057이 적힌 작은 별지가 하단에 붙어 있다. 현재 병풍 상태로 볼 때 덕수품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뒤에 별도의 보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 이 작품은 북송(北宋) 영종(英宗, 재위 1063~1067)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李公麟), 미불(米芾) 등의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
- 미불의 「서원아집도기(西園雅集圖記)」에 의하면, 왕선의 서원아집에 참여한 이들은 이공린, 소식, 채조(蔡肇), 이지의(李之義), 소철(蘇轍), 황정견(黃庭堅), 조보지(晁補之), 장뢰(張耒), 정정로(鄭靖老), 진관(秦觀), 진경원(陳景元), 미불, 왕흠신(王欽臣), 원통대사(圓通大師), 유경(劉涇) 등 16인이었다. 김홍도의 그림에는 왕선의 정원에서 모인 이들 16인을 석벽에 제시하는 미불과 <귀거래도>를 그리는 이공린, 시문을 창작하는 소식, 완(阮)을 연주하는 진경원, 담론하는 원통대사를 중심으로 한 다섯 개의 인물군을 3쪽에서 6쪽에 걸쳐 포치하였다.
- 서원아집의 장면은 고운 비단 바탕에 수목을 위주로 그려져 전체적으로 수목화의 느낌이 강한데, 김홍도는 수목을 위주로 하면서 나뭇잎과 의복, 건물, 서책과 두루마리 등 일부 대상에 녹색과 붉은색 등의 담채를 섬세하게 사용하였다.
-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戊戌菊秋下澣 金弘道”라는 관서로 1778년 9월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쪽에서 6쪽 상단에 걸쳐 14행으로 적힌 강세황의 제발 말미에는 ‘戊戌獵月’이라는 간지(干支)가 있어, 김홍도의 그림이 완성된 3개월 후인

1778년 12월에 강세황의 제발이 적혔음을 알려준다.

- 이 점은 김홍도의 관서가 병풍 1폭 상단에 위치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제발을 받을 자리를 남겨 놓고 그림을 완성했기에 자신의 낙관을 1쪽에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다 앞서 1778년 여름에 제작한 <선면 서원아집도>의 경우는 강세황이 1777년 7월에 미리 미불의 「서원아집도기(西園雅集圖記)」를 적어 놓았기에 김홍도는 그림의 우측 바위 부분에다 마치 석벽에 글이 적힌 것처럼 관서하였다. 1778년에 제작된 김홍도의 <서원아집도> 두 작품은 모두 강세황의 제발 위치를 고려해 낙관 위치를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 강세황은 제발에서 자신이 일찍이 본 <서원아집도> 수십 점 중에서 구영(仇英)의 것이 제일 나왔는데, 김홍도의 이 그림은 필세가 빼어나고 포치가 적절하며 인물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려져, 구영의 섬약함과 비교하면 더 나은 뿐 아니라 이공린의 원본과도 서로 우열을 겨룰 만한 당대의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하였다.
- 강세황의 제발과 현재 전하는 구영 전칭작이나 구영 모본을 토대로 한 소주편(蘇州片) 명대 <서원아집도>들은 김홍도가 17세기 이래 조선에 소개된 구영 본 <서원아집도>들을 토대로 이 작품을 재구성하였음을 알려준다.
- 소철과 정정로, 조보지, 파초 부채를 잡은 채 자세히 바라보는 황정견과 장뢰에 둘러싸여 그림을 그리는 복견(幅巾)에 갈옷을 입은 4폭의 이공린과 왕선, 채조, 이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언가를 적는 5폭의 소식, 그리고 1폭에서 2폭 하단에 그려진 홍살문이 ㄷ자로 만들어내는 구도가 특히 구영본을 토대로 한 명대 <서원아집도>와 공유하는 특징이다.
- 그러나 김홍도는 기존 <서원아집도>를 참고한 동시에 미불의 「서원아집도기」를 토대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다. 일례로 명대본 <서원아집도>에 주로 보이는, 왕선 옆에 두 명의 시녀가 서 있는 모습을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왕선 뒤쪽으로 시녀 1명이 서 있고, 그 뒤로 커다란 석상에 고동기와 서화, 거문고가 놓여 있는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는 현재 전하는 구영본 <서원아집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 김홍도는 미불의 「서원아집도기」 중, “뒤에 계집종이 쪽진 머리에 비취 장식을 하고 시립(侍立)한 자태가 부귀하고 우아하다. 곧 왕선의 가희(家姬)다. 한 그루 소나무가 울창하고, 뒤에 능소화가 얽혀 붉은 빛과 초록이 섞여 있고, 아래에는 큰 돌 탁자가 있어 고동기와 거문고를 진설하였으며 파초가 둘러싸 있다”고 한 구절을 토대로 이 장면을 창안한 것으로 보인다.
- <귀거래도>를 그리고 있는 이공린 뒤의 삼병이 그려져 있는 것도 주로 괴석을 배경으로 그 앞에 이공린을 배치한 다른 중국 본 <서원아집도>들과 구별

되는 점이다. 특히 삼병에는 새 한 마리가 대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 화폭에는 ‘동파거사(東坡居士)’라는 묵서도 보인다. 김홍도는 세심하게 그림 안의 그림에까지 관서를 적은 것이다.

- 사슴과 학을 2폭과 3폭에 걸쳐 사선 구도로 눈에 띄게 배치했는데, 이러한 요소 역시 중국본 <서원아집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김홍도 그림의 특징이다. 또한 그림의 중앙인 3폭에는 곧게 뻗은 오동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1690년 작품인 <권대운(權大運) 기로연회도(耆老宴會圖)> 병풍에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역시 6폭에 걸쳐 그림이 그려진 <권대운 기로연회도> 병풍의 3폭에도 오동나무가 곧게 그려져 있다. 또한 이 작품에 그려진 괴석과 파초, 학 등의 이미지 역시 김홍도의 <서원아집도> 병풍에 삽입된 상서로운 이미지들과 유사하다. 이는 김홍도가 숙종 대 이래 <서원아집도>를 응용한 다양한 화원 화풍의 전통 역시 창작에 참고했음을 알려준다.

○ 지정사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김홍도 작품은 국보 1건을 포함한 모두 10건으로 다음과 같다. <서원아집도>를 주제로 한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없다.

- <군선도 병풍(群仙圖 屏風)> (삼성문화재단) 1971.12.21. 국보지정.
- <풍속도 화첩(風俗圖 畫帖)> (국립중앙박물관) 1970.12.30. 보물지정.
- <병진년 화첩(丙辰年 畫帖)> (삼성문화재단) 1984.08.06. 보물지정.
- <추성부도(秋聲賦圖)> (국립중앙박물관) 2003.12.30. 보물지정.
-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간송미술문화재단) 2018.02.22. 보물지정.
-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 8폭 (간송미술문화재단) 2018.02.22. 보물지정.
- <과로도기도(果老倒騎圖)> (간송미술문화재단) 2018.02.22. 보물지정.
-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삼성문화재단) 2018.10.04. 보물지정.
- <산수인물도(山水人物圖)> (부산박물관) 2012.05.17.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지정.
- <매해파행도(賣醢婆行圖)> (이화여자대학교) 2017.12.07.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지정.

○ 참고문헌

- 김울림·장진아·권혜은·오다연, 『조선시대 고사인물화 II』, 국립중앙박물관, 2016.
- 유보은, 「조선 후기 서원아집도와 그 다층적 의미: 김홍도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3, 2009.
- 장진성, 『단원 김홍도-대중적 오해와 역사적 진실』,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 Ellen Johnston Laing, “Real or Ideal: The Problem of the “Elegant Gathering in the Western Garden” in Chinese Historical and Art Historical

Record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88, No.3(1968).

○ 기 타

이 병풍은 1913년 3월 31일에 경성(京城)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골동상에게서 이왕가박물관이 구입하였으며, 1962년 7월 2일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 현 상

건본에 수묵을 중심으로 채색을 조금 가미하여 6폭을 한 화면으로 사용하여 그린 서원아집도이다. 병풍 전체를 펼쳤을 때 네 변의 가장자리를 3~3.3cm 폭의 노란색 비단으로 둘렀다. 그림 화면은 좌우측 양끝은 바로 노란색 비단에 연결되었으나, 상하는 미색에 가까운 연한 비단으로 위는 8.7cm, 아래는 10.7cm씩 여백을 두어 족자에서의 회장(繪粧) 역할처럼 하였다. 그래서 세로 길이가 122.7cm인 화면이 병풍에 가득 차 보인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상황 상태는 20세기에 들어와 어느 때인가 새로 고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병풍의 이전 모습을 보여주는 유리건판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건판번호03692). 건판사진의 상태가 희미하지만 이 병풍의 제1,2폭을 찍은 모습으로 확인된다. 건판사진에 보이는 병풍은 현재의 상황상태와 달리 아래쪽 회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쪽에 비해 훨씬 높아 병풍의 전체 높이가 지금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병풍의 뒷면은 접었을 때 외부에 노출되는 제1폭과 6폭은 청색 천으로 마감하고, 나머지 제2폭에서 5폭까지는 하얀색 종이가 노출되어 있다. 병풍의 목제틀의 흔적이 네 변 및 상하 두 줄의 가로줄로 남아 있다. 제1폭의 좌상단에는 흰색 종이를 제첩을 쓸 종이를 붙였으나 일부 찢어지고 아무 글씨도 쓰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적한 대로 20세기에 새로 고칠 때 제첩 종이만 붙이고 제목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첩종이의 가장 아래쪽에는 9262란 숫자가 적혀있으나 두 줄로 가로로 그어 이 번호를 폐기, 수정하였음을 표시하였다. 그 위에는 현재의 유물번호인 덕4057이란 작은 종이가 거꾸로 붙여져 있다. 이 점은 현재의 병풍 형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단서를 제공한다. 즉 9262란 옛날 관리번호가 사용되다가 현재의 덕4057이란 번호로 바뀐 사이에 새로 장황되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화면 전체는 세월로 인한 변색과 일부 박락이 곳곳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상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제1폭 우상단에 “戊戌菊秋下澣 金弘道”라 관서되어 있다. 이로써 이 작품이 김홍도가 34세 때인 1778년 가을에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5폭과 6폭의 상단에는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姜世晁, 1713~1791)이 다음과 같은 긴 화제를 써 두어 이 병풍 뿐 아니라 조선시대 서원아집도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내가 전에 아집도를 본 것이 무려 수십 본인데, 그 중 구영의 것이 제일이었고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김홍도가 그린 이 그림을 보니 필세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포치도 적당한데 인물은 의젓하고 살아있는 듯 하다. 원장(元章 米芾)이 벽에 글씨를 쓰고 백시(伯時, 이공린)가 그림을 그리고 자瞻(子瞻 소동파)이 글을 쓰는 모습은 그 참 뜻을 얻었으니, 실제 사람들과 서로 일치하는 듯 하다. 이는 거의 신(神)이 깨우쳐 주고 하늘이 가르쳐 준 것이니 구영(仇英)의 섬약함과 비교하면 더 나은 뿐 아니라, 장차 이공린의 원본과도 서로 엇비슷하니, 금세 우리 동방에 이런 신필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림은 진실로 원본보다 못하지 않은데 내 필법은 못나서 미불에 비할 수 없으니 다만 아름다운 그림을 더럽히게 되었다. 어찌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의 꾸짖음을 면하라. 무술년 납월 표암제

(余曾見雅集圖 無慮數十本 當以仇十洲所畫爲第一 其外瑣瑣不足盡記 今觀士能此圖 筆勢秀雅 布置得宜 人物儼若生動 至於元章之題壁 伯時之作畫 子瞻之寫字 莫不得其真意 與其人相合 此殆神悟天授 比諸十洲之纖弱 不啻過之 將直與李伯時之元本 相上下 不意我東今世 乃有此神筆 畫固不減元本 愧余筆法疏拙 有非元章之比 祇澆佳畫 烏能免覽者之諍也 戊戌臘月 豹菴題)

이 작품은 병풍처럼 쳐진 암벽 앞의 공간에 열 여섯 명의 인물이 다섯 개의 군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미불(米芾)의 「서원아집도기」를 염두에 두고 김홍도가 창안한 구도로 보인다. 다섯 군은 첫째 석벽에 글을 쓰는 미불(米芾)과 이것을 구경하는 왕중옥(王仲玉)과 동자(제3폭), 둘째 글 쓰는 소동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제4폭), 셋째 귀거래도를 그리는 이공린 중심의 그룹(제5폭), 넷째 뒤틀린 고회(古檜)나무 등걸에 앉아 비파를 연주하는 진벽허(陳碧虛)와 이를 듣는 진소유(秦少游)(제6폭), 마지막 다섯째로 대나무 숲에 앉아 설법하는 원통대사(圓通大師)와 이를 듣는 유거제(劉巨濟)이다(제6폭). 이러한 구도는 앞서 강세황이 언급한 중국의 구영의 작품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김홍도의 창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폭의 넓은 병풍 화면을 이용하여 서원아집이 열린 북송대 왕선(王詵, 1048~1104)의 후원을 시원스럽게 배치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앞서 언급한 다섯 군의 인물을 자연배경 속에 안배하였다. 중국의 서원아집도를 찾아보면 주로 한 폭의 족자나 횡권 형식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활발히 제작된 것은 명대의 구영(仇英) 일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구영의 서원아집도는 여러 점이 전하는데 이병풍의 제1,2폭에 그려진 서원의 입구 모습이나, 큰 床을 중심으로 소동파나 이공린이 서

화를 제작하는 모습은 김홍도의 모범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세황의 제발에서 지적한 데로 한 폭의 족자에 인물군을 오밀조밀하게 집어넣은 구멍이나 중국의 서원아집도에 비해, 김홍도는 병풍 형식을 이용하여 넓은 공간감과 인물마다의 자유로운 행동거지, 각 인물의 심리적 양태를 잘 표현하였다. 김홍도는 중국의 서원아집도나 화보, 그리고 미불의 「서원아집도기」 등을 참조하여 병풍 형식의 서원아집도를 창안하였다. 이 형식은 이후 강필주(姜弼周), 김달황(金達晃), 이시눌(李時訥), 이팔룡(李八龍) 등 후대 서원아집도의 선구가 되었다. 김홍도의 서원아집도병풍은 중국에서 전래된 형식을 창의적으로 변형, 발전시킨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米芾, 「西園雅集圖記」.
- 『列聖御製』, 숙종대왕편 권12, 「題西園雅集圖」.
宋時駙馬西園中 十六諸人燕集同 奚但卽圖知勝處 至今千載想高風
송나라 때 부마의 서원 뜰에 열 여섯 명 뛰어난 인물들이 함께 모였네.
어찌 그림을 보아야만 아름다움을 알리오, 천년 후에도 높은 풍류를 생각하네.
- 洪祐喆의 제화시 「서원아집도」, 『蕉堂詩草』.

○ 참고문헌

-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 용만 부르그린드, 「구미 박물관 소장의 <서원아집도> 2점에 대한 소고」,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2006.
- 유보은, 「조선 후기 서원아집도와 그 다층적 의미: 김홍도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3, 2009.



○ 현 상

- 6폭 병풍은 서원(西園)을 배경으로 문인들이 시서화를 즐기고 음악을 연주하는 등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살피는 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하단부 전체가 가로로 길게 손상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도1]



<도1. 김홍도, <서원아집도>, 1778년, 견본수묵채색,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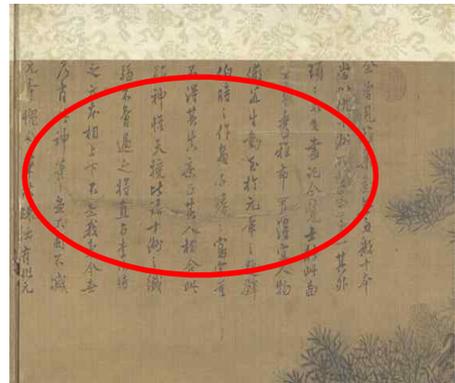
- 병풍의 하단부는 제3폭이 가장 훼손이 심하며, 특히 제1폭과 제2폭의 연결 부위 및 제4폭과 제5폭의 연결 부위가 떨어져 있고 [도2], 3폭에서 학이 그려진 부분[도3]과 제시가 적혀 있는 부분 역시 찢긴 것을 다시 붙여 놓은 상태이며 [도4], 곳곳에서 손상된 흔적들이 발견된다.



<도2. 김홍도, 제1폭과 제2폭 연결 부위 대문, <서원아집도> 부분, 1778년, 국립중앙박물관>



<도3. 김홍도, 제3폭 학 있는 부분, <서원아집도> 부분, 1778년, 국립중앙박물관>



<도4. 김홍도, 제5폭 제시 부분, <서원아집도> 부분, 1778년, 국립중앙박물관>

- 병풍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제1폭과 제2폭 연결 부위에서 대문 형태가 어색해진 것[도5], 강세황(姜世晁, 1713~1791)이 쓴 제시의 일부가 배접 안쪽으로 들어간 것[도6] 등으로 보아 다시 개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5. 김홍도, 제1폭과 제2폭 연결 부위,
<서원아집도> 부분, 1778년, 국립중앙박물관>

<도6. 김홍도, 제5폭 제시,
<서원아집도> 부분, 1778년, 국립중앙박물관>

○ 내용 및 특징

-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가 1087년 북송의 수도 개봉(開封)에 위치한 왕선(王詵, 1036~1089 이후) 소유의 서원(西園)에서 글을 짓는 소식(蘇軾, 1036~1101)과 그림 그리는 이공린(李公麟, 1040~1106), 암벽에 시를 적는 미불(米芾, 1051~1107), 비파를 연주하는 도사 진경원(陳景元), 설법을 전하는 스님 원통(圓通)대사 등 문인 16명의 ‘서원아집’ 고사를 6폭 병풍에 그린 것이다.
- 병풍의 그림은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된 높은 대문 안쪽의 정원과 계류를 배경으로 다섯 그룹의 문인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암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미불을 시작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공린과 글씨를 쓰는 소식, 비파를 연주하는 진경원, 계류 건너편에 위치한 대나무 숲에서는 원통대사가 유경에게 강론을 전하고 있다.
- 제5폭과 제6폭의 상단 여백에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화평(畫評)이 적혀 있으며, 그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일찍이 아집도를 본 것이 무려 수십 점이다. 그 중에 구영의 것이 제일이었고, 그 외 변변치 않은 것들은 논할 가치가 없다. 지금 김홍도의 이 그림을 보니 필세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포치가 적당함을 얻었으며, 인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미불이 암벽에 시를 적고, 이공린이 그림을 그리며, 소식이 글씨를 쓰는 것 등에 있어 그 참된 뜻을 얻어 그 인물과 서로 들어맞으니 이는 거의 정신으로 깊이 깨달은 것이거나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다. 구영의 섬약함과 비교하면 더 나은 뿐만 아니라 이공린의 원본과도 서로 우열을 겨룰 만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신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림은 진실로 원본과 유사하나 나의 필법이 성글고 서툴러 미불과 견줄 수 없다. 다만 좋은 그림을 더럽히는 것이 부끄럽구나. 어찌 보는 이의 꾸지람을 면할 수 있으리오. 무술년 12월 표암이 제하다(余曾見雅集圖, 無慮數十本. 當以仇十州所畫爲第一, 其外瑣瑣, 不足

盡記. 今觀士能此圖, 筆勢秀雅, 布置得宜, 人物儼若生動. 至於元章之題壁 伯時之作畫 子瞻之寫字 莫不得其真意, 與畿人相合. 此殆神悟天授. 比諸十州之纖弱, 不啻過之, 將直與李伯時之元本相上下. 不意我東今世, 乃有此神筆. 畫固不減元本, 愧余筆法疏拙, 有非元章之比. 祇洵佳畫, 烏能免覽者之誚也. 戊戌獵月豹菴題).”

- ‘조선 후기에 문인들의 풍류적 모임을 그린 아집도(雅集圖)가 성행하였고, 그 중에 구영 작품이 제일이지만, 김홍도의 <서원아집도>를 실견하니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한’ 강세황의 평가는 구영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해준다.
- 역사적으로 ‘서원아집’은 실제 하지 않는 모임이지만, 문인의 이상적 풍류 모임으로 남송 이래 그림의 소재가 되었으며, 명대에 이르러 구영(仇英, 1498~1552)에 의해 두 가지 도상이 정립되었다. 하나는 높은 대문 안쪽의 정원을 배경으로 한 모임이며[도7,8], 다른 하나는 난간 안쪽으로 펼쳐진 정원과 정자를 배경으로 시서화와 음악 등을 즐기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도9]



<도7. 仇英, <서원아집도>, 건본수묵담채, 141×66.3cm,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도8. 작가미상, <서원아집도>, 건본수묵담채, 142.9×59.7cm,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9. 仇英, <서원아집도>, 지본수묵, 86.6×30cm,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 이로 미루어 김홍도는 구영의 <서원아집도>에서 도상을 차용했지만, 중국인의 공필채색화에서 벗어나 과감한 필치로 대문 앞쪽의 버드나무를 비롯해 정원

내의 태호석과 바위, 소나무 등에서 조선적 미감을 배가시키고, 사슴과 학을 추가하여 조선적인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 지정사례

김재중(金在重, 1804~?)이 서원아집(西園雅集) 고사를 따라 화공에게 모임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참석자의 차운시를 모아 화첩으로 꾸민 《괴원성회록(槐園盛會錄)》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2010년 6월 17일 지정되었다.

○ 참고문헌

- 유보은, 「조선 후기 서원아집도와 그 다층적 의미: 김홍도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3, 2009.

3. 남원 대복사 동종

(南原 大福寺 銅鍾)

가. 심의사항

‘남원 대복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남원 대복사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3.7.21.)이 있어 관계 전문가 조사(’23.11.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24.2.27.~’24.3.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1973.6.23. 지정)
- 명 칭 : 남원 대복사 동종(南原 大福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복사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대복사길 61, 대복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6.3cm, 입지름 58.5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635년(조선 인조 13)
- 제작자 : 정우(淨祐), 신원(信元), 해원(海元), 지감(知甘), 혜학(惠學) 등



<남원 대복사 동종>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신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의해 전라도 태인현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1635년에 승려 장인인 주종장(鑄鍾匠) 정우(淨祐)·신원(信元)·해원(海元)·지감(知甘)·혜학(惠學)·혜영(惠英)·소립(小立)의 7명이 제작한 작품이다. 이렇게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와 봉안 사찰과 시주자와 시주 물품 및 제작 장인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대복사 동종을 조성한 주종장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승려 장인이었다. 이들은 1625년 <안양 삼막사 동종>(화재로 소실)을 비롯하여 1635년 <남원 대복사 동종>, 1636년 <부여 백련사 동종>과 <부여 무량사 동종>, 1636년 <보은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 1641년 <하동 쌍계사 동종>까지 16년간 6점의 동종을 제작하여 동시대의 대표적인 장인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들은 17세기 후반 승려 주종장인 사인과 교섭하고 영향을 주어 17세기 범종을 비롯한 금속공예사의 연구나 장인계보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이어서 학술적 가치가 두드러진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천판 위 음통 없는 종뉴로 갖춘 쌍룡의 도상이 충실하면서 여의주를 뒷발로 쥐고 앞발로 천판을 딛는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형태의 종신 위에는 볼록 솟은 입상연판문대에 55개의 화불의 배

치가 독특하고, 상단에는 뇌문과 사다리꼴 연곽, 중단에는 원형 범자문과 보살입상과 위패, 하단에는 연화당초문을 배치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러한 상중하단은 동일한 문양판이 사용하여 패턴화된 의장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1,000 여자에 이르는 주성기의 명문을 양각이나 점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새기는 등 17세기 전반 범종 양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형 예술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대복사 동종은 구리 64.7%, 주석 18.9%, 납 18.3%로 구성된 동 합금 유물로 조선의 금속 공예 기술의 뛰어난 성취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작 이후 4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종을 제작할 당시의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범종 유물로서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남원 대복사 동종은 1635년 당시 최고의 주종장이었던 정우와 신원 등 7명의 승려가 입상화문대에 화불을 배치하거나 상단의 뇌문과 중단에 보살상과 위패를 부조하거나 하대에 모란연화당초문을 장식하여 구조한 불교 금속공예품으로서 제작 연대와 봉안 사찰 및 제작자가 확실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고, 17세기 전반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6점의 범종들 중 가장 앞서 학술적으로 주목되며, 구리와 주석 합금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상중하단의 문양 장식이 조형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탁월하다는 점에서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635년 태인현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정우, 신원 등 정우 유파가 제작한 17세기 전반기 종으로 한국 동종 연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용뉴와 천판, 입상화문대와 연곽과 연뢰, 보살과 원패, 진언, 상·하대의 문양의 구성과 배치 등이 종의 종교적 기능에 맞게 적절하면서도 조화롭게 구성하였으며, 종의 어깨부터 종의 입까지 완만하게 배가 불렀다가 줄어드는 종의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다.

대체로 전통 동종 양식을 기반으로, 종뉴에서 중국 鍾 양식을 절충하였고, 또 천판의 입상화문대와 상대의 뇌문,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은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등을 맞댄 두 마리 용의 형세를 달리하여 구성한 용뉴라든가, 입상화문대의 연곽에 마치 蓮花下生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2단 네모 칸 속에 ‘육자광명진언’과 ‘파지옥진언’을 새겨 넣어 부처님의 소리로 지옥중생을 구제하려는 동종의 종교적 기능과 상징성을 부각시킨 점, 여의를 든 측면관의 보살입상을 종의 어깨 부분에 배치한 점, 연곽대 밑에 불법의 진과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창작 의지 내지 개성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종은 17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 활약한 주종장 정우, 신원 등이 협력하여 작품이다. 그 중 수장인 정우가 참여하여 만든 작품은 추정 작까지 합하면 모두 5점

으로, 그 중 대복사 동종은 주종장 정우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우의 초창기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나아가 불교 조각과 마찬가지로 유평화 되어 가는 17세기 동종 장인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복사 동종은 이와 같은 점에서 조선 후기 동종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남원 대복사 동종은 전라도 태인현 영원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1635년에 제작한 작품이다. 이 동종이 원래의 봉안 사찰인 영원사를 떠나 지금의 대복사로 이안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다만,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750년 전·후 『정읍현지도』, 1789년 『정읍현읍지』, 1799년 『범우고』 등 영원사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정읍현 칠보산에 위치하였던 영원사와 동일한 사찰로 추정되며, 이 사찰이 18세기 말에 폐사되면서 그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남겨진 작품을 통해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출신 주종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는 승려 신분의 巨匠으로 손꼽히는 사인과 태행 등이 제작하는 동종 양식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선배 장인으로 주목된다. 현재까지 정우와 신원의 주종 활동은 1625년 2월 안양 삼막사 동종(소실)을 시작으로 1635년 3월 남원 대복사 동종, 1636년 3월 부여 백련사 동종 및 무량사 동종, 1636년 6월 보은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 1641년 3월 하동 쌍계사 동종까지 약 16년 동안 6점의 동종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두 마리의 용이 하나의 몸체로 이어져 각각 입을 벌려 혀 아래에 여의주를 머금었고 머리는 반대 방향으로 돌린 쌍용의 종뉴를 갖추었다. 종뉴는 서로의 몸을 연결해 동종이 걸릴 수 있는 높은 고리를 만들고, 고리 위에 장식된 보주를 뒷발로 쥐었으며, 각각의 앞발로는 천판을 딛으며 동종의 무게를 지탱하였다. 특히, 용의 표현은 도상을 묘사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였는데, 수염의 표현만은 두 마리가 서로 다른 점이 독특한 특징이다.

종신의 외형은 거꾸로 엮어진 안정된 포탄 형태이며, 몸체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 문양이 균형감 있게 배치되었다. 천판의 끝부분 전체를 돌아가며 일정한 간격으로 부조된 입상연관문대가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방형의 뇌문이 상단의 장식으로 시문되었다. 상단의 장식과 연결한 사다리꼴 형태의 연곽을 4곳에 두었으며,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 내부에는 연화좌가 중첩된 연뢰를 9개씩 장

식하였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육자대명왕진언’과 ‘과지옥진언’의 진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2단으로 양각한 원형의 범자문 16개를 부조하였고, 연곽 사이와 연곽 바로 아래에 고부조로 장엄한 4구의 보살입상과 4구의 위패,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입면과 평면의 연꽃이 어우러진 연화당초문을 시문하고 있다.

정우와 신원이 만든 동종은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불림감과 균형감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종형, 종뉴의 형태와 상관없이 ‘∩’형으로 높이 튼 용의 몸체와 도상에 충실한 용의 묘사, 입상연판문대-상단의 뇌문 장식-사다리꼴 연곽-원형의 범자문-하단의 연화당초문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의장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종의 전통 양식인 죽절형의 종뉴를 비롯해 입상연판문대, 보살입상, 범자문 등을 장엄 문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승려 주종장 정우와 신원의 활동 기간 초기에 제작한 작품이다. 이 동종은 정우와 신원의 작품 양식과 활동 과정을 살필 수 있고, 더불어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봉안 사찰, 시주자 및 시주 물품, 제작 장인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종장으로서 활동한 과정과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사인과 태행으로의 양식 전승 등에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 조선 후기 주종장에 대한 체계와 계보 연구를 비롯해 사원 경제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정우와 신원은 동시기에 활동하지만 외래 양식의 동종을 제작한 승려 주종장 설봉천보(雪峰天寶, 1595~1634 활동), 일반 장인 김용암(金龍岩, 1642~1660 활동)과 달리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동종을 제작한 주종장들이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안양 삼막사 동종이 소실되어 현존하는 정우와 신원의 작품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도 중요하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동종 양식을 계승하면서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는 승려 주종장 사인과 태행이 제작하는 동종의 양식적 영향을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선 후기 불교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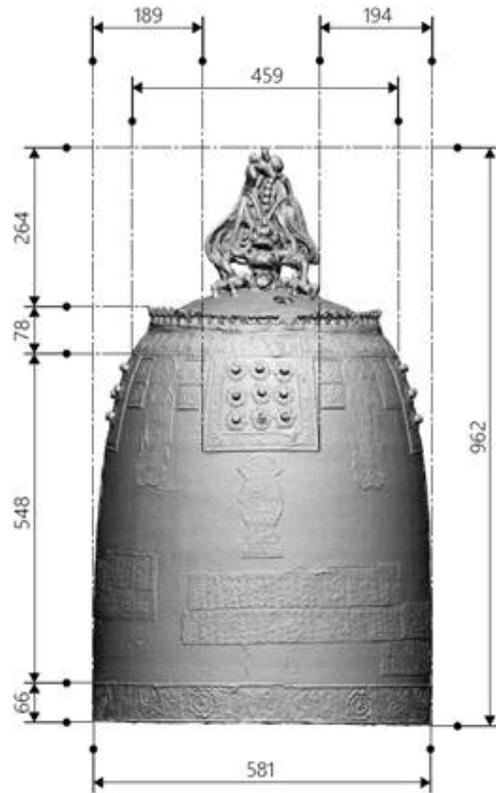
조사보고서

□

○ 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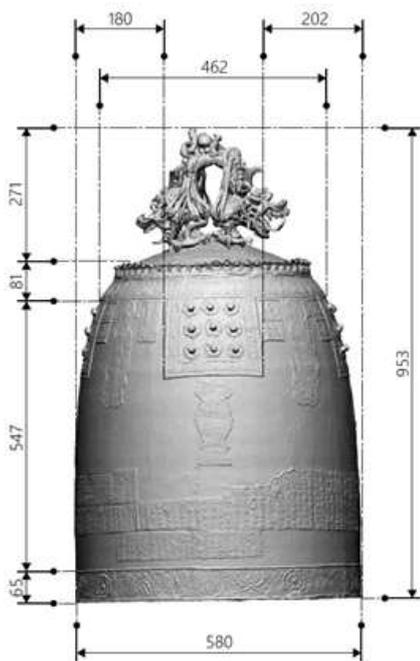
<남원 대복사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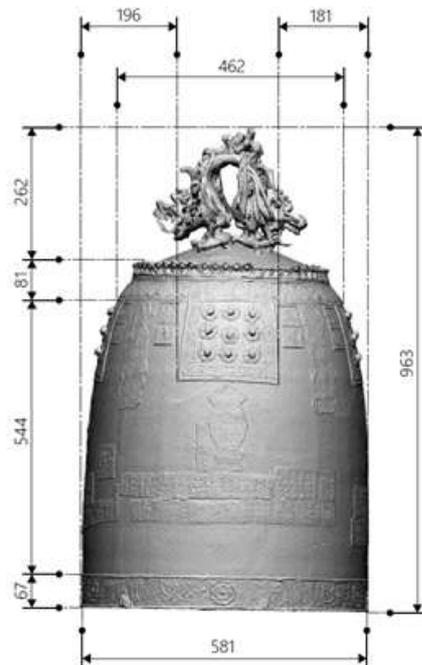
<남원 대복사 범종-3D 정면도>

<남원 대복사(大福寺) 범종>은 1635년(崇禎 8) 3월에 승장 정우(淨祐), 신원(信元), 해원(海元), 지감(知甘), 혜학(惠學) 등이 함께 조성한 높이 95cm, 입지름 59cm의 비교적 규모가 큰 동종이다. 종의 정상부에는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가 환조되어 있는데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가 배치되어 있다. 종의 어깨 위에는 불록 솟은 천판 끝에 입상연판문대에 합장한 승상이 촘촘하게 부조되어 있다. 종은 상단과 중단 및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단의 네 면에는 사각형의 유곽대에 연주문과 당초문을 각각 배치하고 그 안에 9개의 돌출된 유두는 작은 연꽃봉오리처럼 솟아 있다. 중간의 몸통 각 부분에는 보살상, 위패형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범종에는 종신의 중앙을 빙 둘러 가득 1,000여 자 이상의 주종기가 돌을새김[陽刻]으로 새겨져 있고, 정우·신원·해원·지감·혜학 등 제작 장인의

명문이 점각[點刻]으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승장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범종들과 양식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원 대복사 범종-3D 좌측면도>



<남원 대복사 범종-3D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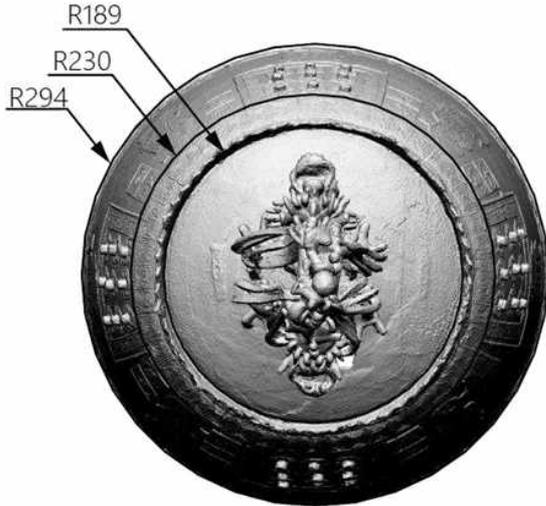
○ 현 상

대복사는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이다. 사찰의 역사적 기록을 증명할 사적기는 없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893년(진성여왕 7)에 도선국사가 이곳의 지세가 너무 강하다고 여겨 이를 누르기 위해 대곡암(大谷庵)이란 절을 세웠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인 1597년(선조 30)에 절이 불에 타 소실되었으나 1849~1863년 남원에 살던 강대복이라는 사람이 극락전을 다시 짓고 사찰 이름을 대복사로 했다고 한다. 그 후에 다시 폐사되었다가 1938년 박경찬(朴敬贊)과 그의 부인 황(黃)씨가 중건했다. 1960~1970년대 초에 승려 월호와 보살 견성화가 대복사 불교회관을 건립하였고,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에서 대복사 철불좌상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3호로, 대복사 동종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하였으며, 이 범종이 소장되어 있는 대복사 극락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원 대복사 범종은 전체적으로 천판부터 종신의 상단에서 중단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가 하단에 가까울수록 직선에 가까운 안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주재료는 청동으로 주조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짙은 검은색을 띠고 있다.

범종의 천판은 불룩 솟은 반구형 위에 음통이 없는 쌍용의 종뉴가 배치되어 있다. 용뉴는 두 마리의 용이 하나로 이어지고 용머리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두 마리 용은 서로 각각 앞발로 천판을 덮고, 연주문이 촘촘히 박혀 있는 등줄기를 ‘∩’형으로 구부려 ‘U’자형 고리에 걸었고, 고리 위쪽 커다란 보주를 각자의 뒷발로 감싸 쥐고 있다.



<남원 대복사 범종-3D 평면도>



<남원 대복사 범종-내부도>

7명의 주종장들은 용의 도상을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표현하였다. 이마 위 뿔 두 개는 뭉툭한 사슴뿔과 같고, 짧은 대롱 모양의 귀는 말이나 당나귀의 귀와 같다. 화염 문양의 긴 눈썹과 타원형의 눈두덩이 아래 납작한 들창코와 콧방울 옆에 빠져나온 짧은 촉수의 끝은 동그랗게 말려 인중 아래 있다. 입은 크게 벌려 윗니와 어금니가 드러나고, 여의주는 윗니 앞까지 내민 혀 아래에 위치해 있다. 몸 전체에는 비늘이 뽁뽁하게 새겼고, 각각의 앞발에서 나온 것이 용의 등에 얹혔다. 쌍용의 수염은 서로 달라 하나는 뺨에서 돌출되어 짧고 뭉툭하고, 다른 하나는 입꼬리부터 길게 뻗어 뒷발까지 연결되어 있다.



<남원 대복사 범종-용뉴>



<남원 대복사 범종-천판 어깨 부분의 입상연관문대>

남원 대복사 범종의 종신에는 상·중·하단의 각 부분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 문양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첫째, 범종의 어깨에 해당되는 천판의 끝부분에는 입상연관문대(立像蓮瓣紋帶)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어깨 부분을 꽃잎을 세워 장식하는 것은 고려 종의 영

향을 받은 것이다. 입상대 부분에는 삼각형의 뾰족한 꽃잎형 공간은 총55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 꽃잎 안에는 각각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한 승상(僧像)의 화불(化佛)이 한 구씩 촘촘하게 부조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둘째, 입상대의 바로 아래쪽 상단에는 위·아래 반원을 연속적으로 펼친 작은 무늬가 있다. 그 사이에는 높이 5cm, 가로 3.5cm 크기의 뇌문을 가로 19cm의 판에 새긴 것을 7번, 10cm의 판으로 한 번 더 둘러진 뇌문을 정연하게 장식했다.



<남원 대복사 범종-상단 연곽, 범자, 보살상> <남원 대복사 범종-상단 연곽, 범자, 보살상>

셋째, 연곽은 상단의 장식과 연결되어 윗변이 좁고 아랫변이 넓은 사다리꼴의 형태로 동종의 4곳에 배치되어 있다. 연곽의 테두리에는 활짝 핀 연꽃과 연화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다. 연곽 내부에는 각각 9개씩의 유두가 중앙에 작은 꽃술과 그 주변에 만개한 연꽃잎을 중첩한 연화좌 형태의 연뢰를 총 9개씩 장엄하였다. 6엽의 넓은 잎으로 구성된 화문좌 위에 돌기된 연뢰를 9개씩이 배치되어 있다.

넷째, 연곽과 연곽 사이 좌·우에는 방형의 범자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있다. 범자는 2단의 방형 구획 안에 원권(圓圈)을 위·아래 두어 필선의 곡선이 강조된 붓글씨 형태로 범자를 새긴 모습이다.

다섯째, 연곽 바로 아래로는 4면마다 각각 1개씩 새겼는데 그들은 높이 17.5cm의 원패(願牌) 2개와 18.0cm의 원패 2개이고, 패면에는 16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위패는 4각의 높은 패좌 위에 긴 장방형의 패액, 삼곡 능형의 패신과 패두를 갖추었는데, 이것들은 각각 동일한 문양판을 이용하여 부조한 것이다. 중앙의 패액에는 ‘중도반석 왕도미륵 혜일장명 범주사계(宗耑磐石 王道彌隆 惠日長明 法周沙界)’라는 왕실의 안녕과 불법의 전파를 기원하는 내용을 정연하게 적었고, 좌·우에 붙인 패신에는 각각 패두 방향으로 머리를 들고 몸은 S자로 형태로 길게 펼친 후 앞·뒷다리를 움직이며 날아가는 용을, 패두에도 같은 형태로 몸을 만들어 정상에 위치한 여의주를 다투기 위해 서로 마주 보며 구름 위에 비상하는 두 마리의 용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원패의 모습은 17세기 승려 장인의 범종에 공통되고 있다.



<남원 대북사 범종-중단의 각종 문양과 명문: 연곽, 범자문, 보살상, 원패, 주성기> <남원 대북사 범종-중단의 각종 문양과 명문: 원패, 발원문>

여섯째 연곽과 연곽 사이에 위치한 4구의 보살입상은 지물을 든 모습으로 위패와 마찬가지로 각각 동일한 문양판을 이용하여 부조한 것이다. 보살입상의 크기는 높이 22.5cm, 가로 75cm의 크기로 모두 한 문양판에서 밀랍으로 뽑아내어 붙인 것이다. 보살입상은 머리에 원형의 두광을 마련하고, 몸은 좌측으로 돌린 자세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쌌으며, 감싼 두 손으로는 세 방향으로 갈라진 여의가지를 가슴 앞에서 들어 머리 위까지 올렸다. 머리에 쓴 높은 보관의 중앙에는 화염문이 있고, 보관의 정상과 좌·우에 수식에는 끝부분이 뾰족한 여의형 장식을 달았다. 양쪽 어깨와 팔을 거쳐 발밑까지 흘러내리는 통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을 두 발로 딛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눈을 감은 듯한 상호에 직선에 가까운 범의를 입고 길게 뻗친 구름 및 합창한 채 3인의 연봉우리를 권 보살입상의 모습은 같은 17세기의 승려 장인들이 제작한 범종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일곱째 하단인 중 입구는 접혀 있는 너비 6.0cm의 입구띠에 연꽃과 덩굴무늬로 장식하고 있다. 가장 끝부분인 하단에는 입면형과 평면형의 연꽃이 S자형 넝쿨과 화려하게 어우러진 연화당초문이 종신을 돌아가며 1줄로 빙 두르고 있다.



<남원 대복사 범종-
중단 보살입상, 범자문>



<남원 대복사 범종-
하단 연화문과 모란문 및 당초문>

남원 대복사 범종은 구리와 주석 및 납의 합금인데, 내부에는 천판으로 연결된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내부에는 쇳물을 주입할 때 내형(內型)이 손상되면서 덧붙은 주물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종구(鐘口) 역시 주물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주물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고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 명문의 종류와 내용

남원 대복사 범종은 대복사의 극락전 내부에 봉안되어 있다. 이 범종에 부조된 명문을 보면 범자문, 위패 패액의 진언, 조성기로 구분된다.



<남원 대복사 범종-
명문>



<남원 대복사 범종-
위패 명문>



<남원 대복사 범종-
위패 명문, 점각 명문>



<남원 대복사 범종-조성기
(상)사찰명/(하)장인>

<범자문>

남원 대복사 범종의 사방 4곳에는 유곽 양옆마다 위·아래에 얇은 테두리로 구획된 직사각판에 4곳에 총 16개의 범자문이 배치된다. 직사각형 범자문은 위는 좌우 사각면이고 아래는 이중테두리의 원형 범자문이 배치되어 있다. 범자문은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3글자씩 나뉘어 ‘육자대(六字大)/명진언(明眞言)’이,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단에는 범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순서가 뒤섞이거나 글자가 빠져 있기도 하며 상단은 ‘옴○니반메훴’, ‘옴○타테야사바○’이 새겨져 있다.



<남원 대복사 범종의 범자>



<대복사 범종의 실담문자>



<한자진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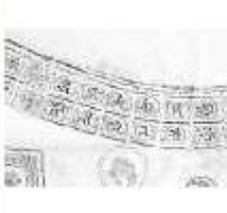
<표1. 조선 후기 승장계 범종의 범자>

| 鐘銘 | 梵字 | 漢字眞言文 | 模本 圖案 |
|-------------------------|----------------------------|-------|-------|
| <三幕寺鐘> 1625년, 竹獵 | | | |
| |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 | |
| <靈原寺銘大福寺鐘> 1635년, 淨祐 | | | |
| |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ॐ | | |
| <白蓮寺銘鐘> 1636년, 淨祐 | | | |
| | ॐ | | |

『新興寺本 眞言集』
1656년 本

대복사 범종의 범자는 1625년 삼막사종과 마찬가지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범자가 상대의 문양으로 사용되고 2단 구조로 상단에는 ‘육자대명왕진언’을, 하단에는 ‘파지옥진언’을 표현한 점이다. 둘째 실담문자를 사용하지만, 필선의 곡선이 강조된 붓글씨 형태와 유사한 범자를 표현하였다. 셋째 범자를 종신 자체에 조각하여 제작하지 않고 문양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넷째 장방형의 틀 안에 2중의 범자원문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장방형의 틀 상단에 3자씩 ‘육자대명왕진언’을 표현하고 하단에 ‘파지옥진언’이 한자진언원문으로 표기된 것이다.⁸⁾

대복사 범종의 주종장인 정우 비구는 자신이 조성한 범종에는 자신의 특징인 범자를 배치하였다. 이것은 1625년 삼막사 동종을 비롯하여 1635년 대복사 동종, 1636년 무량사 동종, 1636년 백련사 동종, 1636년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 1641년 하동 쌍계사 동종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대복사 동종에서는 육자대명진언과 파자옥진언을 연곽 좌우에 한 글자씩 이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특이하다.⁹⁾

| | | | | |
|---|---|---|--|---|
|  |  |  |  |  |
|  |  |  |  |  |
| 1635년 영원사명 대복사종 | 1636년 무량사종 | 1636년 백련사명종 | 1636년 중사자암명 법주사종 | 1641년 쌍계사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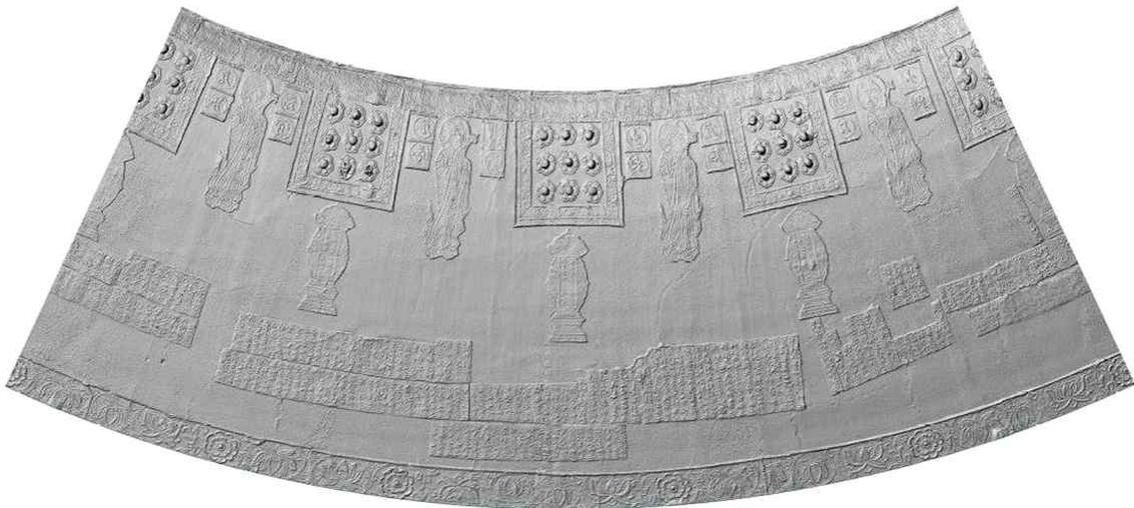
<정우 비구 조성 범종 범자(추정 포함)>

<중앙 위패 내 패액의 명문>

대복사 범종의 중앙에는 위패가 위치하고 있다. 그 패액 안에는 ‘종도반석 왕도미륵 혜일장명 범주사계(宗圖磐石 王道彌隆 惠日長明 法周沙界)’라 양각되어 있다. 내용으로 미루어 조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불법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

8) 정문석, 「조선시대 범종을 통해본 범자」, 『역사민속학』 36, 2014, pp.105~106. <표5> 조선 후기 승장계 범종의 범자.

9) 이선용, 「한국 불교미술에 수용된 범자의 특징 고찰」, 『동악미술사학』 33, 2023, p.182.



<남원 대복사 범종의 3D 전개도-문양의 배치 및 주종기 명문대>

<주종기>

대복사 범종에는 제작 시기와 봉안 사찰, 제작 승장 및 시주에 참여한 사부대중과 시주물품을 기록한 주종기가 새겨져 있다. 이 주종기는 동종의 중단을 돌아가며 여러 개의 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해서체로 양각으로 새기거나 점각으로 새겨 배치하고 있다.

주종기의 맨 앞에는 ‘송정팔년 을해삼월일 전라도 태인현 동면 청룡산 영원사 대종주성(崇禎八年 乙亥三月日 全羅道 泰仁縣 東面 淸龍山 靈原寺 大鍾鑄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범종을 제작한 시기는 1635년 3월이고, 봉안한 사찰은 전라도 태인현 동면 청룡산에 위치한 영원사(靈原寺)의 대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태인’은 정읍의 옛 지명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오히려 태인현이 아니라 전주목(全州牧) 정읍현(井邑縣)에서 영원사(靈源寺)를 찾을 수 있다.¹⁰⁾ 다만 1799년 간행된 『범우고(梵宇考)』에서 이미 폐사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¹¹⁾ 조선 후기 어느 시기쯤 정읍에 소재하였던 17세기 중반 이후 18세기 후반 사이에 영원사가 폐사됨에 따라 종은 지금의 대복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범종을 만들기 위한 시주자는 총 62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시주한 물품은 철물(鐵物), 포(布), 황밀(黃蜜), 식감(食監), 인등(引燈), 용두(龍頭)와 같은 현물 등 매우 다양하였다. 한편 명문을 보면 “덕원응비구...(중략)...화원 정우 비구 신원비구 해원비구 지감비구 혜학비구 혜영비구 소립보체(德元應比丘...(중략)...畫員淨祐比丘 信元比丘 海元比丘 知甘比丘 惠學比丘 惠英比丘 小立保体)”가 써 있다.

10) 『新增東國輿地勝覽』.

11) 『梵宇考』.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찰에서 소임을 맡은 승려들은 총 11명인데, 범종의 제작에 참여한 주종장(鑄鍾匠)은 승려장인으로서 정우(淨祐)·신원(信元)·해원(海元)·지감(知甘)·혜학(惠學)·혜영(惠英)·소립(小立)의 7명이었다.¹²⁾

대복사 범종의 원 봉안처였던 영원사는 벽암 각성의 스승은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가 기거하던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대복사 범종을 제작하였던 정우나 신원 등 승려장인들 역시 벽암문도에 소속된 주종장일 가능성이 크다.



<대복사 동종-명문대>



<대복사 동종-명문대>

○ 내용 및 특징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명문에 의해 1635년 승려 주종장이었던 정우·신원·해원·지감·혜학·혜영·소립의 7명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정우와 신원은 경기도나 충청도 및 전라도를 기반으로 활동한 장인으로서 주종장 죽창(竹滄)·원응(元應) 등과 함께 1625년 안양 삼막사 동종을 처음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주종은 1625년 2월 안양 삼막사 동종(1992년 화재로 소실)과 1635년 3월 남원 대복사 동종이 있다. 또 1636년 3월 부여 백련사 동종(국립경주박물관 소장)과 무량사 동종(충청남도 유형문화재)이 있다.¹⁴⁾ 보물로 지정된 범종으로 1636년 6월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 1641년 3월 하동 쌍계사 동종이 있다.¹⁵⁾

17세기의 범종은 총 33점이 현존하며 그 중 17세기 전반기의 범종은 1619년 현등사 동종을 비롯하여 1644년 용흥사 동종까지 총 10점에 불과한데, 그 중 정우와 신원의 것은 1625년 삼막사 동종부터 1641년 하동 쌍계사 동종까지 6점이다. 이를 통해 정우와 신원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승려 주종장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12) 安貴淑, 「朝鮮後期 鑄鍾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究」, 『佛敎美術』 9, 1988, p.130.

13) 장여동, 「조선후기 전남지방의 범종연구」, 『문화사학』 24, 2005, p.162.

14) 金秀賢,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弘益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p.29~31.

15)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 「하동 쌍계사 동종」, 『문화재대관 보물 불교공예』, 문화재청, 2022, pp.162~169.

삼막사 동종이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1635년 대북사 동종이 그들의 가장 이른 시기의 동종이라 할 수 있다.¹⁶⁾

<표2. 17세기 주종장과 장인>

| 순번 | 鍾名 | 時期 | 匠人 職責 | 官職 | 鑄鍾匠 | 匠人 系列 |
|----|----------------|------|---------------|----------|----------------------|----------|
| 1 | 奉先寺銘懸燈寺鍾 | 1619 | 製作 | . | 天寶,玄玉,正會 大元,瑩仁 | 僧匠 |
| 2 | 三幕寺鍾 | 1625 | 畫員 | . | 竹翺,淨祐 信元,元應 | 僧匠 |
| 3 | 見岩寺銘古見寺鍾 | 1630 | 圖匠 | . | 天寶(寶),縹竹 得男,得一 | 僧匠 |
| 4 | 普光寺鍾 | 1634 | 鑄成 圖大 匠 | . | 雪峰子,尙倫 善岑,敬立 | 僧匠 |
| 5 | 靈原寺銘大福寺鍾 | 1635 | 畫員 | . | 淨祐,信元,海元 知甘,惠學,惠英 | 僧匠 |
| 6 | 中師子庵銘法住寺鍾 | 1636 | 器工 | . | 置丁 | 僧匠 |
| 7 | 無量寺鍾 | 1636 | 畫員 | . | 淨祐,信元,惠元 知甘,惠英 | 僧匠 |
| 8 | 白蓮寺銘鍾 | 1636 | 畫員 | . | 尙五,守玄 正祐,信元 | 僧匠 |
| 9 | 雙溪寺鍾 | 1641 | . | . | 等願 | 僧匠 |
| 10 | 龍興寺鍾 | 1644 | 鑄鍾 | 通政 大夫 | 金龍岩 | 私匠 |
| | | | 造鐵匠 | . | 處男 | 私匠 |
| 11 | 安谷寺銘麻谷寺鍾 | 1654 | 畫員 | . | 寶嘗,法玄,敏和 學俊,森遠 | 僧匠 |
| 12 | 通度寺 靑銅甌(시루) | 1654 | 匠 | . | 辛愛南 | 私匠 |
| 13 | 浮屠庵銘大源寺鍾 | 1657 | 鑄鍾 畫員 | 通政 大夫 | 金龍岩,張士詳 | 私匠 |

16) 정문석, 「조선 승장계 동종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26~28.



<대복사 동종, 1636년>



<삼막사 동종, 1625년, 안양 삼막사, 화재 소실>



<부여 백련사 동종,
1636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부여 무량사 동종,
1636년>



<보은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
1636년,
보물>



<하동 쌍계사 동종,
1641년,
보물>

이처럼 주종장 정우와 신원은 임진왜란 직후 1625년부터 1641년까지 17세기 전반 16년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종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장인이었다.

이들 주종장이 제작한 동종들의 양식적으로 유사한데 그중 두드러진 것은 위로 불쭙 솟아오른 반구형 천판, 동종의 전체 형태가 길게 내려오면서 아래에서 특 떨어지는 모습, 종신의 상단·중단·하단 각 부분마다 유곽의 나머지 부분에 배치된 보살상이나 위패 및 연화당초문과 같은 문양 등이 공통된다.

<쌍룡의 용뉴>

대복사 천판에 위치한 쌍룡 용뉴 사이에는 동종의 공명 현상에 영향을 주는 작은 구멍이 정면에서 보았을 때 왼쪽 용의 발 부분에 뚫려 있다. 쌍룡은 하나의 몸체로 이어져 중앙에 높이 솟은 여의주를 중심으로 반대로 머리를 쳐들고 있어 조선 시대 범종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태로 조각되었다. 눈 위에 8개의 눈썹 털과 크게 벌린 입안에는 10개의 이빨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용뉴의 얼굴과 몸통 주변으로 길게 말아 올린 수염 가닥이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처럼 대복사 주종장은 용의 도상을 잘 이해하고 제작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쌍룡마다 수염을 다르게 표현한 것은 안양 삼막사 범종과 비교되고, 용의 몸을 \cap 형처럼 구부리거나 세부 형태는 비록 단룡이긴 해도 부여 백련사나 하동 쌍계사의 범종이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남원 대복사 동종 용뉴, 1636년> <부여 무량사 동종 용뉴, 1636년> <하동 쌍계사 동종 용뉴, 1641년>

<천판 위 입상연판문대>

남원 대복사 범종은 천판 끝부분에 뾰족하게 솟은 입상연판문대가 특징이다. 그 바로 아래에 부착한 상단의 장식인 커다란 방형의 뇌문, 상단의 장식과 연결한 사다리꼴 형태의 연곽, 연곽 양옆으로 부조된 원형의 범자문, 연곽 사이와 바로 아래에 고부조로 장엄한 보살입상과 위패,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입면과 평면의 연꽃이 어우러진 연화당초문 등은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작품에서 가장 특색 있는 의장 요소이다. 이 중에서 입상연판문대를 시작하여 상단의 장식과 사다리꼴 형태의 연곽을 연결하고 원형의 범자문과 하단의 연화당초문으로 이어지는 장엄 문양의 연속적인 패턴은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뇌문의 중심 방향과 범자문의 위치, 순서, 개수 등은 차이를 보이나, 보은 법주사 동종과 하동 쌍계사 동종에서 동일한 순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천판의 끝부분에 부조된 입상연판문대는 1667년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과 비교가 가능하다.



<남원 대복사 동종 입상연관문대>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 입상연관문대>

<중단의 보살입상과 위패>

고부조로 장엄된 보살입상과 위패는 1674년 안성 청룡사 동종, 1683년 서울 화계사 동종 등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는 사인과 태행이 제작한 동종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인과 태행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죽창, 정우, 신원, 원응 등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후배 장인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양식적인 증거이다.



<남원 대복사 범종 중단 보살입상>



<안성 칠장사 동종 보살입상>



<남원 대복사 범종 위패 명문>



<서울 화계사 동종 위패>

이처럼 남원 대복사 범종은 1635년 정우와 신원 등 17세기 중반에 활발한 활동을 한 승려 주종장인이 만든 동종이다. 이들 주종장인들이 만든 범종 작품은 전체적인 종의 형태가 안정적이고 균형감이 있으며, 천판 위 용뉴는 ㄱ형으로 구부린 몸체와 용의 도상이 정확하게 묘사되는 경향을 보이며, 불룩 튀어나온 입상연관문대가 특징적이고, 종신 상단의 뇌문이나 사다리꼴 연곽, 원형의 범자문, 보살상과 위패문 및 연화당초문 등을 동일한 문양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양판법이 적용되는 것이 공통되었다. 문양판법은 사형주조(沙形鑄造)로 제작되는 범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무나 활석으로 된 문양판을 음각으로 깎아낸 후 종신의 외형 틀에 도장을 찍듯이 문양이나 명문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문양판법은 밀

납에 별도로 명문을 기록하여 종신들에 붙이는 방법의 변형으로 조선시대에 민간 발원종들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구형 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나 범종을 제작 완료한 이후에 글자가 뭉개지는 경향이 강하고 명문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아 범종의 미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¹⁷⁾



<문양판,明珠寺고관화박물관> <문양판,통도사성보박물관> <명문판,〈부여 무량사종〉,1636년>

이처럼 남원 대복사 동종은 조각승 정우나 신원이 1625년부터 1641년까지 16년간 제작한 범종 중 화재로 소실된 1625년 삼막사 범종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중요하고, 이후 17세기 후반 사인 비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문헌자료

- <南原 大福寺 銅鍾 鑄鍾記(남원 대복사 동종 주종기)>.

○ 참고문헌

-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귀숙, 「조선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박물관, 1988.
- 이선용, 「한국 불교미술에 수용된 범자의 특징 고찰(2)」, 『동악미술사학』 33, 2023.
- 장여동, 「조선후기 전남지방의 범종연구」, 『문화사학』 24, 2005.
- 정문석, 「조선 승장계 동종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문석, 「조선시대 범종을 통해 본 범자」, 『역사민속학』 36, 2011
- 정문석, 「조선시대 범종의 명문분석과 범종 불사의 소임」, 『석당문집』 59, 2014.
- 최웅천, 「조선 후기 범종의 부흥을 이끈 두 거장」, 『보조사상』 51, 보조사상연구원, 2008.
- 『한국의 문양 龍』, 국립대구박물관, 2003.

17) 정문석, 「조선시대 범종의 명문분석과 범종 불사의 소임」, 『석당문집』 59, 2014, pp.263~264. 4-1 명문판 ; 그림 4-2 문양판.

○ 기 타

남원 대복사 동종은 주종기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1635년 전라도 태인현 동면 청룡산에 위치한 영원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동종이 원래의 봉안 사찰인 영원사를 떠나 지금의 대복사로 이안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다만 영원사가 1799년에는 폐사되었고, 그 이후 대복사의 주지 박경찬이 극락전을 중건하는 1938년경 전·후에 범종이 옮겨져 현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6월 23일 남원 대복사 극락전 소장 범종은 철불과 함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조사내용

대복사는 남원시 왕정동 교룡산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이다. 893년 도선국사가 大谷庵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조선시대 간행된 주요 지리지나 읍지 등에는 전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대복사는 1849~1869년 사이에 남원에 거주하던 姜大福이 극락전을 지으면서 지금과 같은 대복사로 이름을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후 1909년 작성된 『寺刹考』에 대복사가 수록되어 있고, 1912년 작성된 「대복사연조기」와 1938년 「극락전중건기」를 통해 이후로도 계속 중창·중건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70년초 月湖스님이 불교회관을 건립하여 대복사 중흥에 힘을 썼으며, 현재는 극락전, 칠성전, 요사채 등이 가람을 이루고 있는 소형 사찰이다. 극락전에는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철조여래좌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와 대복사 동종(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인 석정스님이 그린 신중도(1957년)가 봉안되어 있다.

대복사 종은 종신에 새겨진 명문에 “崇禎八年乙亥三月日 全羅道泰仁縣東面 淸龍山靈原寺大鍾鑄成”이라고 서두에 새겨져 졌다. 이를 토대로 보면, 대복사 동종은 원래 전라도 태인현 동면 청룡산에 자리한 영원사에서 봉안하기 위해 1635년에 제작된 종이다. 동종의 원 봉안처인 영원사와 관련해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泰仁縣 佛宇에는 ‘龍藏寺’, ‘靈泉寺’, ‘興龍寺’ 등의 사찰만이 수록되어 있고, 靈源寺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井邑縣 佛宇에 ‘靈源寺’가 보이며, ‘七寶山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776년에 제작된 『호남지도』에도 정읍현 동면 칠보산에 영원암의 존재가 확인되며, 이곳에는 영원암이라고 기록된 점이 다르다. 또한 1789년경에 간행된 『井邑縣邑誌』 등에 ‘靈源寺在七寶山殘破’라고 있으며, 1799년에 간행된 『범우고』 井邑 寺刹條에 靈源寺 今廢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정읍현읍지』가 간행될 1789년 무렵 이미 사세가 기울어 폐사 직전에

있었으며, 1799년 『범우고』가 작성될 당시 완전히 폐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종은 폐사를 전후한 시점에 남원 대복사로 이안되었거나 조선 철종 연간에 강대복이 사찰이 중건하면서 이안되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대복사 동종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1635년에 전라도 태인현 영원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종이다. 종복에는 종의 제작에 참여한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기록되어 있다. 동종을 만든 주종장은 淨祐, 信元, 海元, 知甘, 惠學, 惠英, 小立 등이며, 일을 주관한 화주는 계웅이 맡았다. 정우는 17세기 전반기 활동한 주종장인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의 작품이 여러 점 남아 있다. 함께 동참한 신원은 이후로도 정우와 함께 주종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죽창·정우 유파에 소속된 승장임을 알 수 있고, 화원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정우와 많이 활동한 元應은 시주자로 등장하여 주종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종의 정면>



<종의 후면>

대복사 동종의 구성은 쌍용의 종뉴, 종신으로 크게 구분되며, 세부 표현에 있어서는 종건의 입상화문대, 뇌문으로 처리한 상대, 상대에 연접해 네 곳에 연곽대를 표현하였고, 연곽대와 연곽대 사이에는 보살입상을, 보살입상 상단 좌우측에는 2단으로 진언문을 배치하였다. 연곽대 아래 4곳에는 원패를 새겨 넣었고, 종복에는 빼곡히 양각과 음각으로 동종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하대에는 연화당초문을 반복적으로 새겨 넣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마리 용이 등을 맞대고 몸을 꼬아 이룬 용뉴는 상당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이다. 앞은 천판에서 떨어져 있으며 입 주변과 다리에는焰翼이 솟구쳐 몸을 감싸고 있다. 4조로 된 앞다리로 천판을 딛고, 뒷발은 하늘로 들어 여의주를 받들고 있다. 마치 두 마리 용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몸통을 꼬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겨루는 역동성이 입을 벌려 헐떡이는 형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등줄기는 갈퀴 대신 구슬무늬로 대체하였으며, 뒷발은 하늘로 들어 여의주를 받들고 있다. 두 마리 용은 언뜻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듯하지만, 한 마리는 정면향이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이 아래쪽을 향해 더 벌어져 있다. 두 마리 용 중 한 마리(통상 정면 용)의 귀 한쪽이 파손되어 결실되었다. 천판은 불룩한 만곡을 이루고 있으며 용이 두발로 천판을 딛고 섰다. 천판에는 장방형의 주입구와 주출구의 흔적이 확인되고, 용머리 밑에 둥근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데 음통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의 어개와 천판의 경계부에는 펜촉 모양의 꽃잎으로 입상화문대를 돌렸는데, 화문 내에는 僧形의 반신 인물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입상화문대에 인물형 장식의 시문된 것은 하동 쌍계사 동종과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 정도에서 드물게 확인되는데, 주종장의 개성과 같은 유파 승려간의 양식 전승으로 해석 가능하다. 천판의 입상화문대 인물상의 상징성은 종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의 얻어 곧바로 극락의 구품연못에 화생하는 중생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입상화문대 바로 아래에는 강렬한 힘을 상징하는 雷文帶를 돌렸다. 뇌문대도 고려시대 소종에서 확인되지만, 규모가 큰 종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다가 정우가 만든 대복사 동종을 비롯하여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1636년, 보물, 법주사 소장)등 정우가 만든 종에서 확인된다.

뇌문대 아래에는 사방에 연곽대와 보살상, 그리고 범자문을 상하 2단 4곳에 16자를 배치하였다. 범자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장방형의 네모 칸을 양각하고, 상단에 다시 두 칸의 네모 칸을 마련하고 이곳에 ‘육자대, 명진언’이라 적고, 아래 쪽에는 둥근 원에는 ‘과지옥 진언’이라고 양각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해를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윗줄에는 육자광명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새겼고, 아랫줄에는 과지옥진언인 ‘옴카타테야사바하’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진언을 새겨 넣음으로써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지옥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범종 원래의 의미가 한층 살아나고 있다. 범종에 진언을 적어 종의 종교적 상징성을 높이는 방식은 1216년에 제작된 포항 오어사 동종(작은 경패 모양에 六字光明眞言 옴마니반메훔을 양각함)에서부터 시작하여¹⁸⁾ 고려시대 향완 등 불교미술품 등에서 두루 나타나며, 낙산사 동종에는 상하 2단으로 두 진언을 새겨 좀 더 진전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 대복사 동종에 이르러서는 상하 2단의 네모 칸을 치고 범자 진언을 적어 넣어 마치 진언을 문양판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淨祐가 만든 동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8) 최응천, 『한국의 범종』, 미진, 2022, p.265.



<종뉴와 천판>



<보살입상과 진연>



<보살상과 양대진연>



<원패>

연곽대는 上陝下廣의 사다리꼴 모양이며, 연곽대 내에는 9개의 연뢰를 표현하였다. 연곽대 외곽으로 굵은 테두리를 다시 한 번 더 두른 것이 특색이 있으며, 연곽대에도 사실적인 연꽃넙쿨무늬를 베풀었다. 연곽대 내에는 3단 3열로 연뢰를 배치하였다. 연뢰는 여섯 개의 꽃받침 위에 꽃 봉우리를 올려놓은 모양이다.

연곽대 사이에 표현된 보살입상은 두광을 갖추고,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두 손은 모아 여의를 쥐었다.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측면관을 하고 있으며, 꼬리가 길게 늘어진 구름대좌를 타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중생을 구제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구현되었다. 고려시대 종에는 鍾腹에 주로 여래좌상이나 보살좌상이 표현되며, 1238년에 제작된 진관사명 동종(국립중앙박물관)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보살입상이 鍾腹에 등장한다. 이것이 1392년 9월 17일에 제작된 장흥사명 동종으로 이어지며, 홍천사명 동종(1462년)과 보신각 동종(1468년), 낙산사 동종(1469년, 소실) 등 조선 전기 동종에 이르러서는 보살입상이 종복에서 종건 부분

으로 완전히 상승하여 표현되고 있다. 대복사 동종의 보살상 배치는 조선 전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지물과 형태 등에서는 조선 후기의 양식이 반영되었다. 특히 고려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종신에 표현되는 보살입상은 대체로 합장인을 결합하고 있으나, 이 종에서는 두 손을 모아 여의를 쥐고 있다.

이 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연곽대 아래에 등장하는 圓牌이다. 원패는 17세기 등장하는 목각 삼전패의 모습과 같이 패두-패신-삼단패좌로 구성되어 있다. 패두와 패신에는 운룡문을 양각하였다. 패신 발원내용은 “宗耑磐石 王道彌隆 惠日長明 法周沙界”이라 적어 왕실의 안녕과 불법의 전파를 기원하고 있다. 종신에 원패를 처음 도입한 것도 죽창, 정우가 1625년에 제작한 <안양 삼막사 동종>이며, 이 종 역시 삼막사 동종을 계승하고 있다. 이후 원패의 모티프는 사인·태행이 제작한 동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종에서도 꾸준히 등장하여 조선 후기 동종의 중요한 의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대는 상대와 달리 사실적인 연화당초문으로 장식하였다. 하대 역시 상대와 같이 동일한 문양판을 이어 붙여 사용하였으며 이어붙인 흔적이 남아 있다.

대복사 종은 전통종의 양식과 외래종 양식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외래종 양식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용뉴의 형식이다. 우리나라 전통종의 형식은 종뉴가 한 마리 용으로 이루어졌으나, 고려시대 연복사 동종이 제작되고 난 이후, 조선 초에 제작된 흥천사명 동종(1462년, 보물), 보신각 동종(1468년, 보물), 봉선사 동종(1469년, 보물), 해인사 동종(1491년) 등 우리나라 종에서도 雙龍形 종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마도 두 마리 용이 등을 맞댄 교룡형 용뉴가 기능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대복사 동종은 전통 종 양식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고려시대 연복사 동종에서 비롯된 쌍룡의 종뉴는 외래종 양식을 수용하였다. 두 마리 용이 서로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역동적인 용의 자세와 섬세한 표현에서 뛰어난 조형감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천판과 종건의 경계 부분에 둘러진 입상화문대는 천판의 거친 주물 흔적을 가리거나 종의 장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고려시대 청령 4년(1058)명 동종부터 시작하여, 정종 2년명 동종과 1222년 내소사 동종 등을 거치면서 고려시대 종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이 곡성 태안사 동종(1581년)과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보물), 대복사 동종, 쌍계사 동종(보물),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1636년), 완주 화암사 동종 등에서 종종 확인된다.

겉으로 보기에 이 동종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2006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중요동산문화재 범종기록화 조사 시 실시한 비파괴 검사에 따르면, 동종은 곳곳에서 모래 혼입 및 기공이 관찰되어 타종 시 함몰 및 균열이 우

려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종은 현재 대복사 주불전 좌측 벽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의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존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복사 동종은 양식적으로 죽창과 정우가 함께 제작한 삼막사 동종(1625년, 소실)을 따르고 있다. 죽창과 정우가 만든 종은 대체로 둥글고 높은 천판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종북에서 약간의 배를 불리다 종북에서 거의 직선으로 종구에 이르는 형태미를 추구 하고 있다. 대복사 동종에서도 이러한 형태미를 잘 따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견에 장식된 입상화문대와 이곳에 인물상을 새겨 넣은 점, 여의를 들고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보살입상을 종견에 배치한 점, 연곽대 외곽을 다시 한 번 용기선으로 두른 점, 연곽대 아래에 원패를 둔 점 등은 죽창, 정우 유과 동종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1. 주종장 정우가 참여한 동종의 현황>

| 연번 | 명칭 | 제작시기 | 참여장인 | 소장처 | | 비고 |
|----|----------------|------|------------------------------|----------|-----------|----------|
| | | | | 원 | 현 | |
| 1 | 안양 삼막사 동종 | 1625 | 畫員 竹湄 淨祐 信元 元應 | 삼막사 | 소실 | |
| 2 | 남원 대복사 동종 | 1635 | 畫員 淨祐 信元 海元 知甘 惠學 惠英 小立 | 태인 영원사 | 대복사 | 전라북도 유형 |
| 3 | 부여 백련사 동종 | 1636 | 助緣 尙五 守玄... ○助緣 正祐 信元 | 만수산 백련사 | 국립 경주박물관 | 백련사 위치미상 |
| 4 | 보은 범주사 중사자암 동종 | 1636 | 淨祐-信元派 추정 | 범주사 중사자암 | 범주사 | 보물 |
| 5 | 부여 무량사 동종 | 1636 | 畫員 淨祐 信元 惠元 知甘 惠英 孝立 | 만수산 무량사 | 좌동 | 충청남도 유형 |
| 6 | 하동 쌍계사 동종 | 1641 | 淨祐-信元派 추정 | 지리산 쌍계사 | 좌동 | 보물 |
| 7 | 서산 부석사 동종 | 1699 | 畫員 元應 智俊 太淳 金鶴 金鍾頭大○鐵 匠人 李成知 | 도비산 부석사 | 수덕사 근역성보관 | |

○ 참고문헌

-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문석, 「조선시대 승장계 범종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안귀숙, 「조선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박물관, 1988.
- 최응천, 「조선 후기 범종의 부흥을 이끈 두 거장」, 『보조사상』 51, 보조사상연구원, 2008.
- 최응천, 『한국의 범종』, 미진사, 2022.



○ 현 상

대복사(大福寺)는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교룡산(蛟龍山)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 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사찰은 통일신라 893년 선승이자 풍수지리설의 권위자로도 잘 알려진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가 산의 지세가 누르기 위해 대곡암(大谷庵)이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것이 시작이라고 전한다. 고려시대의 기록은 알 수 없으나,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소실되었으며, 1849~1869년 사이에 남원에 살고 있었던 강대복(姜大福)이 극락전을 다시 지으면서 대복사로 사찰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이라고 한다. 1909년 작성된 『사찰고(寺刹考)』에는 전라북도 남원군에 소재한 대복사를 기록하며 남호(南湖)라는 승려를 관리자로 기재하였고,¹⁹⁾ 1912년 작성된 『대복암연조기(大福庵捐助記)』 현판에는 극락전 불상의 개금불사 배경과 이를 주도한 인물들을 기재하여 대복사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범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⁰⁾ 1938년 주지 박경찬(朴敬贊)이 극락전을 중건하였으며,²¹⁾ 1960~1970년 초 승려 월호(月湖)가 대복사 불교회관을 건립하였다. 현재 대복사 사역 내에는 극락전, 칠성전, 요사채 등이 위치한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이 사찰의 중심 불전인 극락전 내부에 봉안되어 있다.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동종은 전체높이 95cm, 입지름 59cm로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동종 중에서도 큰 크기에 속하는 작품이다[도 1]. 시각적으로 동종의 표면에 짙은 검은색이 감돌아 육중한 무게감을 더해준다. 동종의 종형은 천판에서 시작된 외선이 종신의 상단에서 중단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다가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직선으로 떨어져 마치 포탄을 거꾸로 엮어 놓은 것과 같은 안정적 형태를 보인다.

블록이 솟아오른 반구형의 천판 위에는 음통이 없는 쌍용의 종뉴(鍾鈕)를 갖추었다[도2]. 종뉴의 형태는 두 마리의 용이 하나의 몸으로 이어져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각자의 앞발로는 천판을 딛고, 연주문이 촘촘히 박힌 등 부분을 높게 들어 올려 동종이 걸릴 수 있도록 ‘∩’형 고리를 만들었으며, 각자의 뒷발로

19)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사찰고』는 1909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무부 소속의 지방 국사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국에 산재한 사찰을 행정구역 체계인 도(道) 별로 나누어 기록하여 1911년 반포되는 사찰령의 분·말사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불교계의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로 매우 중요하다. 대복사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全羅北道南原郡大福寺, 所在地: 西奉面西三里, 本尊佛名: 彌勒. 管理者: 南湖. 管理者差任方法: 郡守가 差任함. 管理及: 番八斗落의 收入으로 維持함. 僧尼數: 僧一.” 『寺刹考』(1909).

20) 현판은 극락전 내부에 걸려 있다. 현판에는 천년 고찰 대복암 불상에 대한 개금이 벗겨져 고심하던 차 읍내(남원)에 거주하던 강영안(姜英安)과 최씨(崔氏)의 시주를 바탕으로 1912년(大正 3) 갑인(甲寅) 2월 15일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현판 말미에 기록을 통해 당시 사찰의 주지는 방영로(房映霞)였음을 알 수 있다.

21) 『극락전중건기』 현판도 역시 극락전 내부에 걸려 있다. 현판에는 극락전 중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極樂殿創建住持 成造都監 朴敬贊.”

는 고리 위에 장식한 커다란 보주를 감싸 쥐었다.



<도1. 남원 대복사 동종, 1635년>



<도2. 중뉴>

용의 표현은 도상을 묘사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였다.²²⁾ 이마 위에 두 개의 뿔은 끝부분이 양 방향으로 갈라진 뭉툭한 사슴뿔로 표현하였고, 그 바로 옆에 짧은 대롱 모양의 귀는 마치 말이나 당나귀의 귀와 같은 모습이다. 화염 문양의 긴 눈썹과 동그란 눈을 갖춘 타원형의 눈두덩이 아래로는 납작한 들창코가 있고, 콧방울 옆으로 나온 짧은 촉수는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려져 인중 아래에 엮혀 놓았다. 입은 크게 벌려 윗니와 어금니를 강조하였고, 윗니 앞부분까지 길쭉이 내민 혀 아래에 여의주를 머금었다. 그리고 몸 전체에는 비늘이 뽁뽁이 새겨졌으며, 각자의 앞발에서 돌출된 피모들은 동종의 고리이자 용의 등 부분에 엮혔다. 그러나 수염의 표현은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다른 모습이다. 한 마리는 뺨에서 돌출된 짧고 뭉툭한 모양이나, 다른 한 마리는 입꼬리 부분에서 길쭉하게 뻗어 나와 뒷발 부분에 연결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종신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 문양을 곳곳에 장엄하였다[도3]. 천판 끝부분에 마련한 집 모양의 작은 공간에는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한 승상(僧像)이 촘촘히 부조된 입상연판문대(立像蓮瓣紋帶)를 부착하였고,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방형의 뇌문을 중심으로 둘레에 작은 구름문이 각각 1열씩 주회된 상단의 장식을 시문하였다. 상단의 장식과 연결한 연곽은 윗면이 좁고 아랫면이

22) 용의 세부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의 문양 龍』, 국립대구박물관, 2003, pp.14~15.

넓은 사다리꼴의 형태로 동종의 4곳에 배치하였다. 연곽 테두리인 연곽대는 공간에 절반만을 사용하여 줄기 사이로 활짝 핀 연꽃이 S자형으로 길게 뻗어가는 연화당초문을 표현하였고, 내부에는 중앙에 작은 꽃술과 그 주변에 만개한 연꽃잎을 중첩한 연화좌 형태의 연뢰를 총 9개씩 장엄하였다.

연곽 양옆으로는 위·아래에 얇은 마구리가 장식된 사각판에 이중의 원을 갖춘 원형의 범자문을 붙였다. 원형의 범자문은 상·하 2단이며, 종신 4곳에 총 16개가 위치한다. 상·하단에 각각 첫 번째로 표기된 원형의 범자문에는 ‘육자대명진언(六字大明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으로 기재하여 동종에 기재된 범자의 내용이 상단과 하단은 달랐음을 밝혔다[도4]. 각 단의 범자들은 순서가 뒤바뀌고 몇 글자는 빠져있으나, 상단은 ‘옴○니반메훬’과 ‘옴○타테야사바○’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육자대명왕진언의 ‘옴마니반메훬’과 파지옥진언의 ‘옴카타테야사바하’와 같은 음역임이 확인된다.²³⁾



<도3. 종신 상단 세부 문양>



<도4. 첫 번째 범자문 표기>

연곽 사이에 위치한 4구의 보살입상과 연곽 바로 아래에 배치한 4개의 위패는 각각 동일한 문양판을 이용하여 부조한 것이다. 보살입상은 머리에 원형의 두광을 마련하고, 몸은 좌측으로 돌린 자세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쌌으며, 감싼 두 손으로는 세 방향으로 갈라진 여의가지(玉如意)를 가슴 앞에서 들어 머리 위까지 올렸다. 머리에 쓴 높은 보관의 중앙에는 화염문이 있고, 보관의 정상과 좌·우에 수식에는 끝부분이 뾰족한 여의형 장식을 달았다. 양쪽 어깨와 팔을 거쳐 발밑까지 흘러내리는 통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을 두 발로 딛고 있다[도5]. 그리고 위패는 4각의 높은 패좌 위에 긴 장방형의 패액, 삼곡 능형의 패신과 패두를 갖추었다. 중앙의 패액에는 ‘종도반석 왕도미륵 혜일장명 범주사계(宗曇磐石王道彌隆 惠日長明 法周沙界)’라는 왕실의 안녕과 불법의 전파를 기원하는 내용을 정연하게 적었고, 좌·우에 붙인 패신에는 각각 패두 방향으로 머리를 들고 몸은 S자로 형태로 길게 펼친 후 앞·뒷다리를 움직이며 날아가는 용을, 패두에도 같은

23) 松波宏隆, 「梵鐘に収録される悉曇研究」, 『大學院研究論集』 8,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5, p.411.

형태로 몸을 만들어 정상에 위치한 여의주를 닦기 위해 서로 마주 보며 구름 위에 비상하는 두 마리의 용을 표현하였다[도6]. 그리고 가장 끝부분인 하단에는 입면형과 평면형의 연꽃이 S자형 넝쿨과 화려하게 어우러진 연화당초문이 종신을 돌아가며 1줄로 주회되고 있다[도7].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중단 부분의 주종기(鑄鍾記)이다.



<도5. 보살입상>



<도6. 위패>



<도7. 하단 연화당초문 장식>

동종의 중단에 해서체로 반듯하게 기록한 주종기는 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명문 자료이자 동시에 실증적인 1차 사료이다. 종신을 돌아가며 군데군데 양각판을 붙이고, 일부는 점각으로 기록한 주종기는 동종에 관한 제작 연대와 봉안 사찰을 비롯하여 제작을 위해 시주에 참여한 수많은 사부대중의 신분과 이름과 다양한 시주 물품,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소임을 맡은 사찰 내 승려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주종기의 맨 앞에 기록된 ‘송정팔년을해삼월일 전라도태인현동면청룡산영원사대종주성...(崇禎八年乙亥三月日全羅道泰仁縣東面淸龍山靈原寺大鍾鑄成...)’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 동종이 1635년 3월에 전라도 태인현 동면 청룡산에 위치한 영원사의 대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8]. 시주자로는 총 62명이 참여하였고, 사찰에서 소임을 맡은 승려들은 총 11명이다. 시주자들이 시주한 물품 중에서 현물은 철물(鐵物), 포(布), 황밀(黃蜜),

식감(食監), 인등(引燈), 용두(龍頭) 등으로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위패 옆에 별도의 곽을 만들어 시주자를 기록하였는데, 주물이 망겨져 모든 글씨는 확인할 수 없지만, ‘華嚴宗大禪師⓪⓪比丘’라는 내용이다. 인물은 확인할 수 없으나, 화엄종대선사로 유명한 인물을 앞세워 17세기 전반 사찰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주자를 모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목할 수 있겠다. 특히, 직접 동종을 제작한 주종장(鑄鍾匠)으로는 정우(淨祐)를 필두로 신원(信元), 해원(海元), 지감(知甘), 혜학(惠學), 혜영(惠英), 소립(小立) 등 총 7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음을 주목할 수 있다[도9].



<도8. 봉안사찰>



<도9. 제작장인>

○ 내용 및 특징

남원 대복사 동종은 1635년 승려 주종장 정우를 중심으로 신원, 해원, 지감, 혜학, 혜영, 소립 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이들 중에서 정우와 신원은 주종장 죽창(竹滄), 원응(元應) 등과 함께 한 조를 이루고, 1625년 안양 삼막사 동종을 처음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현재까지 밝혀진 정우와 신원의 주종 활동은 1625년 2월 안양 삼막사 동종(1992년 화재로 소실)을 시작으로 1635년 3월 남원 대복사 동종(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636년 3월 부여 백련사 동종(비지정,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및 무량사 동종(충청남도 유형문화재),²⁵⁾ 1636년 6월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보물),²⁶⁾ 1641년 3월 하동 쌍계사 동종(보물)²⁷⁾까지 약 16년 동안 6점의 동종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표1].²⁸⁾ 따라서 정우와 신원은 임진왜란 직후 재건 불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7세기 전반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주종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승려 주종장이다. 특히, 이들은

24) 安貴淑, 「朝鮮後期 鑄鍾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究」, 『佛敎美術』 9, 東國大學校博物館, 1988, p.130.

25) 金秀賢,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弘益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8, pp.29~31.

26) 金수현,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 『문화재대관 보물 불교공예』, 문화재청, 2022, pp.162~165.

27) 金수현, 「하동 쌍계사 동종」, 『문화재대관 보물 불교공예』, 문화재청, 2022, pp.166~169.

28) 金秀賢, 앞의 논문, pp.27~33 ; 鄭文碩, 「17世紀 僧匠 竹滄·淨祐系 梵鍾의 特徵과 系譜」, 『東岳美術史學』 15, 東岳美術史學會, 2013, pp.180~184.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는 승려 신분의 거장(巨匠)으로 손꼽히는 사인(思仁)과 태행(太行) 등이 제작하는 동종 양식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 선배 장인으로 알려져 주목된다.²⁹⁾

<표1. 정우·신원 제작 동종>



<안양 삼막사 동종,
1625년(소실),
죽창·정우·신원·원응 제작>



<남원 대복사 동종,
1635년(전북유형),
정우·신원 제작>



<부여 백련사 동종,
1636년(비지정),
정우·신원 제작,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부여 무량사 동종,
1636년(충남유형),
정우·신원 제작>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
1636년(보물),
정우·신원 제작 추정>



<하동 쌍계사 동종,
1641년(보물),
정우·신원 제작 추정>

이 동종은 불룩 솟아오른 반구형 천판을 갖추고, 종의 외선이 하단에서 직선으

29) 安貴淑, 앞의 논문, pp.139~140 ; 金秀賢, 위의 논문, pp.33 ; 최웅천, 「조선 후기 범종의 부흥을 이끈 두 거장」, 『보조사상』 51, 보조사상연구원, 2018, p.50.

로 떨어져 동종을 뒤집어 놓으면 마치 기다란 포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종형은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모이는 효과를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볼륨감을 높여준다. 그리고 종형의 볼륨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신의 상단, 중단, 하단 각 부분에 아름다운 장엄 문양을 배치하고, 더불어 제작과 관련된 장문의 주종기를 종신 공간에 적절히 부착하여 동종의 균형감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외형적 요소는 정우와 신원이 죽창 및 원웅과 함께 제작한 안양 삼막사 동종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종신에 배치한 장엄 문양의 위치와 구성, 그리고 장문의 주종기가 부착되지 않았지만, 남원 대복사 동종 이후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모든 동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천판 위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의 몸을 하나로 연결하여 ‘∩’형으로 높이 들고, 머리는 반대로 돌린 쌍용의 종뉴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뒷발로는 여의주를 감싸 쥐었고, 나머지 두 발로는 천판을 딛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용의 모양은 최대한 도상에 가깝도록 묘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마 위에 뭉툭한 사슴뿔, 짧은 대롱 형태의 귀, 화염 문양의 눈썹, 동그란 눈, 납작한 들창코, 크게 벌린 입과 여의주, 콧방울과 앞발에서 돌출된 족수와 피모 등이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염의 표현은 두 마리가 서로 다르다. 즉, 한 마리는 뺨 부분에서 짧은 수염이, 다른 한 마리는 입꼬리 부분에서 긴 수염이 돌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쌍용의 종뉴를 갖추었지만, 각각의 용이 수염을 다르게 표현한 경우는 안양 삼막사 동종이 유일하다. 그러나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죽절형의 음통을 갖춘 단용의 종뉴를 표현한 부여 백련사 동종, 하동 쌍계사 동종 등에서도 용의 몸을 ‘∩’형으로 높이 만들고, 용의 세부 형태를 도상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작품에서 널리 응용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표2].

<표2. 정우·신원 제작 종뉴 형태>



<남원 대복사 동종 종뉴(1635년)>

<안양 삼막사 동종 종뉴(1625년)>

<부여 백련사 동종 종뉴(1636년)>

<하동 쌍계사 동종 종뉴(1641년)>

종신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장엄 문양이 배치되었다. 천판의 끝부분 전체를 돌아다니며 일정한 간격으로 부조된 입상연판문대, 그 바로 아래에 부착한 상단의 장식인 커다란 방형의 뇌문, 상단의 장식과 연결한 사다리꼴 형태의 연곽, 연곽 양 옆으로 부조된 원형의 범자문, 연곽 사이와 바로 아래에 고부조로 장엄한 보살입상과 위패,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입면과 평면의 연꽃이 어우러진 연화당초문 등은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작품에서 가장 특색 있는 의장 요소이다.

이 중에서 입상연판문대를 시작하여 상단의 장식과 사다리꼴 형태의 연곽을 연결하고, 다시 원형의 범자문과 하단의 연화당초문으로 이어지는 장엄 문양의 연속적인 패턴은 정우와 신원이 제작한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뇌문의 중심 방향과 문양의 변화, 범자문의 위치, 순서, 개수 등은 차이를 보이나, 보은 법주사 동종과 하동 쌍계사 동종에서 동일한 순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3].

<표3. 정우·신원 제작 동종 종신의 장식 패턴 비교>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 <보은 법주사 중사자암 동종(1636년)> <하동 쌍계사 동종(1641년)>

연곽 양옆에 범자문을 장식한 표현도 정우·신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들이 제작한 동종에서 범자문의 위치, 개수, 순서 등은 일정치 않으나, 범자를 표현할 때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육진언’의 음역이 명확하여 정우와 신원이 범자문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원 대복사 동종에서 나타나는 천판의 끝부분에 부조된 입상연판문대와 종신에 고부조로 장엄된 보살입상과 위패, 그리고 연곽 양옆에 원형의 범자문 등

은 17세기 후반 주종장 사인과 태행의 동종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입상연관문대는 1667년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과 비교가 가능하며[표4], 고부조로 장엄된 보살입상과 위패는 1674년 안성 청룡사 동종, 1683년 서울 화계사 동종 등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원형의 범자문도 외각 형태는 변화하나, 상·하 2단으로 범자명을 기재하는 방식은 1686년 양산 통도사 동종 등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은 사인과 태행이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정우와 신원 등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후배 장인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양식적인 증거이다[표5].

<표4. 정우·신원과 사인·태행 입상연관문대 비교>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 정우·신원 제작)>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년 사인·태행 제작)>

<표5. 정우·신원과 사인·태행 장식 문양 비교>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

<안성 칠장사 동종(1674년)>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

<서울 화계사 동종(1683년)>

<양산 통도사 동종(1683년)>

정우와 신원이 만든 동종의 양식은 우리나라 전통형 동종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남원 대복사 동종에서 종뉴의 표현이 쌍용을 갖추었으나, 이들이 제작한 나머지 범종에서는 주로 죽절형 음통을 갖춘 전통적인 단용의 종뉴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천판 끝부분에 장식된 입상연관문대는 1216년 포항 오어사 동종[도 10], 1222년 부안 내소사 동종, 1223년 용인 대혜원 동종 등 고려 후기 동종부터 표현되는 양식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1583년 안동 광흥사 동종, 1584년 공주 갑사 동종[도 11] 등에서 천판 위에 지속적인 문양으로 자리한다.³⁰⁾



<도10. 포항 오어사 동종, 1216년> <도11. 공주 갑사 동종, 1584년> <도12. 육자대명왕진언>

우리나라 동종에서 범자문이 처음으로 표기된 경우는 역시 1216년 포항 오어사 동종이다. 이 동종 종신에 위패 장식 사이에 ‘육자대명왕진언’이 표기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며[도12], 1223년 용인 대혜원 동종에서 종신 하단에 ‘옴’자가 비천문과 교대로 배치되어 13세기부터 동종의 장식 문양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14세기 중반 원나라 장인에 의해 제작된 1346년 개성 연복사 동종 등 외래 양식의 영향을 받은 1469년 양양 낙산사 동종(소실)에서 종신 상단의 위·아래로 ‘육자대명왕진언’과 ‘과지옥진언’을 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1580년 통영 안정사 동종과 1581년 곡성 태안사 동종 등 종신의 하단과 상단에 각각 범자문을 선택하여 장식 문양으로 장엄하였다[표6].

<표6. 15~16세기 동종에 표현된 범자문>



<양양 낙산사 동종, 1469년(소실)> <통영 안정사 동종, 1580년> <곡성 태안사 동종, 1581년>

마지막으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도 전통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동종의 보살입상이 장엄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 후기인 123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술년 동종부터이며, 형태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

30) 김수현, 『日本 日光 東照宮 소장 1642년작 朝鮮 梵鍾 연구』, 『東岳美術史學』 31, 東岳美術史學會, 2022, p.136.

고 연꽃대좌를 딛고 있는 모습이다.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동종 종신에는 남원 대복사 동종과 같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형태가 등장한다. 그러나 고려 후기 동종의 장엄 요소로 등장하는 보살입상은 보살좌상, 신장상 등과 같은 다양한 도상과 혼재되며 사용되었다. 이후 1392년 서울 장흥사 동종에서 다시금 표현되었으나,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 1491년 합천 해인사 동종 등 주로 15세기에 제작 동종에서 구름 표현이 생략된 보살입상 등이 표현되었다. 이후 17세기부터 구름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생략한 보살입상이 조선 후기 동종의 일반적인 장식 패턴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7].

<표7. 고려 말~조선 초 동종에 표현된 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술년 동종, 1238년>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동종, 13세기 후반>

<서울 장흥사
동종, 1392년>

<합천 해인사
동종, 1491년>

정우와 신원이 만든 동종은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불림감과 균형감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중형, 종뉴의 형태와 상관없이 ‘∩’형으로 높이 튼 용의 몸체와 도상에 충실한 용의 묘사, 입상연판문대-상단의 너문 장식-사다리꼴 연곽-원형의 범자문-하단의 연화당초문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의장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종의 전통 양식인 죽절형의 종뉴를 비롯해 입상연판문대, 보살입상, 범자문 등을 장엄 문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우와 신원은 동시기에 활동하지만 외래 양식의 동종을 제작한 승려 주종장 설봉천보(雪峰天寶, 1595~1634 활동), 일반 장인 김용암(金龍岩, 1642~1660 활동)과 달리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동종을 제작한 주종장들이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승려 주종장 정우와 신원의 활동 중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정우와 신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동종 양식을 계승하면서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하는 승려 주종장 사인과 태행이 제작하는 동종의 양식적 영향을 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조선 후기 불교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 문헌자료

<南原 大福寺 銅鍾 鑄鍾記(남원 대복사 동종 주종기)> (※㉔: 확인불가)

가. 양각

崇禎八年乙亥三月日」全羅道泰仁縣東面淸」龍山靈原寺大鍾鑄成」大鍾大施李仲希兩主」鐵物大施主鄭德男兩主」鐵物大施主梁承寶兩主」鐵物大施主李玉男兩主」布施大施主徐大希兩主」布施大施主李㉔羅龍兩主」九月保体業伊保体梅香」保体河知保体礼知保体」黃密大施主金莫同兩主」食監大施主李春世兩主」食監大施主李才珎兩主」引灯大施主李知莫兩主」龍頭大施主趙明生兩主」引灯大施主弘介兩主」大施主李百從兩主」大施主金上男兩主」大施主萬介兩主」大施主梅還兩主」施主金龍卜兩主」

大施主禪㉔比丘」李天白兩主」弘海岑兩主」㉔伐保体」李㉔立兩主」鄭金伊兩主」鄭希梁兩主」鄭日生兩主」宋燮天兩主」鄭三伐兩主」宋希㉔兩主」金無金兩主」宋古者兩主」

宋好文兩主」黃㉔希兩」宋㉔順兩主」金彦立兩主」張天奉兩主」白浩見兩主」金斤保体」金敬員兩」金貞巾兩主」金大岑兩主」奴同伊兩主」李㉔承兩主」金木連兩主」金㉔民兩主」吳應弘兩」李希㉔㉔」金得㉔㉔」李日生兩主」吳生白兩主」成卜兩主」金水生兩主」金得男兩主」趙忞孫兩主」李番春兩主」安鶴立兩主」白應㉔兩主」鄭㉔㉔兩主」金儀生兩主」金㉔立兩主」鄭日男兩」朴唵卜兩」

鄭有信兩主」金文㉔㉔金兩主」吾介㉔保体」㉔彦金兩主」礼春保体」介伊兩主」亘今保体」崔明承兩主」愛水伊兩主」金忞水兩主」士戒伊兩主」舊禿兩主」黃今保体」伊忘介兩主」徐㉔同兩主」任大仁兩主」分白保体」德春㉔兩主」朴大男兩主」金㉔失兩主」安下承兩主」金石伊兩主」金金伊兩主」鄭時莫兩主」朴龍仁兩主」㉔㉔男兩主」宋丑生兩主」鄭示春兩主」宋希梁兩主」

李善九兩主」吳貞兩主」趙心白兩主」趙戒生兩主」成㉔水兩主」㉔㉔石兩主」金㉔石兩主」尹寶忠兩主」朴㉔㉔兩」云修比丘」金得男兩主」洪哲男兩主」洪命信兩主」鄭應㉔兩」李德㉔兩主」鄭舊卜兩主」日德興兩主」宋舊龍主」裴龍兩主」安卜兩主」吳㉔卜兩主」朴善弘兩主」任春卜兩主」

華嚴宗大禪師㉔㉔比丘」

大德雪嚴比丘」大德尙㉔丘」大德覺云丘」大德豐國丘」大德玉熙丘」大德性岑丘」大德淡修丘」大德敬寶丘」禪德太甘丘」

善吾比丘」戒訓比丘」㉔和比丘」弘全比丘」學敏比丘」坦日比丘」信會比丘」尙輪比丘」尙岑比丘」戒能比丘」太英比丘」㉔㉔比丘」六行比丘」信明比丘」知㉔比丘」雪僅比丘」懷允比丘」雪岑比丘」行敏比丘」會㉔行比丘」行元比丘」

云學比丘」 祖明比丘」 坦㉑比丘」 妙玄比丘」 宝連比丘」 法行比丘」 德允比丘」 元應比丘」 法海比丘」 天敏比丘」 宗密比丘」 德唯比丘」 戒英比丘」 知熙比丘」 守天比丘」 信行比丘」 印安比丘」 天敬比丘」 戒安比丘」 宝淡比丘」 惠云比丘」 云日比丘」 畫員淨祐比丘」 信元比丘」 海元比丘」 知甘比丘」 惠學比丘」 惠英比丘」 小立保体」 住持性淨比丘」 持寺德雄比丘」 三剛海益比丘」 持殿應輝丘」 大德兼執務道日比丘」 道人兼別座弘益比丘」 山人兼供養主三應比丘」 參學兼執頭自行比丘」 ㉒㉓元印保体」 欸尾摠淡保立保体」 幹善山人兼大化土戒雄比丘」

나. 짐각

玉明」 戒安」 尙淳」 雪梅」 行善」 性默」 順日」 大禪師双云」 ㉔㉕」 金巳年」 姜隱立」 布德施主朴生兩主」 金復卜」 姜隱水」 李應㉖」 金士男」 宋仲秋」 安福」 山介」 金羅金」 李伊竹」 李加恩伊兩主」 李白㉗」 李大比山」 金戒元」 李夫業」 李水生」 崔白生」 日眞比丘」 儀岑比丘」

○ 참고문헌

-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수현, 「일본 일광 동조궁 소장 1642년작 조선 범종 연구」, 『동악미술사학』 31, 동악미술사학회, 2022.
- 안귀숙, 「조선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박물관, 1988.
- 정문석, 「17세기 승장 죽창·정우계 범종의 특징과 계보」, 『동악미술사학』 15, 東岳美術史學會, 2013.
- 최응천, 「조선 후기 범종의 부흥을 이끈 두 거장」, 『보조사상』 51, 보조사상연구원, 2008.
- 松波宏隆, 「梵鐘に収録される悉曇研究」, 『大學院研究論集』 8,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5.
- 『한국의 문양 龍』, 국립대구박물관, 2003.

○ 기 타

남원 대복사 동종은 주종기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1635년 전라도 태인현 동면 청룡산에 위치한 영원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동종이 원래의 봉안 사찰인 영원사를 떠나 지금의 대복사로 이안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동종의 봉안 지역으로 기록된 전라도 태인현은 1409년 태종(太宗)이 팔도제(八道制)를 비롯한 지방 행정 체계를 변경하면서 태산(泰山)과 인의(仁義)를 합쳐 만든 새로운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³¹⁾

이 동종을 최초로 봉안한 영원사는 16세기에 전라도 정읍현(井邑縣)에 소재한 영원사와 동일한 사찰로 추정된다. 1530년 편찬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전라도 정읍현의 대표 사찰로 영은사(靈隱寺), 유마사(維摩寺), 망해암(望海庵), 백련사(白蓮寺) 등과 함께 칠보산 영원사를 기록하였는데,³²⁾ 산의 이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같은 사찰을 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동종이 제작된 1635년 이후 영원사가 소재하던 전라도 정읍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1750년을 전·후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남지도(湖南地圖)』 중 「정읍현지도(井邑縣地圖)」에는 정읍현 동면의 칠보산 정상에 위치한 영원암(=영원사)를 기재하였다[도13]. 그러나 1789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읍현읍지(井邑縣邑誌)』에는 영원사가 잔파(殘破)되었다고 기록하였으며,³³⁾ 1799년 전국 8도에 흩어진 사찰의 존폐와 소재, 그리고 연혁을 정리한 『범우고(梵宇攷)』에서는 영원사가 이미 폐사되었다고 기록하여 18세기 말에는 사찰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³⁴⁾



<도13. 정읍현 지도 중 영원사 표기>

따라서 영원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원 대복사 동종은 18세기 말 정읍에 위치했던 영원사가 폐사되고,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가 중건되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 『太宗實錄』 권17, 9년 1월 18일 辛酉.

32) 『新增東國輿地勝覽』, 명문당, 1959, p.600.

33) “井邑縣邑誌…坊里縣內面縣內 東面東巨二十里…寺刹…靈源寺在七寶山殘破…” 『井邑縣邑誌』, 1789.

34) “井邑…靈源寺今廢…” 『梵宇攷』, 1799.

Ⅲ. 소위원회 운영 계획

안건번호 동산 2024-02-004

4. 동산문화재 지정 조사대상 선정 및 국외반출·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

가. 심의사항

동산문화재 지정 조사대상 선정 및 국외반출·현상변경 심의에 대한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관련 운영 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산문화재 지정 조사대상 선정 및 국외반출·현상변경 심의에 대한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관련 운영 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 부의하는 것임

【관련 규정】

-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제1항: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제2항: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다. 추진방향

- (방식)
 - 동산문화재 지정 조사대상 선정 및 국외반출·현상변경 심의는 소위원회로 위임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사후보고하고, 중요사항의 경우 본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함으로써 제기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성)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에게 위임
- (일시)
 - 지정 조사대상 선정 및 국외반출: 부정기적이므로 사안 발생 시 개최
 - 현상변경: 신청 건이 다수이므로 매월 3주차 금요일 개최 예정

- (보고)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 결과는 본위원회에 사후 보고. 다만, 중요사항인 경우, 본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라. 기대효과

- 지정 조사대상을 선제적,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지정 가치가 있는 대상의 적극 발굴 및 지정의 다양성 확보
- 분야별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반출 대상 문화재 실건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심도 있는 심의 가능
- 개별 문화재 국외반출 가능 여부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외 반출 신청 건 접수 시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행정 처리로 국민편의 제공
- 개별 보존처리계획 내용(공정·재료·산출내역 등)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보존처리 시행을 유도, 시의적절한 행정처리로 국민편의 제공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 토 사 항

IV.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등산 2024-02-005

5. 윤효손 신도비 (尹孝孫 神道碑)

가. 검토사항

‘윤효손 신도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윤효손 신도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22.08.1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2.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1975.3.31. 지정)
- 명 칭 : 윤효손 신도비(尹孝孫 神道碑)
- 소유자(관리자) : 남원윤씨종중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91-18
- 수 량 : 1기
- 규 격 : 높이 5.07m(지대석 1m, 귀부 0.7m, 비신 1.71m, 이수 1.66m)
- 재 질 : 석재
- 형 식 : 龜趺螭首形(지대석, 귀부, 비신, 이수를 갖춘 석비)
- 조성연대 : 1528년(조선 중종 23) 이후
- 제작자 : 비문 신용개(申用漑), 글씨 신공제(申公濟), 전액(篆額) 이언호(李彦浩), 후면 음기 이행(李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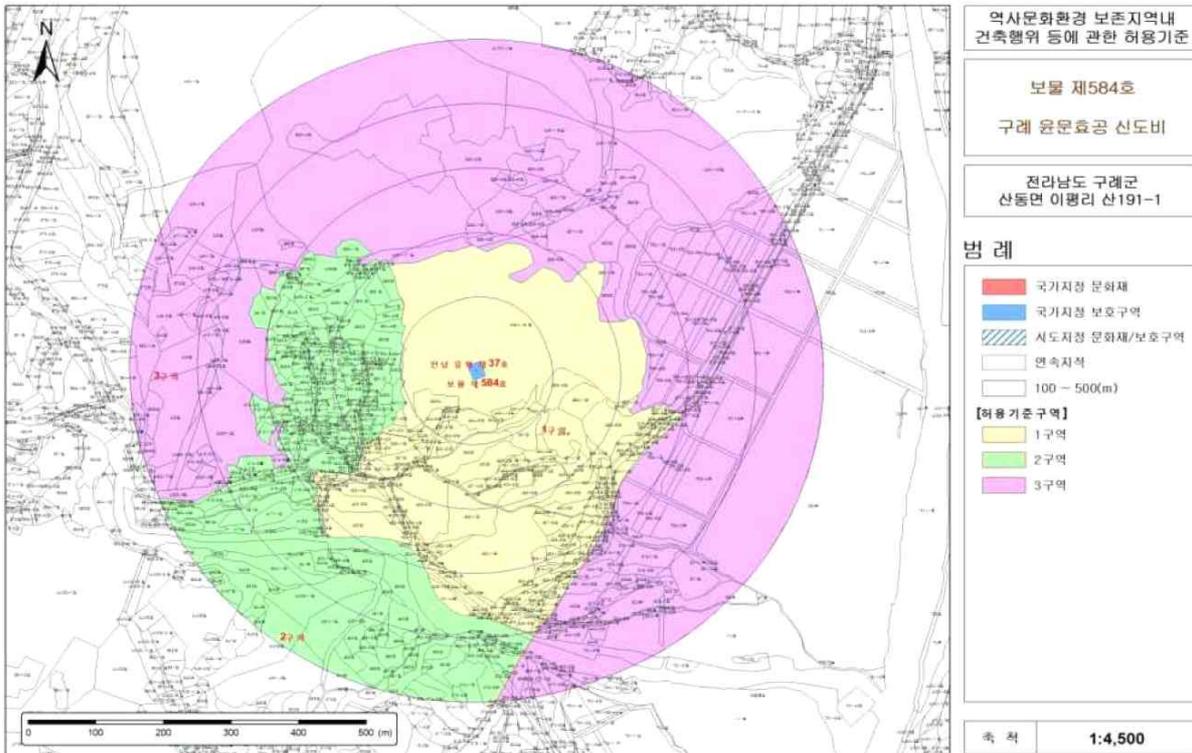
○ 지정구역 면적 : 3.2m²

| 연번 | 소재지/지번 | 지목 | 지적면적(m ²) | 지정면적(m ²) | 소유자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91-18 | 임야 | 94,235 | 3.2 | 남원윤씨 문효공파종중 | 전남 구례군 산동면 둔사길 36-13 |

○ 보호구역 면적 : 454.8m²

| 연번 | 소재지/지번 | 지목 | 지적면적(m ²) | 보호면적(m ²) | 소유자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91-18 | 임야 | 94,235 | 454.8 | 남원윤씨 문효공파종중 | 전남 구례군 산동면 둔사길 36-13 |

○ 지정도면 : 윤희손 신도비(尹孝孫 神道碑)





<윤효손 신도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윤문효공 신도비는 석비 형식이나 조형적 면모에서 조선 왕조 전반기 16세기 전반의 신도비 가운데 특이한 형식과 조각 양식을 보이는 점에서 1975년 보물로 지정된 바 있다. 본 신도비의 양식적 특징은 일례(一例)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나 당시나 후대에 영향을 미친 선도적(先導的)인 시대 양식(時代樣式)으로서의 면모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윤문효공 신도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유지되어도 그 가치를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 (지정 가치 미흡)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학자·관료인 윤효손(尹孝孫, 1431~1503)의 신도비이다.

윤효손은 『경국대전』·『국조오례의』 편찬에 참여하고 『주례(周禮)』·『효경(孝經)』 등의 경서 간행에도 간여하는 등 조선 초기 예악·문물 정비에 일조한 실무 관료의 한 사람이었다. 또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지대석(地臺石)의 존재, 낙서(洛書)를 상징하는 귀부의 원문, 불교 내지는 동양의 신이적 종교의 영향으로 보이는 연화문대석, 이수 받침석에 현관처럼 만들어진 전액(篆額), 통일신라~고려의 탐비 양식을 모방한 이수 상륜부 등 조선시대의 다른 신도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고려적인 유제로 인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사상들이 영향을 끼쳤던 조선 초기의 역사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 점에서 나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조선의 문화, 조선의 신도비 형식을 대표하는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윤문효공 신도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그것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 시대의 문화적 대표성을 갖는 유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신도비의 주인공 윤효손 역시 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15세기의 정치와 학술·문화를 주도해 나갔던, 가장 중요한 핵심 관료·학자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가 국보로 승격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학자·관료인 윤효손(尹孝孫, 1431~1503)의 신도비이다.

윤효손은 『경국대전』·『국조오례의』 편찬에 참여하고 『주례(周禮)』·『효경(孝經)』 등의 경서 간행에도 관여하는 등 조선 초기 예악·문물 정비에 일조한 실무 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이수귀부(虯首龜趺) 형식의 비석과는 다른 형식으로 평가된다. 지대석(地臺石)의 존재, 낙서(洛書)를 상징하는 귀부의 원문, 불교 내지는 동양의 신이적 종교의 영향으로 보이는 연화문대석, 이수 받침석에 현판처럼 만들어진 전액(篆額), 통일신라~고려의 탐비 양식을 모방한 이수 상륜부 등 조선시대의 다른 신도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어 앞면과 뒷면에 글씨를 새겼다. 비신 앞면의 비문(碑文)은 우의정 신용개(申用漑, 1463~1519)가 짓고, 우참찬 신공제(申公濟, 1469~1536)가 썼으며, 전자(篆字)는 전라도관찰사 이언호(李彦浩, 1577~1519)가 썼다. 비신 뒷면의 음기(陰記)는 우의정 이행(李荇, 1478~1534)이 지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 초기의 사대부와 관련된 신도비로서 역사성과 문화상을 반영한 유물로 판단되었고, 이와 같은 점이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다만, 국보 지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동종의 유물과 비교하여 역사성과 예술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조선시대 비석으로서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왕과 사대부, 그리고 불교 승려 등 크게 세 분류로 분류되고 있다.

왕과 관련된 비석으로는 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등 신도비 3건, 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 등 태실비 2건, 그리고 서울 仁祖別墅 遺基碑 등 모두 6건이 있다. 사대부로는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를 비롯하여 1536년 건립된 한글이 새겨진 서울 李允濯 한글靈碑,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麗水 墮淚碑, 麗水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海南 鳴梁大捷碑 등 3건, 그리고 1617년 건립된 順天 八馬碑 1건이 있다. 한편 불교 승려와 관련된 비석으로는 1393년 건립된 忠州 億政寺址 大智國師塔碑를 중심으로 1694년 건립된 襄陽 洛山寺 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등 모두 8건이 지정된 상태이다.

국보가 보물 가운데 한 시대의 문화적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는 유물이라는 의미에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문화재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나 국보로서의 승격은 학계의 폭넓은 검토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현재 조선 전기 사대부 신도비 중 유일한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물, 역사, 미술사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작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양식적으로 더 뛰어난 작품이자 조선시대 비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각사비>(1471년), 우수한 이수의 예술성이 높은 <한명회 신도비>(1488년), <월산대군 신도비>(1489년), <박원종 신도비>(1511) 등은 인물, 역사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높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이 작품들에 비해 지역 장인의 솜씨이며, 조선시대 비석 흐름에서 동떨어진 복고적(復古的) 작품으로 전라도의 지역색이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근 남원시에 있는 <황산대첩비>(1577년)는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처럼 복고적인 작품으로 <혜덕왕사비>(1111년)와 양식적 친연성이 높은 작품이다. 또 장수군의 <정황 신도비>(1741년)은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를 모방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전라도의 문화적 특징을 담고 있는 작품이며, 조선 전기 혹은 16세기의 보편성, 우수성, 중요도라는 점에서 국보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복고적 양식의 <황산대첩비>, <혜덕왕사비>와의 양식적 친연성, 전라도의 특징 등이 논의된 바가 없다. 향후 여러 전문가들의 합동 연구를 통해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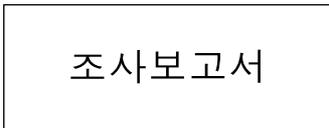
그러므로 조선 전기의 비석, 전라도의 비석 등의 연구가 선행된 뒤 이 작품이 조선시대 능묘비에서 위상이 규명된 뒤에 국보 승격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求禮 尹文孝公 神道碑)>는 명칭에 시호(諡號)가

들어가고, 이름이 빠져 있어서 이 작품의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향후 <구례 문효공 윤효손 신도비(求禮 文孝公 尹孝孫 神道碑)> 혹은 <구례 윤효손 신도비(求禮 尹孝孫 神道碑)>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현 상

- 지대석(地臺石): 화강암제, 약 너비 174.0cm, 길이 185.0cm, 높이 90~100.0cm. 직육면체 네 측면에 운룡문(雲龍紋)을 부조(浮彫)했는데 하단에 물결무늬 새김. 조각은 전체적으로 투식화(套式化)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말린 구름무늬(卷雲紋)는 꽃처럼 변화됨. 조선 전반기 일반적인 석비 형식과 달리 지대석이 높고 운룡문을 새긴 특이한 예.
- 귀부(龜趺): 화강암제, 높이 77.0cm, 너비 180.0cm, 길이 215.0cm. 타원형 연화좌(蓮花座) 위에 거북돌이 있고 거북 등에 비좌(碑座)가 있는 형식. 거북이 머리(龜頭)는 목을 앞으로 빼서 고개를 약간 든 형태로 거북이 머리와 용 머리를 섞은 모양. 거북이 등에 별자리 표시와 유사한 이른바 낙서(洛書)가 있는데, 16세기 다른 석비에서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예.
- 비신(碑身): 대리석제, 171.0×91.0×25.0cm. 전면에는 윤효손의 생애·관력·행적·자손 및 그의 인품을 기리는 명문을 새김. 전체 34행으로 글자 지름(字徑) 2.0cm 정도. 말미에 “正德十四年己卯三月 日”이라 하여 1519년(중종 14) 3월 지었음을 밝힘. 비 뒷면의 음기(陰記)는 우의정 이행(李荇)이 지은 것으로 말미에 “嘉靖七年十二月 日”이라 하여 1528년(중종 28) 12월 지었음을 밝힘. 음기는 윤효손의 신도비가 사후 건립되었으나 뒤에 파손되어 다시 세우게 되면서 적은 추기(追記)로서 입비(立碑) 시기를 알려줌.
- 이수(螭首): 전액석·이수·연봉으로 구성. 전액석(篆額石)-대리석제, 23.0×99.5×20.0(高)cm. “尹文孝公神道碑”라 새김.

조선 전반기 일반적인 석비에서 비신 상단에 두전(頭篆)으로 새기는 방식과 달리 별석(別石)으로 제작하여 비신과 이수 사이에 끼움.

이수(螭首) - 대리석제, 앞뒤로 각각 두 마리 용이 구름 속에서 승천하는 모양을 양감 있게 부조(浮彫). 앞뒤 용의 형태와 움직임이 서로 달라 생동감 있음. 특히 후면의 부조는 조선 전반기 다른 석비에서 볼 수 없는 예.

연봉(蓮峯) - 화강암제, 이수 위쪽에 연꽃 봉우리 또는 보주(寶珠) 형태의 별석을 얹음. 조선 전반기의 몇몇 일반 석비에 보이는 것으로 마치 불교 석물인 부도·석탑의 상륜(相輪)과 유사함.

○ 내용 및 특징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 전기 문신 윤효손(尹孝孫, 1431~1503)의 묘역에 세워진 신도비임. 비문은 1519년 우의정 신용개(申用漑, 1463~1519)가 짓고, 글씨는 우참찬 신공제(申公濟, 1469~1536)가 쓰고, 전라도 관찰사 이언호(李彦浩, 1477~1519)가 전(篆)함. 비음은 1528년 우의정 이행(李荇, 1478~2534)이 지음.

□

○ 현 상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학자·관료인 윤효손(尹孝孫, 1431~1503)의 신도비로, 윤효손의 묘소가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 91-18번지에 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양식적인 면에서 볼 때 귀부(龜趺)와 비신(碑身), 이수(螭首)를 갖추고 있는, 귀부이수형에 속하는 비이며, 귀부 아래에 지대석(地臺石)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대석의 크기는 상부를 기준으로 정면 173.0cm, 좌측면 187.0cm, 우측면 185.4cm, 배면 174.7cm이다. 높이는 측정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하면 대략 88.0cm 정도이다. 귀부와 비교해 볼 때 너비는 넓지 않은 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지대석의 4면에는 파도문, 운문, 용문 등이 새겨져 있다.

지대석 상부로는 비신을 받치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인 귀부와 귀부를 받치는 좌대가 있는데, 귀부와 좌대는 하나의 돌로 구성되었다. 좌대의 테두리에 연꽃 문양이 둘러져 있어서 마치 거북이가 마치 연꽃을 타고 다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귀부의 크기는 너비 195.0cm, 길이 225.3cm이고,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103.3cm, 가장 낮은 곳이 72.7cm이다. 좌대 크기는 너비 185.2cm, 길이 204.5cm, 높이 19.6cm이다. 귀부의 상부, 즉 거북의 등 부분에 낙서(洛書)로 보이는 원문(圓紋)이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가 좌측 171.6cm, 우측 171.0cm이며, 너비가 상부 91.9cm, 하부 89.9cm이며, 두께는 상부를 기준으로 25.8cm이다. 비신의 전면에 음각된 비문은 신용개(申用漑)가 1519년(중종 14)에 지은 것으로 제목은 ‘有明朝鮮國 崇政大夫 行議政府左參贊 兼知春秋館事 贈諡文孝公 貞敬夫人朴氏 神道碑銘并序’이다. 글씨는 신공제(申公濟)가 썼으며, 전액(篆額)은 이언호(李彦浩)가 하였다. 비신의 후면에는 이행(李荇)이 1528년(중종 23)에 지은 음기(陰記)가 새겨져 있다. 2019년도의 『정밀실측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신은 현재 우측 위로 약간 기울어졌는데, 좌측 상단 기준 0.31cm, 우측 하단 기준 0.52cm 수직선상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 기울었다고 한다.

이수는 이수 받침석과 이수, 상륜의 보주 등 세 부분이 각각 별개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 받침석의 크기는 상부 기준 가로 118.5cm, 높이 26.1cm, 하부 기준 너비 98.4cm이다. 받침석은 다른 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형태로 전액을 위한 별도 부재를 사용한 것이다. 전면에 액을 마련하여 우로부터 “尹文孝公神道碑”라고 전서(篆書)로 새겼으며, 측면과 후면은 운문으로 장식하였다. 전액은 마치 현판을 걸어 놓은 것처럼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수의 너비는 133.4cm, 높이는 88.6cm, 두께는 55.5cm이며, 전체적으로 방향이지만 상부 모서리를 둥그렇게 말았다. 4면 모두에 운룡문을 조각하였다. 이수의 상단에는 별개의 석재로 만든 상륜부가 있다. 상륜부는 2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단은 하엽문양의 대석이고 상단은 위로 뾰족한 보주이다. 대석과 보주는 단일석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높이는 52.0cm 내외이다.

2019년의 정밀실측보고서에 따르면 신도비의 비신이 수직선상에서부터 정면 우측 방향으로 약 0.5cm, 배면 방향으로 약 0.65cm 기울어졌다. 또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될 만한 균열이나 파손은 없지만, 지대석의 배면 우측 하단 균열은 꾸준한 모니터링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내용 및 특징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주인공인 윤효손은 본관이 남원이며, 자(字)는 유경(有慶), 호(號)는 추계(湫溪)이다. 1431년(세종 13) 9월 13일에 부친 윤처관(尹處寬)과 모친 광산 정씨(光山鄭氏) 사이에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윤처관은 순창군수(淳昌郡守)를 역임하였다. 윤효손의 부인은 죽산 박씨(竹山朴氏)로 문헌공(文憲公) 영의정(領議政) 박원형(朴元亨)의 딸이다. 윤효손은 7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을 비롯해 모두 다섯 아들이 생원·진사 등 소과(小科)에 급제하였고, 특히 6남 윤지형(尹止衡)은 문과에 올라 홍문관 수찬과 이조 정랑,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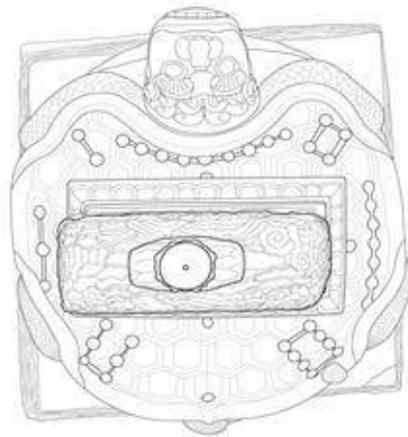
윤효손은 1450년(세종 32)에 생원시에, 1453년(단종 1)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저작(著作), 박사(博士)를 거쳐 1457년(세조 3) 전농주부(典農主簿)에 임명되었다. 이어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고 우헌납(右獻納)으로 특진되었다. 예조 정랑, 사예(司藝), 검상(檢詳), 사인(使人)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부모 봉양을 위해 장흥 부사로 나갔다가 1468년(세조 14) 훈련원 부정(訓練院副正), 1470년(성종 1)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가 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의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호조와 예조의 참의를 역임한 후 다시 어머니 봉양을 위해 전주 부윤으로 나갔다. 중앙 관직으로 복귀한 후 공조·형조·이조의 참판,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1478년(성종 9) 4월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사헌부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89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정조사(正朝使)에 발탁되어 명나라에 사행을 다녀왔다. 사행 후 다시 부모 봉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조정에서 특별히 나주 목사를 제수하였다. 이후 동지중추부사, 세자 우빈객(世子右賓客), 황해도 관찰사, 경상도 양전순찰사(量田巡察使), 한성부 좌윤(左尹), 형조 판서, 우참찬,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도총관(都摠管),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가 김일손(金駟孫)의 사초(史草) 내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다. 1500년(연산군 6)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503년 좌참찬으로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으며, 같은 해에 7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시호는 문효(文孝)인데, 그의 졸기(卒記)에서는 “공경하고 정직하며 인자하고 은혜로운 것을 ‘문(文)’이라 하고 봉양을 잘하고 공손한 것을 ‘효(孝)’라 한다.”라고 시호의 뜻을 설명하였다.

윤효손은 위에서 보았듯이 『경국대전』·『국조오례의』 편찬에 참여하고 『주례(周禮)』·『효경(孝經)』 등의 경서 간행에도 간여하는 등 조선 초기 예악·문물 정비에 일조한 실무 관료의 한 사람이었다. 또 ‘문효’라는 시호를 받은 점과 세 차례나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갔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효행(孝行)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윤효손이 조선 초 문물·제도 정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윤효손의 졸기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수록되어 있는데, 즉 “비루하고 인색하여 재물을 꽤 많이 모았으며, 수령으로 있을 때 청렴하다는 평을 듣지 못했다. 만년에는 창녕대군(昌寧大君)이 윤효손의 집에 나가 거처함을 이용하여 아내 형제의 아직 나누지 않은 노비[臧獲]를 자기 것 같이 뇌물로 썼으며, 또 궁인(宮人)들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높은 반열을 차지하고 그 아들까지도 관직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루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귀부(龜趺)와 비신(碑身), 이수(螭首)를 모두 갖추고 있는 귀부이수형의 능묘비로, 특히 귀부 아래에 지대석(地臺石)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그런데 지대석의 너비는 귀부와 거의 동일한 반면 높이는 0.9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아서 전체적인 안정감은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 귀부는 상부, 즉 거북의 등 부분에는 귀갑문(龜甲紋)과 함께 낙서(洛書)로 보이는 원문(圓紋)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아래 도면 참조). 귀갑문에 중첩하여 원문을 첨가하는 형식은 현재까지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외에 다른 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귀부 아래에는 연화문대석이 있는데, 조선 전시기의 신도비 가운데 연화문대석이 있는 경우는 태조 건원릉 신도비(太祖健元陵神道碑)와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2기 밖에 없다. 연화문은 흔히 불교문화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교 발생 이전부터 연화문이 신화적 종교의 상징으로 출현했다는 점에서 신이적인 영역을 상징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문효공 신도비 귀부 상부 낙서 표현>³⁵⁾

비신의 앞면은 비면 전체에 글자가 음각되어 있는데, 자경(字徑) 2.0cm 정도이고 모두 34행이다. 비문은 일반적으로 비제(碑題), 찬자(撰者)와 서자(書者), 서(序), 명(銘), 연기(年記) 등의 순서로 구성되는데,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에서도 이를 잘 따르고 있다. 비의 후면에는 음기(陰記)가 있다. 음기는 모두 16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면처럼 비면 전체에 글자를 새긴 것이 아니라 중앙 부분만을 이용하고 있다. 글자체도 전면의 글자체와 다르고 자경도 3.0cm에 달해 전면보다 크다. 2019년의 『정밀실측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좌와 비신 사이는 너비 0.1~0.25cm, 깊이 0.3~0.1cm 정도의 틈이 있는데, 이전에 이 틈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꾸었다가 보존처리 과정에서 제거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비문의 가장 아랫줄 글씨는 마모가 심하다고 하였다.

이수는 다른 신도비와 달리 이수의 받침석, 이수, 상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의 받침석은 우리나라 신도비 중에서 윤문효공 신도비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35)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p.127.

다. 이 받침석의 정면에 현판처럼 전액(篆額)을 마련하고 비제(碑題)를 전서(篆書)하였다. 전액은 이수 혹은 비신의 상단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윤문효공 신도비는 새롭게 첨가된 이수의 받침석에 전액을 설치한, 상당히 특수한 경우이다. 또 이수 상단의 상륜은 통일신라 말과 고려 전기의 탑비에서 유행하였던 보주형 상륜을 모방하여 복고풍 양식을 창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시대의 다른 신도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또 낙서(洛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귀부의 원문, 불교 내지는 동양의 신이적 종교의 영향으로 보이는 연화문대석, 통일신라~고려의 탑비 양식을 모방한 이수의 상륜부 등 유학(儒學) 이외의 다양한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보인다. 이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국가를 세웠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려적인 유제가 영향을 끼쳤던 조선 초기의 문화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나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조선의 문화, 조선의 신도비 형식을 대표하는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보’라고 하면 한 시대의 문화적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는 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윤문효공 신도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그것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 시대의 문화적 대표성을 갖는 유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 신도비의 주인공 윤효손 역시 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에 일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5세기의 정치와 학술·문화를 주도해 나갔던, 가장 중요한 핵심 관료·학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점에서 신도비의 주인공 역시 시대적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가 국보로 승격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선시대 신도비 중에 보물로 지정된 것은 윤문효공 신도비를 포함해서 4건이며, 국보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구례군·남원윤씨 문효공파 종중,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 전라북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21.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 현 상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이촌마을에 위치한 방산서원(方山書院)의 옆 동북쪽 언덕에 자리한 문효공(文孝公) 윤효손(尹孝孫)의 묘소 앞에 있다. 문효공의 묘는 윤문효공(尹文孝公)과 정경부인인 연성 박씨(貞敬夫人 延城朴氏)의 합장묘이다.

신도비는 묘소 상석(床石)에서 동남쪽으로 12미터 정도 거리에 건립되어 있다. 귀부(龜趺)의 좌향은 머리가 서쪽, 꼬리가 동쪽에 자리하는 묘좌유향(卯坐西向)에 해당한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건립은 비문의 끝에 기록된 ‘正德十四年己卯三月日’(1519년 3월)과 음기에 기록된 ‘嘉靖七年十二月日’(1528년 12월)이라는 연대를 통하여 늦어도 1528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종실록(中宗實錄)』의 기록을 토대로 원비는 1515년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1515년에 남원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되었으며, 1519년~1528년 사이에 다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석은 귀부(龜趺)와 비신(碑身), 이수(螭首)를 갖추고 있는, 귀부이수형(龜趺螭首形)에 속하는 비로서 양식적으로 특별하다. 현재 보존 상태는 매우 좋다.





○ 내용 및 특징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求禮 尹文孝公 神道碑)는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91-1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신도비가 있는 언덕 아래로는 방산서원(方山書院)이 자리한다.

방산서원은 조선 성종조의 명신 문효공(文孝公) 추계(楸溪) 윤희손(尹孝孫, 1431~1503)의 신주를 모시고 배향하기 위하여 1702년(숙종 28)에 전라도 사림(士林)의 공의(公儀)에 따라 남원부 중방리(현재 구례군 용방면 용방리)에 세워졌다. 이후 1716년에 대제학 및 영의정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1595~1671)과 한성 좌윤 증 이조 판서 성만(星灣) 최연(崔蓀, 1576~1651)을, 1740년에 고려조의 국자사업 및 서경 유수 남원백(南原伯) 벽송(碧松) 윤위(尹威, 1158~1205)를, 1760년에는 사헌부 정언 삼계(三溪) 최언수(崔彦粹, 생졸년 미상)를 추가로 서원에 모셔 향사를 거행해 오다가 1868년(고종 5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그 후 1985년에 지역 유림의 의견으로 현재의 위치에 서원을 중건하였다.

신도비의 주인공인 윤희손(尹孝孫, 1431~1503)은 본관이 남원이며, 자(字)는 유경(有慶), 호(號)는 추계(湫溪)이다. 1431년(세종 13) 9월 13일에 부친 윤처관(尹處寬)과 모친 광산 정씨(光山鄭氏) 사이에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윤처관은 순창 군수(淳昌郡守)를 역임하였다. 윤희손의 부인은 죽산 박씨(竹山朴氏)로 문헌공(文憲公) 영의정(領議政) 박원형(朴元亨)의 딸이다. 윤희손은 7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을 비롯해 모두 다섯 아들이 생원·진사 등 소과(小科)에 급제하였고, 특히 6남 윤지형(尹止衡)은 문과에 올라 홍문관 수찬과 이조 정랑,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윤희손은 1450년(세종 32)에 생원시에, 1453년(단종 1)에 식년 문과에 급제한 이

후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 저작(著作), 박사(博士)를 거쳐 1457년(세조 3) 전농 주부(典農主簿)에 임명되었다. 이어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고 우헌납(右獻納)으로 특진되었다. 예조 정랑, 사예(司藝), 검상(檢詳), 사인(使人) 등을 역임하였다.

1470년(성종 1)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가 되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의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호조와 예조의 참의를 역임한 후 다시 어머니 봉양을 위해 전주 부윤으로 나갔다. 중앙 관직으로 복귀한 후 공조·형조·이조의 참관,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1478년(성종 9) 4월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사헌부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89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정조사(正朝使)에 발탁되어 명나라에 사행을 다녀왔다.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가 김일손(金駟孫)의 사초(史草) 내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파직되었다가 곧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다. 1500년(연산군 6)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503년 좌참찬으로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으며, 같은 해에 73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시호는 문효(文孝)인데, 그의 졸기(卒記)에 “공경하고 정직하며 인자하고 은혜로운 것을 ‘문(文)’이라 하고 봉양을 잘하고 공손한 것을 ‘효(孝)’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건립은 비문의 끝에 기록된 ‘正德十四年己卯三月日’(1519년 3월)이라는 연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비신 뒷면의 음기(陰記)는 우의정 이행(李荇, 1478~1534)이 지었는데, ‘嘉靖七年十二月日’(1528년 12월)이라는 각자(刻字)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519년 이전에는 신도비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종실록』에는 신도비의 건립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원(南原) 사람들이 참찬(參贊) 윤효손(尹孝孫)의 묘비(墓碑)를 깨뜨렸다. 그 아들 지형(止衡)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한다.³⁶⁾

②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조 정랑 윤지형(尹止衡)은 인물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정조(政曹)에 합당치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희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윤지형은 위인이 탐욕스럽고 음흉하며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사(善士)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이언호(李彦浩)·채침(蔡忱)과 가까이 지낼 뿐이었다. 이들은 다 편협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지만 한때에

36)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1515) 7월 29일 갑인.

모두 명사(名士)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그르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시골집이 남원(南原)에 있는데 축적한 물건이 매우 많았고, 또 남의 집에 좋은 밭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못견디게 들볶아 억지로라도 사고야 말았다. 붓물은 혼자 독점하여 남이 함께 쓰지 못하게 하고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많이 점유하여 번갈아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게 하였다. 80여 간(間)이나 되는 화려한 집을 지었는데 원한이 있는 자가 불을 질러 버렸고, 또 그의 아버 윤효손(尹孝孫)의 무덤을 태우고 석물(石物)을 부수었다. 그의 형 생원(生員) 윤승형(尹承衡)이 이를 애통히 여겨 그 아버지의 신주(神主)를 꺼내 놓고 윤지형과 함께 자책(自責)하기를 ‘자식이 못나서 옥이 선령(先靈)에 미쳤으니 마땅히 신장(神杖)을 받아야 한다.’ 하고는, 사람을 시켜 윤지형을 포박하고 매를 때리게 한 일도 있었다. 그는 안으로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정대(正大)한 말로 큰소리를 쳤다. 이때에 논박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친구들에게 큰소리치기를 ‘박상(朴詳)·김정(金淨)이 죄를 얻은 뒤에 내가 옥당원(玉堂員)이 되었는데 양시지론(兩是之論)에 참여시켜서 우선 나에게 손을 쓰니 장차 딴 사람에게도 미치겠다.’ 하니, 이는 대개 박상·김정 등을 죄주자고 청하여 그의 동료들을 격노시켜서 자기의 간악함을 덮어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이때 정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삼공이 합좌(合坐)하지 않았으므로 각사(各司)에서 어렵고 중한 일을 올리면,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은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를 도로 그 관사로 보내었다. 그리고 부득이 삼공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검상(檢詳)인데도 그 공사(公事)를 가지고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고(告)하니, 그때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검상의 말이 지쳐서 죽겠다.’고 기롱하였다.³⁷⁾

현재 비석에 남아 있는 건립 연대와 『중종실록』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현재 남아 있는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1515년에 남원 사람들이 파괴했던 비석이 아닌 또 다른 비석이었음이 확인된다. 곧 1515년 이전에 세워졌던 비석과 이후 1519년에 세워진 현재의 비석 두 유형의 신도비가 있었으나, 원 비석은 파괴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비석만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양식은 지대석, 귀부, 비신, 이수를 갖춘 귀부 이수형(龜趺螭首形)으로 구별된다. 귀부(龜趺)의 좌향은 머리가 서쪽, 꼬리가 동쪽에 자리하는 묘좌유향(卯坐酉向)에 해당한다.

지대석은 한 몸으로 중앙면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낮게 단을 구획하고, 중앙 4면에 용과 구름, 물결을 조각했다. 용은 총 4마리를 조각했으며, 이 중 머리부터 꼬리까지

37)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1517) 5월 30일 갑진.

모두 표현된 용은 동면과 남면이며, 서면과 북면은 머리를 조각하지 않았다.



<용두가 표현되지 않은 서면>

<용두가 표현된 동면>

귀부는 양련(仰蓮)과 거북이를 조각하였다. 거북이의 네 발이 양련을 움켜쥐고 있는 자세로 표현되어 있는데, 머리는 위쪽으로 들고 있으며, 귀(耳)가 조각되어 있고, 목 주변에 갈기가 조각되어 있다. 거북이의 배갑(背甲)에는 중앙에 비석을 꽂을 수 있는 비좌(碑座)가 마련되어 있으며, 비좌에는 복련(覆蓮)을 조각했다. 비좌 주변에는 6각의 귀갑(龜甲)을 가득 조각했으며, 낙서(洛書)를 방향에 맞게 조각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귀부(龜趺) 형태는 복고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석을 꽂는 비좌(碑座)는 조선시대 귀부의 경우 하엽(荷葉)으로 표현되는데 비하여 이 신도비는 낮은 복련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다리는 네 다리로 짚고 일어서려는 모습이며, 발가락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표현은 귀갑문에 중첩하여 낙서(洛書)를 상징하는 원문을 첨가하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현재 다른 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비신은 대리석으로 만들어 앞면과 뒷면에 글씨를 새겼다. 비신 앞면의 비문(碑文)은 우의정 신용개(申用溉, 1463~1519)가 짓고, 우참찬 신공제(申公濟, 1469~1536)가 썼으며, 전자(篆字)는 전라도 관찰사 이언호(李彦浩, 1577~1519)가 썼다. 비문의 말비에는 “正德十四年己卯三月 日”(1519년 3월)이라는 건립 연대가 새겨져 있다.

비신 뒷면의 음기(陰記)는 우의정 이형(李荇, 1478~1534)이 지었으며, 글씨 쓴 사람의 직함은 새겨져 있지 않은 채 “嘉靖七年十二月 日”(1528년 12월)이라는 각자 연대가 새겨져 있다.



이수(螭首)는 총 3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전액을 새긴 하단, 용을 새긴 중단, 하엽(荷葉)과 보주(寶珠)를 조각한 상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수의 하단은 앞면에 ‘尹文孝公神道碑’라고 전서(篆書)로 새겼으며, 주변은 여의두문(如意頭紋) 및 구름문양으로 장식했다. 이수 상단은 황백색의 대리석으로 비신, 이수 하단과 중단의 청백색 대리석과는 다른 재질로 추정된다. 이수 중단은 앞뒤로 각기 2마리의 용을 조각했으며, 앞면은 구름 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위쪽에 있는 여의주를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다. 뒷면의 용은 아래쪽에 조각한 물결 위에 여의주가 있고, 두 마리의 용이 아래쪽으로 머리를 향해 여의주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이수귀부(螭首龜趺) 형식의 비석과는 다른 형식으로 제작되었다고 이해된다. 곧 통일신라 및 고려와 조선시대 이수귀부 비석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비신과 이수가 별석(別石)으로 되어 있는 지 여부에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9세기 이후 이수 비석은 비신과 분리되는 구조로 제작되는데, 이것은 비신을 풍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한국화(韓國化)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수는 비신과 한 돌로 제작되는데, 이것은 원말 명초의 비석 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이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이와 같은 조선시대 일반적인 이수귀부의 형식과는 다른 비석으로서 전라도 지역 특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⁸⁾

현재 조선시대 비석으로서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왕과 사대부, 그리고 불교 승려 등 크게 세 분류로 분류되고 있다.

왕과 관련된 비석으로는 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등 신도비 3건, 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 등 태실비 2건, 그리고 서울 仁祖別墅 遺基碑 등 모두 6건이 있다. 사대부로는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를 비롯하여 1536년 건립된 한글이 새겨진 서울 李允濯 한글靈碑,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麗水 墮淚碑, 麗水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海南 鳴梁大捷碑 등 3건, 그리고 1617년 건립된 順天 八馬碑 1건이 있다.

38) 김민규, 『조선시대 능묘비석 연구』, 신구문화사, 2023.



<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1409년)>



<서울 太宗 獻陵
神道碑(1422년)>



<서울 世宗 英陵
神道碑(1452년)>



<麗水 統制李公
水軍大捷碑(1615년)>

한편 불교 승려와 관련된 비석으로는 1393년 건립된 忠州 億政寺址 大智國師塔
碑를 중심으로 1694년 건립된 襄陽 洛山寺 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등 모두 8건이
지정된 상태이다.

○ 지정사례

국보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참고문헌

- 김민규, 『조선시대 능묘비석 연구』, 신구문화사, 2023.
- _____, 「황산대첩비 연구」,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_____, 「도선국사·수미선사비의 제작 장인과 양식연구」, 『문화재』 48-1, 국립
문화재연구소, 2015.
- _____, 「경희루 연못 출토 청동용과 경북궁 서수상의 상징 연구」, 『고궁문화』
7, 국립고궁박물관, 2014.
- _____, 「비두리 귀부와 이수 연구」, 『불교미술사학』 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

○ 현 상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求禮 尹文孝公 神道碑)>는 윤효손(尹孝孫, 1431~1503)의
신도비로서 그의 묘소 상석(床石)에서 동남쪽으로 12미터 정도 거리에 건립되어
있다. 이 비석은 귀부(龜趺)의 머리가 서남쪽, 꼬리가 북동쪽으로 놓여 있다. 즉

이 비석은 윤효손 묘소 하단에 위치해 일반적인 신도비 보다 묘소에 가깝게 건립되어 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지대석, 귀부,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대석은 위아래에 낮게 단을 구획하고, 중앙 4면에 용과 구름, 물결을 조각했다. 용은 총 4마리를 조각했으며, 이 중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표현된 용은 지대석 뒷면, 남면이며, 앞면과 북면은 머리를 조각하지 않았다. 더불어 각 면 용은 자세를 다르게 조각했지만 물결 위 구름 속에 조각된 점은 동일하다.



지대석 앞면



지대석 뒷면



지대석 남면



지대석 북면

<표1.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지대석, ©김민규>

이 작품의 귀부는 지대석 위에 올려져 있으며, 별도의 양련(仰蓮) 조각 위에 거북이를 조각했다. 그래서 거북이의 네 발이 양련을 움켜쥐고 있는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머리는 위쪽으로 들고 있으며, 귀(耳)가 조각되어 있고, 목 주변에 갈기가 조각되어 있다. 거북이의 배갑(背甲)에는 중앙에 비석을 꽂을 수 있는 비좌(碑座)가 마련되어 있으며, 비좌에는 복련(覆蓮)을 조각했다. 비좌 주변에는 6각의 귀갑(龜甲)을 가득 조각했으며, 낙서(洛書)를 방향에 맞게 조각했다.



<표2.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귀부, ©김민규>

비신은 대리석제이며, 앞면과 뒷면에 글씨를 새겼다. 비신 앞면의 비문(碑文)은 우의정 신용개(申用溉, 1463~1519)가 짓고, 우참찬 신공제(申公濟, 1469~1536)가 썼으며, 전자(篆字)는 전라도관찰사 이언호(李彦浩, 1577~1519)가 썼다. 비문의 말미에는 “正德十四年己卯三月 日”(1519년 3월)이라는 건립 연대가 새겨져 있다.

비신 뒷면의 음기(陰記)는 우의정 이행(李荇, 1478~1534)이 지었으며, 글씨 쓴 사람의 직함은 새겨져 있지 않은 채 “嘉靖七年十二月 日”(1528년 12월)이라는 각자 연대가 새겨져 있다. 글씨 새긴 사람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으나 이행 찬술 비문에 다수의 서사(書寫)를 담당한 김로(金魯, 1498~1548)의 필체와 유사하다.



<표3.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이수, ©김민규>

이 작품의 이수(螭首)는 총 3개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전액을 새긴 하단, 용을 새긴 중단, 하엽(荷葉)과 보주(寶珠)를 조각한 상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수의

하단은 앞면에 ‘尹文孝公神道碑’라고 전서(篆書)로 새겼으며, 주변은 여의두문(如意頭紋) 및 구름문양으로 장식했다. 이수 상단은 황백색의 대리석으로 비신, 이수 하단과 중단의 청백색 대리석과는 다른 재질로 추정된다.

이수 중단은 앞뒤로 각기 2마리의 용을 조각했으며, 앞면은 구름 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위쪽에 있는 여의주를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다. 뒷면의 용은 아래쪽에 조각한 물결 위에 여의주가 있고, 두 마리의 용이 아래쪽으로 머리를 향해 여의주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수 상단의 하엽과 보주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탑비(塔碑)의 상륜(相輪)을 연상케 하는 형태이다.

○ 내용 및 특징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건립 시기>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건립 시기는 그 동안 비신 앞면의 서사 연대 즉 1519년으로 추정해오고 있다. 그런데 1515년 『중종실록(中宗實錄)』에 따르면 이 해에 남원 사람들이 윤효손의 묘비를 깨뜨렸으며, 그 아들 윤지형(尹止衡)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29일 갑인 4번째 기사). 아마도 1503년에 사망한 윤효손의 신도비는 1515년 이전에 건립되었으며, 1515년에 남원 사람들에 의해서 파손되었으며, 1519년경에 다시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보조선사탑비,
884년, 전남 장흥군>



<원각사비,
1471년, 서울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1519년, 전남 구례군>

<표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구조 비교, ©김민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복고적(復古的) 구조>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이수귀부(螭首龜趺)와 매우 다른 복고적인 구조와 형태로 제작되었다. 통일신라의 <보조선사탑비>(884년)와 조선의 <원각사비>(1471년)를 비교하면 조선시대 이수귀부 비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통일신라 및 고려와 조선시대 이수귀부 비석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비신과 이수가 분리되었는지, 한 돌로 제작되었는지다. 9세기 이후 이수 비석은 비신과 분리되는 구조로 제작되는데, 이것은 비신을 풍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한국화(韓國化)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수는 비신과 한 돌로 제작되는데, 이것은 원말 명초의 비석 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이다.

그런데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이수귀부의 구조가 아닌 복고적인 구조로 이수와 비신이 분리되어 있다.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김제 금산사 <혜덕왕사비>(1111년)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비석 중 전남, 경남 지역의 작품들은 서울과 경기의 장인들이 내려와 비석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모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비석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도 이러한 지역 특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귀부(龜趺) 형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귀부(龜趺) 형태도 이수의 구조처럼 복고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 비신을 쫓는 비좌(碑座)는 조선시대 귀부의 경우 하엽(荷葉)으로 표현되는데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낮은 복련으로 표현했으며, 고려시대 <혜덕왕사비>와 유사하다. 또 다리의 경우 <원각사비>(1471년) 등 조선시대 작품은 배갑(背甲)이 크고 높고 다리와 발은 몸에 밀착하여 접은 형태로 표현된다. 이에 반해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네 다리로 짚고 일어서려는 모습이며, 발가락들을 앞발과 뒷발 모두 표현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며, <혜덕왕사비> 등과 동일하다.

이러한 복고적인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귀부는 1577년에 건립한 <황산대첩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시대 전남 등 서울, 경기와 먼 거리에 있던 지역은 주변의 우수한 통일신라, 고려의 비석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는 작품들이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1519년>



<원각사비, 1471년, 서울시>



<혜덕왕사비, 1111년, 전북 김제시>



<황산대첩비, 1577년, 전북 남원시>

<표5.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귀부 형태 비교, ©김민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이수(螭首) 양식>

조선시대 이수는 15세기 후반에 양식이 정립되는데 그 대표작이 <한명회 신도비>(1488년), <월산대군 신도비>(1489년) 등이다. 이 작품들은 전체적인 구성, 용의 자세가 유려하며, 머리는 선명한 인상과 우수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이러한 이수 조각은 <박월종 신도비>(1511년) 등 16세기 전반 이수로 변화하는데, 가슴 부분이 커지고, 몸통이 두꺼워지는 등 양감(量感)이 크게 상승했다.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1519년>



<한명회 신도비, 1488년, 충남 천안시>



<박원중 신도비, 1511년, 경기 남양주시>

<표6.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이수 비교, ©김민규>

또 <한명회 신도비>, <박원중 신도비> 등 서울, 경기 지역의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 이수는 하단에 구름을 조각하고, 위쪽은 용으로 가득 채우면서, 상단을 용의 몸통으로 마감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반해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이수는 상단과 하단에 구름, 중앙에 용이 배치된 형태로, 이수 전체의 면적에 비해 용의 크기가 작은 편이다. 또 용의 얼굴

을 보면 뿔이 없으며, 윗입술이 뒤로 젖혀진 형태로 조각되어 있어서 <한명회 신도비>, <박원종 신도비> 등 서울, 경기 지역의 이수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이수는 현재로서는 양식 연월을 짐작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은 전라도 지역의 장인이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 작품의 지대석에 조각된 용을 살펴보면 이수의 용 형태를 계승하면서 매우 형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7. 구례 윤문효공 지대석의 용, ©김민규>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의 미술사적 의의>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비신과 이수의 구조, 귀부의 비좌 형태, 다리와 발의 표현, 이수의 용, 지대석의 용 등으로 볼 때 16세기 전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장인들이 제작한 작품이 아닌 전라도 지역 장인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복고적(復古的)인 구조와 형태는 인근의 <황산대첩비>(1577년)와 유사하며, <혜덕왕사비>(1111년) 등 고려시대 비석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고적인 경향은 전남, 경남 등 서울과 경기 지역과 멀리 떨어져 양식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 찾아낸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는 우수한 장인이 제작해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조선 전기 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활동하던 서울, 경기지역의 작품에 비하면, 이수와 지대석에 표현된 용의 모습 등이 경직되고, 형식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더불어 이수와 지대석은 용의 형태가 시기 차이가 있

어서 지대석은 비석 건립 연대로 추정하는 1519년 보다 몇십 년 뒤의 작품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 참고문헌

- 김민규, 『조선시대 능묘비석 연구』, 신구문화사, 2023.
- _____, 「황산대첩비 연구」, 『고궁문화』 9, 국립고궁박물관, 2016.
- _____, 「도선국사·수미선사비의 제작 장인과 양식연구」, 『문화재』 48-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_____, 「경회루 연못 출토 청동용과 경복궁 서수상의 상징 연구」, 『고궁문화』 7, 국립고궁박물관, 2014.
- _____, 「비두리 귀부와 이수 연구」, 『불교미술사학』 15, 불교미술사학회, 2013.

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4-02-006

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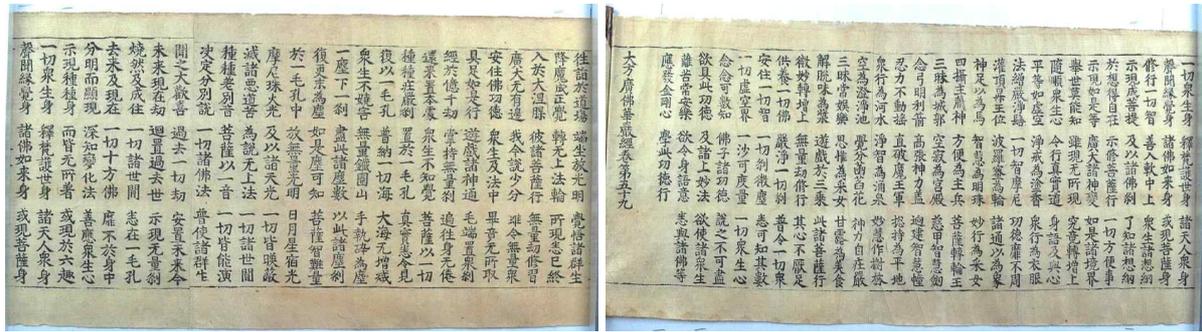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9.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초조본 불교경전 등 지정기준 마련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 이에 2022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22.5.11.)에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상태조사('24.3.12.)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
- 소유자(관리자) : 장○○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 량 : 1권 1축
- 규 격 : 전체 28.7×1,064.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 조성연대 : 고려 11세기 판각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청 대상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1축은 표지와 제1~4장 및 판제 등이 탈락되어 있으며, 원래의 출처와 소장(공인박물관의 소장)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측면도 보인다. 그러면서 11세기 판각된 초조 대장경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원천 텍스트로 삼아 12세기 전후경에 인출한 불교 기록유산으로, 초조 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실체와 성격 및 당대 현실 인식을 비롯하여 인출 불사의 역량과 먹·종이의 종류 및 해당 경전의 유통 형태 등을 진단하고 해당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인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로 비지정된 상태로 있는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18권에서도 권59의 권차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1권 1축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지정 상태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18권도 향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1축은 唐朝 實叉難陀(652~710)가 漢譯한 周本 『80華嚴』의 「離世間品」 제38의 7로 11世紀 初期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初雕 大藏經本이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는 비록 表紙를 비롯하여 제 1~4장이 缺落되었으나, 희귀한 初雕本 大藏經이라는 점에서 高麗 大藏經 研究와 書誌學 研究 및 高麗 木板印刷文化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기준>

현재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보 제203호(권6), 국보 제204호(권36), 국보 제256호(권1), 국보 제257호(권29), 국보 제265호(권13), 국보 제266호(권2·75), 국보 제277호(권36), 국보 제279호(권74), 보물 제687호(권66), 보물 제688호(권17·52), 보물 제690호(권6), 보물 제1191호(권30), 보물 제1205호(권67·77), 보물 제1940호(권4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은 권1·2·13·29·30·36·41·67·74·75·77 등의 도합 11권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대방광불화엄경』 권59는 初雕本으로서 중국 당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한역한 주본 『80화엄경』의 「이세간품(離世間品)」 제38의 7에 해당한다. 현재 표지를 비롯하여 제1~4장이 결락된 상태이나, 판본 서식 및 피휘자의 용례로 볼 때 희귀한 初雕本 大藏經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사본과 동일한 판본은 현재까지 9권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4권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국보 제203호(권6), 국보 제204호(권36), 국보 제256호(권1), 국보 제257호(권29), 국보 제265호(권13), 국보 제266호(권2·75), 국보 제277호(권36), 국보 제279호(권74), 보물 제1191호(권30), 보물 제1205호(권67·77), 보물 제1940호(권41) 등으로 동일 권차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조사본은 현재 표지를 비롯하여 제1~4장이 결락된 상태이나, 초조본 대장경판에서 인출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마. 2차 조사자 검토 의견

검 토 의 견 서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第五十九 추가 검토 의견

보류 사유

지정 기준에 대해 검토 후 재부의(2021.2.4.)

지정 기준 검토

동일 전적문화재 지정 기준(안) 검토(2022.5.11.)

<공통 기준>

- ① 기 지정본과 비교하여 학술적·서지적 가치가 월등히 우수한 대상
- ② 완질본을 우선으로 하며, 판본학적으로 중요하고 전래본이 희소한 대상
- ③ 보존 상태가 좋고 개장(改粧)이나 인위적인 훼손 등이 적어 완전성이 우수한 대상
- ④ 역사적 가치(사건, 인물, 장소 등) / 자료적 가치(주석, 구결, 인문 등) / 예술적 가치(장정 형태 등)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료

<세부 기준>

- ① 唯一本
 - 원형의 변형(전체 구성의 임의적 습本 및 分卷, 내용의 임의적 刪削, 장정 형태의 지나친 변형, 후대 인장 날인 등 본래 가치의 훼손 등)이 있을 시 재검토
- ② 稀貴本, 稀觀本, 貴重本
 - 유일본의 경우와 같이 원형의 변형이 심할 경우 재검토
 - 인쇄본은 기 지정본과 비교해 자료적 가치가 월등한 경우
- ③ 기 지정본과 비교 검토
 - 유일본의 경우와 같이 원형의 변형이 심할 경우 재검토
 - 인쇄본은 기 지정본과 비교하여 자료적 가치가 월등한 경우

□ 재검토 의견

- 보존상태: 2020년 1차 조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에 문제없이 보관 관리되고 있음.
- 문화재가치:
동일 전적문화재 지정 기준(안)에 근거
初雕本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기지정보 가운데 해당 권차가 없는 唯一本으로서 판본학적으로 중요함.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3. 12.

조사자 ○ ○ ○ (서명)

조사자 ○ ○ ○ (서명)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 대상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권59 1축은 11세기 조성된 초조 대장경판 가운데 편제된 해당 목판을 원천 텍스트로 삼아 후대에 인출한 불교 기록유산으로, 현재 소장자 장○○이 2018년 3월 공인박물관(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208-208)의 김○○(○○) 박물관장으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제1~4장이 탈락되어 있고, 훼손·얼룩 현상이 남아 있으며, 판제도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지(表紙)·권서(卷緒) 등도 없으며, 권말의 주칠축(朱漆軸)도 원형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출 상태와 보존 상태가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11세기 판각 추정).

1권 1축(전체 23장: 제1~4장 탈락): 상하단변(上下單邊)/ 광고 22.5cm/ 무게(無界)/ 전곽 23행 14자[제11장 22행 14자]/ 28.7×1,064.9cm(1장 28.7×46.2cm 내외) 내외/ 권축장(卷軸裝).

표지제목: 탈락.

권 수 제: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新譯 育].

한역정보: [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

판 제: 탈락.

권 미 제: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 내용 및 특징

『화엄경(華嚴經·花嚴經)』 등으로 줄여 부르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毘盧舍那佛·大日如來)을 주불로 삼으며 화엄사상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이고 널리 조성·유통된 대표적인 불교 기록유산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의 한역본은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佛陀跋陀羅·覺賢) 한역의 진본(晉本: 舊譯本) 60권과 실차난타(實叉難陀·學喜) 한역의 주본(周本: 新譯本) 80권 및 반야(般若) 한역의 정원본(貞元本) 40권 등 3종류가 있으며, 이를 3본(本) 화엄경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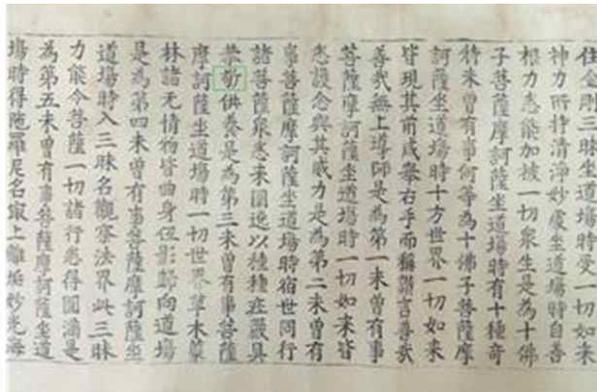
조사 대상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1권 1축은 우진국(于闐國) 출신의 실차난타가 한역한 전체 80권 가운데 제59권으로, 11세기 판각된 초조 대장경판 가운데 편제된 해당 목판을 원천 텍스트로 삼아 후대에 인출한 불교 기록유산이다. 제5장부터 제27장까지 전체 23장이 두루마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나, 제1장 제1행의 권수제(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新譯 育)와 제2행의 한역정보(唐于闐國三藏實又難陀譯) 및 제3행의 분과품제목(離世閒品第三十八之七)부터 제4장 23행의 본문 내용(薩爾時爲一切如來光明所觸倍加)까지 제1~4장이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지도 탈락되어 표지 제목(經題)을 확인할 수 없다.

조사 대상본의 외형적 형태는 상하단변이며 본문 사이에 계선(界線)이 없는 무계이다. 전곽의 행자수는 23행 14자이다. 광고가 22.5cm이고, 전체의 규격이 28.7×1,064.9cm 내외이며, 개별 장의 규격이 22.5×46.2cm 내외이다. 전체적으로는 [권수제-한역 정보-분과품 제목]-본문 내용-권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행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판제의 부분도 탈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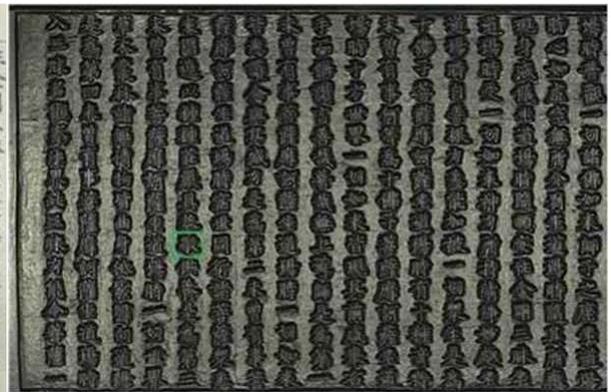
본문 가운데는 송나라 태조의 할아버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인 경(敬)자(091602·191713)와 겸피자(兼避字)인 경(竟)자(170714·202302·211002·230907·231512·232202·251012)가 각각 마지막 획의 결획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서 다른 공간에 새겨진 경(竟)자(130502·261312)는 결획도 없이 피휘 되지 않은 정자의 형태가 확인되기도 한다. 권미제는 대방광불화엄경권제오십구(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와 같이 경전이름+권+제+권차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권미제 다음 행에는 음의(音義)와 간행 정보가 생략되어 있다.

조사 대상본은 외형적 형태와 서체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구성 체계와 피휘 결획의 현상 및 권미제 다음의 형태(음의·간행 정보의 생략) 등에서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과 동일하다.

조사 대상본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5(국보 제266호)와 마찬가지로 경(敬)자의 피휘 결획 현상과 함께 권미제의 형태에서 동일하며, 전곽의 행자수도 23행 14자로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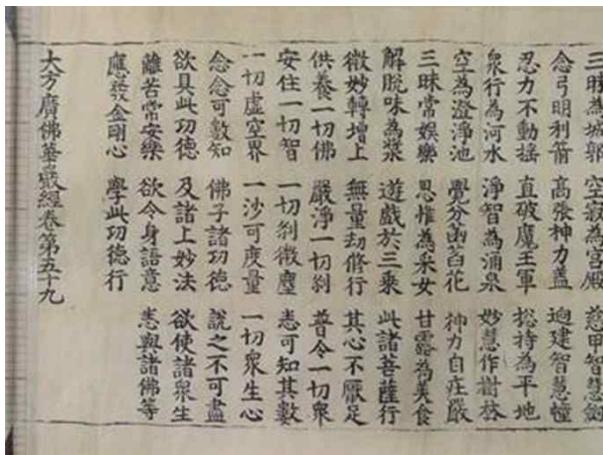


조사 대상본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제7폭
(초조본 피휘 결획의 정자 사례)



조사 대상본

(제9장 피휘 사례 및 권미제)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
(권75의 권미제 및 피휘 사례)

그러면서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되어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경우에는 전곽의 행자수가 24행 17자이고, 제7폭(幅)의 제20행 11번째(조사 대상본의 091602에 해당)에 새겨진 경(敬)자가 피휘 결획이 되지 않은 정자이며, 권미제의 다음에 음의(音義)와 함께 ‘고종 32년(1245) 고려국대장도감에서 고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의 경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행 정보도 있으므로, 조사 대상본과 서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조사 대상본은 고려 고종 32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경판과 달리, 11세기 판각된 이후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 대장경판에 편입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를 원천 텍스트로 삼아 찍은 인출본으로 진단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 대상본은 일부의 글자가 마모되어 있고 나무결(木理) 흔적도 보이므로, 12세기 전후경에 찍은 후쇄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써 조사 대상본은 초조 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실체와 성격을 비롯하여 현실 인식, 인출역량과 먹·종이의 종류, 해당 경전의 유

통 형태 등을 진단하고, 해당 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 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의 권차 경우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현존하는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인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다.

조사 대상본의 경우에는 표지와 제1~4장 및 판제 등이 탈락되어 있으며, 원래의 출처와 소장(공인박물관의 소장)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아쉬운 측면이 보인다.

○ 지정사례

신청 대상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1축은 11세기 조성된 초조 대장경관의 해당 경관을 원천 텍스트로 삼아 12세기 전후경에 찍어 만든 불교 기록유산으로,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확인된다.

- 국보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경기도박물관, 1990년 9월 지정, 권축장).
- 국보 제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구인사, 1990년 9월 지정, 권축장).
-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삼성출판박물관, 1991년 7월 지정, 권축장).
-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호림박물관, 1991년 7월 지정, 권축장).
-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한솔제지, 1993년 4월 지정, 권축장).
- 국보 제279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4(구인사, 1993년 6월 지정, 권축장).
- 보물 제1191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0(한솔제지, 1994년 1월 지정, 권축장).
- 보물 제120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7·77(가천박물관, 1994년 7월 지정, 권축장).
- 보물 제1940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영남대학교, 2017년 5월 지정, 권축장).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판본은 현재까지 7권 7축의 6건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4권 4축의 3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보물 제1205호의 경우는 일부의 장이 탈락되어 있기도 하다. 조사 대상본과 동일한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으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권차의 경우는 권1·2·13·29·30·36·41·67·74·75·77 등 전체 11권이며, 조사 대상본과 같은 권차의 권59는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태로 자료적인 희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의 인출본 가운데 권31·34(호림박물관 소장), 권32·79(개인 소장), 권45(삼성출판박물관 소장), 권54·78(호암박물관 소장), 권17·22·64(개인 소장), 권1·7·11·19·37·47·48·49(개인 소장) 등 전체 18권도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 판본에서도 권59의 권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편, 『古書目錄(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南齋文庫 제1집』,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2001.
- 남권희, 「영남대학교 도서관 南齋文庫 소장 佛敎文의 서지 연구」, 『民族文化論叢』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현 상

指定 申請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9의 書誌 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書誌 記述>

大方廣佛華嚴經. 卷59 / 實叉難陀(652~710, 唐朝) 漢譯. -- 初雕木板(周)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11世紀初 推定].

1卷 1軸(23張, 4張 缺): 上下單邊, 匡高 22.5cm, 每張 23行14字, 28.7×1,064.9cm 內外. 韓紙(楮). 卷軸裝(卷末에 朱漆軸 殘存).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卷尾題: 大方廣佛華嚴經.

函 次: [育].

行字數: 第1張(22行14字), 第2~27張(23行14字).

張 數: 全27張 중 23張板 殘存(第1~4張 缺). (每張 28.7×46.2cm)

內 容: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

避 諱: 宋朝 太祖(趙匡胤)의 祖父 ‘趙敬’의 避諱인 ‘敬’(091602·191713)과 兼避字인

‘竟’(170714·202302·211002·230907·231512·232202·251012)의 마지막 劃이 缺劃으로 처리된 避諱가 각각 2처와 7처에 있으며, 미처 避諱되지 않은 ‘竟’(130502·261312)도 2처에 있다.

缺 落: 지정신청본은 表紙를 비롯하여 [0101][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新譯[0102]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育][0103]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0104]佛子菩薩摩訶薩示現處胎有十種[0105]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爲欲[0106]成就小心劣解諸衆生故不欲令彼[0107]起如是念今此菩薩自然化生智慧[0108]善根不從修得是故菩薩示現處胎[0109]是爲第一事菩薩摩訶薩爲成熟父[0110]母及諸眷屬宿世同行衆生善根示[0111]現處胎何以故彼皆應以見於處胎[0112]成熟所有諸善根故是爲第二事菩[0113]薩摩訶薩入母胎時正念正知無有[0114]迷惑住母胎已心恒正念亦無錯亂[0115]是爲第三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0116]常演說法十方世界諸大菩薩釋梵[0117]四王皆來集會悉令獲得無量神力[0118]無邊智慧菩薩處胎成就如是辯才[0119]勝用是爲第四事菩薩摩訶薩在母[0120]胎中集大衆會以本願力教化一切[0121]諸菩薩衆是爲第五事菩薩摩訶薩[0122]於人中成佛應具人間最勝受生以[0201]此示現處於母胎是爲第六事菩薩[0202]摩訶薩在母胎中三千大千世界衆[0203]生悉見菩薩如明鏡中見其面像爾[0204]時大心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0205]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皆[0206]詣菩薩恭敬供養是爲第七事菩薩[0207]摩訶薩在母胎中他方世界一切最[0208]後生菩薩在母胎者皆來共會說大[0209]集法門名廣大智慧藏是爲第八事[0210]菩薩摩訶薩在母胎時入離垢藏三[0211]昧以三昧力於母胎中現大宮殿種[0212]種嚴飾悉皆妙好兜率天宮不可爲[0213]比而令母身安隱無患是爲第九事[0214]菩薩摩訶薩住母胎時以大威力興[0215]供養具名開大福德離垢藏普遍十[0216]方一切世界供養一切諸佛如來彼[0217]諸如來咸爲演說無邊菩薩住處法[0218]界藏是爲第十事佛子是爲菩薩摩[0219]訶薩示現處胎十種事若諸菩薩了[0220]達此法則能示現甚微細趣佛子菩[0221]薩摩訶薩有十種甚微細趣何等爲[0222]十所謂在母胎中示現初發菩提心[0223]乃至灌頂地在母胎中示現住兜率[0301]天在母胎中示現初生在母胎中示[0302]現童子地在母胎中示現處王宮在[0303]母胎中示現出家示現苦[0304]行往詣道場成等正覺在母胎中示[0305]現轉法輪在母胎中示現般涅槃在[0306]母胎中示現大微細謂一切菩薩行[0307]一切如來自在神力無量差別門佛[0308]子是爲菩薩摩訶薩在母胎中十種[0309]微細趣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0310]來無上大智慧微細趣佛子菩薩摩[0311]訶薩有十種生何等爲十所謂遠離[0312]愚癡正念正知生放大光明網普照[0313]三千大千世界生住最後有更不受[0314]後身生不生不起生知三界如幻生[0315]於十方世界普現身生證一切智智[0316]身生放一切佛光明普覺悟一切衆[0317]生身生入大智觀察三昧身生佛子[0318]菩薩生時震動一切佛刹解脫一切[0319]衆生除滅一

切惡道映蔽一切諸魔[0320]無量菩薩皆來集會佛子是爲菩薩[0321]摩訶薩十種
 生爲調伏衆生故如是[0322]示現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0323]現微笑心自
 誓何等爲十所謂菩薩[0401]摩訶薩念言一切世間沒在欲泥除[0402]我一人無能
 免濟如是知己熙怡微[0403]笑心自誓復念言一切世間煩惱所[0404]盲唯我今者
 具足智慧如是知己熙[0405]怡微笑心自誓又念言我今因此假[0406]名身故當得
 如來充滿三世無上法[0407]身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0408]爾時以無障
 礙眼遍觀十方所有梵[0409]天乃至一切大自在天作是念言此[0410]等衆生皆自
 謂爲有大智力如是知[0411]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觀諸[0412]衆生久種善
 根今皆退沒如是知己[0413]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世間種[0414]子所種雖少
 獲果甚多如是知己熙[0415]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一切衆生[0416]蒙佛所教必
 得利益如是知己熙怡[0417]微笑心自誓菩薩觀見過去世中同[0418]行菩薩染著
 餘事不得佛法廣大功[0419]德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0420]觀見過去世
 中同共集會諸天人等[0421]至今猶在凡夫之地不能捨離亦不[0422]疲厭如是知
 己熙怡微笑心自誓菩[0423]薩爾時爲一切如來光明所觸倍加] 등 4張이 缺落
 이다(都合 27張이나 第1~4張의 91行이 缺落되고 第5~27張의 23張이 殘
 存함).

所藏歷: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는 소장자 장○○이 慶尙
 南道 梁山市 용당동 127-2의 ○○○ ○○○○ 道場의 佛事に 협조한 보답
 으로 2018년 3월에 空印博物館長이자 ○○○ ○○○○의 주지인 金○○
 (○○)로부터 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과 함께 寄贈을 받은 것
 이라 하나, 金○○ 이전의 出處(所從來)는 분명하지 않다(기증서, 소장경
 위서 및 활용계획서 참조). 또한,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소장자인 장○○은 보물 제1596호 『東輿備考』(1책 57장)의
 공동 소장자로 이를 국립제주박물관에 寄託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現 狀: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보존의 상태는 表紙와
 제1~4장이 缺落되고 그 나머지의 殘葉은 곳곳에 얼룩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既指定: 현재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보 제203호(권6), 국보 제204호(권36), 국보 제
 256호(권1), 국보 제257호(권29), 국보 제265호(권13), 국보 제266호(권2·7
 5), 국보 제277호(권36), 국보 제279호(권74), 보물 제687호(권66), 보물 제6
 88호(권17·52), 보물 제690호(권6), 보물 제1191호(권30), 보물 제1205호(권
 67·77), 보물 제1940호(권4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初
 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은 권1·2·13·29·30·36·41·67·74·75·77 등의
 도합 11권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
 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現狀>

지정 신청본의 보존의 상태는 表紙와 제1~4장이 缺落되고 그 나머지의 殘葉은 곳곳에 얼룩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裝訂은 卷軸裝으로 제1~4장이 결락되어 卷頭에 있어야 할 標竹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卷末에는 朱漆軸이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佛華嚴經』은 華嚴宗의 根本 經典이요, 한국 불교의 所依經典 중의 하나이며 佛教專門講院의 大教科의 課程에서 학습되었던 불교 최고의 經典으로 『華嚴經』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華嚴經』의 譯本은 권수에 따라 佛陀跋陀羅(359~429) 번역의 晋本 『60華嚴』과 實叉難陀(652~710) 번역의 周本 『80華嚴』, 般若(?~?) 번역의 貞元本 『40華嚴』 등 3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60華嚴』에는 34품, 『80華嚴』에는 39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40華嚴』은 『60華嚴』과 『80華嚴』의 마지막 章인 「入法界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華嚴經』의 完譯이 아니다. 譯本이 나타난 이래로 우리나라 및 중국에 華嚴思想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會通的인 哲學性은 동양사상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60華嚴』의 會次와 品次는 제1회의 寂滅道場會에 (1)「世間淨眼品」·(2)「盧舍那佛品」가 수록되어 있고 제2회의 普光法堂會에 (3)「如來名號品」·(4)「四諦品」·(5)「如來光明覺品」·(6)「菩薩明難品」·(7)「淨行品」·(8)「賢首菩薩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3회의 忉利天宮會에 (9)「佛昇須彌頂品」·(10)「菩薩雲集妙勝殿上說偈品」·(11)「菩薩十住品」·(12)「梵行品」·(13)「初發心菩薩功德品」 등이 수록되어 있고 제4회의 夜摩天宮會에 (14)「明法品」·(15)「佛昇夜摩天宮自在品」·(16)「夜摩天宮菩薩說偈品」·(17)「功德華聚菩薩十行品」·(18)「菩薩十無盡藏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5회의 兜率天宮會에 (19)「如來昇兜率天宮一切寶殿品」·(20)「兜率天宮菩薩雲集讚佛品」·(21)「金剛幢菩薩十廻向品」 등이 수록되어 있고 제6회의 他化自在天宮會에 (22)「十地品」·(23)「十明品」·(24)「十忍品」·(25)「心王菩薩問阿僧祇品」·(26)「壽命品」·(27)「菩薩住處品」·(28)「佛不思議法品」·(29)「如來相海品」·(30)「佛小相光明功德品」·(31)「普賢菩薩行品」·(32)「寶王如來性起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7회의 普光法堂重會에 (33)「離世間品」이 수록되어 있고 제8회의 給孤獨園會에 (34)「入法界品」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60華嚴』은 7處 8會 34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經을 설한 장소는 제1회의 寂滅道場會와 제2회의 普光法堂會는 地上이고 제3회의 忉利天會와 제4회의 夜摩天宮會 그리고 제5회의 兜率天宮會와 제6회의 他化自在天宮會는 天上이며, 제7회의 普光法堂會와 제8회의 給孤獨園會는 다시금 地上의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8회 중에서 普光法堂會가 2회에 걸쳐 있으므로 7處가 된다.

『80華嚴』의 경우는 7處 9會 39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60華嚴』의 제6

회를 2회로 나누어 제6회에는 「十地品」, 제7회에는 「十定品」에서 「如來出現品」까지를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80華嚴』은 『60華嚴』의 「盧舍那佛品」을 「如來現相品」·「普賢三昧品」·「世界成就品」·「華藏世界品」·「毘盧遮那品」 등 5품으로 세분시키고 있으며, 『60華嚴』에 수록되지 않은 「十定品」이 첨가되어 있다. 『80華嚴』은 구성상에 『60華嚴』과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60華嚴』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40華嚴』은 『60華嚴』과 『80華嚴』의 「入法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의 부분적 번역으로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등으로 別行되고 있으며, 『60華嚴』이나 『80華嚴』과는 달리 完本の 『華嚴經』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華嚴經』의 내용을 보면 제1회는 釋迦牟尼佛이 摩伽陀國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막 大覺을 이루고 묵묵히 앉아 光彩를 발하고 있다. 그 둘레에는 많은 菩薩들이 있어 한 사람씩 일어나 부처님의 德을 찬양한다. 이때 釋迦牟尼는 『華嚴經』의 敎主인 毘盧遮那佛과 일체가 되어 있다. 제2회에서는 釋迦牟尼가 자리를 옮겨 普光法堂의 獅子座에 앉아 있다. 文殊菩薩이 먼저 苦集滅道 四諦의 法을 설한 뒤 10명의 菩薩들이 각각 10가지의 심오한 진리를 설한다. 제3회부터는 說法의 場所를 天上으로 옮겨 제3회에서는 十住의 法을 설하고 제4회에서는 十行을 설하며, 제5회에서는 十廻向을 설하고 제6회에서는 十地를 설한다. 제6회는 현재 梵語의 原典이 남아 있는 「十地品」이며, 『華嚴經』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품은 별도의 『十地經』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華嚴經』과 『十地經』은 고려조와 조선조에 僧科의 敎宗選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된 중요 經典이기도 하다. 『十地品』에서는 보살의 수행발전 단계를 10가지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十地에서 제1지의 歡喜地는 깨달음이 열려 기쁨이 넘치는 경지이고 제2지의 離垢地는 기본적인 道德의 훈련 과정이며, 제3지의 明地는 無常의 성찰을 통하여 점차 지혜의 빛을 나타내고 제4지의 焰地는 진리를 향한 열의로 그 지혜가 더욱 증대하는 경지이다. 제5지의 難勝地는 평등한 마음을 갖추어 어떠한 것에 의하여서도 지배를 받는 일이 없는 경지이고 제6지의 現前地는 十平等地를 갖추어 일체가 마음의 움직임에 불과한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경지이며, 제7지의 遠行地는 一切의 佛法을 일으키는 경지로 涅槃에도 生死에도 자유로이 출입하고 제8지의 不動地는 無生法忍을 증득하는 경지로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이 자연히 솟아 나오는 경지이다. 제9지의 善慧地는 훌륭한 지혜를 성취하고 無碍行이 이룩되는 경지로서 부처님의 진리의 창고인 法藏에 들어가 불가사의한 큰 힘인 海탈의 지혜를 얻으며, 제10지의 法雲地는 無明으로 말미암은 번뇌의 불길을 모조리 꺼버린 海탈의 경지이다. 또한 「十地品」은 그 전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하여서 노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利他行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十地는 지혜와 慈悲가 완성됨에 따라 나타나는 如來性의 興起와 性起

의 외적인 표현이며, 그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로 평가되고 있다. 제7회는 다시 地上的 普光法堂에서 지금까지의 說法을 요약하여 설한다. 제8회는 「入法界品」으로 梵語의 原典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善財라는 동자가 53인의 善知識을 찾아 道를 구하는 과정을 수록하여 精進이 곧 佛敎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만나는 善知識 중에는 뛰어난 菩薩만이 아니라 比丘·比丘尼·小年·小女·醫師·長者·娼婦·外道 등 갖가지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菩提心の 有無가 문제라는 大乘佛敎의 修行理想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밖에 『華嚴經』에는 「十玄緣起無碍法門」·「四法界說」·「六相圓融論」 등 佛敎의 世界觀과 人生觀 등의 주요한 사상들도 함축성 있게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慈藏律師(590~658)가 唐朝에서 귀국할 때 『華嚴經』을 가져와서 講說한 이후 유포되기 시작하였으나 華嚴思想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元曉大師(617~686)와 義湘大師(625~702)가 『華嚴經』을 연구하고 華嚴宗을 創宗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뒤 우리나라 불교 敎學의 중심은 『華嚴經』과 『法華經』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華嚴經』은 禪宗에서도 그 연구가 활발하여 所依經典으로 삼았으므로, 禪宗이 주류를 이룬 조선조에도 禪僧들은 한결같이 『華嚴經』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특이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승려들이 편찬한 『華嚴經』에 관한 註釋書는 매우 많으며, 『華嚴經』의 판본으로는 신라조의 華嚴寺石壁刻板 및 숙종 3년(1098)의 壽昌板 등 25종이 현재 전해 오고 있다.

『華嚴經』은 삼국시대에 유통되었으며, 統一新羅時代로 넘어오면서 新羅 華嚴學이 정립되었다. 아울러 華嚴宗이 성립되어 華嚴寺刹이 건립되기에 이르렀고 華嚴思想도 정립되었다. 현재 전하여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華嚴經』은 求禮 華嚴寺에 있는 『華嚴石經』이다. 이 石經은 3종의 『華嚴經』 번역본 중 어느 것을 板刻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판각의 연대도 문무왕 17년(677)과 정강왕 원년(886)의 2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國寶로 지정되어 湖巖美術館에 소장되고 있는 『新羅白紙墨書寫經』은 경덕왕 13년(754)에 필사된 周本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당시에 이미 功德經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아 경덕왕 13년(754)보다 훨씬 이전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신라 후기에는 이미 3종류의 『華嚴經』이 모두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조에 들어서도 均如大師(923~973)와 大覺國師 義天(1055~1101) 등의 高僧에 의하여 『華嚴經』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연구와 註釋書가 전하여 오고 있다. 당시에 간행된 것으로는 현종 11년(1020)에 玄化寺에서 『三本華嚴經』을 판각한 기록이 있으며, 海印寺에는 숙종 3년(1098)에 판각된 『三本華嚴經』의 木板과 1200년대에 판각된 木板이 섞여서 보존되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海印寺에서 판각된 숙종 3년(1098) 刊記가 있는 晋本이 전하여 오고 있으며, 당시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晋本·周本·貞元本이 여러 種이나 보존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刊本으로 추정되는 拯倫寺 板本도 전하여지고 있다. 이를 보면 고려 숙종조에 『三本華嚴經』이 모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榮州 浮石寺에도 『三本華嚴經板』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들은 매행 34자씩 배열된 經板으로 13세기경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華嚴經』은 다른 經에 비하여 卷數가 많아 板刻하기가 쉽지 않다. 이밖에 국가에서 판각한 初雕大藏經과 再雕大藏經에도 이들 『三本華嚴經』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려조 초기에 義天에 의하여 당시까지 연구된 『華嚴經』에 관한 註釋書들은 대부분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教藏』은 澄觀禪師(738~839)의 『華嚴經隨疏演義鈔』 40권으로 현재 일본의 나라(奈良)에 전하여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고려조에는 寫經功德을 위하여 金과 銀을 사용한 『華嚴經』의 寫經이 상당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禪教 兩宗이 되면서 신라조에서 내려오던 華嚴宗이 역사적인 특성을 잃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물론 조선조에도 『華嚴經』은 여전히 禪教合一思想에서 禪教를 막론하고 주된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다른 經典에 비하여 『華嚴經』의 판각은 한동안 沈滯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오면서 蓮潭 有一禪師(1720~1799)와 仁嶽 義沾禪師(1746~1796)에 의하여 華嚴學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여전히 佛經 가운데 왕좌를 누리면서 간행도 이루어졌다. 조선조에 유통된 『華嚴經』은 한동안 唐朝 澄觀禪師의 『華嚴經隨疏演義鈔』에 淨源禪師(1011~1088)가 다시 註釋을 붙인 120권의 『大方廣佛華嚴經疏』가 유행하다가 다시금 澄觀의 『華嚴經隨疏演義鈔』가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華嚴經』하면 澄觀의 『華嚴經隨疏演義鈔』 80권으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華嚴經』은 워낙 분량이 많아 寺刹經濟가 많은 꺾박을 받은 조선조 초기에는 간행이 매우 벅찬 시기였다. 그러므로 당시는 주로 海印寺의 大藏經板 등 고려 때 木板에서 印出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조선조 중기에 내려와 佛敎專門講院에서 『華嚴經』이 교재로 채택되어 『華嚴經』의 註釋本을 참고하게 되었을 것이며, 아울러 『華嚴經』 註釋本의 판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板本으로는 명종 11년(1556)에서 1564년까지 9년이 걸려 黃海道 歸眞寺에서 한강 이북에 있는 20여 개 사찰의 협력을 받아 澄觀禪師의 『華嚴經隨疏演義鈔』에 淨源禪師가 註釋한 『大方廣佛華嚴經疏』 120권을 판각한 것이 있다. 그 뒤 인조 11년(1633)에서 인조 13년(1635)까지 3년 동안 順天 松廣寺에서 歸眞寺板本을 覆刻하였는데, 이때 판각한 經板이 아직도 松廣寺에 보존되어 있다. 이 경판은 慶尙道 栖鳳寺와 全羅道의 여러 사찰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黃海道 歸眞寺 판본은 거리 관계로 구하여 보기가 힘들었던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숙종 12년(1686)에는 靈覺寺에서 또 한 차례 覆刻하였다. 이후 120권본 『大方廣佛華嚴經疏』는 더 이상 판각되지 않고 『華嚴經隨疏演義鈔』가 판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20권의 『大方廣佛華嚴經疏』보다 80권의 『華嚴經隨疏演義鈔』

가 더 간결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華嚴經隨疏演義鈔』는 性聰禪師(1631~1700)에 의하여 숙종 15년(1689)부터 숙종 18년(1692)까지 全羅道 順天 澄光寺를 중심으로 판각되었는데, 이 판각도 大源庵과 梵魚寺 등 남쪽 사찰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 「華嚴玄談」이 빠졌으므로 숙종 26년(1700)에 梵魚寺에서 板刻하여 보충하였다. 그 뒤 澄光寺板이 불타 버려서 雪坡 尙彦禪師(1707~1791)가 靈覺寺를 중심으로 영조 49년(1773)부터 영조 51년(1775)까지 3년이 걸려 澄光寺板의 誤謬를 바로잡아 覆刻하였다. 이 경판도 역시 靈覺寺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內院精舍와 妙覺寺 등 전라도와 경상도 사찰의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1948년에 지리산 공비들에 의하여 불타 버렸다. 이후 靈覺寺의 板이 남아 철종 6년(1855)에서 이듬해(1856)까지에 永奇禪師(1820~1872)가 중심이 되어 奉恩寺에서 通度寺와 梵魚寺의 협조로 판각한 경판이 현재까지 奉恩寺에 보존되어 있다. 이 경판은 靈覺寺板을 복각한 것으로 현재 각 講院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조에 들어와 『華嚴經』의 판각은 여러 사찰에서 힘을 합쳐서 판각한 것과 다른 經典처럼 同時代에 여러 사찰에서 판각한 것이 없고 經板이 소실된 뒤에 복각한 것이 특징이다.

『華嚴經』은 워낙 量이 많으므로 板刻이 성행하지 않았고 대신 각 品別의 板刻이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普賢行願品」의 판각이 제일 성행하였다. 古刊本으로는 고종 32년(1245)에 鄭晏(?~1251)이 판각한 海印寺本을 비롯하여 세종 31년(1449)의 刊本, 예종 1년(1469)의 安城 靑龍寺本, 경종 1년(1721)의 雲興寺本, 영조 12년(1736)의 桐華寺本, 영조 18년(1742)의 雙溪寺本(經板은 海印寺에 留板), 영조 36년(1760)의 恩津 雙溪寺本, 영조 50년(1774)의 智異山 臺岩 蘭若本, 광무 2년(1898)의 表忠寺本과 大菴寺本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판본이 모두 般若의 翻譯本이라는 점이다. 이밖에 海印寺에 보존되고 있는 고려조의 木板으로는 충혜왕 원년(1331)의 「觀音知識品」, 충정왕 원년(1349)의 「略神衆」·「淨行品」·「如來出現品」·「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등이 있다.

한편, 『華嚴經』에 관한 私記로는 조선조 후기의 승려인 仁嶽 義沾禪師(1746~1796)가 『華嚴經』을 註釋한 『華嚴經私記』 1권이 筆寫本으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는 學僧들의 공부를 돕기 위하여 『華嚴經』의 요점을 간추려서 해설한 것이다. 義沾禪師는 『華嚴經』을 講說할 때 實叉難陀 번역의 『80華嚴』과 澄觀禪師의 『華嚴經隨疏演義鈔』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澄觀禪師의 『華嚴經隨疏演義鈔』는 숙종 15년(1689)에 全羅道 順天 澄光寺에서 性聰(1631~1700)의 주관으로 雕板되었으나 80년 만에 화재로 없어졌으므로, 영조 51년(1775)에 咸安 靈覺寺에서 雪坡 尙彦禪師(1707~1791)의 주선으로 다시 판각할 때 義沾禪師의 『華嚴經私記』에 근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華嚴經私記』는 澄觀의 『華嚴經隨疏演義鈔』 중에서 ① 해석상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誤謬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자기의 소견을 기술하여 올바른 해석을 시도하였고, ② 誤字·脫字·衍字·倒字 등을 일일이 찾아내어 바로 잡았으며, ③ 『華嚴經』의 根本 大意를 문자나 이론적인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圓融無碍의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 『華嚴經私記』는 간행은 초기에 嶺南地方의 龍淵寺·瑜伽寺·桐華寺 등과 鷄龍山의 寺刹을 중심으로 유포되었으나, 조선조 말기에 들어와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유통되어 200여 년에 걸쳐 『華嚴經』을 연구하는 승려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1축은 唐朝 實叉難陀(652~710)가 漢譯한 周本 『80華嚴』의 「離世間品」 제38의 7로 11世紀 初期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初雕大藏經本이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卷頭題는 「大方廣佛華嚴經」이고 板題는 알 수 없으며, 卷尾題는 「大方廣佛華嚴經」고 函次는 「育」인 듯하다.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고 匡高의 크기는 세로 22.5cm이며, 界線은 없다. 제1장은 22행 14자이고 제2장부터 제27장까지의 每張은 23行 14字이며, 규격은 세로 28.7cm, 가로 1,064.9cm 內外이다. 紙質은 韓紙이며, 裝訂은 卷軸裝으로 제1~4장이 결락되어 卷頭에 있어야 할 標竹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卷末에는 朱漆軸이 남아 있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每板의 규격은 세로 28.7cm, 가로 46.2cm 內外이며, 장차의 표시는 알 수 없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에는 宋朝 太祖(趙匡胤)의 祖父 「趙敬」의 避諱인 「敬」(091602·191713)과 兼避字인 「竟」(170714·202302·211002·230907·231512·232202·251012)의 마지막 劃이 缺劃으로 처리된 避諱가 각각 2처와 7처에 있으며, 미처 避諱되지 않은 「竟」(130502·261312)도 2처에 있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는 道합 27張이나, 表紙를 비롯한 제1~4장의 91行이 缺落되고 第5~27張의 23張이 殘存하고 있다. 제1~4장에서 缺落된 經文의 내용은 “[0101][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新譯[0102]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育][0103]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0104]佛子菩薩摩訶薩示現處胎有十種[0105]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爲欲[0106]成就小心劣解諸衆生故不欲令彼[0107]起如是念今此菩薩自然化生智慧[0108]善根不從修得是故菩薩示現處胎[0109]是爲第一事菩薩摩訶薩爲成熟父[0110]母及諸眷屬宿世同行衆生善根示[0111]現處胎何以故彼皆應以見於處胎[0112]成熟所有諸善根故是爲第二事菩[0113]薩摩訶薩入母胎時正念正知無有[0114]迷惑住母胎已心恒正念亦無錯亂[0115]是爲第三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0116]常演說法十方世界諸大菩薩釋梵[0117]四王皆來集會悉令獲得無量神力[0118]無邊智慧菩薩處胎成就如是辯才[0119]勝用是爲第四事菩薩摩訶薩在母[0120]胎中集大衆會以本願力教化一切[0121]諸菩薩衆是爲第五事菩薩摩訶薩[0122]於人中成佛應具人間最勝受生以[0201]此示現處於母胎是爲第六事菩薩[0202]摩訶薩在母胎中三千大千世界衆

[0203]生悉見菩薩如明鏡中見其面像爾[0204]時大心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0205]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皆[0206]詣菩薩恭敬供養是爲第七事菩薩[0207]摩訶薩在母胎中他方世界一切最[0208]後生菩薩在母胎者皆來共會說大[0209]集法門名廣大智慧藏是爲第八事[0210]菩薩摩訶薩在母胎時入離垢藏三[0211]昧以三昧力於母胎中現大宮殿種[0212]種嚴飾悉皆妙好兜率天宮不可爲[0213]比而令母身安隱無患是爲第九事[0214]菩薩摩訶薩住母胎時以大威力興[0215]供養具名開大福德離垢藏普遍十[0216]方一切世界供養一切諸佛如來彼[0217]諸如來咸爲演說無邊菩薩住處法[0218]界藏是爲第十事佛子是爲菩薩摩[0219]訶薩示現處胎十種事若諸菩薩了[0220]達此法則能示現甚微細趣佛子苦[0221]薩摩訶薩有十種甚微細趣何等爲[0222]十所謂在母胎中示現初發菩提心[0223]乃至灌頂地在母胎中示現住兜率[0301]天在母胎中示現初生在母胎中示[0302]現童子地在母胎中示現處王宮在[0303]母胎中示現出家在母胎中示現苦[0304]行往詣道場成等正覺在母胎中示[0305]現轉法輪在母胎中示現般涅槃在[0306]母胎中示現大微細謂一切菩薩行[0307]一切如來自在神力無量差別門佛[0308]子是爲菩薩摩訶薩在母胎中十種[0309]微細趣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0310]來無上大智慧微細趣佛子菩薩摩[0311]訶薩有十種生何等爲十所謂遠離[0312]愚癡正念正知生放大光明網普照[0313]三千大千世界生住最後有更不受[0314]後身生不生不起生知三界如幻生[0315]於十方世界普現身生證一切智智[0316]身生放一切佛光明普覺悟一切衆[0317]生身生入大智觀察三昧身生佛子[0318]菩薩生時震動一切佛刹解脫一切[0319]衆生除滅一切惡道映蔽一切諸魔[0320]無量菩薩皆來集會佛子是爲菩薩[0321]摩訶薩十種生爲調伏衆生故如是[0322]示現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0323]現微笑心自誓何等爲十所謂菩薩[0401]摩訶薩念言一切世間沒在欲泥除[0402]我一人無能免濟如是知己熙怡微[0403]笑心自誓復念言一切世間煩惱所[0404]盲唯我今者具足智慧如是知己熙[0405]怡微笑心自誓又念言我今因此假[0406]名身故當得如來充滿三世無上法[0407]身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0408]爾時以無障礙眼遍觀十方所有梵[0409]天乃至一切大自在天作是念言此[0410]等衆生皆自謂爲有大智力如是知[0411]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觀諸[0412]衆生久種善根今皆退沒如是知己[0413]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世間種[0414]子所種雖少獲果甚多如是知己熙[0415]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一切衆生[0416]蒙佛所教必得利益如是知己熙怡[0417]微笑心自誓菩薩觀見過去世中同[0418]行菩薩染著餘事不得佛法廣大功[0419]德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0420]觀見過去世中同共集會諸天人等[0421]至今猶在凡夫之地不能捨離亦不[0422]疲厭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0423]薩爾時爲一切如來光明所觸倍加”의 4張 91行이다.

현재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보 제203호(권6), 국보 제204호(권36), 국보 제256호(권1), 국보 제257호(권29), 국보 제265호(권13), 국보 제266호(권2·75), 국보 제277호(권36), 국보 제279호(권74), 보물 제687호(권66), 보물 제688호(권17·52), 보물 제690호(권6), 보물 제1191호(권30), 보물 제1205호(권67·77), 보물 제1940호(권4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은 권1·2·13·29·30·36·41·67·74·75·77 등의 도합 11권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는 비록 表紙를 비롯하여 제1~4장이 缺落되었으나, 희귀한 初雕本 大藏經이라는 점에서 高麗 大藏經 研究와 書誌學 研究 및 高麗 木板印刷文化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實叉難陀 漢譯, 『大方廣佛華嚴經』. 卷59. 初雕木板(周)本. [刊行地不明]: [大藏都監], [11世紀初 推定]. 장○○ 所藏本.
- 國立古宮博物館 編, 『천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 初雕大藏經』, 초조 대장경 판각 천년기념 특별전, 서울: 國立古宮博物館, 2011.
- 湖林博物館 編,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初雕大藏經』, 서울: 湖林博物館, 2011.
- 海印寺聖寶博物館 編, 『海印寺 毗盧遮那佛 腹藏遺物 特別展』, 陝川: 海印寺聖寶博物館, 200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18.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2018.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이○○)」,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2018.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는 소장자 장○○이 慶尙南道 梁山市 용당동 127-2의 ○○○ ○○○○ 道場의 佛事に 협조한 보답으로 2018년 3월

에 空印博物館長이자 ○○○ ○○○○의 주지인 金○○(○○)로부터 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과 함께 寄贈을 받은 것이라 하나, 金○○ 이전의 出處(所從來)는 분명하지 않다.

지정 신청의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권59의 소장자인 장○○은 보물 제 1596호 『東輿備攷』(1책 57장)의 공동 소장자로 이를 國立濟州博物館에 寄託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附錄>: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卷五十九의 原文 및 校勘³⁹⁾

- [0101]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新譯
- [0102] 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 譯 [育]
- [0103]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
- [0104] 佛子菩薩摩訶薩示現處胎有十種
- [0105] 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爲欲
- [0106] 成就小心劣解諸衆生故不欲令彼
- [0107] 起如是念今此菩薩自然化生智慧
- [0108] 善根不從修得是故菩薩示現處胎
- [0109] 是爲第一事菩薩摩訶薩爲成熟父
- [0110] 母及諸眷屬宿世同行衆生善根示
- [0111] 現處胎何以故彼皆應以見於處胎
- [0112] 成熟所有諸善根故是爲第二事菩
- [0113] 薩摩訶薩入母胎時正念正知無有
- [0114] 迷惑住母胎已心恒正念亦無錯亂
- [0115] 是爲第三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
- [0116] 常演說法十方世界諸大菩薩釋梵
- [0117] 四王皆來集會悉令獲得無量神力
- [0118] 無邊智慧菩薩處胎成就如是辯才
- [0119] 勝用是爲第四事菩薩摩訶薩在母
- [0120] 胎中集大衆會以本願力教化一切
- [0121] 諸菩薩衆是爲第五事菩薩摩訶薩
- [0122] 於人中成佛應具人間最勝受生以

39) 指定 申請의 初雕大藏經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9의 原文은 高宗 31년(1244)에 大藏都監 刊行된 再雕大藏經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59의 原文과 거의 같다. 校勘의 他本은 『高麗大藏經』<K.80(8-425)>과 『大正新修大藏經』<T.27 9(10-1)> 등이다.

[0201] 此示現處於母胎是爲第六事菩薩
[0202] 摩訶薩在母胎中三千大千世界衆
[0203] 生悉見菩薩如明鏡中見其面像爾
[0204] 時大心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
[0205] 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皆
[0206] 詣菩薩恭敬供養是爲第七事菩薩
[0207] 摩訶薩在母胎中他方世界一切最
[0208] 後生菩薩在母胎者皆來共會說大
[0209] 集法門名廣大智慧藏是爲第八事
[0210] 菩薩摩訶薩在母胎時入離垢藏三
[0211] 昧以三昧力於母胎中現大宮殿種
[0212] 種嚴飾悉皆妙好兜率天宮不可爲
[0213] 比而令母身安隱無患是爲第九事
[0214] 菩薩摩訶薩住母胎時以大威力與
[0215] 供養具名開大福德離垢藏普遍十
[0216] 方一切世界供養一切諸佛如來彼
[0217] 諸如來咸爲演說無邊菩薩住處法
[0218] 界藏是爲第十事佛子是爲菩薩摩
[0219] 訶薩示現處胎十種事若諸菩薩了
[0220] 達此法則能示現甚微細趣佛子菩
[0221] 薩摩訶薩有十種甚微細趣何等爲
[0222] 十所謂在母胎中示現初發菩提心
[0223] 乃至灌頂地在母胎中示現住兜率

[0301] 天在母胎中示現初生在母胎中示
[0302] 現童子地在母胎中示現處王宮在
[0303] 母胎中示現出家
[0304] 在母胎中示現苦
[0305] 行往詣道場成等正覺在母胎中示
[0306] 現轉法輪在母胎中示現般涅槃在
[0307] 母胎中示現大微細謂一切菩薩行
[0308] 一切如來自在神力無量差別門佛
[0309] 子是爲菩薩摩訶薩在母胎中十種
[0310] 微細趣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
[0311] 來無上大智慧微細趣佛子菩薩摩
訶薩有十種生何等爲十所謂遠離

[0312] 愚癡正念正知生放大光明網普照
[0313] 三千大千世界生住最後有更不受
[0314] 後身生不生不起生知三界如幻生
[0315] 於十方世界普現身生證一切智智
[0316] 身生放一切佛光明普覺悟一切衆
[0317] 生身生入大智觀察三昧身生佛子
[0318] 菩薩生時震動一切佛刹解脫一切
[0319] 衆生除滅一切惡道映蔽一切諸魔
[0320] 無量菩薩皆來集會佛子是爲菩薩
[0321] 摩訶薩十種生爲調伏衆生故如是
[0322] 示現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
[0323] 現微笑心自誓何等爲十所謂菩薩

[0401] 摩訶薩念言一切世間沒在欲泥除
[0402] 我一人無能免濟如是知己熙怡微
[0403] 笑心自誓復念言一切世間煩惱所
[0404] 盲唯我今者具足智慧如是知己熙
[0405] 怡微笑心自誓又念言我今因此假
[0406] 名身故當得如來充滿三世無上法
[0407] 身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
[0408] 爾時以無障礙眼遍觀十方所有梵
[0409] 天乃至一切大自在天作是念言此
[0410] 等衆生皆自謂爲有大智力如是知
[0411] 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觀諸
[0412] 衆生久種善根今皆退沒如是知己
[0413] 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世間種
[0414] 子所種雖少獲果甚多如是知己熙
[0415] 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一切衆生
[0416] 蒙佛所教必得利益如是知己熙怡
[0417] 微笑心自誓菩薩觀見過去世中同
[0418] 行菩薩染著餘事不得佛法廣大功
[0419] 德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
[0420] 觀見過去世中同共集會諸天人等
[0421] 至今猶在凡夫之地不能捨離亦不
[0422] 疲厭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

[0423] 薩爾時爲一切如來光明所觸倍加]

以上缺落

[0501] 欣慰熙怡微笑心自誓是爲十佛子

[0502] 菩薩爲調伏衆生故如是示現佛子

[0503] 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行七步何

[0504] 等爲十所謂現菩薩力故示行七步

[0505] 現施七財故示行七步滿地神願故

[0506] 示行七步現超三界相故示行七步

[0507] 現菩薩⁴⁰⁾勝行超過象王牛王師子

[0508] 王行故示行七步現金剛地相故示

[0509] 行七步現欲與衆生勇猛力故示行

[0510] 七步現修行七覺寶故示行七步現

[0511] 所得法不由他教故示行七步現於

[0512] 世間⁴¹⁾勝無比故示行七步是爲十

[0513] 佛子菩薩爲調伏衆生故如是示現

[0514] 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現處童

[0515] 子地何等爲十所謂爲現通達一切

[0516] 世間文字⁴²⁾計圖書印璽種種業故

[0517] 處童子地爲現通達一切世間象馬

[0518] 車乘弧矢⁴³⁾戟種種業故處童子地

[0519] 爲現通達一切世間文筆談論⁴⁴⁾弈

[0520] 嬉戲種種事故處童子地爲現遠離

[0521] 身語意業諸過失故處童子地爲現

[0522] 入定住涅槃門周遍十方⁴⁵⁾量世界

[0523] 故處童子地爲現其力超過一切天

[0601] 龍夜叉乾闥婆阿⁴⁶⁾修羅迦樓羅緊那

[0602] 羅摩睺羅伽釋梵護世人非人等故

[0603] 處童子地爲現菩薩色相威光超過

[0604] 一切釋梵護世故處童子地爲令耽

40) 寂: 他本에는 '最'.

41) 寂: 他本에는 '最'.

42) 筭: 他本에는 '算'.

43) 劍: 他本에는 '劍'.

44) 博: 他本에는 '博'.

45) 无: 他本에는 '無'.

46) 修: 他本에는 '脩'.

- [0605] 着欲樂衆生歡喜樂法故處童子地
 [0606] 爲尊重正法勤供養佛周遍十方一
 [0607] 切世界故處童子地爲現得佛加被
 [0608] 蒙法光明故處童子地是爲十佛子
 [0609] 菩薩摩訶薩現童子地已以十事故
 [0610] 現處王宮何等爲十所謂爲令宿世
 [0611] 同行衆生善根成熟故現處王宮爲
 [0612] 顯示菩薩善根力故現處王宮爲諸
 [0613] 人天眈着⁴⁷⁾樂具示現菩薩大威德樂
 [0614] 具故現處王宮順五濁世衆生心故
 [0615] 現處王宮爲現菩薩大威德力能於
 [0616] 深宮入三昧故現處王宮爲令宿世
 [0617] 同願衆生滿其意故現處王宮欲令
 [0618] 父母親戚眷屬滿所願故現處王宮
 [0619] 欲以羞⁴⁸⁾樂出妙法音供養一切諸如
 [0620] 來故現處王宮欲於宮內住微妙三
 [0621] 昧始從成佛乃至涅槃皆示現故現
 [0622] 處王宮爲隨順守護諸佛法故現處
 [0623] 王宮是爲十窟⁴⁹⁾後身菩薩如是示現
- [0701] 處王宮已然後出家佛子菩薩摩訶
 [0702] 薩以十事故示現出家何等爲十所
 [0703] 謂爲厭居家故示現出家爲着⁵⁰⁾家衆
 [0704] 生令捨離故示現出家爲隨順信樂
 [0705] 聖人道故示現出家爲宣揚讚歎出
 [0706] 家功德故示現出家爲顯永離二邊
 [0707] 見故示現出家爲令衆生離欲樂我
 [0708] 樂故示現出家爲先現出三界相故
 [0709] 示現出家爲現自在不屬他故示現
 [0710] 出家爲顯當得如來十力无⁵¹⁾畏法故
 [0711] 示現出家窟⁵²⁾後菩薩法應忤⁵³⁾故示現

47) 着: 他本에는 '著'.
 48) 伎: 他本에는 '妓'.
 49) 窟: 他本에는 '最'.
 50) 着: 他本에는 '著'.
 51) 无: 他本에는 '無'.
 52) 窟: 他本에는 '最'.

- [0712] 出家是爲十菩薩以此調伏衆生佛
 [0713] 子菩薩摩訶薩爲十種事故示行苦
 [0714] 行何等爲十所謂爲成就劣解衆生
 [0715] 故示行苦行爲拔邪見衆生故示行
 [0716] 苦行爲不信業報衆生令見業報故
 [0717] 示行苦行爲隨順雜染世界法應⁵⁴⁾
 [0718] 故示行苦行示能忍劬勞勤修道故
 [0719] 示行苦行爲令衆生樂求法故示行
 [0720] 苦行爲⁵⁵⁾欲樂我樂衆生故示行苦
 [0721] 行爲顯菩薩起行殊勝乃至⁵⁶⁾後生
 [0722] 猶不捨勤精進故示行苦行★⁵⁷⁾爲諸天
 [0723] 世人諸根未熟待時成熟故示行苦

- [0801] 行是爲十菩薩以此方便調伏一切
 [0802] 衆生佛子菩薩摩訶薩⁵⁸⁾詣道場⁵⁹⁾有
 [0803] 十種事何等爲十所謂詣道場⁶⁰⁾時照
 [0804] 耀一切世界詣道場⁶¹⁾時⁶²⁾動一切世
 [0805] 界詣道場⁶³⁾時於一切世界普現其身
 [0806] 詣道場⁶⁴⁾時覺悟一切菩薩及一切宿
 [0807] 世同行衆生詣道場⁶⁵⁾時示現道場⁶⁶⁾一
 [0808] 切⁶⁷⁾莊嚴詣道場⁶⁸⁾時隨諸衆生心之所
 [0809] 欲而爲現身種種威儀及菩提樹一
 [0810] 切⁶⁹⁾莊嚴詣道場⁷⁰⁾時現見十方一切如

53) 尔: 他本에는 ‘爾’.

54) 尔: 他本에는 ‘爾’.

55) 着: 他本에는 ‘著’.

56) 寢: 他本에는 ‘寢’.

57) ★: 他本에는 ‘爲令衆生樂寂靜法增長善根故示行苦行’ 添入.

58) 往: 他本에는 ‘往’.

59) 場: 他本에는 ‘場’.

60) 場: 他本에는 ‘場’.

61) 場: 他本에는 ‘場’.

62) 振: 他本에는 ‘震’.

63) 場: 他本에는 ‘場’.

64) 場: 他本에는 ‘場’.

65) 場: 他本에는 ‘場’.

66) 場: 他本에는 ‘場’.

67) 莊: 他本에는 ‘莊’.

68) 場: 他本에는 ‘場’.

69) 莊: 他本에는 ‘莊’.

70) 場: 他本에는 ‘場’.

- [0811] 來詣道場⁷¹⁾時舉足下足常入三昧念
 [0812] 念成佛無有超隔詣道場⁷²⁾時一切天
 [0813] 龍夜叉乾闥婆阿修⁷³⁾羅迦樓羅緊那
 [0814] 羅摩睺羅伽釋梵護世一切諸王各
 [0815] 不相知而興種種上妙供養詣道場⁷⁴⁾
 [0816] 時以无⁷⁵⁾導⁷⁶⁾智普觀一切諸佛如來於
 [0817] 一切世界修菩薩行而成正覺是爲
 [0818] 十菩薩以此教化衆生佛子菩薩摩
 [0819] 訶薩坐道場⁷⁷⁾時⁷⁸⁾有十種事何等爲十
 [0820] 所謂坐道場⁷⁹⁾時種種振⁸⁰⁾動一切世界
 [0821] 坐道場⁸¹⁾時平等照曜⁸²⁾一切世界坐道
 [0822] 場⁸³⁾時除滅一切諸惡趣苦坐道場⁸⁴⁾時
 [0823] 令一切世界金剛所成坐道場⁸⁵⁾時普
 [0901] 觀一切諸佛如來師子之座坐道場⁸⁶⁾
 [0902] 時心如虛空無所分別坐道場⁸⁷⁾時隨
 [0903] 其所應現身威儀坐道場⁸⁸⁾時隨順安
 [0904] 住金剛三昧坐道場⁸⁹⁾時受一切如來
 [0905] 神力所持清淨妙處坐道場⁹⁰⁾時自善
 [0906] 根力悉能加被一切衆生是爲十佛
 [0907] 子菩薩摩訶薩坐道場⁹¹⁾時有十種奇

71) 場: 他本에는 '場'.

72) 場: 他本에는 '場'.

73) 修: 他本에는 '脩'.

74) 場: 他本에는 '場'.

75) 无: 他本에는 '無'.

76) 導: 他本에는 '礙'.

77) 場: 他本에는 '場'.

78) 時: 他本에는 無錄.

79) 場: 他本에는 '場'.

80) 振: 他本에는 '震'.

81) 場: 他本에는 '場'.

82) 曜: 他本에는 '耀'.

83) 場: 他本에는 '場'.

84) 場: 他本에는 '場'.

85) 場: 他本에는 '場'.

86) 場: 他本에는 '場'.

87) 場: 他本에는 '場'.

88) 場: 他本에는 '場'.

89) 場: 他本에는 '場'.

90) 場: 他本에는 '場'.

91) 場: 他本에는 '場'.

- [0908] 特未曾有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
 [0909] 訶薩坐道場⁹²⁾時十方世界一切如來
 [0910] 皆現其前咸舉右手而稱讚言善哉
 [0911] 善哉無上導師是爲第一未曾有事
 [0912] 菩薩摩訶薩坐道場⁹³⁾時一切如來皆
 [0913] 悉護念與其威力是爲第二未曾有
 [0914] 事菩薩摩訶薩坐道場⁹⁴⁾時宿世同行
 [0915] 諸菩薩衆悉來圍遶以種種莊⁹⁵⁾嚴具
 [0916] 恭敬供養是爲第三未曾有事菩薩 避諱
 [0917] 摩訶薩坐道場⁹⁶⁾時一切世界草木叢
 [0918] 林諸无⁹⁷⁾情物皆曲身⁹⁸⁾影歸向道場⁹⁹⁾
 [0919] 是爲第四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
 [0920] 道場¹⁰⁰⁾時入三昧名觀察法界此三昧
 [0921] 力能令菩薩一切諸行悉得圓滿是
 [0922] 爲第五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
 [0923] 場¹⁰¹⁾時得陀羅尼名¹⁰²⁾上離垢妙光海
- [1001] 藏能受一切諸佛如來大雲法雨是
 [1002] 爲第六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
 [1003] 場¹⁰³⁾時以威德力興上妙供具遍一切
 [1004] 世界供養諸佛是爲第七未曾有事
 [1005] 菩薩摩訶薩坐道場¹⁰⁴⁾時住¹⁰⁵⁾勝智悉
 [1006] 現了知一切衆生諸根意行是爲第
 [1007] 八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¹⁰⁶⁾時
 [1008] 入三昧名善覺此三昧力能令其身

92) 場: 他本에는 '場'.
 93) 場: 他本에는 '場'.
 94) 場: 他本에는 '場'.
 95) 莊: 他本에는 '莊'.
 96) 場: 他本에는 '場'.
 97) 无: 他本에는 '無'.
 98) 伍: 他本에는 '低'.
 99) 場: 他本에는 '場'.
 100) 場: 他本에는 '場'.
 101) 場: 他本에는 '場'.
 102) 寂: 他本에는 '最'.
 103) 場: 他本에는 '場'.
 104) 場: 他本에는 '場'.
 105) 寂: 他本에는 '最'.
 106) 場: 他本에는 '場'.

[1009] 充滿三世盡虛空界一切世界是爲
[1010] 第九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場¹⁰⁷⁾
[1011] 時得離垢光明無¹⁰⁸⁾大智令其身業
[1012] 普入三世是爲第十未曾有事佛子
[1013] 是爲菩薩摩訶薩坐道場¹⁰⁹⁾時十種奇
[1014] 特未曾有事佛子菩薩摩訶薩坐道
[1015] 場¹¹⁰⁾時觀十種義故示現降魔何等爲
[1016] 十所謂爲濁世衆生樂於鬪戰欲顯
[1017] 菩薩威德力故示現降魔爲諸天世
[1018] 人有懷疑者¹¹¹⁾彼疑故示現降魔爲
[1019] 教化調伏諸魔軍故示現降魔爲欲
[1020] 令諸天世人樂軍陣者咸來聚觀心
[1021] 調伏故示現降魔爲顯示菩薩所有
[1022] 威力世無能敵故示現降魔爲欲發
[1023] 起一切衆生勇猛力故示現降魔爲

[1101] 哀愍末世諸衆生故示現降魔爲欲
[1102] 顯示乃至道場¹¹²⁾猶有魔軍而來觸惱
[1103] 此後乃得超魔境界故示現降魔爲
[1104] 顯煩惱業用羸劣大慈善根勢力強
[1105] 盛故示現降魔爲欲隨順濁惡世界
[1106] 所行法故示現降魔是爲十佛子菩
[1107] 薩摩訶薩有十種成如來力何等爲
[1108] 十所謂超過一切衆魔煩惱業故成
[1109] 如來力具足一切菩薩行遊戲一切
[1110] 菩薩三昧門故成如來力具足一切
[1111] 菩薩廣大禪定故成如來力圓滿一
[1112] 切白淨助道法故成如來力得一切
[1113] 法智慧光明善思惟分別故成如來
[1114] 力其身周遍一切世界故成如來力
[1115] 所出言音悉與一切衆生心等故成

107) 場: 他本에는 ‘場’.

108) 導: 他本에는 ‘礙’.

109) 場: 他本에는 ‘場’.

110) 場: 他本에는 ‘場’.

111) 斷: 他本에는 ‘斷’.

112) 場: 他本에는 ‘場’.

- [1116] 如來力能以神力加持一切故成如
 [1117] 來力與三世諸佛身語意業等无¹¹³⁾有
 [1118] 異於一念中了三世法故成如來力
 [1119] 得善覺智三昧具如來十力所謂是
 [1120] 處非處智力乃至漏盡智力故成如
 [1121] 來力是爲十若諸菩薩具此十力則
 [1122] 名如來應正等覺佛子如來應正等
 [1123] 覺轉大法輪有十種事何等爲十一
- [1201] 者具足清淨四无¹¹⁴⁾畏智二者出生四
 [1202] 辯隨順音聲三者善能開闡四眞諦
 [1203] 相四者隨順諸佛无¹¹⁵⁾导¹¹⁶⁾解脫五者能
 [1204] 令衆生心皆淨信六者所有言說皆
 [1205] 不唐捐能拔衆生諸苦毒箭七者大
 [1206] 悲願力之所加持八者隨出音聲普
 [1207] 遍十方一切世界九者於阿僧祇劫
 [1208] 說法不斷¹¹⁷⁾十者隨所說法皆能生起
 [1209] 根力覺道禪定解脫三昧等法佛子
 [1210] 諸佛如來轉於法輪有如是等無量
 [1211] 種事佛子如來應正等覺轉法輪
 [1212] 時以十事故於衆生心中種白淨法
 [1213] 无¹¹⁸⁾空過者何等爲十所謂過去願力
 [1214] 故大悲所持故不捨衆生故智慧自
 [1215] 在隨其所樂爲說法故必應其時未
 [1216] 曾失故隨其所宜無妄說故知三世
 [1217] 智善了知故其身寂¹¹⁹⁾勝无¹²⁰⁾與等故言
 [1218] 辭¹²¹⁾自在無能測故智慧自在隨所發
 [1219] 言悉開悟故是爲十佛子如來應正
 [1220] 等覺作佛事已觀十種義故示般涅

113) 无: 他本에는 ‘無’.

114) 无: 他本에는 ‘無’.

115) 无: 他本에는 ‘無’.

116) 导: 他本에는 ‘礙’.

117) 斷: 他本에는 ‘斷’.

118) 无: 他本에는 ‘無’.

119) 寂: 他本에는 ‘最’.

120) 无: 他本에는 ‘無’.

121) 辭: 他本에는 ‘辭’.

[1221] 槃何等爲十所謂示一切行實无¹²²⁾常
[1222] 故示一切有爲非安隱故示大涅槃
[1223] 是安隱處無怖畏故以諸人天樂着¹²³⁾

[1301] 色身爲現色身是無常法令其願住
[1302] 淨法身故示无¹²⁴⁾常力不可轉故示一
[1303] 切有爲不隨心住不自在故示一切
[1304] 三有皆如幻化不堅牢故示涅槃性
[1305] 究竟堅牢不可壞故示一切法无¹²⁵⁾生
[1306] 無起而有聚集散壞相故佛子諸佛
[1307] 世尊作佛事已所願滿已轉法輪已
[1308] 應化度者皆化度已有諸菩薩應受
[1309] 尊号¹²⁶⁾成記別已法應如是入於不變
[1310] 大般涅槃佛子是爲如來應正等覺
[1311] 觀十義故示般涅槃佛子此法門名
[1312] 菩薩廣大清淨行無量諸佛所共宣
[1313] 說能令智者了无¹²⁷⁾量義皆生歡喜令
[1314] 一切菩薩大願大行皆得相續佛子
[1315] 若有衆生得聞此法聞已信解解已
[1316] 修行必得疾成阿耨多羅三藐三菩
[1317] 提何以故以如說修行故佛子若諸
[1318] 菩薩不如說行當知是人於佛菩提
[1319] 則爲永離是故菩薩應如說行佛子
[1320] 此一切菩薩功德行處決定義花¹²⁸⁾普
[1321] 入一切法普生一切智超諸世間離
[1322] 二乘道不與一切諸衆生共悉能照
[1323] 了一切法門增長衆生出世善根離

말회

[1401] 世間法門品應尊重應聽受應誦持
[1402] 應思惟應願樂應修行若能如是當

122) 无: 他本에는 ‘無’.
123) 着: 他本에는 ‘著’.
124) 无: 他本에는 ‘無’.
125) 无: 他本에는 ‘無’.
126) 号: 他本에는 ‘號’.
127) 无: 他本에는 ‘無’.
128) 花: 他本에는 ‘華’.

- [1403] 知是人疾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1404] 說此品時佛神力故及此法門法如
 [1405] 是故十方無量无¹²⁹⁾邊阿僧祇世界皆
 [1406] 大震動大光普照尔¹³⁰⁾時十方諸佛皆
 [1407] 現普賢菩薩前讚言善哉善哉佛子
 [1408] 乃能說此諸菩薩摩訶薩功德行處
 [1409] 決定義花¹³¹⁾普入一切佛法出世間法
 [1410] 門品佛子汝已善學此法善說此法
 [1411] 汝以威力護持此法我等諸佛悉皆
 [1412] 隨喜如我等諸佛隨喜於汝一切諸
 [1413] 佛悉亦如是佛子我等諸佛悉共同
 [1414] 心護持此經令現在未來諸菩薩衆
 [1415] 未曾聞者皆當得聞尔¹³²⁾時普賢菩薩
 [1416] 摩訶薩承佛神力觀察十方一切大
 [1417] 衆泊于法界而說頌言
 [1418] 於無量劫修苦行 從无¹³³⁾量佛正法生
 [1419] 令無量衆住菩提 彼無等行聽我說
 [1420] 供无¹³⁴⁾量佛而捨着¹³⁵⁾ 廣度群生不作想
 [1421] 求佛功德心無依 彼勝妙行我今說
 [1422] 離三界魔煩惱業 具聖功德最勝行
 [1423] 滅諸癡惑心寂然 我今說彼所行道
- [1501] 永離世間諸誑幻 種種變化示衆生
 [1502] 心生住滅現衆事 說彼所能令衆喜
 [1503] 見諸衆生生老死 煩惱憂橫所纏迫
 [1504] 欲令解脫教發心 彼功德行應聽受
 [1505] 施戒忍進禪智慧 方便慈悲喜捨等
 [1506] 百千万¹³⁶⁾劫常修行 彼人功德仁應聽
 [1507] 千万¹³⁷⁾億劫求菩提 所有身命皆无¹³⁸⁾恠¹³⁹⁾

129) 无: 他本에는 ‘無’.

130) 尔: 他本에는 ‘爾’.

131) 花: 他本에는 ‘華’.

132) 尔: 他本에는 ‘爾’.

133) 无: 他本에는 ‘無’.

134) 无: 他本에는 ‘無’.

135) 着: 他本에는 ‘著’.

136) 万: 他本에는 ‘萬’.

137) 万: 他本에는 ‘萬’.

- [1508] 願益群生不爲己 彼慈愍行我今說
 [1509] 無量億劫演其德 如海一滴未爲少
 [1510] 功德无¹⁴⁰比不可喻¹⁴¹ 以佛威神今略說
 [1511] 其心不¹⁴²高下 求道無厭倦 普使諸衆生
 [1512] 住善增淨法 智慧普饒益 如樹如河泉
 [1513] 亦如於大地 一切所依處 菩薩如蓮花¹⁴³
 [1514] 慈根安隱莖 智慧爲衆藥 戒品爲香潔
 [1515] 佛放法光明 令彼得開敷 不着¹⁴⁴有爲水
 [1516] 見者皆欣樂 菩薩妙法樹 生於直心地
 [1517] 信種慈悲根 智慧以爲身 方便爲枝幹
 [1518] 五度爲繁密 定葉神通花¹⁴⁵ 一切智爲果
 [1519] 叡¹⁴⁶上力爲鳥¹⁴⁷ 垂陰覆三界 菩薩師子王
 [1520] 白淨法爲身 四諦爲其足 正念以爲頸
 [1521] 慈眼智慧首 頂繫解脫繒 勝義空谷中
 [1522] 吼法怖衆魔 菩薩爲商主 普見諸群生
 [1523] 在生死曠野 煩惱險惡處 魔賊之所攝
- [1601] 癡盲失正道 示其正直路 令入无¹⁴⁸畏城
 [1602] 菩薩見衆生 三毒煩惱病 種種諸苦惱
 [1603] 長夜所煎迫 爲發大悲心 廣說對治門
 [1604] 八万四千種 滅除衆苦患 菩薩爲法王
 [1605] 正道化衆生 令遠惡修善 專求佛功德
 [1606] 一切諸佛所 灌頂授尊記 廣施衆聖財
 [1607] 菩提分珠¹⁴⁹寶 菩薩轉法輪 如佛之所轉
 [1608] 戒轂三昧輞 智¹⁵⁰慧爲劍¹⁵¹ 旣破煩惱賊
 [1609] 亦殄衆魔怨 一切諸外道 見之无¹⁵²不散

138) 无: 他本에는 '無'.

139) 愍: 他本에는 '吝'.

140) 无: 他本에는 '無'.

141) 喻: 他本에는 '諭'.

142) 不: 他本에는 '無'.

143) 花: 他本에는 '華'.

144) 着: 他本에는 '著'.

145) 花: 他本에는 '華'.

146) 叡: 他本에는 '最'.

147) 鳥: 他本에는 '鷲'.

148) 无: 他本에는 '無'.

149) 珠: 他本에는 '珍'.

150) 慧: 他本에는 '莊'.

151) 劍: 他本에는 '劍'.

- [1610] 菩薩智慧海 深廣無涯際 正法味盈洽
- [1611] 覺分寶充滿 大心无¹⁵³邊岸 一切智爲潮
- [1612] 衆生莫能測 說之不可盡 菩薩須弥¹⁵⁴山
- [1613] 超出於世間 神通三昧峯 大心安不動
- [1614] 若有親近者 同其智慧色 迥絕衆境界
- [1615] 一切無不觀 菩薩如金剛 志求一切智
- [1616] 信心及苦行 堅固不可動 其心无¹⁵⁵所畏
- [1617] 饒益諸群生 衆魔與煩惱 一切悉摧滅
- [1618] 菩薩大慈悲 譬如重密雲 三明發電光
- [1619] 神足震雷音 普以四辯才 雨八功德水
- [1620] 潤洽於一切 令除煩惱熱 菩薩正法城
- [1621] 般若以爲牆 慚愧爲深塹¹⁵⁶ 智慧爲却敵
- [1622] 廣開解脫門 正念恒防守 四諦坦王道
- [1623] 六通集兵仗 復建大法幢 周迴遍其下
-
- [1701] 三有諸魔衆 一切无¹⁵⁷能入 菩薩迦樓羅
- [1702] 如意爲堅足 方便勇猛翹 慈悲明淨眼
- [1703] 住一切智樹 觀三有大海 搏撮天人龍
- [1704] 安置涅槃岸 菩薩正法日 出現於世間
- [1705] 戒品圓滿輪 神足速疾行 照以智慧光
- [1706] 長諸根力藥 滅除煩惱闇 消竭愛欲海
- [1707] 菩薩智光月 法界以爲輪 遊於畢竟空 避諱
- [1708] 世間无¹⁵⁸不見 三界識心內 隨時有增減
- [1709] 二乘星宿中 一切无¹⁵⁹儔疋¹⁶⁰ 菩薩大法王
- [1710] 功德疋¹⁶¹嚴身 相好皆具足 人天悉瞻仰
- [1711] 方便清淨目 智慧金剛杵 於法得自在
- [1712] 以道化群生 菩薩大梵王 自在超三有
- [1713] 業惑悉皆斷¹⁶² 慈捨靡不具 處處示現身

152) 无: 他本에는 ‘無’.

153) 无: 他本에는 ‘無’.

154) 弥: 他本에는 ‘彌’.

155) 无: 他本에는 ‘無’.

156) 塹: 他本에는 ‘塹’.

157) 无: 他本에는 ‘無’.

158) 无: 他本에는 ‘無’.

159) 无: 他本에는 ‘無’.

160) 疋: 他本에는 ‘匹’.

161) 疋: 他本에는 ‘莊’.

- [1714] 開悟以法音 於彼三界中 拔諸邪見根
 [1715] 菩薩自在天 超過生死地 境界常清淨
 [1716] 智慧无¹⁶³退轉 絕彼下乘道 受諸灌頂法
 [1717] 功德智慧具 名稱靡不聞 菩薩智慧心
 [1718] 清淨如虛空 無性无¹⁶⁴依處 一切不可得
 [1719] 有大自在力 能成世間事 自具清淨行
 [1720] 令衆生亦然 菩薩方便地 饒益諸衆生
 [1721] 菩薩慈悲水 灑¹⁶⁵滌諸煩惱 菩薩智慧火
 [1722] 燒諸惑習薪 菩薩无¹⁶⁶住風 遊行三有空
 [1723] 菩薩如玢¹⁶⁷寶 能濟貧窮厄 菩薩如金剛
- [1801] 能摧顛倒見 菩薩如瓔珞 莊¹⁶⁸嚴三有身
 [1802] 菩薩如摩尼 增長一切行 菩薩德如花¹⁶⁹
 [1803] 常發菩提分 菩薩願如鬘 恒繫衆生首
 [1804] 菩薩淨戒香 堅持无¹⁷⁰缺犯 菩薩智塗香
 [1805] 普熏於三界 菩薩力如帳 能遮煩惱塵
 [1806] 菩薩智如幢 能摧我慢敵 妙行爲繒綵
 [1807] 莊¹⁷¹嚴於智慧 慚愧作衣服 普覆諸群生
 [1808] 菩薩无¹⁷²導¹⁷³乘 巾之出三界 菩薩大力象
 [1809] 其心善調伏 菩薩神足馬 騰步超諸有
 [1810] 菩薩說法龍 普雨衆生心 菩薩優曇花¹⁷⁴
 [1811] 世間難值遇 菩薩大勇將 衆魔悉降伏
 [1812] 菩薩轉法輪 如佛之所轉 菩薩燈破闇
 [1813] 衆生見正道 菩薩功德河 恒順正道流
 [1814] 菩薩精進橋 廣度諸群品 大智與弘誓
 [1815] 共作堅牢船 引接諸衆生 安置菩提岸

162) 斷: 他本에는 ‘斷’.

163) 无: 他本에는 ‘無’.

164) 无: 他本에는 ‘無’.

165) 灑: 他本에는 ‘灑’.

166) 无: 他本에는 ‘無’.

167) 玢: 他本에는 ‘珍’.

168) 莊: 他本에는 ‘莊’.

169) 花: 他本에는 ‘華’.

170) 无: 他本에는 ‘無’.

171) 莊: 他本에는 ‘莊’.

172) 无: 他本에는 ‘無’.

173) 導: 他本에는 ‘礙’.

174) 花: 他本에는 ‘華’.

- [1816] 菩薩遊戲園 眞實樂衆生 菩薩解脫花¹⁷⁵⁾
 [1817] 莊¹⁷⁶⁾嚴智宮殿 菩薩如妙藥 滅除煩惱病
 [1818] 菩薩如雪山 出生智慧藥 菩薩等於佛
 [1819] 覺悟諸群生 佛心豈有他 正覺覺世間
 [1820] 如佛之所來 菩薩如是來 亦如一切智
 [1821] 以智入普門 菩薩善開導 一切諸群生
 [1822] 菩薩自然覺 一切智境界 菩薩无¹⁷⁷⁾量力
 [1823] 世間莫能壞 菩薩无¹⁷⁸⁾畏智 知衆生及法
- [1901] 一切諸世間 色相各差別 音聲及名字
 [1902] 悉能分別知 雖離於名色 而現種種相
 [1903] 一切諸衆生 莫能測其道 如是等功德
 [1904] 菩薩悉成就 了性皆无¹⁷⁹⁾性 有無无¹⁸⁰⁾所着¹⁸¹⁾
 [1905] 如是一切智 無盡无¹⁸²⁾所依 我今當演說
 [1906] 令衆生歡喜 雖知諸法相 如幻悉空寂
 [1907] 而以悲願心 及佛威神力 現神通變化
 [1908] 種種无¹⁸³⁾量事 如是諸功德 汝等應聽受
 [1909] 一身能示現 無量差別身 無心无¹⁸⁴⁾境界
 [1910] 普應一切衆 一音中具演 一切諸言音
 [1911] 衆生語言法 隨類皆能作 永離煩惱身
 [1912] 而現自在身 知法不可說 而作種種說
 [1913] 其心常寂滅 清淨如虛空 而普莊¹⁸⁵⁾嚴刹
 [1914] 示現一切衆 於身无¹⁸⁶⁾所着¹⁸⁷⁾ 而能示現身
 [1915] 一切世間中 隨應而受生 雖生一切處
 [1916] 亦不住受生 知身如虛空 種種隨心現
 [1917] 菩薩身无¹⁸⁸⁾邊 普現一切處 常恭敬供養 避諱

175) 花: 他本에는 '華'.

176) 莊: 他本에는 '莊'.

177) 无: 他本에는 '無'.

178) 无: 他本에는 '無'.

179) 无: 他本에는 '無'.

180) 无: 他本에는 '無'.

181) 着: 他本에는 '著'.

182) 无: 他本에는 '無'.

183) 无: 他本에는 '無'.

184) 无: 他本에는 '無'.

185) 莊: 他本에는 '莊'.

186) 无: 他本에는 '無'.

187) 着: 他本에는 '著'.

188) 无: 他本에는 '無'.

- [1918] 窳¹⁸⁹⁾勝兩足尊 香花¹⁹⁰⁾衆伎¹⁹¹⁾樂 幢幡及寶蓋¹⁹²⁾
- [1919] 恒以深淨心 供養於諸佛 不離一佛會
- [1920] 普在諸佛所 於彼大衆中 問難聽受法
- [1921] 聞法入三昧 一一無量門 起定亦復然
- [1922] 示現无¹⁹³⁾窮盡 智慧巧方便 了世皆如幻
- [1923] 而能現世間 無邊諸幻法 示現種種色
- [2001] 亦現心及語 入諸想網中 而恒無所着¹⁹⁴⁾
- [2002] 或現初發心 利益於世間 或現久修行
- [2003] 廣大无¹⁹⁵⁾邊際 施戒忍精進 禪定及智慧
- [2004] 四梵四攝等 一切窳¹⁹⁶⁾勝法 或現行成滿
- [2005] 得忍无¹⁹⁷⁾分別 或現一生繫 諸佛與灌頂
- [2006] 或現聲聞相 或復現緣覺 處處般涅槃
- [2007] 不捨菩提行 或現爲帝釋 或現爲梵王
- [2008] 或天女圍遶 或時獨宴默 或現爲比丘
- [2009] 寂靜調其心 或現自在王 統理世間法
- [2010] 或現巧術女 或現修苦行 或現受五欲
- [2011] 或現入諸禪 或現初始生 或少或老死
- [2012] 若有思議者 心疑發狂亂¹⁹⁸⁾ 或現在天宮
- [2013] 或現始降神 或入或住胎 成佛轉法輪
- [2014] 或生或涅槃 或現入學堂 或在采女中
- [2015] 或離俗修禪 或坐菩提樹 自然成正覺
- [2016] 或現轉法輪 或現始求道 或現爲佛身
- [2017] 宴坐無量刹 或修不退道 積集菩提具
- [2018] 深入无¹⁹⁹⁾數劫 皆悉到彼岸 無量劫一念
- [2019] 一念無量劫 一切劫非劫 爲世示現劫
- [2020] 无²⁰⁰⁾來無積集 成就諸劫事 於一微塵中

189) 窳: 他本에는 '最'.

190) 花: 他本에는 '華'.

191) 伎: 他本에는 '妓'.

192) 蓋: 他本에는 '蓋'.

193) 无: 他本에는 '無'.

194) 着: 他本에는 '著'.

195) 无: 他本에는 '無'.

196) 窳: 他本에는 '最'.

197) 无: 他本에는 '無'.

198) 亂: 他本에는 '亂'.

199) 无: 他本에는 '無'.

200) 无: 他本에는 '無'.

- [2021] 普見一切佛 十方一切處 无²⁰¹⁾處而不有
- [2022] 國土衆生法 次第悉皆見 經無量劫數
- [2023] 究竟不可盡 菩薩知衆生 廣大无²⁰²⁾有邊 避諱
- [2101] 彼一衆生身 無量因緣起 如知一无²⁰³⁾量
- [2102] 一切悉亦然 隨其所通達 教諸未學者
- [2103] 悉知衆生根 上中下不同 亦知根轉移
- [2104] 應化不應化 一根一切根 展轉因緣力
- [2105] 微細各差別 次第无²⁰⁴⁾錯亂²⁰⁵⁾ 又知其欲解
- [2106] 一切煩惱習 亦知去來今 所有諸心行
- [2107] 了達一切行 無來亦无²⁰⁶⁾去 既知其行已
- [2108] 爲說無上法 雜染清淨行 種種悉了知
- [2109] 一念得菩提 成就一切智 住佛不思議
- [2110] 究竟智慧心 一念悉能知 一切衆生行 避諱
- [2111] 菩薩神通智 功力已自在 能於一念中
- [2112] 往²⁰⁷⁾着²⁰⁸⁾詣无²⁰⁹⁾邊刹 如是速疾往²¹⁰⁾ 盡於無數劫
- [2113] 無處而不周 莫動毫端分 譬如工幻師
- [2114] 示現種種色 於彼幻中求 無色无²¹¹⁾非色
- [2115] 菩薩亦如是 以方便智幻 種種皆示現
- [2116] 充滿於世間 譬如淨日月 皎鏡在虛空 避諱
- [2117] 影現於衆水 不爲水所雜 菩薩淨法輪
- [2118] 當知亦如是 現世間心水 不爲世所雜
- [2119] 如人睡夢中 造作種種事 雖經億千歲
- [2120] 一夜未終盡 菩薩住法性 示現一切事
- [2121] 無量劫可極 一念智无²¹²⁾盡 譬如山谷中
- [2122] 及以宮殿間 種種皆響應 而實無分別
- [2123] 菩薩住法性 能以自在智 廣出隨類音

201) 无: 他本에는 ‘無’.

202) 无: 他本에는 ‘無’.

203) 无: 他本에는 ‘無’.

204) 无: 他本에는 ‘無’.

205) 亂: 他本에는 ‘亂’.

206) 无: 他本에는 ‘無’.

207) 往: 他本에는 ‘往’.

208) 着: 他本에는 ‘著’.

209) 无: 他本에는 ‘無’.

210) 往: 他本에는 ‘往’.

211) 无: 他本에는 ‘無’.

212) 无: 他本에는 ‘無’.

- [2201] 亦復无²¹³)分別 如有見陽焰 想之以爲水
- [2202] 馳逐不得飲 展轉更增渴 衆生煩惱心
- [2203] 應知亦如是 菩薩起慈愍 救之令出離
- [2204] 觀色如聚沫 受如水上泡 想如熱時焰
- [2205] 諸行如芭蕉 心識猶如幻 示現種種事
- [2206] 如是知諸蘊 智者无²¹⁴)所着²¹⁵) 諸處悉空寂
- [2207] 如機關動轉 諸界性永離 妄現於世間
- [2208] 菩薩住眞實 寂滅第一義 種種廣宣暢
- [2209] 而心無所依 無來亦无²¹⁶)去 亦復無有住
- [2210] 煩惱業苦因 三種恒流轉 緣起非有无²¹⁷)
- [2211] 非實亦非虛 如是入中道 說之無所着²¹⁸)
- [2212] 能於一念中 普現三世心 欲色无²¹⁹)色界
- [2213] 一切種種事 隨順三律儀 演說三解脫
- [2214] 建立三乘道 成就一切智 了達處非處
- [2215] 諸業及諸根 界解與禪定 一切至處道
- [2216] 宿命念天眼 滅除一切惑 知佛十種力
- [2217] 而未能成就 了達諸法空 而常求妙法
- [2218] 不與煩惱合 而亦不盡漏 廣知出離道
- [2219] 而以度衆生 於此得无²²⁰)畏 不捨修諸行
- [2220] 無謬无²²¹)違道 亦不失正念 精進欲三昧
- [2221] 觀慧無損滅 三聚皆清淨 三世悉明達
- [2222] 大慈愍衆生 一切无²²²)障礙 由入此法門
- [2223] 得成如是行 我說其少分 功德庄²²³)嚴義
- [2301] 窮於无²²⁴)數劫 說彼行無盡 我今說少分
- [2302] 如大地一塵 依於佛智住 起於奇特想
- [2303] 修行寂²²⁵)勝行 具足大慈悲 精勤且²²⁶)安隱

213) 无: 他本에는 ‘無’.

214) 无: 他本에는 ‘無’.

215) 着: 他本에는 ‘著’.

216) 无: 他本에는 ‘無’.

217) 无: 他本에는 ‘無’.

218) 着: 他本에는 ‘著’.

219) 无: 他本에는 ‘無’.

220) 无: 他本에는 ‘無’.

221) 无: 他本에는 ‘無’.

222) 无: 他本에는 ‘無’.

223) 庄: 他本에는 ‘莊’.

224) 无: 他本에는 ‘無’.

- [2304] 教化諸含識 安住淨戒中 具諸授記行
- [2305] 能入佛功德 衆生行及刹 劫世悉亦知
- [2306] 无²²⁷⁾有疲厭想 差別智²²⁸⁾持 通達眞實義
- [2307] 思惟說無比 寂靜等正覺 發於普賢心
- [2308] 及修其行願 慈悲因緣力 趣道意清淨
- [2309] 修行波羅蜜 究竟隨覺智 證知力自在 避諱
- [2310] 成无²²⁹⁾上菩提 成就平等智 演說²³⁰⁾勝法
- [2311] 能持具妙辯 逮得法王處 遠離於諸着²³¹⁾
- [2312] 演說心平等 出生於智慧 變化得菩提
- [2313] 住持一切劫 智者大欣慰 深入及依止
- [2314] 無畏无²³²⁾疑惑 了達不思議 巧密善分別
- [2315] 善入諸三昧 普見智境界 究竟諸解脫 避諱
- [2316] 遊戲諸通明 纏縛悉永離 園林恣遊處
- [2317] 白法爲宮殿 諸行可欣樂 現无²³³⁾量²³⁴⁾嚴
- [2318] 於世心無動 深心善觀察 妙辯能開演
- [2319] 清淨菩提印 智光照一切 所住無等比
- [2320] 其心不下劣 立志如大山 種智²³⁵⁾若深海
- [2321] 如實²³⁶⁾安住法 被甲誓願心 發起於大事
- [2322] 究竟无²³⁷⁾能壞 得授菩提記 安住廣大心 避諱
- [2323] 秘藏無窮盡 覺悟一切法 世智皆自在
- [2401] 妙用无²³⁸⁾障²³⁹⁾ 衆生一切刹 及以種種法
- [2402] 身願與境界 智慧神通等 示現於世間
- [2403] 無量百千億 遊戲及境界 自在无²⁴⁰⁾能制

225) 最: 他本에는 '最'.

226) 目: 他本에는 '自', '目'은 '自'의 誤인 듯.

227) 无: 他本에는 '無'.

228) 摠: 他本에는 '總'.

229) 无: 他本에는 '無'.

230) 最: 他本에는 '最'.

231) 着: 他本에는 '著'.

232) 无: 他本에는 '無'.

233) 无: 他本에는 '無'.

234) 莊: 他本에는 '莊'.

235) 智: 他本에는 '德'.

236) 實: 他本에는 '寶'.

237) 无: 他本에는 '無'.

238) 无: 他本에는 '無'.

239) 障: 他本에는 '礙'.

240) 无: 他本에는 '無'.

- [2404] 力無畏不共 一切業莊²⁴¹⁾嚴 諸身及身業
 [2405] 語及淨修語 以得守護故 成辦十種事
 [2406] 菩薩心發心 及以心周遍 諸根无²⁴²⁾散動
 [2407] 獲得寂²⁴³⁾勝根 深心增勝心 遠離於諂誑
 [2408] 種種決定解 普入於世間 捨彼煩惱習
 [2409] 取茲寂²⁴⁴⁾勝道 巧修使圓滿 逮成一切智
 [2410] 離退入正位 決定證寂滅 出生佛法道
 [2411] 成就功德号²⁴⁵⁾ 道及无²⁴⁶⁾量道 乃至莊²⁴⁷⁾嚴道
 [2412] 次第善安住 悉皆無所着²⁴⁸⁾ 手足及腹藏
 [2413] 金剛以爲心 被以慈哀甲 具足衆器仗
 [2414] 智首明達眼 菩提行爲耳 清淨戒爲鼻
 [2415] 滅闇无²⁴⁹⁾障导²⁵⁰⁾ 辯才以爲舌 無處不至身
 [2416] 寂²⁵¹⁾勝智爲心 行住修諸業 道場²⁵²⁾師子座²⁵³⁾
 [2417] 梵臥空爲住 所行及觀察 普照如來境
 [2418] 遍觀衆生行 奮迅及哮吼 離貪行淨施
 [2419] 捨慢持淨戒 不瞋常忍辱 不懈恒精進
 [2420] 禪定得自在 智慧无²⁵⁴⁾所行 慈濟悲無倦
 [2421] 喜法捨煩惱 於諸境界中 知義亦知法
 [2422] 福德悉成滿 智慧如利劍²⁵⁵⁾ 普照樂多聞
 [2423] 明了趣向法 知魔及魔道 誓願咸捨離
- [2501] 見佛與佛業 發心皆攝取 離慢修智慧
 [2502] 不爲魔力持 爲佛所攝持 亦爲法所持
 [2503] 現住兜率天 又現彼命終 示現住母胎
 [2504] 亦現微細趣 現生及微笑 亦現行七步

241) 莊: 他本에는 ‘莊’.

242) 无: 他本에는 ‘無’.

243) 寂: 他本에는 ‘最’.

244) 寂: 他本에는 ‘最’.

245) 号: 他本에는 ‘號’.

246) 无: 他本에는 ‘無’.

247) 莊: 他本에는 ‘莊’.

248) 着: 他本에는 ‘著’.

249) 无: 他本에는 ‘無’.

250) 导: 他本에는 ‘礙’.

251) 寂: 他本에는 ‘最’.

252) 場: 他本에는 ‘場’.

253) 座: 他本에는 ‘坐’.

254) 无: 他本에는 ‘無’.

255) 劍: 他本에는 ‘劍’.

- [2505] 示修衆伎²⁵⁶術 亦示處深宮 出家修苦行
 [2506] 왕往詣於道場²⁵⁷ 端坐放光明 覺悟諸群生
 [2507] 降魔成正覺 轉无²⁵⁸上法輪 所現悉已終
 [2508] 入於大涅槃 彼諸菩薩行 無量劫修習
 [2509] 廣大无²⁵⁹有邊 我今說少分 雖令無量衆
 [2510] 安住佛功德 衆生及法中 畢竟无²⁶⁰所取 避諱
 [2511] 具足如是行 遊戲諸神通 毛端置衆刹
 [2512] 經於億千劫 掌持無量刹 遍徃²⁶¹身无²⁶²倦
 [2513] 還來置本處 衆生不知覺 菩薩以一切
 [2514] 種種莊²⁶³嚴刹 置於一毛孔 眞實悉令見
 [2515] 復以一毛孔 普納一切海 大海无²⁶⁴增減
 [2516] 衆生不燒害 無量鐵圍山 手執碎爲塵
 [2517] 一塵下一刹 盡此諸塵數 以此諸塵刹
 [2518] 復更末爲塵 如是塵可知 菩薩智難量
 [2519] 於一毛孔中 放無量光明 日月星宿光
 [2520] 摩尼珠火光 及以諸天光 一切皆映蔽
 [2521] 滅諸惡道苦 爲說无²⁶⁵上法 一切諸世間
 [2522] 種種差別音 菩薩以一音 一切皆能演
 [2523] 決定分別說 一切諸佛法 普使諸群生
- [2601] 聞之大歡喜 過去一切劫 安置未來今
 [2602] 未來現在劫 迴置過去世 示現无²⁶⁶量刹
 [2603] 燒然及成住 一切諸世間 悉在一毛孔
 [2604] 未來及現在 一切十方佛 靡不於身中
 [2605] 分明而顯現 深知變化法 善應衆生心
 [2606] 示現種種身 而皆无²⁶⁷所羞²⁶⁸ 或現於六趣

256) 伎: 他本에는 '技'.

257) 場: 他本에는 '場'.

258) 无: 他本에는 '無'.

259) 无: 他本에는 '無'.

260) 无: 他本에는 '無'.

261) 徃: 他本에는 '往'.

262) 无: 他本에는 '無'.

263) 莊: 他本에는 '莊'.

264) 无: 他本에는 '無'.

265) 无: 他本에는 '無'.

266) 无: 他本에는 '無'.

267) 无: 他本에는 '無'.

268) 羞: 他本에는 '著'.

- [2607] 一切衆生身 釋梵²⁶⁹護世身 諸天人衆身
 [2608] 聲聞緣覺身 諸佛如來身 或現菩薩身
 [2609] 修行一切智 善入軟中上 衆生諸想網
 [2610] 示現成菩提 及以諸佛刹 了知諸想網
 [2611] 於想得自在 示修菩薩行 一切方便事
 [2612] 示現如是等 廣大諸神變 如是諸境界
 [2613] 舉世莫能知 雖現无²⁷⁰所現 究竟轉增上
 [2614] 隨順衆生心 令行眞實道 身語及與心
 [2615] 平等如虛空 淨戒爲塗香 衆行爲衣服
 [2616] 法繪嚴淨髻 一切智摩尼 功德靡不周
 [2617] 灌頂昇王位 波羅蜜爲輪 諸通以爲象
 [2618] 神足以爲馬 智慧爲明珠 妙行爲采女
 [2619] 四攝主藏臣 方便爲主兵 菩薩轉輪王
 [2620] 三昧爲城郭²⁷¹ 空寂爲宮殿 慈甲智慧劍²⁷²
 [2621] 念弓明利箭 高張神力蓋²⁷³ 迥建智慧幢
 [2622] 忍力不動搖 直破魔王軍 摠²⁷⁴持爲平地
 [2623] 衆行爲河水 淨智爲涌泉 妙慧作樹林
- [2701] 空爲澄淨池 覺分菡萏花²⁷⁵ 神力自莊²⁷⁶嚴
 [2702] 三昧常娛樂 思惟爲采女 甘露爲美食
 [2703] 解脫味爲漿 遊戲於三乘 此諸菩薩行
 [2704] 微妙轉增上 無量劫修行 其心不厭足
 [2705] 供養一切佛 嚴淨一切刹 普令一切衆
 [2706] 安住一切智 一切刹微塵 悉可知其數
 [2707] 一切虛空界 一沙可度量 一切衆生心
 [2708] 念念可數知 佛子諸功德 說之不可盡
 [2709] 欲具此功德 及諸上妙法 欲使諸衆生
 [2710] 離苦常安樂 欲令身語意 悉與諸佛等
 [2711] 應發金剛心 學此功德行

269) 釋梵: 他本에는 ‘梵釋’.
 270) 无: 他本에는 ‘無’.
 271) 郭: 他本에는 ‘廓’.
 272) 劍: 他本에는 ‘劍’.
 273) 蓋: 他本에는 ‘蓋’.
 274) 摠: 他本에는 ‘總’.
 275) 花: 他本에는 ‘華’.
 276) 莊: 他本에는 ‘莊’.

[2712]

[2713]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

○ 현 상

조사본 『大方廣佛華嚴經』 권59는 2018년 3월 경북 양산(梁山) 소재 공인박물관(空印博物館)의 관장인 ○○(俗名 金○○) 스님으로부터 기증받아 소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표지와 제1장~제4장이 결락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얼룩 등이 보이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書誌 事項>

大方廣佛華嚴經. 卷59 / 實叉難陀(652~710, 唐朝) 漢譯. -- 初雕木板(周)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11世紀初 推定].

1卷 1軸(23張, 4張 缺): 上下單邊, 匡高 22.5cm, 每張 23行14字, 28.7×1,064.9cm 內外. 韓紙(楮). 卷軸裝(卷末에 朱漆軸 殘存)

卷頭題: [大方廣佛華嚴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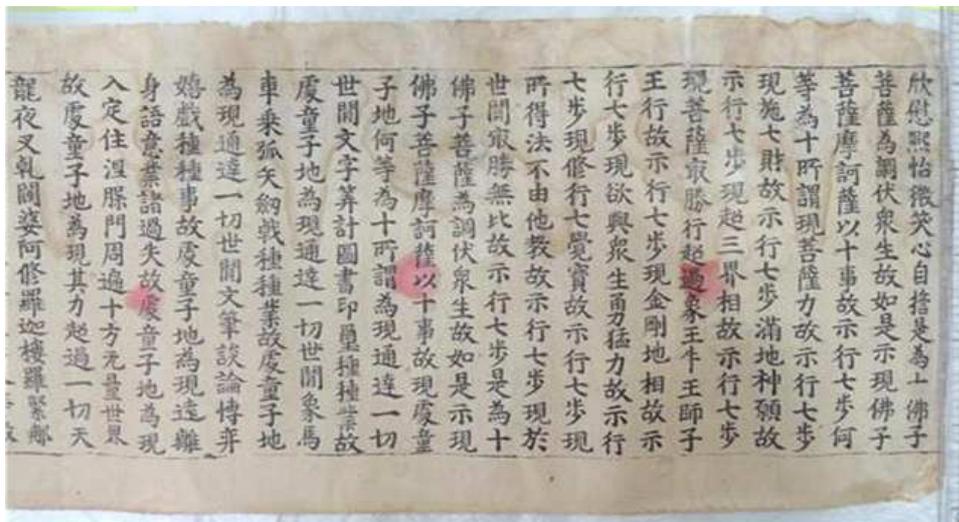
卷尾題: 大方廣佛華嚴經.

函 次: [育].

行字數: 第1張(22行14字), 第2~27張(23行14字).

張 數: 全27張 중 23張板 殘存(第1~4張 缺). (每張 28.7×46.2cm)

內 容: 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서 『화엄경』으로 약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전이 전래된 이후 화엄사상과 그에 대한 신앙이 널리 유행하였고,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의 대교과(大敎科)의 과정에서 학습하기도 하였다.

『화엄경』의 한문 역본은 3가지로 (1)동진(東晉)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418~420년경에 번역한 진본(晉本, 60권본, 60화엄경, 구역 화엄경), (2)당(唐)의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695~699년경에 번역한 주본(周本, 80권본, 80화엄경, 신역 화엄경), (3)당(唐)의 반야(般若, ?~?)가 795~798년경에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入法界品)」만을 번역한 정원본(貞元本, 40권본, 40화엄경) 등이 있다.

진본(晉本) 『60화엄경』은 지상과 천상 그리고 다시 지상을 오가며 모두 7곳에서 설해진다. 제1회의 적멸도량회(寂滅道場會)와 제2회의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는 地上이고 제3회의 도리천회(忉利天會)와 제4회의 야마천궁회(夜摩天宮會), 제5회의 도솔천궁회(兜率天宮會), 제6회의 타화자재천궁회(他化自在天宮會)는 天上이다. 제7회의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와 제8회의 급고독원회(給孤獨園會)는 다시 지상이다.

『60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제1회의 적멸도량회에 (1)「世間淨眼品」, (2)「盧舍那佛品」이 수록되어 있고 제2회의 普光法堂會에 (3)「如來名號品」, (4)「四諦品」, (5)「如來光明覺品」, (6)「菩薩明難品」, (7)「淨行品」, (8)「賢首菩薩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3회의 忉利天宮會에 (9)「佛昇須彌頂品」, (10)「菩薩雲集妙勝殿上說偈品」, (11)「菩薩十住品」, (12)「梵行品」, (13)「初發心菩薩功德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4회의 夜摩天宮會에 (14)「明法品」, (15)「佛昇夜摩天宮自在品」, (16)「夜摩天宮菩薩說偈品」, (17)「功德華聚菩薩十行品」, (18)「菩薩十無盡藏品」, 등이 수록되어 있고, 제5회의 兜率天宮會에 (19)「如來昇兜率天宮一切寶殿品」, (20)「兜率天宮菩薩雲集讚佛品」, (21)「金剛幢菩薩十廻向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6회의 他化自在天宮會에 (22)「十地品」, (23)「十明品」, (24)「十忍品」, (25)「心王菩薩問阿僧祇品」, (26)「壽命品」, (27)「菩薩住處品」, (28)「佛不思議法品」, (29)「如來相海品」, (30)「佛小相光明功德品」, (31)「普賢菩薩行品」, (32)「寶王如來性起品」,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제7회의 普光法堂重會에 (33)「離世間品」이 수록되어 있고 제8회의 給孤獨園會에 (34)「入法界品」이 수록되어 있다.

『80화엄경』은 내용상 『60화엄경』과 차이는 없으나 구성상으로는 모두 39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회의 「盧舍那佛品」을 「如來現相品」·「普賢三昧品」·「世界成就品」·「華藏世界品」·「毘盧遮那品」 등 5품으로 세분시키고 있으며, 제7회에서 『60화엄경』에 수록되지 않은 「十定品」을 추가하였다. 한편, 『40화엄경』은 『60화엄경』과 『80화엄경』의 「入法界品」에 해당하는 내용의 부분적 번역으로 『大方廣佛華嚴經普賢

行願品』 또는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등으로 別行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화엄경』은 구례(求禮) 화엄사에 있는 『구례 화엄사 화엄석경(華嚴石經)』(보물 제1040호, 1990.5.21. 지정)이다. 이 석경은 3종의 『화엄경』 번역본 중 어느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677년(문무왕 17) 의상대사가 화엄사에 각황전을 세우고 보관하였던 사실을 통하여 ‘화엄신앙’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한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국보 제196호, 1979.2.28. 지정)은 754년(경덕왕 13)에 필사된 사경으로 주본(周本)의 일부이다. 당시에 이미 공덕경(功德經)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아 경덕왕 13년(754) 이전에는 이미 3종류의 『화엄경』이 모두 전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균여(均如, 923~973)와 의천(義天, 1055~1101) 등의 고승에 의하여 『화엄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연구와 주석서가 간행되어 전해진다. 당시에 간행된 것으로는 1020년(현종 11)에 현화사(玄化寺)에서 『삼본화엄경(三本華嚴經)』을 판각한 기록이 있으며, 해인사에는 1098년(숙종 3)에 판각된 『삼본화엄경』의 목판과 1200년대에 판각된 목판이 섞여서 보존되어 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당(唐) 징관(澄觀)의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에 송(宋) 정원(淨源, 1011~1088)이 주석을 붙인 120권의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가 유행하였다. 이 책은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의 요청으로 수입한 2,900여 장의 판본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이 처음이며, 1424년(세종 6)에 이 목판을 일본에 사급(賜給)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 주도로 판각하였고, 이후 명종 연간인 1557년~1564년에는 황해도 귀진사(歸眞寺), 1629년~1631년에는 경기도 삭령의 용복사(龍腹寺)에서 간행하였다. 그리고 송광사에서 1634년~1635년에 전질을 간행하였다. 현재 귀진사와 용복사의 간본은 목판이 전하지 않을뿐더러 인본역시 아주 일부분만 전하고 있으나, 송광사 목판은 100판 가량 일실(逸失)되었으나 현재 2,347판의 목판은 큰 손상 없이 송광사의 화엄전에 수장되어 있다.

한편, 『화엄경수소연의초』는 성충(性聰, 1631~1700)에 의하여 1689년(숙종 15)부터 1692년(숙종 18)까지 전라도 순천 징광사(澄光寺)를 중심으로 판각되었다. 이후 징광사판이 소실되면서 설파 상언(雪坡尙彦, 1707~1791)이 영각사(靈覺寺)에서 1773년(영조 49)부터 1775년(영조 51)까지 3년 동안 징광사판의 오류를 바로잡아 복각하였고, 철종대에도 영기 선사(永奇禪師, 1820~1872)가 중심이 되어 봉은사(奉恩寺)에서 다시 한번 판각하여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조사본 『대방광불화엄경』 권59는 당의 실차난타가 한역한 주본 『80화엄경』의 「이세간품」 제38의 7로 11세기에 판각한 초조 대장경판에서 인출한 판본이다. 현재 제5장부터 제27장까지 전체 23장이 두루마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나, 제1장 제1행의 권수제(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 新譯 育)와 제2행의 한역 정보(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 및 제3행의 분과품제목(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부터 제4장 23행의

본문 내용인 “薩爾時爲一切如來光明所觸倍加”에 이르기까지 4장 91행의 내용이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지도 탈락되어 표지 제목을 확인할 수 없다. 탈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01][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九新譯

[0102]唐于闐國三藏實叉難陀譯[育]

[0103]離世間品第三十八之七

[0104]佛子菩薩摩訶薩示現處胎有十種 [0105]事何等爲十佛子菩薩摩訶薩爲欲
 [0106]成就小心劣解諸衆生故不欲令彼 [0107]起如是念今此菩薩自然化生智慧
 [0108]善根不從修得是故菩薩示現處胎 [0109]是爲第一事菩薩摩訶薩爲成熟父
 [0110]母及諸眷屬宿世同行衆生善根示 [0111]現處胎何以故彼皆應以見於處胎
 [0112]成熟所有諸善根故是爲第二事菩 [0113]薩摩訶薩入母胎時正念正知無有
 [0114]迷惑住母胎已心恒正念亦無錯亂 [0115]是爲第三事菩薩摩訶薩在母胎中
 [0116]常演說法十方世界諸大菩薩釋梵 [0117]四王皆來集會悉令獲得無量神力
 [0118]無邊智慧菩薩處胎成就如是辯才 [0119]勝用是爲第四事菩薩摩訶薩在母
 [0120]胎中集大衆會以本願力教化一切 [0121]諸菩薩衆是爲第五事菩薩摩訶薩
 [0122]於人中成佛應具人間最勝受生以 [0201]此示現處於母胎是爲第六事菩薩
 [0202]摩訶薩在母胎中三千大千世界衆 [0203]生悉見菩薩如明鏡中見其面像爾
 [0204]時大心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 [0205]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皆
 [0206]詣菩薩恭敬供養是爲第七事菩薩 [0207]摩訶薩在母胎中他方世界一切最
 [0208]後生菩薩在母胎者皆來共會說大 [0209]集法門名廣大智慧藏是爲第八事
 [0210]菩薩摩訶薩在母胎時入離垢藏三 [0211]昧以三昧力於母胎中現大宮殿種
 [0212]種嚴飾悉皆妙好兜率天宮不可爲 [0213]比而令母身安隱無患是爲第九事
 [0214]菩薩摩訶薩住母胎時以大威力興 [0215]供養具名開大福德離垢藏普遍十
 [0216]方一切世界供養一切諸佛如來彼 [0217]諸如來咸爲演說無邊菩薩住處法
 [0218]界藏是爲第十事佛子是爲菩薩摩 [0219]訶薩示現處胎十種事若諸菩薩了
 [0220]達此法則能示現甚微細趣佛子菩 [0221]薩摩訶薩有十種甚微細趣何等爲
 [0222]十所謂在母胎中示現初發菩提心 [0223]乃至灌頂地在母胎中示現住兜率
 [0301]天在母胎中示現初生在母胎中示 [0302]現童子地在母胎中示現處王宮在
 [0303]母胎中示現出家在母胎中示現苦 [0304]行往詣道場成等正覺在母胎中示
 [0305]現轉法輪在母胎中示現般涅槃在 [0306]母胎中示現大微細謂一切菩薩行
 [0307]一切如來自在神力無量差別門佛 [0308]子是爲菩薩摩訶薩在母胎中十種
 [0309]微細趣若諸菩薩安住此法則得如 [0310]來無上大智慧微細趣佛子菩薩摩
 [0311]訶薩有十種生何等爲十所謂遠離 [0312]愚癡正念正知生放大光明網普照
 [0313]三千大千世界生住最後有更不受 [0314]後身生不生不起生知三界如幻生

[0315]於十方世界普現身生證一切智智 [0316]身生放一切佛光明普覺悟一切衆
 [0317]生身生入大智觀察三昧身生佛子 [0318]菩薩生時震動一切佛刹解脫一切
 [0319]衆生除滅一切惡道映蔽一切諸魔 [0320]無量菩薩皆來集會佛子是爲菩薩
 [0321]摩訶薩十種生爲調伏衆生故如是 [0322]示現佛子菩薩摩訶薩以十事故示
 [0323]現微笑心自誓何等爲十所謂菩薩 [0401]摩訶薩念言一切世間沒在欲泥除
 [0402]我一人無能免濟如是知己熙怡微 [0403]笑心自誓復念言一切世間煩惱所
 [0404]盲唯我今者具足智慧如是知己熙 [0405]怡微笑心自誓又念言我今因此假
 [0406]名身故當得如來充滿三世無上法 [0407]身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
 [0408]爾時以無障礙眼遍觀十方所有梵 [0409]天乃至一切大自在天作是念言此
 [0410]等衆生皆自謂爲有大智力如是知 [0411]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爾時觀諸

[0412]衆生久種善根今皆退沒如是知己 [0413]熙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世間種
 [0414]子所種雖少獲果甚多如是知己熙 [0415]怡微笑心自誓菩薩觀見一切衆生
 [0416]蒙佛所教必得利益如是知己熙怡 [0417]微笑心自誓菩薩觀見過去世中同
 [0418]行菩薩染著餘事不得佛法廣大功 [0419]德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薩
 [0420]觀見過去世中同共集會諸天人等 [0421]至今猶在凡夫之地不能捨離亦不
 [0422]疲厭如是知己熙怡微笑心自誓菩 [0423]薩爾時爲一切如來光明所觸倍加

조사본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광고(匡高)의 크기는 세로 22.5cm이며, 계선(界線)은 없다. 제1장은 22행 14자이고 제2장부터 제27장까지의 每張은 23行 14字이며, 규격은 세로 28.7cm, 가로 1,064.9cm 내외이다. 每板의 크기는 세로 28.7cm, 가로 46.2cm 내외이다.

본문 가운데 중국 송의 태조인 조광윤(趙匡胤)의 조부인 ‘조경(趙敬)’의 피휘(避諱)인 ‘敬’(091602·191713)과 兼避字인 ‘竟’(170714·202302·211002·230907·231512·232202·251012)의 마지막 劃이 缺劃으로 처리되었다.

一切諸佛如來師子之座坐道場
 時心如虛空無所分別坐道場時隨
 其所應現身威儀坐道場時隨順安
 住全剛三昧坐道場時受一切如來
 神力所持清淨妙處坐道場時自善
 根力志能加被一切衆生是為十佛
 子菩薩摩訶薩坐道場時有十種奇
 特未曾有事何等為十佛子菩薩摩
 訶薩坐道場時十方世界一切如來
 皆現其前咸舉右手而稱讚言善哉
 善哉無上導師是為第一未曾有事
 菩薩摩訶薩坐道場時一切如來皆
 志護念與其威力是為第二未曾有
 事菩薩摩訶薩坐道場時宿世同行
 諸菩薩衆悉未圓遊以種種莊嚴具
 恭敬供養是為第三未曾有事菩薩
 摩訶薩坐道場時一切世界草木菓
 林諸無情物皆曲身低影歸向道場
 是為第四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
 道場時入三昧名觀察法界此三昧
 力能令菩薩一切諸行悉得圓滿是
 為第五未曾有事菩薩摩訶薩坐道
 場時得陀羅尼名寂上離垢妙光海
 藏能受一切諸佛如來大雲法雨是

恭敬供養是

<제9장 / 避諱字인 '敬'>

明了趣向法 知魔及魔道 捨願感捨離
 見佛與佛業 發心皆攝取 離憍修智慧
 不為魔力持 為佛所攝持 亦為法所持
 現住兜率天 又現彼命終 亦現住母胎
 亦現微細趣 亦現生及散失 亦現行七步
 示賢衆伎術 亦示慶深旨 出安衆苦行
 往詣於道場 端坐放光明 覺悟諸群生
 降魔成正覺 轉无上法輪 所現志已終
 入於大涅槃 彼諸菩薩行 無量劫修習
 廣大無有邊 我今說少分 唯令無量衆
 安住佛功德 衆生及法中 畢竟无所取
 具足如是行 遊戲諸神通 毛端置衆刹
 經於億千劫 掌持無量刹 遍往身无倦
 運來置本處 衆生不知覺 菩薩以一切
 種種莊嚴刹 置於一毛孔 真實善令見
 復以一毛孔 普納一切海 大海无增減
 衆生不覺害 無量鐵圍山 手執碎為塵
 一塵下一刹 盡此諸塵數 以此諸塵刹
 復更求為塵 如是塵可知 菩薩智難量
 於一毛孔中 放無量光明 日月星宿光
 摩尼珠火光 及以諸天光 一切皆映蔽
 滅諸惡道苦 為說无上学 一切諸世間
 種種老別音 菩薩以一音 一切皆能演
 決定分別說 一切諸佛法 普使諸群生
 聞之大歡喜 過去一切劫 安置未來今

畢竟无所取

<제25장 / 兼避字인 '竟'>

한편,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되어 있는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는 전각의 행자수가 24행 17자이고, 제7폭(幅)의 제20행 11번째(조사본의 091602)에 새겨진 경(敬)자가 피휘 결획이 되지 않은 정자이며, 권미제의 다음에 음의(音義)와 함께 ‘고종 32년(1245) 고려국대장도감에서 고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대방광불화엄경』 주본의 경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행 정보도 있으므로, 조사 대상본과 서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조사본은 고려 고종 32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판각된 경판과 달리, 11세기 판각된 이후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 대장경판에 편입된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를 원천 텍스트로 삼아 찍은 인출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조사본과 같은 동일 권차는 지정된 사례가 없다.

○ 지정사례

- 국보 제203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성암고서박물관, 1981년 3월 지정).
- 국보 제204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성암고서박물관, 1981년 3월 지정).
- 국보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경기도박물관, 1990년 9월 지정).
- 국보 제25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구인사, 1990년 9월 지정).
-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삼성출판박물관, 1991년 7월 지정).
-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호림박물관, 1991년 7월 지정).
-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한솔제지, 1993년 4월 지정).
- 국보 제279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4(구인사, 1993년 6월 지정).
- 보물 제687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6(○○○○○○○○, 1981년 3월 지정).
- 보물 제688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7·52(○○○○○○○○, 1981년 3월 지정).
- 보물 제690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1981년 3월 지정).
- 보물 제1191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0(한솔제지, 1994년 1월 지정).
- 보물 제120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7·77(가천박물관, 1994년 7월 지정).
- 보물 제1940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영남대학교, 2017년 5월 지정).

○ 참고문헌

- 國立古宮博物館 編, 『천년의 기록 내일을 열다 初雕大藏經』, 초조 대장경 판각 천년 기념 특별전, 서울: 國立古宮博物館, 2011.
- 湖林博物館 編,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初雕大藏經』, 서울: 湖林博物館, 2011.
- 海印寺聖寶博物館 編, 『海印寺 毗盧遮那佛 腹藏遺物 特別展』, 陝川: 海印寺聖寶博物館, 2008.

7.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 (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

가.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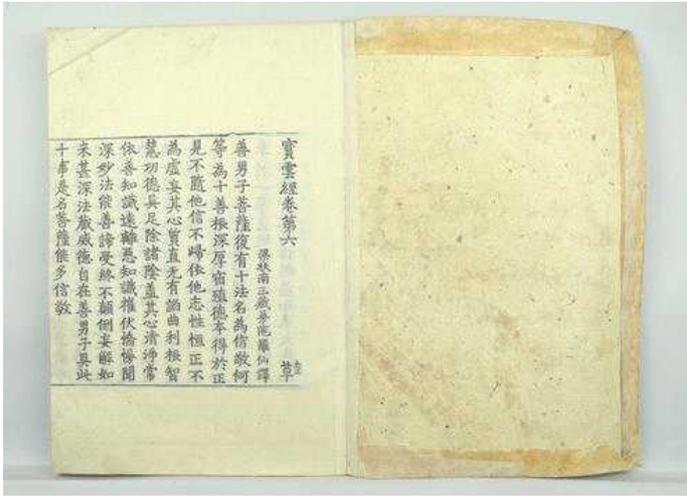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1.23.)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림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3번길 39-1, 봉림사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40.5×28.8cm(匡高 22.4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243년(고려 고종 30) 조조(雕造), 조선 초기 인출 추정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신청본 『제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1책)는 권말의 간기를 통하여 ‘癸卯歲’에 해당하는 고려 고종 30년(1243)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였고,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하여 조선 세조대에 인출된 경전 가운데 하나임이 확인된다. 지정 신청본은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표지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인출 종이의 질과 보존 상태도 좋아 조선 전기 해인사대장경판의 인출본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정 신청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신청본은 조선 초기에 인출된 해인사대장경판 인본의 1책(5권)이다. 고려 때 목판이 소실된 초조 대장경의 인본과는 달리 해인사대장경판 인본은 목판이 현존함으로써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불교를 배척하고자 한 조선 왕조, 대한제국에서도 대장경 인경사업은 왕실과 궁인들의 지원으로 광무 연간까지 이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조선 초기에 국왕의 주도로 인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사를 살피는데 중요한 사건이 된다. 또 이 시기의 인본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대장경을 구청(求請)하던 일본에 사급(賜給)됨으로써 일본의 불교신앙에 일조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지정 신청본은 드물게 전하는 조선 초기의 뛰어난 인쇄기술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유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조사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1책)는 권말의 간기를 통하여 ‘癸卯歲’에 해당하는 고려 고종 30년(1243)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였고,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하여 조선 세조대에 인출된 경전 가운데 하나임이 확인된다.

조사본은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표지는 세조대의 원상을 보존하고 있고,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도 좋아 조선 전기 대장경판의 인출 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작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조사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명칭은 “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로 한다.

조사보고서

□

○ 현 상

<書誌 記述>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 梁扶南三曼藏陀羅仙譯·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 木版本. -- [高麗]: [大藏都監], [高麗 高宗 30(1243) 雕造].

1冊: 上下單邊, 每板葉 28.9~40.5cm 內外, 匡高 22.4cm, 無界, 全葉 23行14字, 40.5×28.9cm. 韓紙. 線裝(包背裝).

表 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卷首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版心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卷尾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函 次: 草.

內 容: 寶雲經 卷6~7, 佛說阿惟越致遮經 卷上~下.

刊 記：癸卯(1243, 고려 고종 30)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내 용

<寶雲經>

寶雲經卷第六

梁扶南三藏曼陀羅仙譯

善男子！菩薩復有十法名爲信敬。何等爲十？善根深厚宿殖德本、得於正見不隨他信不歸依他、志性恒正不爲虛妄、其心質直無有諂曲、利根智慧功德具足、除諸陰蓋其心清淨、常依善知識遠離惡知識、摧伏憍慢、聞深妙法能善諦受、終不顛倒妄解如來甚深法藏威德自在。善男子！具此十事是名菩薩能多信敬。… 중략 … 善男子！菩薩復有十法，名捨家出家。何等爲十？無所受用、於可染處終不親近、背於五欲、除諸愛渴於如來所制禁戒、終不毀犯、少欲知足、衣服飲食牀敷臥具趣得支命終不貪積、於五欲所常生畏怖、恒念厭離、修集善法。善男子！具此十事是名菩薩捨家出家。

寶雲經卷第六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寶雲經卷第七

梁扶南三藏曼陀羅仙譯

善男子！菩薩復有十法名爲正命。何等爲十？心不諂曲、不外現相貌而求利養、不作抑揚顯己異衆、不外弊五欲而心求利養、不取非法財、不取不清淨財、不著利養、不染利養、而常知足、於如法利恒生知足。云何菩薩心不諂曲？不以利養令身、口、意曲。云何不身諂曲？菩薩不爲見檀越故現諸威儀。云何作威儀？見檀越時，低視徐行如貓伺鼠，是名身諂曲。云何口諂曲？菩薩不爲利養作柔軟語、作愛語、作庠序語、隨他所愛語、隨他意語，如是等語皆悉不作。…… 善男子！此經文字章句次第當名『寶雲』，亦名『寶藏』，亦名『智燈』，亦名『除蓋障菩薩之所受持』。”爾時，除蓋障菩薩及諸菩薩聞已，諸大聲聞、帝釋、大梵、護世天王、摩醯首羅并諸天子而爲上首，乃至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摩睺羅伽，無量百千億衆皆稱：“善哉，善哉！歡喜奉行。

寶雲經卷第七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寶雲經』은 제개장 보살이 부처님께 보살이 갖추어야 할 수행과 덕목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102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매 물음마다 열 가지로 상세하게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양(梁)나라 때 만다라선(曼陀羅仙, Mandrasena)이 503년에 양도(楊都)에서 번역하였다. 이 경은 전체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가야산 정상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모든 장애를 없앤 동방의 제개장(除蓋障) 보살이 연화안(蓮華眼) 여래의 허락을 얻어 모든 보살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제개장 보살은 부처님에게 보살이 어떻게 해야만 보시를 다 갖추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보살이 빨리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지 등, 보살이 갖추어야 할 수행과 덕목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102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매 물음마다 열 가지로 상세하게 답한다. 끝으로 이 불전을 그대로 믿고 잘 섬길 것을 설하고 있다. 부처는 이 불전이 모든 불전의 바탕이 되므로 이 불전을 보지 않고는 대승 경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불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 불도를 닦는 마당이 되고 설법 장소가 되므로 이 불전이 곧 부처라고 설한다.

<佛說阿惟越致遮經>

『佛說阿惟越致七遮經』은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불법 즉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려서지 않는 경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줄여서 『아유월치경(阿惟越致經)』이라고 한다. 서진(西晉)시대에 축법호(竺法護)가 284년에 돈황(燉煌)에서 번역하였다. 이 경은 상중하 3권으로 권상은 제1~6품, 권중은 7~12품, 권하는 13~1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전의 이름인 『불설아유월치차경(佛說阿惟越致遮經)』에서 아유월치차란 범어를 음역한 것으로 보살이 불도를 닦음에 물려섬이 없는 경지를 설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경은 불도를 닦는 데에는 믿음이 중요하며, 부처님 법의 한없이 깊은 뜻을 굳게 믿고 받아들여야만 불도를 닦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물려서지 않게 된다고 설한다.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上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不退轉法輪品第一

聞如是： 一時佛遊舍衛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彼時世尊於後夜起，三昧正受，號離垢光。文殊師利童子菩薩亦以普明三昧，彌勒菩薩導衆大士普顯三

味。於是賢者舍利弗後夜寤起，自出其室，發心往詣文殊師利。欲入其室，未入之頃，見佛神室則前進矣。睹十萬蓮華不可稱計圍繞佛屋，又復遙聞大音樂聲若干種響。其大蓮華自然衍光，遍照祇樹，悉周舍衛，靡不見焉，三千大千佛之境界，光耀巍巍。… 중략 … 佛告阿難：“如來、至眞、等正覺願宣菩薩爲往來，當知是義亦是善權方便也。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上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卷上の 제1 불퇴전법륜품(不退轉法輪品)에서는 부처님이 이 불전을 설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한다. 부처님이 사위성의 기수급고독원에 머물 때, 문수사리 보살이 물러섬이 없는 법에 대하여 청하자, 이에 부처님은 아난을 위하여 계송으로 답한다. 제2 지신품(持信品)에서는 아난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이 불도를 닦음에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설한다. 제3 봉법품(奉法品)에서는 불법의 한량없이 깊은 뜻을 굳게 믿고 그것을 받들어야만 불법을 닦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설한다. 제4 팔등품(八等品)에서는 여덟 가지 그릇됨을 멀리하여 8해탈문으로 나아갈 것을 권한다. 제5 도적품(道跡品)에서는 불교의 이치를 깨달아 성인의 경지에 갓 들어선 사람인 도적(道跡)에 대해 설한다. 보살은 번뇌를 끊어버리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서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닦아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제6 왕래품(往來品)에서는 부처의 지혜는 오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자면 이 세상에서 채 끊지 못한 번뇌를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바꾸어 태어나면서 다 끊어야 함을 설한다.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中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不還品第七

佛復告阿難：何故如來說美菩薩爲不還乎？於是菩薩一切所存、處處造行超越諸有，而逮佛明蠲除諸行，降伏此已則不復還。所以者何？見一切法不有往還，超度凡夫，捐捨俗慧，入佛明智，獲無所住，諸法平夷。所以者何？用致寂界非動凡夫，不立聖道塞諸惡路。 勉濟情欲，於食無食，逮上明迹。… 중략 … 佛言：若善男子、善女人則旦供養百佛，日中晡時、人定夜半、天曉肅肅，各各供養百佛世尊。一日一夜中合六百佛，一切所安隨其所宜。如此比像具足千歲，其福多少？ 阿難言：“福大多大，天中天！不可爲喻。 佛言：假使是分別魔經受信不疑，德過於彼。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中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卷中の 제7 불환품(不還品)에서는 번뇌의 세계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설한다. 제8 무착품(無着品)에서는 불환보다 더 높은 경지인 무착(無着)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9 성문품(聲聞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들은 소승의 수행자들인 성문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0 연각품(緣覺品)에서는 혼자서 스스로 불법을 깨달은 소승의 수행자인 연각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1 석과상품(釋果想品)에서 부처님은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보살은 자기가 올바른 지혜를 얻어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 물러섬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버려야 물러섬이 없는 불법(佛法)에 대한 믿음 등을 갖는다. 대승 교리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승의 성인이 되려고 부지런히 불법을 닦으면 불퇴전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제12 향마품(降魔品)에서는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고민하는 악마를 항복시키고 교화시킨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下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如來品第十三

爾時，三菩薩各從遠來，見此變化，佛所演法，得未曾有。阿難白佛：此三菩薩從何所來？世尊告曰：東方去是恒沙等刹，有世界曰身超須彌山。住在本土，聞說斯經，故來到是。時三菩薩來住佛前，皆以香華供養世尊，俱白佛言：余等僉然信樂斯法，不懷狐疑。所以者何？心中燿然，譬如目睹。如來、至眞、等正覺恩之所覆。時一菩薩前白佛言：如我所言，至誠不虛，吾於是經都無狐疑。… 중략 … 賢者阿難長跪叉乎，前白佛言：佛不妄笑，會當有意。佛語阿難：今諸四輩，天、龍、鬼神，人及非人，聞是經者，後世所生，輒值此經演說其義，如我今日等無有異。” 佛說是時，賢者阿難、文殊師利菩薩、諸天世人，莫不歡喜。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下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卷下の 제13 여래품(如來品)에서는 부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14 개화품(開化品)에서는 불법을 깨닫게 하는 이 불전을 듣고 믿으면 그 공덕이 매우 크다고 설한다. 제15 사자녀품(師子女品)에서 부처님은 사

자녀라는 이름의 소녀의 질문에 여자도 이 불전을 받아 지키고 널리 알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제16 탄법사품(歎法師品)은 불법을 설법하는 스님들을 찬탄한 내용이다. 부처님 자신도 옛날에 이 불전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에 들게 되었다고 한다. 제17 기방품(譏謗品)은 이 불전을 믿지 않거나 헐뜯고 훼방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18 촉루품(囑累品)에서 부처님은 이 경전을 후세에게 전하게 해 달라는 아난의 청을 받고 이 경전의 이름과 이 경전을 받들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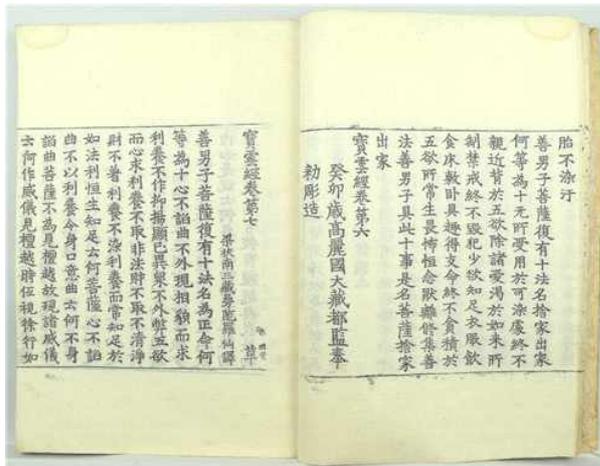
○ 형태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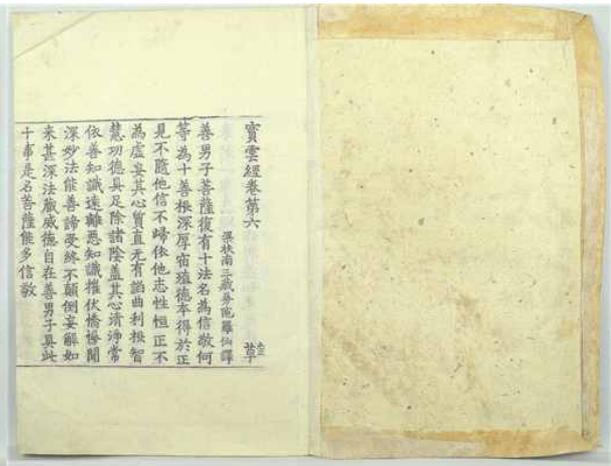
뒤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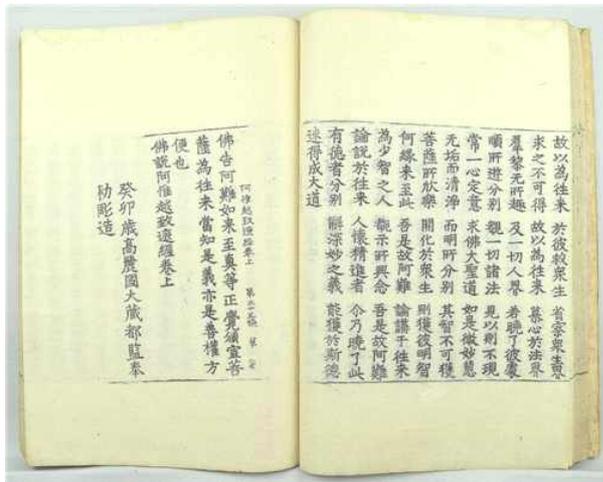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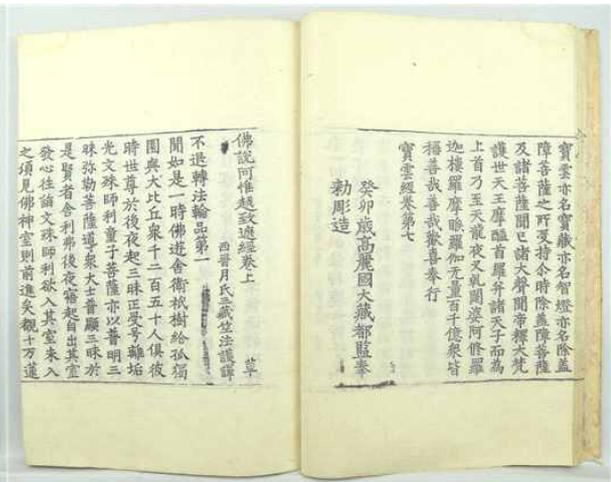
寶雲經卷第六 마지막장 및 第七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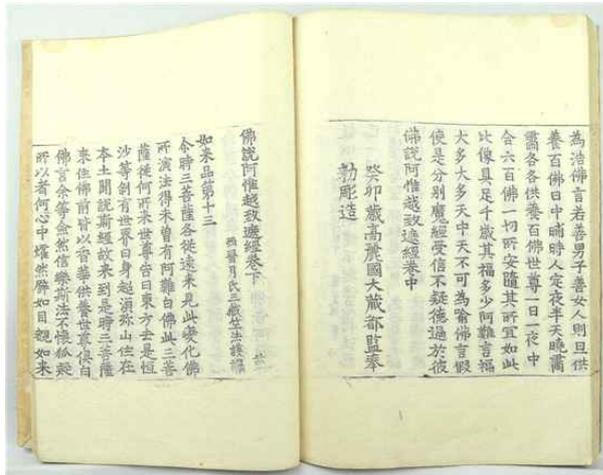
寶雲經卷第六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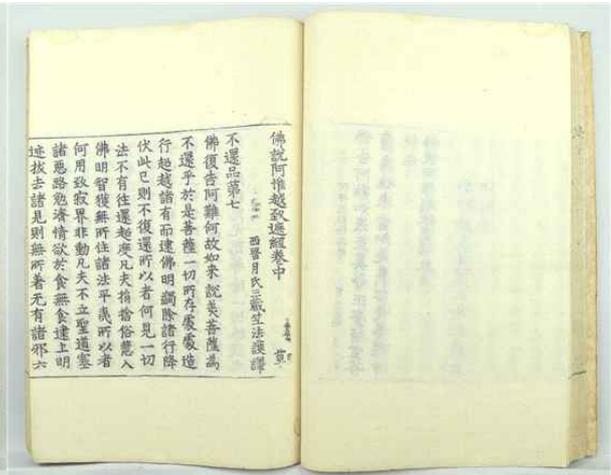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上 마지막장



寶雲經卷第七 마지막장 및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上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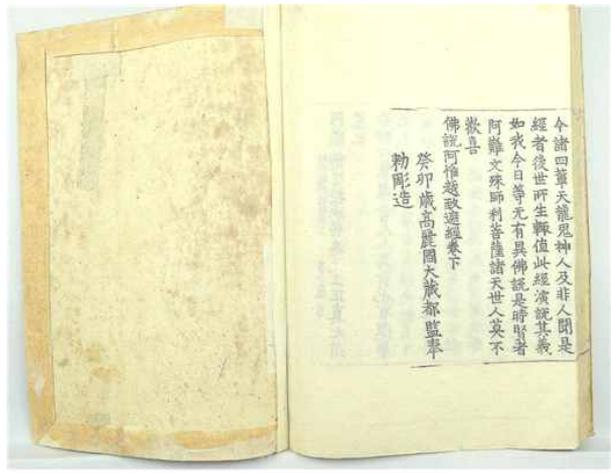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中 마지막장 및 卷下 첫장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中 첫장



장정 형태 변화: 포배장→선장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下 마지막장

<도1. 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七遮經>

지정 신청본 『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七遮經』 합부는 국보 해인사 대장경판의 초(草)함에 속하는 『보운경』 권6·7과 『불설아유윳차경』 권상·중·하의 인본의

합부이다. 『보운경』 및 『불설아유월치차경』의 각 권말에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판각 기록으로 보아 경판의 판각은 계묘년인 1243년(고려 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하였으며, 인출 시기는 장정 형식 등으로 볼 때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인쇄 상태가 양호하며 표지에 일부 훼손이 있고 광곽변 밖에 약간의 얼룩이 있으나 비교적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본래의 포배장 형태를 그대로 두고 질은 보라색 책사(冊絲)로 선장으로 철하였고, 표지와 제첩은 원상대로 유지하고 있어 원형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용된 종이는 양질의 닥종이로 책 전체의 지질이 고르다.

해인사대장경은 『대장목록』을 제외하고 판심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선장이나 포배장 등 방책형 장정보다는 두루마리형 장정에 적합하도록 각판된 경판이다. 그런데 이 지정 신청본은 인경해 연결하여 권자형으로 장책하지 않고 한 장씩 반접하여 방책형으로 장책했다. 이러한 장책 방식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해인사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초기의 인본과 보물로 지정된 『사분울 권47~50』 등으로 미루어 보면, 조선 초기에는 대장경 인본을 선장으로 장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정 신청본의 외형적 특성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인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앞표지는 쌍변의 중방형 안에 ‘寶雲經 卷第六之七, 阿惟越致經 卷一之三 合部’와 같이 두 경전의 題名과 그 아래 함차 표시인 ‘草’를 묵서해 왔다. 이러한 제명 및 권차 표기 방식도 보물로 지정된 『재조본 사분울 권47~50』 및 다른 조선 전기의 인본에서도 공통되는 현상이다.

권두에는 ‘寶雲經卷第六’의 經名과 ‘草福의 函次와 함께 刻手名이 있는데 보운경에는 志正 등, 『불설아유월치차경』에는 弘有 등이다. 行을 바꾸어 小字로 ‘梁扶南三曼藏陀羅仙譯’의 譯者를 기록하였다.

『보운경』의 판식은 上下單邊이고 每板葉은 28.9~40.5cm 내외이며 匡高는 22.4cm 내외이다. 界線은 없으며, 매판 全葉의 行字數는 23행 14자 내외이다. 책의 전체 크기는 세로 40.5, 가로 28.9cm이다.

『불설아유월치차경』 권상, 하의 권수제와 권미제는 ‘佛說阿惟越致遮經’이며, 판심제는 ‘阿惟越致遮經’이다. 函次는 ‘草’이다. 권두에는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上’의 經名과 卷次를 기록하고 그 밑으로 ‘草’의 函次를 두었다. 行을 바꾸어 小字로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의 譯者를 기록하였고, 다음 행에 품차를 기록하였다. 『아유월치차경』의 판식 역시 上下單邊의 형식이며 매판 全葉의 行字數는 23행 14자 내외이다.

지정 신청본은 1458년(세조 4) 이전의 인본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2년 조선 개국 이후 1458년 이전의 해인사대장경 인출 기사로 1399년(정종 원년), 1412년(태종 13), 1439년(세종 21)이 있다. 이와 같이 1458년 이전의 해인사

대장경의 인출은 있었으나 현재 국내외에서 이 시기의 인본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인출 기록이 남아 있는 인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선 초기의 인본은 거의 1458년에 인출한 50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1458년 인본은 원간기나 각수명들을 의도적으로 인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에 따른 지정신청본의 특징으로 본다면 지정신청본은 1458년 이전의 인본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폭넓게 조선 초기의 인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 해인사대장경판의 세조대 간행본으로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표1. 해인사고려대장경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현황>

| 연번 | 명칭 | 권책수 | 인출시기 | 장책 형식 | 소유·관리자 | 지정연월일 |
|----|-------------------|-------|-----------------|-------|-----------------|-------------|
| 1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 | 1권 1축 | 13~14세기 | 권자본 |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 1988.12.28. |
| 2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 | 1권 1축 | 상동 | 권자본 | 상동 | 1988.12.28. |
| 3 | 재조본 경륜이상 권1 | 1권 1첩 | 고려 후기~ 조선 전기 | 절첩장 | 가천박물관 | 1993.04.27. |
| 4 | 재조본 경륜이상 권8 | 1권 1첩 | 상동 | 절첩장 |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 1993.04.27. |
| 5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 1권 1축 | 13세기 중후기 | 권자본 | 원각사 | 2010.08.25. |
| 6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 1권 1축 | 13~14세기 | 권자본 | 국유 (국립한글박물관) | 2016.01.07. |
| 7 | 재조본 사분율 권47~50 | 4권 1책 | 조선 초기 | 선장본 | 김○○ (대성사) | 2017.08.31. |
| 8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 1권 1첩 | 여말 선초 | 절첩본 | 조○○ | 2019.10.31. |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창원시, 2021.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index>

○ 기 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김○○씨가 197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중요 분야의 전적을 수집 보관하여 왔으며, 그 중 『제조본 보운경·아유월치차경』 합부 1책을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의 봉림사에 기증함.

□

○ 현 상

보수된 표지를 제외하고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서지사항>

寶雲經 卷6~7·佛說阿惟越致遮經 卷上中下

木板本. - [江華]: 大藏都監, 高宗 30年(1243) 刊, [朝鮮初期 後印]

5卷1冊: 上下單邊, 匡高 22.4cm, 無界, 全葉 23行14字; 40.5×28.8cm. 線裝

刊記: 癸卯歲(1243)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내용 및 특징

『보운경(寶雲經)』은 양(梁)나라 때 만다라선(曼陀羅仙)이 503년에 양도(楊都)에서 번역한 경전으로 모두 7권이다. 제개장(除蓋障) 보살이 부처님께 보살이 갖추어야 할 수행과 덕목에 대해 102가지로 나누어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답하는 내용이다. 『불설아유월치차경(佛說阿惟越致遮經)』은 서진(西晉) 때 축법호(竺法護)가 284년에 둔황(敦煌)에서 번역한 경전이다. 상중하 3권으로 권상은 제1~6품, 권중은 7~12품, 권하는 13~18품으로 편성되어 있다. 내용은 불도를 닦는 데는 믿음이 중요하며, 불법의 깊은 뜻을 굳게 믿고 만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은 지정 신청본의 표제(表題)와 같이 『아유월치경(阿惟越致經)』으로 약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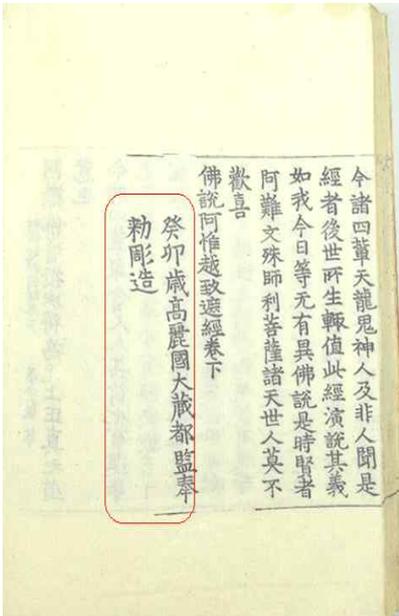
지정 신청본은 국보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초(草)함에 속하는 『보운경 권 6~7·불설아유월치차경 권상중하』의 인본 합부이다. 경판은 권 끝의 “계묘세고려국대장도감봉척조조(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와 같이 계묘년인 1243년(고려 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판각되었으나 조선 초기의 인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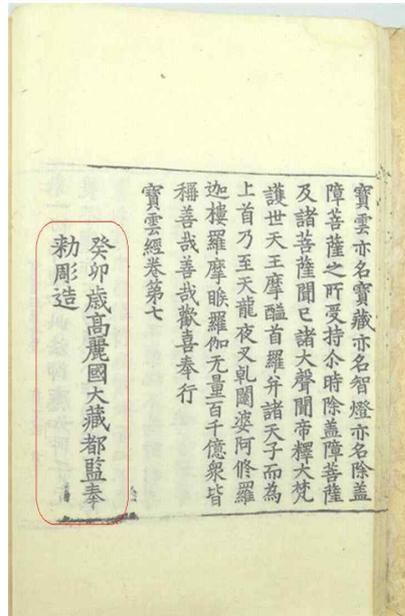
뒤표지



앞표지



불설아유월치차경 권하 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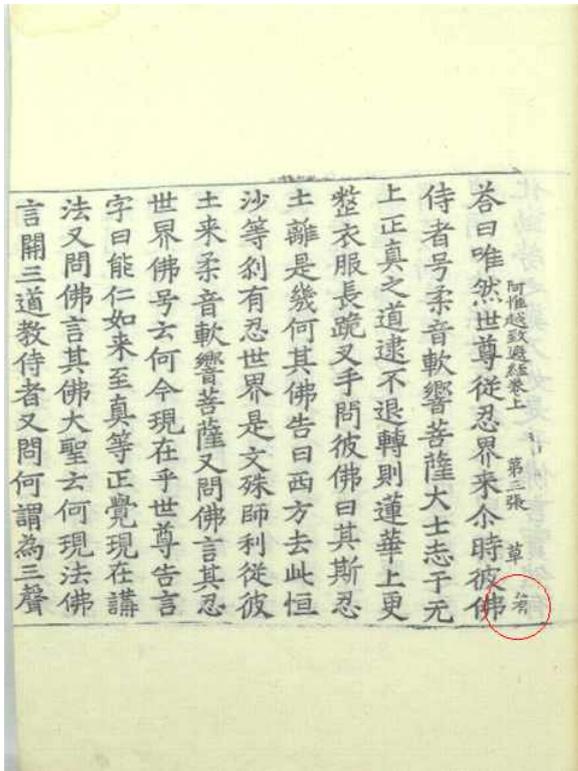
보운경 권7 간기

<도1. 지정 신청본 『제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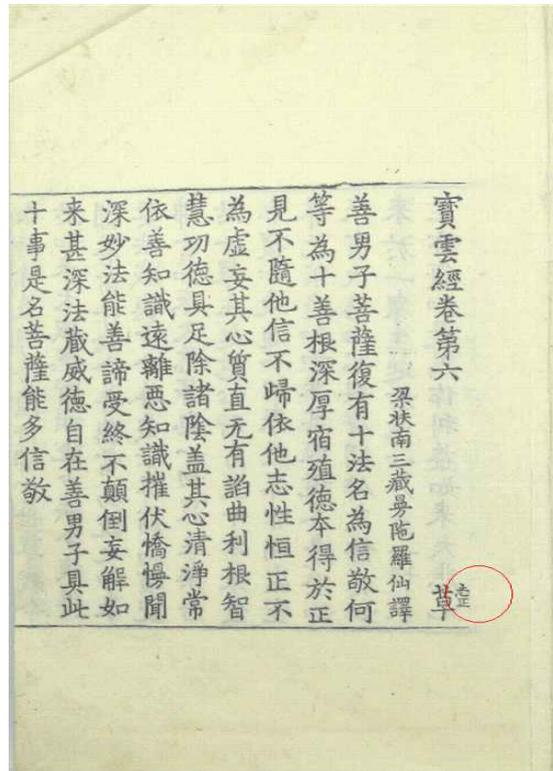
표지는 부분적으로 보수된 흔적이 있으며, 짙은 보라색 책사(冊絲)로 엮은 선장본이다. 앞표지는 쌍변의 중방형 안에 “寶雲經 卷第六之七, 阿惟越致經 卷一之三 合部”와 같이 두 경전의 제명(題名) 등을 필사하고, 그 아래에는 함호인 “草”를 묵서해 놓았다. 그런데 경명 다음의 “第〇之〇”와 같은 권차 표기 방식과 함호 표시 방식은 기지정본인 『제조본 사분율 권47~50』(2017.8.31. 지정)과 동일하며, 다른 조선 전기의 인본에서도 공통되는 현상이다. 지질은 우수한 닥종이고, 표지를 제외한 본문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장책 형식은 오침의 선장본이나 책등을 감싼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포배장 형식이 가미되어 있다. 처음 장책할 때 책등을 감싼 뒤에 선장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장책 방식

은 조선 초기에 간행되거나 인출된 불서에 더러 보이는 방식이다.

원래 대장경은 두루말이(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대장목록』이나 『일체경음의』 같은 사전류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판심이 없다. 그러므로 반접하여 선장본으로 장책하는 일이 쉽지 않고, 고려시대 이전에는 선장 형식으로 장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인본은 인본 한 장을 적절하게 반접하고, 가지런하게 장책해 놓았는데, 이러한 장책 방식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일본 소재의 조선 초기 인본은 물론 현재 해인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초기의 인본, 송광사 복장불서인 『현겁경』 등, 보물로 기지정된 『사분율 권47~50』 등의 장책 방식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대장경 인본을 선장으로 장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정 신청본의 외형적 특성으로 보아 조선 초기의 인본임은 분명하다.



불설아유월치차경(권상 제2장) 각수명(弘有)



보운경(권7 권수) 각수명(志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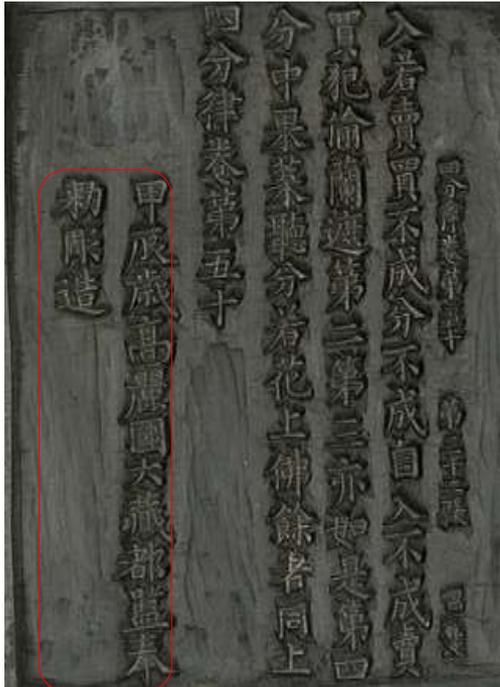
<도2. 각수명이 인쇄된 지정신청본>

한편 [도1]에서 보듯이 『보운경』 권7의 권미와 『불설아유월치차경』의 권하의 권미에는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원간기가 인쇄되어 있다. 또한 [도2]에서 보듯이 『보운경』에는 지정(志正) 등277, 『불설아유월치차경』에는 홍유(弘有) 등278의 각수명이 인쇄되어 있다. 그런데 [도3]과 같이 1458년(세조 4) 추정 인본에는 가급적 전 왕조명이 포함된 원간기를 인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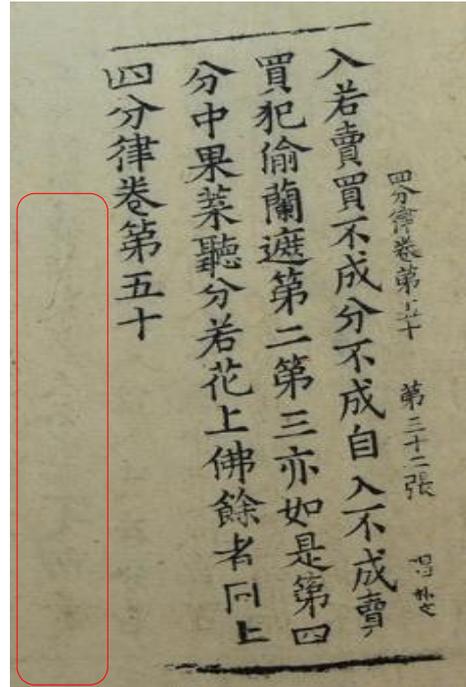
277) 『보운경』의 각수는 志正(志晶), 明覺, 王在 등 3명.

278) 『불설아유월치차경』의 각수는 弘有, 得才, 成美 등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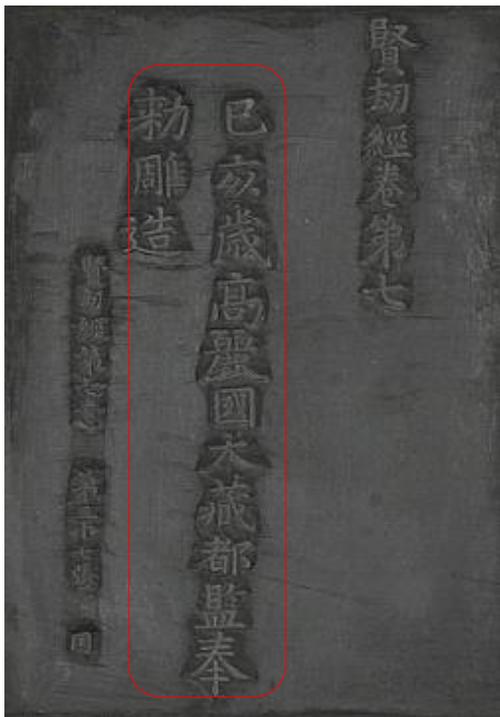
[도4]와 같이 해인사정보박물관 소장의 세조 4년 추정 인본인 『대보적경』 권11~15에서도 각수명을 인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렇게 1458년 인본은 대개 전 왕조명이 포함된 원간기와 각수명을 인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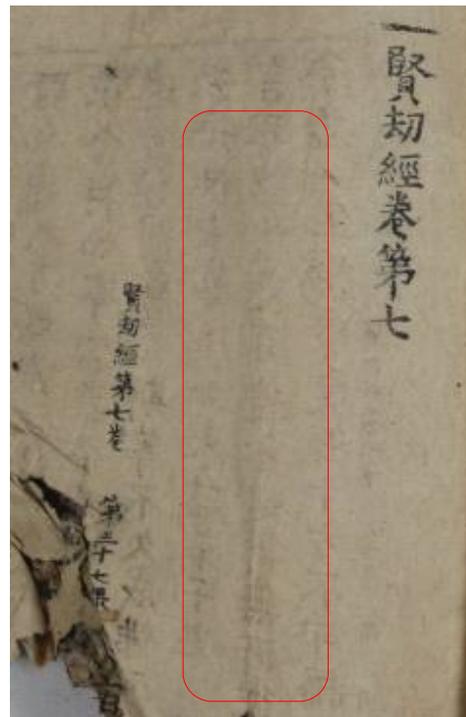
사분율 권47~50의 제32장 목판



인본(대승사)



현집경 권7의 제37장 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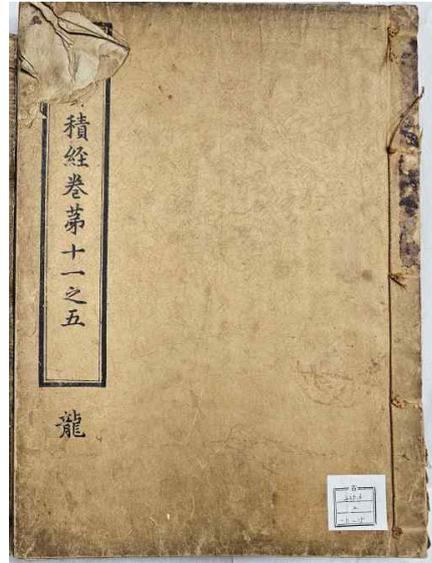


인본(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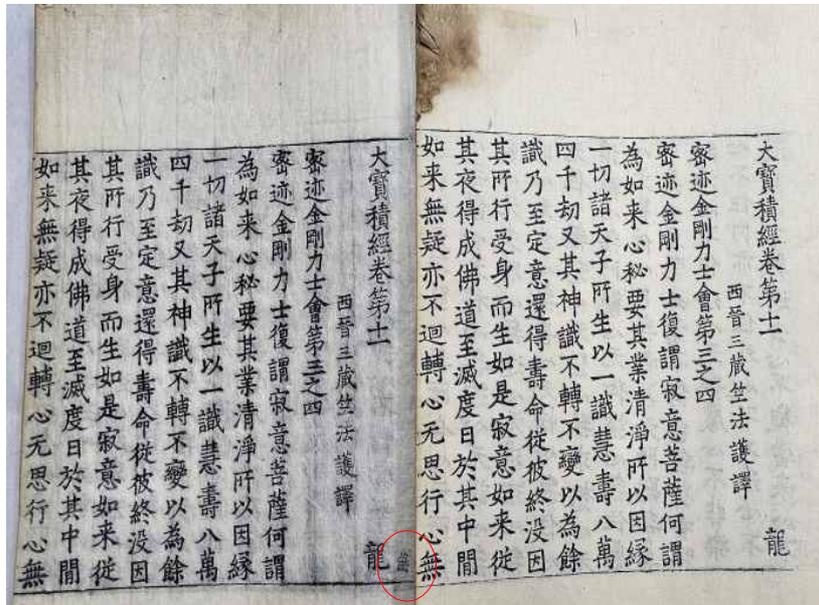
<도3. 원간기를 인쇄하지 않은 1458년(세조 4) 인본과 해인사대장경판>



조선 중기 인본(추정) 표지



세조 4년 인본(추정) 표지



각수명(公謹) 인출

각수명 불인출

<도4. 『대보적경』 권11~15 인본 표지 및 각수명 인출 여부>

그런데 조선 초기의 인본으로 판단되는 지정 신청본은 원간기와 각수명이 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1458년(세조 4) 이전의 인본일 가능성이 짙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392년 조선 개국 이후 1458년 이전의 해인사대장경 인출 기사가 수차례나 보인다. 곧 1399년(정종 원년)에 태조의 뜻에 따라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하였고, 1412년(태종 13)에도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인출한 일이 있었다. 이때 태종은 1412년 3월에 경상도 관찰사에게 대장경을 인출하라고 명령하였고, 인본이 완성되자 그해 5월에 개경사(開慶寺)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또 1439년(세종 21)에도 흥천사에 안치하려고 인출하려다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함께 소를 올려 인출을 잠시 멈춘 일이 있는데, 동왕 26년 5월에 “흥천사의 대장경에 의방(醫方)이 있

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가져와 보려고 하였다.”는 기사로 보아 그 후 인출하여 흥천사에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1458년 이전의 해인사대장경의 인출은 있었으나 현재 국내외에서 이 시기의 인본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인출 기록이 남아 있는 인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선 초기의 인본은 거의 1458년에 인출한 50권(부) 중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1458년 인본은 원간기나 각수명들을 의도적으로 인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본다면, 지정 신청본은 1458년 이전의 인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비할 수 있는 1458년 인본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인경은 800만장 이상을 인쇄한 세계 출판사상 기록적인 다량의 사업이었으므로 전 왕조 간기나 각수명을 인쇄한 인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정 신청본 역시 1458년 이전의 인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폭넓게 조선 초기의 인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현재까지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 중에서 단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유물들을 지정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²⁷⁹⁾ 이들은 판각 이후 바로 인출되었거나 늦어도 조선 초기에 인출된 판본이다. 장책 방식은 권자본이나 절첩장이 대부분인데 지정 신청본은 『사분율 권47~50』과 같이 선장본이다.

<표1.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국가문화재(보물) 지정 현황>

| 연번 | 명칭 | 권책수 | 인출시기 | 장책 형식 | 소유·관리자 | 지정연월일 |
|----|-------------------|-------|-----------------|-------|-----------------|-------------|
| 1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 | 1권 1축 | 13~14세기 | 권자본 |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 1988.12.28. |
| 2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 | 1권 1축 | 상동 | 권자본 | 상동 | 1988.12.28. |
| 3 | 재조본 경률이상 권1 | 1권 1첩 | 고려 후기~ 조선 전기 | 절첩장 | 가천박물관 | 1993.04.27. |
| 4 | 재조본 경률이상 권8 | 1권 1첩 | 상동 | 절첩장 |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 1993.04.27. |
| 5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 1권 1축 | 13세기 중후기 | 권자본 | 원각사 | 2010.08.25. |
| 6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 1권 1축 | 13~14세기 | 권자본 | 국유 (국립한글박물관) | 2016.01.07. |
| 7 | 재조본 사분율 권47~50 | 4권 1책 | 조선 초기 | 선장본 | 김○○ (대성사) | 2017.08.31. |
| 8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 1권 1첩 | 여말 선초 | 절첩본 | 조○○ | 2019.10.31. |

279) 이외에 『대장일람집』과 1503년에 해인사에서 추각한 『예념미타도량참법』이 있으나 이들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창원시, 2021.
- 「국가지정문화재사전심의」, 창원시, 2021.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main/?v=1704759500319>
-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index>

○ 기 타

2020년 8월에 김○○가 기증함.

□

○ 현 상

지정 신청본 『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합부(1책)는 2020년 부산 ○○○○ 출판사 김○○로부터 대한불교조계종 봉림사에 기증된 자료이다. 표지의 책사는 교체되었으나 포배장의 흔적 등 원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지 및 본문에 일부 오염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다.

<書誌 記述>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 梁扶南三曼藏陀羅仙譯·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 -- 木版本. -- [高麗]: [大藏都監], [高麗 高宗 30(1243) 雕造].

1冊: 上下單邊, 每板葉 28.9~40.5cm 內外, 匡高 22.4cm, 無界, 全葉 23行14字, 40.5×28.9cm. 韓紙. 包背裝.

表 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卷首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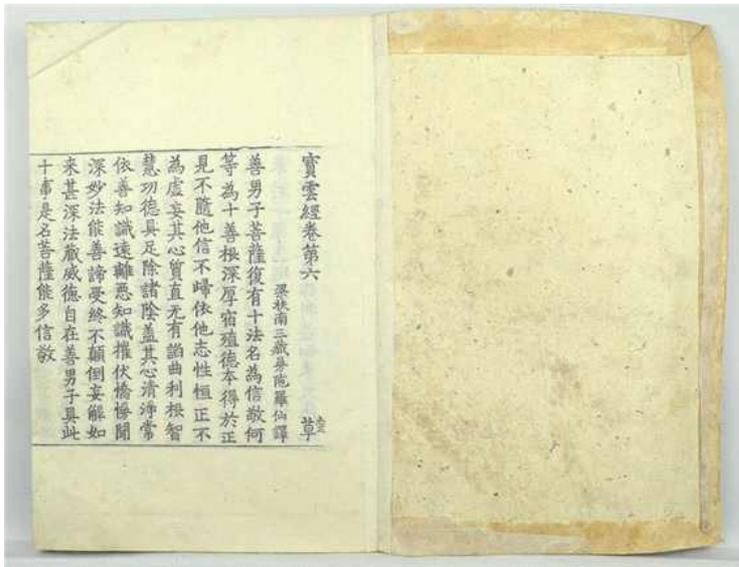
版心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卷尾題: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函 次: ‘草’.

內 容: 寶雲經 卷6~7, 佛說阿惟越致遮經 卷上~下.

刊 記: 癸卯(1243, 고려 고종 30)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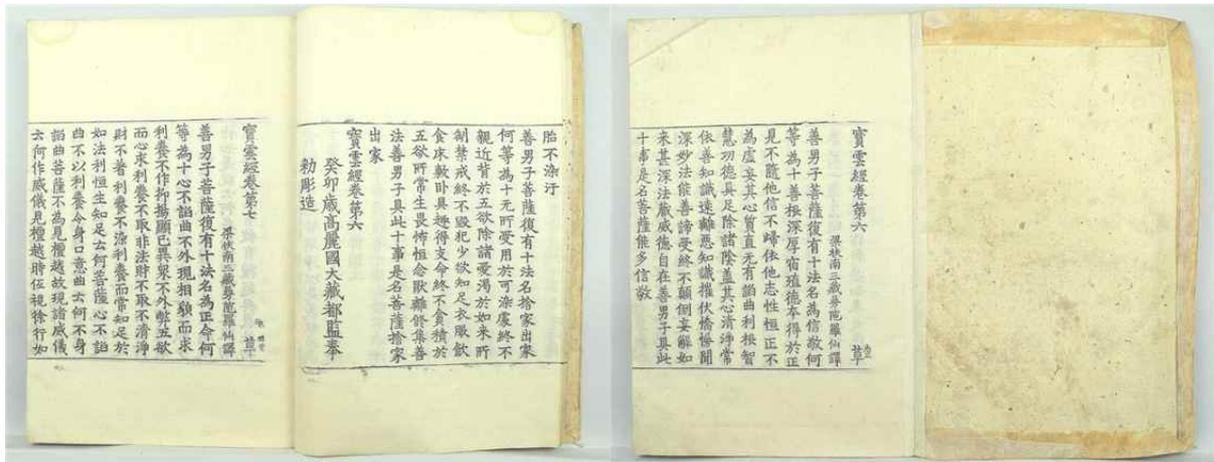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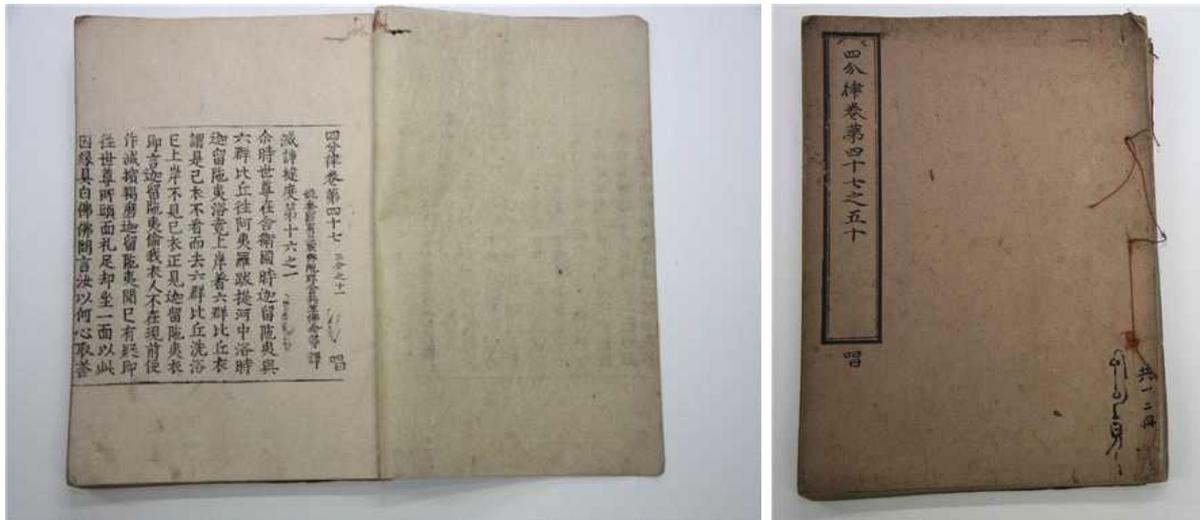
『보운경(寶雲經)』(7권)은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이 부처님께 보살이 갖추어야 할 수행과 덕목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102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매 물음마다 열 가지로 상세하게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산스크리트 경명은 Ratnamegha Sūtra이다. 중국 양(梁)나라 때 만다라선(曼陀羅仙, Mandrasena)이 503년에 양도(楊都)에서 번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역본으로는 『불설보우경(佛說寶雨經)』(10권)·『불설제개장보살소문경(佛說除蓋障菩薩所問經)』(20권) 등이 있다.

『불설아유월치차경(佛說阿惟越致遮經)』(3권)은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불법 즉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서진(西晉)시대에 축법호(竺法護)가 284년에 둔황(燉煌)에서 번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역본으로 유송(劉宋)시대(427년) 지엄(智嚴)이 번역한 『불설광박엄정불퇴전륜경(佛說廣博嚴淨不退轉輪經)』(6권)과 북량(北涼)시대(4세기 초)에 번역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불퇴전법륜경(佛退轉法輪經)』(4권) 등이 있다. 줄여서 『아유월치경(阿惟越致經)』이라고 한다. 『불설아유월치차경(佛說阿惟越致遮經)』의 ‘阿惟越致遮’란 범어를 음역한 것으로 보살이 불도를 닦음에 물러섬이 없는 경지를 설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조사본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1책)는 『보운경』 전7권(K0134) 가운데 권6과 권7 그리고 『불설아유월치차경』 권상~권하 전3권(K0135)의 5권을 합본한 책이다. 권말의 간기는 두 경전 모두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란은 기록이 확인되어 고려 고종 30년(1243)에 大藏都監에서 雕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재조본 보운경』 권6~7의 권수제·관심제·권미제 등은 모두 ‘寶雲經’이며, 函次는 ‘草’이다. 표지에는 세선과 태선의 쌍곽을 그리고 그 안에 ‘寶雲經卷第六之七·阿惟越致經第一之三 合部’의 표제어를 묵서로 쓰고, 제침 하단에 ‘草’의 함차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표지의 형식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의 사례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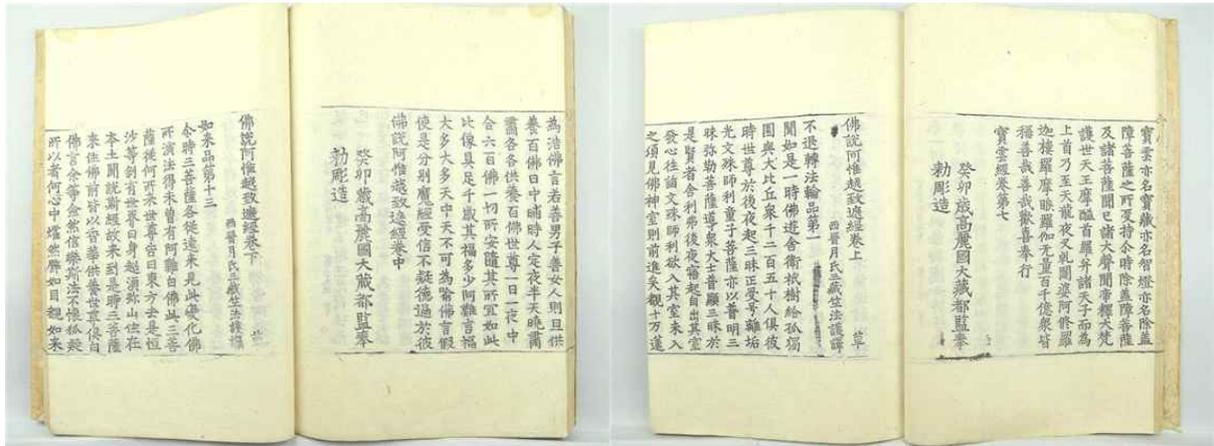


권두에는 ‘寶雲經卷第六’의 經名과 ‘草福’의 函次와 함께 刻手名을 새기고, 行을 바꾸어 小字로 ‘梁扶南三曼藏陀羅仙譯’의 譯者를 기록하였다.

『보운경』의 판식은 上下單邊이고 每板葉은 28.9~40.5cm 내외이며 匡高는 22.4cm 내외이다. 界線은 없으며, 매판 全葉의 行字數는 23행 14자 내외이다. 책의 전체 크기는 세로 40.5, 가로 28.9cm이며 지질은 질이 좋은 닥지이다.

한편 『불설아유윳치차경』 권상~하의 권수제와 권미제는 ‘佛說阿惟越致遮經’이며, 관심제는 ‘阿惟越致遮經’이다. 函次는 ‘草’이다. 권두에는 ‘佛說阿惟越致遮經卷上’의 經名과 卷次를 기록하고 그 밑으로 ‘草’의 函次를 두었다. 行을 바꾸어 小字로 ‘西晉月氏三藏竺法護譯’의 譯者를 기록하였고, 다음 行에 품차를 기록하였다. 『아유윳치차경』의 판식 역시 上下單邊의 형식이며 매판 全葉의 行字數는 23행 14자

내외이다.



○ 지정사례

현재 팔만대장경판의 세조대 간행본으로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8. 도은선생집 (陶隱先生集)

가. 검토사항

‘도은선생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로부터 ‘도은선생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4.5.)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12.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2020.7.20. 지정)
- 명 칭 :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
- 소유자(관리자) : 국유(전남대학교도서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도서관
- 수 량 : 5권 1책
- 규 격 : 30.9×17.4cm(半郭 20.4×12.9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초기



<도은선생집>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조사 대상의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조선 태종의 명령으로 1406년경 조성한 목판을 후대 찍은 인출본으로, 서문·발문의 일부 내용이 마모·훼손되어 있고, 권4 제23장이 탈락되어 있는 등 자료적인 완전성에서 제한적인 상태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인출·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동일 판본은 현재까지 3건 정도로 확인되는 등 자료적인 희소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보물로 지정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동일 판본보다 자료적으로 비교·우위적인 완전성과 선본(善本)의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판본에 편입된 내용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태종실록』 등의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동시에, 여말 선초의 정치적인 변동과정에서 역사현실과 대외관계 등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며, 도은 이숭인의 문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해당 기록 가운데 관찬 사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고려 말기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의 이

운 시기와 인출 불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겨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조사 대상의 전남대학교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 대상의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동일 판본이 현재까지 3건 정도로 확인되는 등 자료적인 희소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보물로 지정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과 함께 비지정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동일 판본보다 자료적으로 비교·우위적인 완전성과 선본의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동일 시기 즈음 재미자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도은선생집』 권1~2 2책의 영본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전남대학교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현재까지 자료적으로 비교·우위적인 완전성과 선본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도은선생집』은 시집 3권, 문집 2권 등 5권으로서 금속활자본 초간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나 그대로 번각하지 않고 세종 때 간행된 11행 19자 형식의 목판본이다.

조사본은 기지정된 동일 판본과 비교하여 서문 및 발문 등 내용적으로 완전하다. 일부 결락장과 훼손된 부분이 확인되나 학술적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하여 연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 『도은선생집』은 고려 말 문학과 도학을 겸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친 문인 이송인의 시집이다. 그의 문집에는 그의 생애·사상·문학이 담겨 있으며, 여말의 사정도 반영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권5에는 명나라에 보낸 표전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고려의 외교 성과를 파악할 중요한 사료라는 점이다.

조선조 최초로 왕명으로 간행한 문집이란 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본서는 금속활자 초간본을 복각한 판본은 아니다. 계명대학교 보물본과 동일 판목으로 선초에 전후해서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각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조선시대에

는 중앙에서 활자로 간행하고, 그 인본을 지방감영에 보내 목판으로 번각 또는 복각하게 하였는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중간본인 목판본이 2006년 4월 28일 보물 제1465호로 지정된 후, 태종 6년(1406) 고려 관주활자에 보자를 첨가해 간행한 금속활자본이 초간본으로서 2019년 6월 26일 보물 제2027호로 지정되었다.

본서에는 선초의 보물본에서도 볼 수 없는 주탁의 서문과 고손지의 발문이 더 수록되어 있다. 이로서 이송인이 평소에 구해둔 서·발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선초본으로는 가장 완벽하다고 하겠다. 간혹 서미 혹은 본문 행간에 한 두 글자 정도의 책지를 오려내고 가필한 부분도 있으나, 선초의 전래본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형태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해서 자손만대에 전승시킬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조사 대상의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 5권 1책은 고려 공민왕 때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후, 공양왕 때까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등을 지낸 관료지식인 도은(陶隱) 이송인(李崇仁)이 지은 시문집으로, 조선 태종의 명령으로 1406년(태종 6)경 조성된 목판을 후대에 찍은 시집(詩集) 3권 및 문집(文集) 2권의 인출본이다.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재직하던 ○○(○○) 교수가 1964년 전남대학교도서관에 기증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국립전남대학교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앞표지의 제침이 후대 수리되어 있으며, 앞뒤 표지가 마모되어 있다. 전체 5권 가운데 권4 제23장의 1장이 탈락되어 있으며, 시집의 서문 가운데 제1~3장으로 편입된 예장(豫章) 주탁(周倬) 및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서문 일부 글자가 마모·훼손되어 있다. 아울러 권5 제13~17장 및 권5 다음의 발문 가운데 제1~2장에 편입된 목은(牧隱) 이색(李穡)·오흥(吳興) 장부(張溥)·가흥(嘉興) 고손지(高巽志) 발문의 아래쪽에는 탈락된 본문 글자의 일부가 새롭게

수리·목서·보완되어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습기·얼룩 흔적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인출·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1406년(태종 6)경 추정], 후대 인출본)

5권 1책: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 20.4(세로)×12.9(가로)cm/ 무계(無界)/ 반곽 11행 19자/ 무어미(無魚尾)·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혼재/ 백구(白口)/ 30.9(세로)×17.4(가로)cm/ 전체 130장(시집 서문 5장+권1 15장+권2 35장+권3 30장+권4 25장+권5 17장+발문 3장: 권4 제23장 1장이 탈락)

제 첨: 陶隱先生詩集(후대 수리)

서문제목: 陶隱先生詩集序

권 수 제: 陶隱先生詩集(권1)/ 陶隱先生文集(권4)

편집정보: 奉正大夫直藝文館藝文應 敎知製 敎臣卞 季良奉 敎編次(권1 제1장)

관 심 제: 陶集序(서문)/ 陶詩(권1)/ 陶文(권4)/ 陶隱[集]跋(발문)

권 미 제: 陶隱先生詩集(권1)/ 陶隱先生文集(권4)

구성체계: 시집 서문(豫章 周倬의 서문-三峯 鄭道傳의 서문-權近의 서문)-권수제
-편집정보-시제목-시내용-권미제-발문(牧隱 李穡의 발문-吳興 張溥의
발문-嘉興 高巽志의 발문)

서 문: 陶隱先生詩集序

.....

洪武乙丑(1385년: 우왕 11)秋九月僕奉

命使高麗

.....

是月判二十又九日 賜同進士豫

章周倬序(서문 제1~2장)

日月星辰天之文也山川草木地之文也

.....

壬寅科進士

中正大夫典校令知製 敎三峯鄭道傳序(서문 제2~3장)

文章隨世道升降

.....

星山

陶隱李先生生於高麗之季天資英邁學問

精博本之以濂洛性理之說經史子集百氏

之書靡不貫穿所造既深所見益高卓然立乎正大之域至於浮屠老莊之言亦莫不研究其是否敷爲文辭高古雅潔卓偉精緻以至古律併儷皆臻其妙森然有法度韓山牧隱李文靖公每加歎賞曰此子文章求之中國世不多得自有海東文士以來鮮有其比者也嘗再奉使如京師中原士大夫觀其著述接其辭氣莫不歎服有若豫章周公倬吳興張公溥嘉興高公巽志皆有序跋以稱其美是豈唯見重於一國能鳴於一時而已者哉真所謂掩前光而獨步者矣

……

先生嘗典成均之試今我

主上殿下之在潛邸登其科目

嗣位之後每臨經筵悼念甘盤之舊追加封贈

……又

命印其遺藁期於不朽其所以尊禮師儒崇重

文獻而褒獎節義者至矣斯一舉而數善并

焉宜我

殿下拳拳於此也臣近承

命不敢以辭姑書此以爲序永樂四年(1406년: 태종 6)十月下

澣起復推忠翊戴佐命功臣崇政大夫吉昌

君集賢殿大提學知經筵事兼判內資寺事

臣權近奉 教序(시집 서문 제4~5장)

※ 精博의 博자는 원문이 博자의 형태이나 뜻으로 博자로 표기

발 문:

丁巳(1377년: 우왕 3)仲冬晦前三日晨興盥櫛焚香危坐讀陶隱

詩數篇

……

予是以喜[之甚題其卷後]

而歸之韓山牧隱李穡跋(발문 제1장)

古之君子和順積中而發爲文章[形於詠歌]

……

余奉使至高麗國其[提學李公子安]

示余陶隱齋唵藁一帙愛其吐辭[精確於渾成之]

中命意深遠於雅淡之際

.....

子安(이승인)其勉

之洪武十八年(1385년: 우왕 11)冬十月壬寅前文華殿大學士吳

興張溥跋(발문 제1장)

歲之夏余友周監簿雲章出使三韓其還也

.....

後三年牧隱陶隱復[以朝正東還過]

余旅次携所爲文若干篇蘄識其[後余讀之浹日]

益信三韓之多士而雲章之言非[過情之譽也]

.....

洪武二十二年歲在己巳(1389년: 창왕 2)春正月既望前禮部侍

郎嘉興高巽志士敏跋(발문 제2~3장)

탈락내용

[或有之矣自其息心者言之方寸之間淡然空寂

不物於物之山林之朝市何嘗不息也

.....

賀姜代言詩序

.....

國家置代言視

宰相雖若有閒然其命官之意豈不以所係之重](권4 제23장 전체 22행)

특이사항: 시집의 서문 내용에는 개행·대두(擡頭)·격자(隔字·空格)의 형태도 발견. 시집의 서문 가운데 주탁·정도전의 서문은 제1~3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권근의 서문은 별도로 제4~5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시집의 서문과 권1의 장차는 별도로 분리·구분. 편집정보는 권1의 권수제 다음의 제2행에만 표기. 본문 내용 가운데 첩자(疊字)에는 ‘}’ 모양의 중복 표시가 된 상태. 권3 제11~12·21~24·29~30장(제30장의 아래 어미는 백어미 형태)과 권4 제1~2·5~6·11~12·21~24장(제11~12장 어미는 특이한 형태)의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 판심 부분의 사(四)·오(五)·육(六)·칠(七)·팔(九) 등과 같은 글자는 특이한 모양의 이체자로 표기. 발문 제3장의 공란 부분에는 유계(有界). 권4 제23장의 1장이 탈락된 상태

○ 내용 및 특징

『도은선생집』은 성산(星山) 이씨 성산군(星山君) 이원구(李元具)의 아들로, 공민왕 11년(1362) 10월 지공거 홍언박(洪彦博)과 동지공거 류숙(柳淑)이 주관한 과거시험에 합격한 이후, 숙옹부승(肅雍府丞)을 거쳐 공양왕 때까지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지내다가 조선 태조 1년(1392)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세력으로 유배되어 남평(南平: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에서 죽은 관료지식인 도은 이숭인이 지은 시문집이다. 조선시대 이래 태종의 명령으로 1406년(태종 6)경 시집(詩集) 3권 및 문집(文集) 2권으로 조성된 목판을 비롯하여 목판 및 금속·목활자로 최소 7차례 이상이나 간행·유통되었으며, 조선 전기 간행된 판본도 현재까지 4종류가 확인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태종의 명령으로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이 편집하여 1406년경 조성된 목판을 후대 찍은 인출본으로, 탈락된 권4 제23장의 1장을 제외한 전체 130장이 표지 안에 오침안정의 형태로 제책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판본은 광곽이 사주단변이며, 본문과 본문의 개별 행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는 무계이다. 반곽의 행자수는 11행 19자이다. 판심은 무어미(無魚尾)·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으며, 백구(白口)의 형태이다. 상하내향흑어미의 형태는 권3 제11~12·21~24·29~30장 및 권4 제1~2·5~6·11~12·21~24장 등에서 확인되며, 권4 제30장의 아래 어미는 백어미의 형태이다. 판심에는 판심제와 함께 권차·장차 등이 작은 글자로 양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앞뒤의 표지 및 내지 안에 시집 서문(豫章 周倬의 서문-三峯 鄭道傳의 서문-權近의 서문)-권수제-편집정보-시제목-시내용-권미제-발문(牧隱 李穡의 발문-吳興 張溥의 발문-嘉興 高巽志의 발문)의 순서로 구성·배열되어 있으며, 서문·발문 가운데 권근의 서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은이 살아 있을 때 교류한 고려·명나라의 지식인들에게 직접 받은 글이다. 앞표지의 왼쪽 상단에는 후대 한지에 陶隱先生詩集이라 묵서된 제침이 붙어 있다.

서문 제1장 제1행에는 陶隱先生詩集序라는 서문 제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명나라 사신·관료 예장(豫章) 주탁(周倬)의 서문을 이어 우리나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및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서문이 배열되어 있다. 권수제는 시집이 陶隱先生詩集이며, 문집이 陶隱先生文集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권수제의 아래에는 卷之一처럼 권·지·권차가 연결되어 있다. 제1권의 권수제 다음 행에는 ‘봉정대부·직예문관·예문응교·지제교로 재임하고 있는 신 변계량이 국왕의 명령으로 『도은선생집』을 편차하였습니다[奉正大夫直藝文館藝文應 教知製 教臣卞 季良奉 教編次]’라는 편집정보가 표기되어 있으며, 교(教)자 부분이 격자(隔字)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 서문의 판심제는 陶集序이며, 그 아래에는 一과 같이 장차가 연결되어 있다. 시집의 판심제는 陶詩로 문집의 판심제 陶文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며, 판심제의 아래에는 一 一처럼 권차·장차가 이어져 있다. 발문의 판심제는 陶隱[集]跋이며, 그 아래에는 一 등의 장차가 연결되어 있다. 서문과 권1~5 및 발문은 장차가 서로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 권미제는 陶隱先生詩集·陶隱先生文集으로 권수제와 동일하며, 그 아래에는 卷之一과 같이 권·지·권차가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서 권3의 권미제는 장차 다음에 끝[終]이 표기되어 있으며, 권5의 경우는 권미제의 다음에 五卷終처럼 권차·권·끝의 순서로 다른 배열 형태를 보인다. 서문·발문의 내용 가운데는 대두(擡頭)·개행·격자(隔字·空格) 등의 사례가 보이며, 본문 내용 가운데 동일 글자의 첩자(疊字)에는 대개 ‘3’의 모양으로 중복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에도 격자의 형태가 보이고 있으며, 권3 제25장 「제간원시권(題諫院詩卷)」의 시 내용 등 일부에서는 요순성(堯舜聖)의 내용 가운데 고려 제3대 국왕 정종(定宗)의 이름 글자 요(堯)자를 같은 의미의 다른 글자 고(高)자로 피휘대자(避諱代字)하여 고순성(高舜聖)으로 표기된 사례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주탁(周倬)의 서문과 장부(張溥)·고손지(高巽志)의 발문 가운데 표기된 명나라의 연호 홍무(洪武)에는 고려 제2대 국왕 혜종의 이름 글자 무(武)자가 피휘결획 등의 피휘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 판본에는 간행정보가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목판의 조성시기·공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면서 서문 제5장의 ‘태종 6년(1406) 음력 10월 하순……신 권근이 국왕의 명령으로 『도은선생집』의 서문을 지었습니다[永樂四年十月下澣]’라는 양촌 권근의 서문 내용에서 1406년 음력 10월 하순경에 『도은선생집』의 목판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의 『도은선생집』 서문·발문 및 권1~5 가운데 권1의 앞부분에는 명나라의 관료로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예장(豫章) 주탁(周倬)이 우왕 11년(1385) 지은 서문과 함께 고려~조선시대 문신관료로 활동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및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서문이 편입되어 있으며, 권5의 다음에는 우왕 3년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발문과 함께 명나라 출신의 관료지식인 오흥(吳興) 장부(張溥) 및 가흥(嘉興) 고손지(高巽志)가 우왕 11년 및 창왕 2년(1389) 정월에 각각 지은 발문이 배열되어 있다. 권1~5에는 우왕 원년(1375) 「애추석사(哀秋夕辭)」 등 사(辭) 1편과 「감흥(感興)」 등 336편(권1 30편+권2 154편+권3 152편: 시 편수는 370여 수)의 시제(詩題) 및 기(記) 7편·지(誌) 1편·서(序) 12편·전(傳) 2편·제후(題後) 3편·의(議) 1편·행장(行狀) 1편·찬(讚) 1편·자설(字說) 1편·전(箋) 5편·표(表) 17편 등 문(文) 전체 51편 가운데 「송식암유방서(送息菴游方序)」의 뒷부분 내용과 「하강대언시서(賀姜代言詩序)」의 앞부분 내용으로 구성된 권4 제23장의 1장 내용만 탈락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는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태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있으므로,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여말 선초 정치

적인 변동과정에서 역사적인 현실과 대외관계 등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며, 도은 이숭인의 문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이기도 하다. 특히 해당 판본에는 관찬 사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려 말기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의 이운 시기 및 인출 불사 등을 밝힐 수 있는 원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지정사례

조사 대상의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조선 태종의 명령으로 1406년경 조성한 목판을 후대 찍은 오침안정의 선장본으로 만든 인출본이다. 전체 5권 131장 가운데 권4 제23장의 「송식암유방서(送息菴游方序)」의 뒷부분 내용과 「하강대언시서(賀姜代言詩序)」의 앞부분 내용이 탈락되어 있으며, 본문의 일부 내용이 마모·훼손·탈락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사례는 1건이 확인되고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도은선생집』 5권 1책이 2006년 4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해 내지 이듬해 금속활자 계미자(癸未字)로 찍은 개인 소장 『도은선생시집』 권1~2 2책의 영본(零本)도 2019년 6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성균관대학교의 존경각에는 비지정된 『도은선생집』 5권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도은선생집』은 전체 5권 1책 131장 가운데 예장(豫章) 주탁(周倬)의 서문 전체 및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서문 앞 부분을 합친 제1~2장과 함께 권2 제21장의 「기정림장로(寄定林長老)」 첫 내용부터 「천계사(天界寺)」 앞부분 내용까지 탈락되어 있으며, 권2 제31장 「유야산(游瑯山)」의 뒷부분 내용과 「추회(秋迴)」의 시 제목·내용 등이 마모·훼손·탈락되어 있다. 장부(張溥)의 발문 뒷면 전체와 고손지(高巽志)의 발문도 2장도 빠져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동일 판본도 서문 제1~4장과 발문 3장 전체가 탈락되어 있으며, 본문 가운데도 후대 필사·보완된 장이 보인다.

이에 비해 조사 대상의 전남대학교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서문·발문의 일부 내용이 마모·훼손되어 있으며, 권4 제23장이 탈락되어 있으므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및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동일 판본보다 자료적으로 비교·우위적인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 대상의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현재 동일 판본이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및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료적인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임신, 이승인 즐기.
- 장인진, 「『도은선생집』의 版本과 文獻的 特性」, 『한국학논집』 5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기 타

조사 대상의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 5권 1책은 전남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재직한 ○○(○○) 교수가 1964년 전남대학교도서관에 기증한 이후, 현재 까지 전남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현 상

조사본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은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에 재직한 ○○(○○) 교수가 1964년 전남대학교도서관에 기증한 이후, 현재까지 국립전남대학교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앞표지의 제침이 후대 수리되어 있으며, 앞뒤 표지가 마모되어 있다. 전체 5권 가운데 권4의 제23장이 탈락되어 있고, 일부 글자가 마모·훼손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습기·얼룩 흔적이 보이고 있어 향후 안정을 위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서지사항>

陶隱先生集 卷1~5 / 李崇仁(1349~1392) 撰; 卞季良(朝鮮) 奉教編.

木板本, [세종 연간 추정]

5卷 1冊: 四周單邊 半郭 20.4×12.9cm, 無界, 11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30.9×17.4cm.

卷頭題: 陶隱先生詩集(권1~권3), 陶隱先生文集(권4~권5)

卷尾題: 陶隱先生詩集(권1~권3), 陶隱先生文集(권4~권5)

版心題: 陶詩(권1~권3), 陶文(권4~권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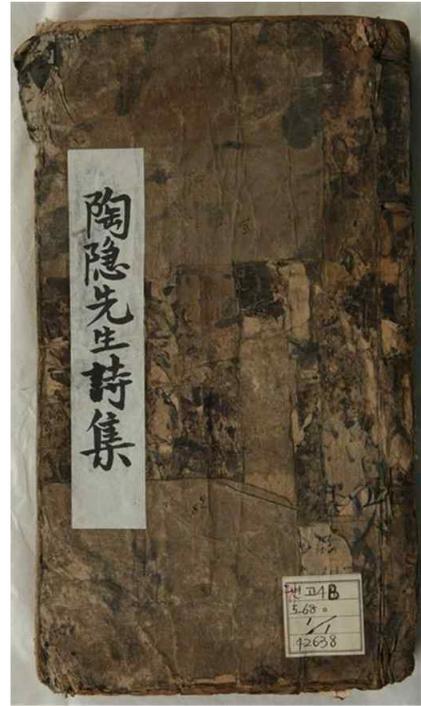
周倬序: 洪武乙丑(1385, 우왕11) 秋九月

權近序: 永樂四年(1406, 태종6) 十月下澣

李穡跋: 丁巳(1377, 우왕3) 仲冬

張溥跋: 洪武十八年(1385, 우왕11) 冬十月壬寅

高巽志跋: 洪武二十二年歲在己巳(1389, 창왕2)春正月既望



○ 내용 및 특징

『도은선생집』은 고려 말기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시문집이다. 『도은선생시집』과 『도은선생문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통 『도은집』 또는 『도은선생집』이라고 한다.

이숭인은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본관은 성주,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이숭인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숙옹부승(肅雍府丞)이 되고, 이어서 장흥고사 겸 진덕박사(長興庫使 兼 進德博士)가 되었다. 우왕 때 전리총랑(典理摠郎)이 되어 김구용(金九容)·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북원(北元)의 사신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다가 귀양을 갔다. 이후 귀양에서 돌아와 성균사성이 되고,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밀직제학이 되어 정당문학(政堂文學) 정몽주(鄭夢周)와 더불어 실록을 편수하고, 동지사사(同知司事)로 전임하였다. 창왕 때 박천상(朴天祥)·하륜(河崙) 등과 더불어 영흥군(永興君) 왕환(王環)의 진위를 변론하다 무고로 연좌되었고, 헌사(憲司)가 극형에 처하기를 청하자 피해 다니다가 시중 이성계(李成桂)의 도움으로 다시 서연(書筵)에 시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관 구성우(具成佑)·오사충(吳思忠)·남재(南在) 등이 상소를 올려 탄핵하여 경산부로 유배되었고, 당시 첨서밀직사사 권근(權近)이 이숭인의 무죄를 상소하였으나 결국 우봉현(牛峯縣)으로 이배되었다. 공양왕 때에는 간관이 이숭인을 다시 논죄하여 다른 군으로 이배되었고, 후에 청주옥(淸州獄)에 수감되었으나 수재로 인하여 사면되기도

하였다. 그 후 소환되어 지밀직사사·동지춘추관사가 되었으나, 정몽주의 당이라 하여 삭직당하고 유배되었고, 이후 정도전에 의해 유배지에서 장살(杖殺)되었다.

이승인의 저서로는 『도은집(陶隱集)』이 있으며 서문에 의하면 생존 시에 『관광집(觀光集)』·『봉사록(奉使錄)』·『도은재음고(陶隱齋吟藁)』 등을 지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이승인의 문집은 그의 사후 태종의 명에 따라 변계량(卞季良)이 편차하고 권근(權近)이 서문을 지어 시집 3권과 문집 2권을 합하여 5권으로 간행하였다. 이 판본은 계미자본(癸未字本)이다. 이후 이 문집은 세종 연간에 다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9행 15자본과 11행 19자본 등 두 종이 있다. 전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후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보물 지정) 등에 전해진다.

조사본 『도은선생집』은 세종 때 간행된 11행 19자 형식의 목판본이다. 모두 시집 3권, 문집 2권 등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3의 시집은 시체별(詩體別)로 배열하였는데, 권1에는 사(辭) 1편, 고시(古詩) 30제, 권2에는 율시(律詩) 154제, 권3에는 절구(絕句) 151제가 수록되어 있다. 권4~5는 산문이다. 권4에는 기(記) 7편, 서(序) 12편, 지(誌) 1편 등 총 20편, 권5에는 전(傳) 2편, 제후(題後) 3편, 의(議) 1편, 행장 1편, 찬(讚) 1편, 자설(字說) 1편과 표(表) 17편, 전(箋) 5편 등 총 31편이 수록되어 있다.



<牧隱先生詩集 卷之三 卷末
牧隱先生文集 卷之四 卷首>

<權近 序 / 牧隱先生詩集 卷之一 卷首>

조사본의 반곽 크기는 세로 20.4cm, 가로 12.9cm로서 변란은 사주단변의 형식을 지닌다. 계선은 없으며 행자수는 11행 19자의 구성이다. 어미는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와 무어미 혼용이 나타나며 판심제(版心題)는 陶詩(권1~권3), 陶文(권

4~권5)이다.

본문은 예장(豫章) 주탁(周倬)의 서문을 시작으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의 서문을 배치한 이후 시집과 문집을 두고 마지막에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오흥(吳興) 장부(張溥) 그리고 가흥(嘉興) 고손지(高巽志)의 발문을 차례대로 배치하였다. 서문·발문 가운데 권근의 서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은이 살아 있을 때 교류한 명나라의 지식인들에게 직접 받은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서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周倬 序文

삼백편 이후로 시(詩)의 체(體)가 변해서 소(騷)가 되었다. 그 뒤 이릉(李陵)과 소무(蘇武) 등의 시대에 와서 오언(五言)의 시편이 등장하였는데, 그 음향(音響)과 절주(節奏)가 또 부조(浮藻)를 일삼으며 성운(聲韻)이나 배열하는 자들이 끼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성당(盛唐)시대에 두보와 이백이 출현하여 성률(聲律)의 시를 창도하였는데, 특히 오언과 칠언의 고시에 능하였다. 그들은 제가의 시 작법을 완비한 위에 아송(雅頌)의 유풍(遺風)을 체득하여, 그야말로 소인(騷人)과 운사(韻士)의 종사(宗師)가 되었다. 아, 그들은 참으로 시의 화신이라고 이를 만하였다.

고려의 전 진사 이군 자안(李君子安)은 명경과(明經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여 재보(宰輔)의 지위에 올랐다. 그는 부귀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고서 언제나 공무를 마친 여가에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채 성정을 함양하며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시편으로 발표하였는데, 오언과 칠언의 율시 및 고시, 혹은 악부와 절구의 형식을 취한 것이 쌓여서 약간 수를 이루었다.

홍무 을축년(1385, 우왕11) 9월에 내가 명을 받들고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자안을 접견할 수 있었는데, 서로 해후할 즈음에 손을 잡고 마음을 논하면서 마치 평생토록 사귄 것처럼 하였으며, 단지 서로를 늦게 알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동안 지은 시를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읽어보았더니 가슴속이 시원하게 트이는 것 같았다. 그 문사(文辭)는 모두가 화려하면서도 들뜨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았으며, 화평한 가운데서 기려(奇麗)함을 발하고 엄정함 이외에 우유(優柔)함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스승을 높이고 친우를 친애하는 뜻이 언외에 흘러넘치고 있었다.

아, 삼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자안의 학문과 성정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사문(斯文)을 떨쳐 일으키고 방본(邦本)을 붙들어서 세우는 일을 자안 말고 또 누가 해낼 수 있겠는가. 전(傳)에 이르기를, “높은 데에 올라가면 시를 읊을 줄 알아야 대부의 자격이 있다[登高能賦可以爲大夫].” 하였는데, 나

는 이를 자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그렇지만 자안이 어찌 꼭 이 일시적인 작품만을 가지고 당대에 이름을 드러내려고야 하겠는가. 자안은 부디 삼백편에 나오는 부(賦)·비(比)·흥(興)의 성정을 서로 조화시키고, 한(漢)·위(魏)·진(晉)·송(宋)의 여러 작자들의 경지를 한데 모아야 할 것이요, 여기에 다시 이백과 두보의 법도를 충분히 익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자안이 지은 시가 위로는 황명(皇明)의 성덕을 찬양하기에 족하고, 아래로는 고려의 성대한 전장(典章)과 문물(文物)을 읊기에 족하여, 백세 뒤에까지 무궁히 전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안에게 나는 이렇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는 바이다.

이달 29일에 동진사를 내려 받은 예장(豫章)의 주탁(周倬)은 서문을 쓰다.

나. 鄭道傳 序文

일월성신은 하늘에 보이는 이른바 천문 현상이요, 산천초목은 땅에 보이는 이른바 지문(地文) 현상이요, 시서예악(詩書禮樂)은 인간 세상에 보이는 이른바 인문(人文) 현상이다. 그러나 천문 현상은 기(氣)에 의한 것이요, 지문 현상은 형(形)에 의한 것인 반면에, 인문 현상은 도(道)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도를 싣기 위한 도구이다[文者載道之器].”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부연해서 설명하면, 인문 현상이 그 도를 제대로 얻게 되면 시서예악의 가르침이 천하에 환히 드러나게 되고, 하늘도 이에 감응하여 일월성신의 운행이 순조롭게 되는 가운데 만물이 모두 온당하게 다스려지게 된다는 말이니, 이쯤 되면 문(文)의 성대함이 극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선비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나서 그 빼어난 기운을 한데 모아 표현해 내면 그것이 문장이 된다. 혹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천자의 뜰에서 이름을 드날리기도 하였고, 혹자는 제후의 나라에서 벼슬을 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윤길보(尹吉甫)가 주나라에서 목여(穆如)의 아(雅)를 읊은 것이나, 사극(史克)이 노나라에서 무사(無邪)의 송(頌)을 노래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춘추 시대에 들어와서는 열국의 대부들이 조빙하러 왕래하면서 시문을 잘 구사하여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자신의 뜻을 설명하였으니, 진(晉)나라의 숙향(叔向)이나 정(鄭)나라의 자산(子産) 같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한(漢)나라의 전성기에 이르러서는 동중서(董仲舒)와 가의(賈誼)의 무리가 출현하여 대책문(對策文)을 짓고 상소문을 올려 천인(天人)의 관계를 밝히고 치안의 요체를 논하였으며, 매승(枚乘)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제후들 사이에서 노닐며 모두 영명을 떨치고 문재를 발휘하면서 성정을 읊고 노래하여 문덕을 아름답게 드높였다.

우리 동방이 비록 해외에 떨어져 있긴 해도 대대로 중화의 문명을 흠모하여

문학에 종사하는 유자(儒者)들이 전후로 줄을 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 신라에서는 최치원, 그리고 본국에 들어와서는 시중 김부식과 학사 이규보가 특히 뛰어났다. 그러다가 근세에 이르러서는 계림의 익재 이공(李公)과 같은 대유(大儒)가 나와서 처음으로 고문(古文)의 학설을 제창하였는데, 한산(韓山)의 가정(稼亭) 이공과 경산(京山)의 초은(樵隱) 이공이 이에 따르며 화답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은(牧隱) 이 선생은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이어받고 북으로 중원에 유학하여 바른 사우(師友)의 연원을 얻고서 성명과 도덕의 설을 궁구하였으며, 동방으로 돌아와서는 제생(諸生)을 교육하였다. 이 선생의 가르침을 접하고서 흥기한 자로는 오천(烏川)의 정공 달가(鄭公達可, 鄭夢周)와 경산(京山)의 이공 자안(李公子安, 李崇仁)과 진양(晉陽)의 하공 대림(河公大臨, 河崙)과 반양(潘陽)의 박공 성부(朴公誠夫, 朴尙衷)와 영가(永嘉)의 김공 경지(金公敬之, 金九容)와 밀양(密陽)의 박공 자허(朴公子虛, 朴宜中)와 영가(永嘉)의 권공 가원(權公可遠, 權近)과 무송(茂松)의 윤공 소종(尹公紹宗) 등이 있고, 또 나처럼 불초한 자도 몇 분 군자의 대열에 끼이는 영광을 얻었다.

그중에서도 자안(子安)은 정심(精深)하고 명쾌한 면에서 제자(諸子)를 능가하였다. 그는 선생의 설을 들으면 조용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통하여 다시 귀찮게 질문하는 법이 없었고, 혼자서 해득하는 것 역시 사람의 의표를 멀리 뛰어넘는 점이 있었으며, 각종 서적을 널리 독파하면서도 한번 보기만 하면 곧장 암기하였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시와 문 약간 편을 보더라도 『시경(詩經)』의 비흥(比興)과 『서경(書經)』의 전모(典謨)에 뿌리를 두었으며, 화순(和順)함이 안에 쌓여서 영화(榮華)로 밖에 발한 그것 역시 모두가 예(禮)와 악(樂)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니, 도의 경지에 깊이 들어간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황명(皇明)이 천명을 받아 천하에 군림하면서 문덕을 닦고 무력을 자제하는 가운데 문자와 수레가 모두 같게 되었다. 그러니 예악을 제정하고 인문을 관찰하여 교화를 펼치면서 천지를 경륜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당하여 왕국의 사대(事大)하는 문자는 대부분 자안 씨에게서 나왔는데, 천자도 이를 보고는 가상하게 여기면서 “표문(表文)의 말이 참되고 간절하다.”라고 평하기까지 하였다.

이번에 자안 씨가 왕의 명을 받들고서 세시(歲時)의 인사를 닦기 위하여 요하(遼河)와 심하(瀋河)를 건너고 제(齊)와 노(魯)의 지역을 지나고 거침없이 흐르는 황하를 건너서 천자의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과정에서 보고 느끼며 얻는 것이 과연 어떻다고 하겠는가. 아, 계찰(季札)이 노(魯)나라에 가서 주(周)나라의 음악을 살폈는데, 그러고서도 주나라의 덕의 성대함을 알 수 있었

다. 그런데 더구나 자안 씨의 이번 여행은 중국에서 예약을 제정하는 성대한 시기에 있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장차 보고 느낀 것을 발표하여 그 공덕을 기술한다면 바로 명나라의 아송(雅頌)이 될 것이니, 옛날 윤길보(尹吉甫)의 뒤를 따른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자안 씨가 돌아와서 그 글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 문집의 제목을 ‘관광집(觀光集)’이라고 명명할 생각이다.

임인과(壬寅科) 진사 중정대부 전교령 지제교 삼봉 정도전은 서문을 쓰다.

다. 權近 序文

문장이 세도(世道)를 따라 오르내리는 현상은 대개 기운의 성쇠와 관계가 있는 만큼 이 둘 사이에는 상호 불가분의 요소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긴 하지만 왕왕 걸출한 인재가 나와서 세도를 따라 함께 휩쓸리지 않고 전인(前人)의 빛을 능가하며 독보(獨步)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옛날 초나라의 굴원(屈原)과 진나라의 도연명(陶淵明)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비록 국운이 쇠퇴하는 말년에 해당되었어도, 그들의 문장은 그럴수록 더욱 펼쳐 일어나 꽃을 피우면서 찬란하게 광채를 발하였고, 또 그들의 능름한 절의는 곧장 가을 하늘 빛과 높이를 겨룰 정도여서 만세토록 신자(臣子)들이 경복(敬服)하는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니, 인륜과 세교(世教)에 공헌한 바가 매우 컸다고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들의 문장만 높이 평가할 것이겠는가.

성산(星山)의 도은 이 선생은 고려 말년에 태어났다. 천품이 영특하고 고매한 위에 학문이 또 정밀하고 박식하였으며, 염락(濂洛)의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서 경사자집과 백가의 글에도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조예가 깊을뿐더러 식견이 더욱 높아 정대한 영역에 우뚝 섰으며, 불교와 노장의 학설에 대해서까지도 옳고 그름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펼쳐서 문사(文辭)를 지으면 고고(高古)하고 아결(雅潔)하고 탁위(卓偉)하고 정치(精緻)하였으며, 고율(古律)과 병려(併麗)까지도 모두 절묘한 경지를 보여주면서 법도가 정연하였다. 그래서 한산의 목은 이 문정공(李文靖公)이 언제나 경탄하며 이르기를,

“이 사람의 문장은 중국에서 찾아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많이 구할 수 없을 것이다. 해동에 문사(文士)가 있는 이래로 그와 짝할 만한 사람은 드물다.” 하였다.

그는 과거에 두 차례나 사명(使命)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갔는데, 중원의 사대부들이 그의 저술을 보고 그의 사기(辭氣)를 접하고 나면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예장(豫章)의 주공 탁(周公倬)과 오흥(吳興)의 장공 부(張公溥)와 가흥(嘉興)의 고공 손지(高公巽志) 같은 인사가 모두 서문과 발문을 지어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였으니, 이 어찌 한 나라에서만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한 시대에만 떨치는 것으로 그칠 뿐이겠는가. 참으로 전인(前人)의 빛을 능가하며 독보(獨步)한다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고려가 나라를 향유한 500년 동안 백성의 부담을 줄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육성한 결과, 인재가 많고 문헌이 풍성한 것이 거의 중화에 비길 만하였다. 그렇지만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들 중에 목은의 성(盛)이나 도은의 아(雅)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다. 국운이 쇠하는 말년에 태어났는데도 그 문장은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떨치고 일어났으니, 이는 필시 수백 년 동안 안정시키고 육성한 은혜가 마침내 여기에 한데 모여 엉겨서 마지막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조선의 왕업이 순조롭게 진척될 적에 선생은 초야에 물러나 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 태상왕(太上王 태조(太祖))이 천명을 받은 뒤에 선생의 재능을 사랑하고 아껴서 장차 불러다 쓰려고 하였는데 선생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 애석한 일이다.

선생이 일찍이 성균시(成均試)의 시관(試官)을 맡았을 적에, 지금의 우리 주상전하가 잠저에 있으면서 그 과거에 등제(登第)하였는데, 왕위를 잇고 나서도 매번 경연에 임할 때마다 감반(甘盤)의 옛정을 생각하여 슬퍼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에게 추가하여 봉증(封贈)을 하는 한편, 그 두 아들에게도 관작을 내려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선생의 유고를 간행하도록 명하여 불후히 전해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유(師儒)를 예우하고 문헌을 존중하고 절의를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하나의 거조(舉措)를 통해서 여러 훌륭한 일이 함께 행해지게 되었으니, 우리 전하가 이 일을 간절히 생각하며 행하려고 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내가 명을 받고 감히 사양할 수가 없기에 우선 이렇게 써서 서문으로 삼는 바이다.

영락(永樂) 4년(1406, 태종6) 10월 하순에, 기복(起復)한 추충익대좌명 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 승정대부 길창군(吉昌君)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사 겸 판내자시사(集賢殿大提學知經筵事兼判內資寺事) 신 권근은 하교를 받들어 서문을 짓다.



<鄭道傳 序文>



<周倬 序文>

한편 발문은 우왕 3년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지은 글과 함께 명나라 출신의 관료지식인 오흥(吳興) 장부(張溥) 및 가흥(嘉興) 고손지(高巽志)가 우왕 11년 및 창왕 2년(1389) 정월에 각각 지은 발문이 권말에 수록되었다.



<高巽志 跋文>



<李穡 跋文>

『도은선생집』은 태종 6년(1406) 왕명으로 간행한 초간본을 시작으로 세종 연간을 전후한 간행지 미상의 중간본, 15세기 중엽의 전라도 전주, 황해도 곡산에서 판각한 목판 3간본, 선조 22년(1589)경 진주목사 간이(簡易) 최립(崔嵬)이 목활자로 인출한 4간본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간본으로 추정되는 성주 안봉영당(安峯影堂) 간행의 목판본이 5간본, 철종 13년(1862) 간행의 목

판본이 6간본, 1923년 안봉영당(安峯影堂)에서 간행한 보활자본(補活字本)이 7간본에 해당한다.



<보물 중간본 목판본>

<보물 초간본 금속활자본(계미자본)>

조사본 『도은선생집』은 선초에 간행된 중간본으로 목판으로서는 가장 시기가 앞서는 자료이다. 더욱 목판본으로서 기지정된 판본과 비교하여 서문 및 발문을 온전히 전하고 있어 선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지정사례

- 보물 『陶隱先生集』(계명대/2006.4.28. 지정).
- 보물 『陶隱先生詩集』 권1~2(성암고서박물관/2019.6.26. 지정).

○ 참고문헌

- 고혜령, 「陶隱 李崇仁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민족문화논총』 50, 2012, pp.61~94.
- 張仁鎭, 「『陶隱先生集』의 版本과 文獻的 特性」, 『한국학논집』 51, 2013, pp.261~295.
- 張在天, 「李崇仁의 삶과 足跡에 대한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 62, 2012, pp.144~172.

□

○ 현 상

고려 말의 관료이며 학자인 陶隱 李崇仁의 문집 5권이다. 이송인은 생전에 詩稿를 정리하였으며, 李穡과 중국인 周倬·張溥·高巽志의 서문과 발문을 받아두기도 하였다. 조선 개국에 즈음하여 피살되었으나, 태종 6년(1406) 이조 판서를 추증하고 文忠이란 시호를 내린 후 유고를 간행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卞季良이 편차하고 權近이 서문을 지어 고려 관주의 금속활자에 선초의 보자를 넣어 간행한 판본이 초간본이다. 본 조사 대상본은 그 후에 간행한 중간본 완질이다. 본서는 선초에 인출한 목판본으로서, 계명대 수장의 보물본인 중간본과 동시 또는 전후해서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송인이 생전에 받아두었던 서·발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가장 완전한 판본이다.

<서지사항>

陶隱先生集, 卷1-5 / 李崇仁(高麗) 著; 卞季良(朝鮮) 編.

木版本. 重刊本. [世宗年間 前後] 30.8×17.cm.

5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2×12.8cm. 無界, 11行19字. 內向黑魚尾, 無魚尾(混在).

版心書名: 陶詩, 陶文.

序: 進士預章周倬序.

進士中正大夫典教令知製教三峯鄭道傳序.

永樂四(1406)年十月下澣…臣權近奉教序

跋: 丁巳(1377)仲冬…牧隱李穡跋.

洪武十八(1385)年冬…前文華殿大學士吳興張溥跋.

洪武二十二年歲在己巳(1389)春正月…前禮部侍郎嘉興高巽志士敏跋.

○ 내용 및 특징

고려 말의 학자이자 三隱의 한 사람인 李崇仁(1347~1392)의 시문집이다. 京山府(성주) 출신이다. 자는 子安, 호는 陶隱이다.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와 함께 고려의 三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문은 不萱齋 申賢과 이색의 성리학을 전수받아 유교의 학풍을 새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문사로서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원과 외교의 장에서는 문재로서 고려의 국익을 위해 기여했고, 그의 시는 후대에 극찬을 받았다. 고려 후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그의 도학적인 문학관은 卞季良과 權近에게 전승되었다.

공민왕 9년(1360) 國子監試에 등제하고, 이색의 문하에서 정몽주·정도전·권근 등과 교류하였다. 공민왕 11년(1362) 문과에 급제하고 肅雍府丞·長興庫使·禮儀散郎·

藝文應敎·門下舍人을 지낸 후, 우왕 즉위년(1375) 典理摠郎으로서 金九容·鄭道傳 등과 함께 北元의 사신을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다가 친명파라고 하여 京山府에 유배되었다. 우왕 3년(1377) 소환되어 成均司成·右司議大夫를 역임했으며, 이어서 밀직제학이 되어 政堂文學 鄭夢周와 더불어 실록을 편수하고, 同知司事로 전임되었다. 簽書密直司事가 되어서는 원나라 대도에 가서 신정을 축하하고 돌아와 예문 관제학이 되었다.

우왕 9년(1383) 명나라에서 고려가 자국의 사신과 공민왕을 죽인 일로 고려를 크게 힐난하자, 우왕 10년(1384) 왕명으로 명나라에 보내는 답서를 지어 바쳤다. 이를 본 명나라 태조가 명문이라고 감탄하였고, 공민왕에게 시호를 내리고 우왕의 왕위계승도 허락하였다. 이렇듯 어려운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을 잘 지었다. 우왕 11년(1385)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자신의 문집에 넣을 周倬의 서문과 張溥의 발문을 받아오기도 했다.

우왕 14년(1388) 정도전 등이 우왕을 강화로 내쫓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창왕을 세웠다. 창왕 원년(1388) 최영의 문객인 鄭承可의 참소로 이인임의 姻戚이라 하여 通州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다시 풀려 나왔고, 賀正使로 발탁되어 이색, 金士安과 함께 재차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때 예부시랑 高巽志의 발문을 받았다.

공양왕 1년(1389) 43세에 예문관 제학이 되었으나, 朴天祥·河崙 등과 함께 무고를 당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경산부로 유배되었다. 공양왕 2년(1390)에는 吳思忠의 무고로 尹彝와 李初가 명나라의 힘을 빌려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였다가 적발된 옥사에 연루되어 淸州獄에 수감되었으나, 수재로 인하여 사면되었다. 얼마 뒤 소환되어 지밀직사사·동지춘추관사가 되어 정몽주·이색과 함께 공민왕·우왕·창왕의 실록 수찬을 시작하였다. 공양왕 4년(1392) 정몽주가 피살되자 그의 일파로 몰려 순천에 유배되었다. 조선 개국에 이르러 정도전과 南閻이 보낸 孫興宗과 黃居正의 손에 유배지에서 피살되었다.

조선 개국 후 태종이 그의 죽음이 무고함을 밝히고, 태종 6년(1406) 이조 판서를 증직하고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태종은 시호를 내리면서 유고를 모아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이 문집을 간행하라고 명한 것은 도은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은 조선 국왕으로는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한 후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우왕 8년(1382) 16세로 진사시에 합격했는데, 이때 시험을 주관한 사람이 도은이었다. 17세가 되던 우왕 9년(1383)에는 문과에 급제했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시험을 주관한 사람을 座主라고 하고 합격자를 門生이라 하였고, 문생은 좌주를 스승으로 여겼다. 이런 인연으로 태종은 좌주였던 선생을 추증하고, 그의 문집을 간행하게 한 것이다. 변계량이 편차하고 권근이 서문을 지어, 시집 3권·문집 2권을 태종 6년(1404) 고려에서 전래된 관주 금속활자로 간행

하였다. 이 책이 초간본이다. 초간본은 활자본이어서 당시의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인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고 文辭가 典雅하여, 李穡이 “이 사람의 문장은 중국에서 구할지라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명나라 태조도 일찍이 이승인이 지은 表文을 보고 “표의 문사가 참으로 절실하다”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의 사대부들도 그 저술을 보고 모두 탄복했다고 한다.

산문은 표문이 많은데, 이는 그가 대외관계에 필요한 문장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도은은 생시에 문집의 간행을 염두에 두고, 생전에 詩稿를 정리해 『奉使錄』·『陶隱齋吟藁』·『觀光集』으로 분류해놓기도 하였고, 문집에 수록하고자 李穡과 중국인 周倬·張溥·高巽志의 서와 발문을 받아두기도 하였다. 권근의 서문은 초간본 간행 시 집필한 것이지만, 다른 서발문은 저자가 생전에 마련해둔 문장이다. 후에 간행된 『도은집』 목판본에는 주탁, 정도전, 권근의 서문과 이색, 장부, 고손지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저서로는 『陶隱集』 5권이 전래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집』·『봉사록』·『도은재음고』는 전래되지 않는다.

『도은집』의 권1에는 辭 1편·오언과 칠언고시 30題로 모두 31제, 권2에는 오언·칠언율시로 154제, 권3에는 절구 153제로 시만 모두 338제이다. 권4·5는 記 7편·誌 1편·序 12편·傳 2편·題後 3편·議 1편·行狀 1편·讚 1편·說과 箋 각 1편·表 17편·牋 4편 등 모두 51편이 실려 있다.

『도은선생집』은 태종 6년(1406) 왕명으로 간행한 고려 관주활자본(선초 보자 포함)이 초간본이며, 세종 연간을 전후한 간행지 미상의 선초 중간 목판본, 15세기 중엽의 전라도 전주, 황해도 곡산에서 판각한 목판 3간본, 선조 22년(1589)경 진주 목사 簡易 崔崐이 목활자로 인출한 4간본이 알려지고 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간본으로 추정되는 성주 安峯影堂 간행의 목판본이 5간본, 철종 13년(1862) 간행의 목판본이 6간본, 1923년 安峯影堂에서 간행한 補活字本이 7간본이다.

조선 조정에서 서적을 간행함에 있어 우선 급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소량의 활자본을 인출하고, 그 활자본을 지방 감영에 보내 목판으로 복각 또는 번각하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본서는 활자본의 번각본은 아니다. 전래하는 『도은선생집』의 조선 전기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① 金屬活字本(高麗傳來官鑄活字 및 鮮初 補字). [太宗 6-7(1406-7)](舊 誠庵文庫)
左右雙邊. 半郭 19.7×12.2cm. 有界, 11行17-18字. 黑口,內向黑魚尾.
序: 權近(극히 일부)-誠庵本.

② 木板本. [朝鮮初](계명대)
四周單邊, 半郭 20.4×12.8cm. 無界, 11行19字. 白口,內向黑·無魚尾混用.

序: 權近.

跋: 李穡, 張溥, 鄭道傳(序).

③ 木板本. [朝鮮初] (전남대)

四周單邊. 半郭 20.4×12.9cm. 無界, 11行19字. 白口,內向黑·無魚尾混用.

序: 周倬, 鄭道傳, 權近.

跋: 李穡, 張溥, 高巽志.

④ 木板本. [朝鮮初](성균관대)

四周單邊. 半郭 20.0×13.0cm. 無界, 11行19字. 白口,內向黑·無魚尾混用.

序: 權近.

이 가운데 초간본인 조선 태종 6년 고려 전래의 관주활자로 간행한 활자본(보물 제2027호, 2019.6.26. 지정)과 계명대학교 수장의 중간본(보물 제1465호)의 서지적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및 <그림>과 같다.

<표1. 『陶隱集』의 鮮初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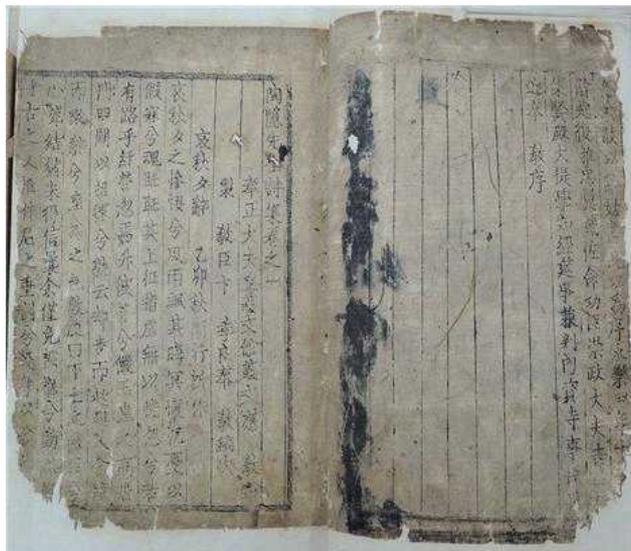
| | 보물 제2027호(舊 성암문고) | 보물 제1465호(계명대학교) | 전남대학교도서관본 |
|----|---------------------------------|-----------------------------------|-----------------------------------|
| 請求 | 舊 성암4-591 | 귀811.081 이송인ㄷ | 운암OC 4B1 도68ㅇ |
| 卷冊 | 2책. 권1~2 詩集 | 1책. 권1~3 詩集, 4~5 文集 | 1책. 권1~3 詩集, 4~5 文集 |
| 版種 | 금속활자본 (고려 전래 관주활자) | 목판본 | 목판본 |
| 刊年 | 태종 6년(1406) | 세종 연간 전후 | 세종 연간 전후 |
| 板式 | 좌우쌍변, 유계, 11행17~18자, 흑구, 내향흑어미. | 사주단변, 무계, 11행19자, 내향흑어미, 무어미(混在). | 사주단변, 무계, 11행19자, 내향흑어미, 무어미(混在). |
| 版心 | 陶詩 | 陶詩, 陶文 | 陶詩, 陶文 |
| 卷首 | 權近의 서문 앞부분 결락 | 權近의 서문 | 周倬의 서문 鄭道傳의 서문 權近의 서문 |
| 卷末 | | 李穡의 발문 張溥의 발문 누락 鄭道傳의 서문 | 李穡의 발문 張溥의 발문 高巽志의 발문 |

지정 신청된 전남대학교 수장본의 표지는 원래의 표지로 보이며, 표지서명만 근래에 제침에 새로 써서 붙인 것이다. 권1~3의 판심서명은 ‘陶詩’이며, 권4~5는 ‘陶文’이다. 계명대학교 수장본과 같은 판식을 보이고 있다. 판심에는 어미가 없으나, 권3의 장11~12, 21~24, 29~30과 권4의 장1~2, 5~6, 21~24에는 내향흑어미가 있다. 권4의 장11~12는 내향흑어미이다.

한편 계명대학교 소장본에는 없는 周倬의 서문과 高巽志의 발문이 더 수록되어 있다. 이송인이 평소에 구해둔 서·발문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선초본으로는 가장 완벽하다고 하겠다. 서발문에서 국왕에 대한 존경을 표함에 있어 필자에 따라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권근은 국왕을 지칭할 때는 雙擡를 하였고, 왕명을 수행한 내용에는 單擡을 하였다. 고손지는 改行하였고, 주탁과 정도전은 1글자의 空格을 두었다. 그러나 이색과 장부는 대두도 하지 않았고, 개행도 하지 않았다. 도은이 지은 본문에는 2자의 공격을 두어 경피를 표현하고 있다.

간혹 傳誦되던 시 가운데 제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詩題 부분을 공란으로 둔 곳도 있다. 권1 장13에 走筆奉寄遁翁과 渡遼曲 사이에 시제가 공란으로 있는데, 초간본에도 역시 공란이다. 계대본에는 不知何題라 필사되어 있다. 권3 장3에 次人韻辛亥秋 앞에 한 행의 공백이 있다. 초간본은 권3이 없어 확인할 수 없고, 계대본에는 次李太白詩韻이 필사되어 있다. 편차할 당시 시제를 고증하지 못해 후일을 위해 공란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書眉와 地脚에 일부 물에 의해 훼손된 부분이 있어 배접하고 목서로 보완되어 있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권4 장23은 낙장인 상태이다. 동일판본인 계명대학교본에서 확인하면 送息庵滿萬方序의 후반부와 賀姜代言詩序의 전반부이다. 권5 장6과 장7이 역순으로 제책되어 있다. 전남대본은 先大夫人行狀, 題千峯詩藁後, 鄉僧止庵寫余陋眞因作讚, 題金可行詩藁後의 순서로 편철되어 있지만, 계명대본은 先大夫人行狀, 鄉僧止庵寫余陋眞因作讚, 題金可行詩藁後, 題千峯詩藁後의 순서로 편철되어 있다. 한편 계대본에는 권2 장21이 낙장이며, 장32는 일부 찢겨 나갔다.



<도1. 초간본. 고려 전래 관주활자본>



<도2. 중간목판본. 계명대학교본>



<도3. 중간목판본. 전남대학교본>

○ 지정사례

- 보물 제1465호, 『陶隱先生集』 권1~5, 세종 연간, 木板本, 계명대학교, 2006.4.28. 지정.
- 보물 제2027호, 『陶隱先生詩集』 권1~2, 태종 6년(1406), 고려관주금속활자+선초보자본, 구 성암고서박물관, 2019.6.26. 지정.

○ 참고문헌

- 고희령, 「陶隱 李崇仁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 『민족문화논총』 50, 2012, pp.61~94.
- 張仁鎭, 「陶隱先生集의 版本과 文獻的 特性」, 『한국학논집』 51, 2013, pp.261~295.
- 張在天, 「李崇仁의 삶과 足跡에 대한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 62, 2012, pp.144~172.

○ 기 타

1964년 ○○ ○○ 교수가 전남대학교도서관에 기증한 서적임.

9.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覽圖)

가. 검토사항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으로부터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6.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9.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법장사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186.4×109.4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족자(改裝)
- 조성연대 : 1673년(조선 현종 14) 이후 번각·인출
- 제작자 : 김수홍(金壽弘)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법장사본은 목판본 지도가 중간되는 사례로서, 지리정보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판각 내용과 간인 상태 등을 비교해 볼 때 모본으로 사용된 지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도가 족자로 장황되어 있음에 따라 원본 상태가 남아 있지 않으며 간인 시기 추정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장사본은 지도의 학술적인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문화재 지정 수준에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지정 가치>

국가지정문화재보다는 시지정문화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근거기준>

① 판본 구분

- A-1 송실대 박물관 소장 목판본(이하 A-1)
- A-2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목판본(이하 A-2)
- B-1 법장사 소장 목판본(이하 B-1)
- B-2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채색필사본(이하 B-2)

② 판본 차이

- 판본: A-1과 A-2는 같은 목판으로 인쇄한 지도이며, B-1은 A-1이나 A-2와는 다른 목판으로 인쇄한 지도이다.
- B-2는 B-1을 모본지도로 하여 필사된 것으로 판단한다. [판단근거: B-2는 김수홍의 설명을 제외했으나 기본적으로는 A-1과 A-2, B-1의 윤곽과 내용을 따르고 있다. B-1과 B-2는 A-1·A-2과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특히 한양도성 주변 묘사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경상도 의령에 관한 설명부에는 A-1·A-2에 없는 南閭이 들어 있다.



<A-1(송실대목판본)> <A-2(역박 목판본)> <B-1(법장사 목판본)> <B-2(역박 필사본)>

- B-2가 B-1의 필사본이라는 점은 B-1 경상도 고령에 관한 설명부에서 확인된다. B-1은 A-1·A-2와 마찬가지로 고령이 낳은 인물로 麗申淑, 즉 고려시대 신숙(申淑, ?~1160)을 표시했다. 그런데 B-2에서는 고려시대의 신숙 대신 조선 전기의 신숙주(申叔舟, 1417~1475)를 적어 넣었다. 麗자를 삭제하고 인명을 바꾼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라 하기 어렵다. B-2가 B-1의 외형을 모사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은 것이다.



<A-1(송실대목판본)> <A-2(역박 목판본)> <B-1(법장사 목판본)> <B-2(역박 필사본)>

③ 판본간의 선후 관계

- A-1과 A-2는 같은 목판을 인쇄한 판본이지만, A-2의 경우, 지도 하단의 균열 상태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A-1이 A-2보다 앞서 인쇄된 것으로 판단한다.
- B-1의 목판은 A-1이나 A-2의 목판보다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압록강 너머 오골성과 그 주변 표시에 있다. : A-1이나 A-2는 오골성이라는 글자 주변으로 사각형 윤곽선이 보이고 주변에도 파내지 못한 목판 흔적이 곳곳에 엿보이는데, B-1의 경우 오골성 주변의 사각형 윤곽선은 물론 주변의 목판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A-1(승실대목판본)> <A-2(역박 목판본)> <B-1(법장사 목판본)> <B-2(역박 필사본)>

- B-2의 경우는 필사자가 가진 안목이 의심될 정도의 오류도 확인된다. 압록강 너머 장백산 표시가 좋은 예시가 된다. A-1·A-2와 B-1에서 장백산 우측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내려간 주기에 따르면, “혼동강은 장백산 북쪽에서 나오고, 또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한다”(混同江出長白山北 又東流合松花江)고 한다. 이 내용은 김수홍이 참고한 『대명일통지』에 근거가 있다. 그런데 B-2의 필사자는 모본이었을 B-1의 주기 내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간 것으로 오해하고, 松花江又東流合長白山北混同江出이라 오독했다. 필사자가 『대명일통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A-1(승실대목판본)> <A-2(역박 목판본)> <B-1(법장사 목판본)> <B-2(역박 필사본)>

④ B-1 판본의 진정성

- B-1(법장사 소장본)은 A-1이나 A-2와는 다른 판본으로 인쇄된 것이며, B-1과 같은 판으로 찍은 다른 목판본이 지금까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B-2와의 연관 관계로 보았을 때 B-1(법장사 소장본)의 진정성 자체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⑤ 법장사 소장본의 가치와 약점

-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지역과 역사, 땅과 인물의 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지도와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

A-2(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가 보물로 지정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B-1(법장사소장본)은 A-1이나 A-2와는 다른 목판본이지만,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의 변화 과정과 지도 발달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673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이 판본을 보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은 신유년 갑자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연대 표시가 있으나, 둘은 같은 판본이다. 그에 비한다면 A-1·A-2와 B-1에는 모두 “김수홍이 1673년에 제작했다”는 설명이 들어 있지만, B-1이 A-1·A-2에 비해 나중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1·A-2나 B-1 목판 모두가 1673년에 김수홍이 제작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1673년에 김수홍이 제작했던 지도”라는 기준에서 보면 나중에 제작된 B-1보다는 먼저 제작된 A-1·A-2 판본이 훨씬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야 한다.
- 일괄 지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같은 목판인 대동여지도의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 연구 이후 당대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일괄 지정의 형식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의 경우, B-1(법장사 소장본)처럼 1673년보다 후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목판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일괄 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B-1(법장사 소장본)의 경우 판이 흔들리거나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도 부분적으로는 약점이다.

⑥ 결론

- 법장사 소장본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문화재로서의 의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에서 거론한 이유로 국가지정보다는 시지정 문화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 (지정 가치 미흡)

법장사 소장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제작자와 제작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17세기 지도로 희소성이 크다. 또한 지난 2008년 보물로 지정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명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도 보이고 있어서 17세기 지도 제작의 특성과 계보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장사 소장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인쇄 상태와 관련하여 제작 당시부터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접어서 보관한 데서 기인한 마모와 변색이 지도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아울러 족자로 근래에 장황된 점도 원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가치를 고려할 때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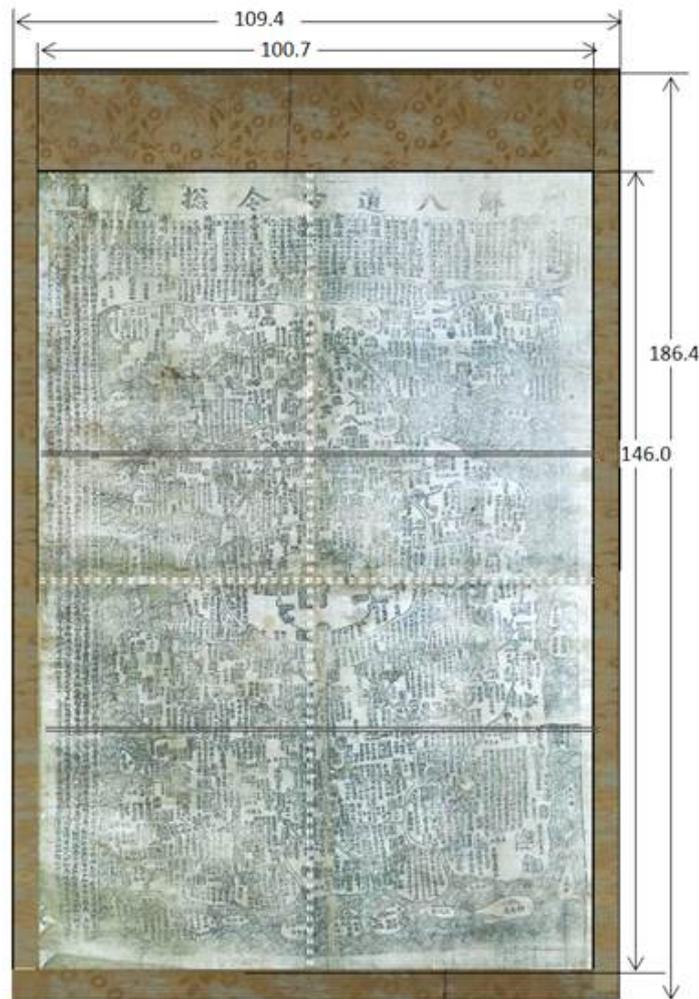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지도 형태 및 현상



<도1. 법장사본 지도 형태>

1673년(현종 7) 김수홍(金壽弘, 1601~1681)이 제작한 조선팔도고금총람도(朝鮮八道古今總覽圖)를 중간(重刊)한 목판본 지도이다.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법장사에 소장되어 있다(이하 '법장사본'). 2020년 옥션에서 구입하여 소장된 것이다.

지도는 족자로 표구되어 보존되어 있다. 장황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도 크기는 146.0×100.7cm이며 족자를 포함하면 186.4×109.4cm로 17세기에 제작된 지도 중 비교적 규모가 크다.

지도의 지질은 한지[楮紙]이다. 가로선 2곳에 종이 이음이 발견되어 지도 인출에서 상·중·하로 구성된 3장의 목판을 이용하였음이 확인된다[도1. 겹선 실선]. 또한 지도의 4등분 선(그림의 점선)은 접은 흔적으로 확인되어 표구 장황 이전의 보존 상태를 보여준다.

목판의 간인 상태를 보면 일부에서는 이중으로 겹쳐 있거나 인출 때 종이가 밀린 흔적도 확인된다. 또한 지도의 일부 면이 훼손되어 있어 내용 판독에 어려움을 준다.

○ 지도 내용

「조선팔도고금총람도」(이하「김수홍본」)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김수홍본」과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역사박물관본(보물 제1602호)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였다.

1. 제작 배경

① 제작자

조선의 고지도는 대부분 제작 연도와 제작자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김수홍본」과 같이 연도와 제작자가 밝혀져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김수홍(金壽弘, 1602~1681)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江華城)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손자로 호조참판을 지냈다. 명칭 교체기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조선총람도」에 6년 앞선 1666년(현종 7)에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이하 「천하총람도」)를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으로 보아 당시 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천하총람도」는 중국을 천하의 중심에 두고 주변을 간략하게 그린 중화식 세계 지도이다. 역사지리 내용을 해당 지역에 기록하여 지리지를 곁하였다. 지도 동쪽에 조선의 일부를 묘사하였다.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유로가 간단히 묘사되어 있고 각 도의 명산과 군현수가 주기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목판본과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숭실대학교박물관에도 목판본 1점이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견희 기증 지도에서 필사본 1점이 확인되었다.

② 「김수홍본」 제작 배경

지도 좌측에는 6행에 걸쳐 김수홍이 지[識]한 발문이 6행에 걸쳐 쓰여 있다. 글의 말미에 ‘계축맹하(癸丑孟夏)’라는 기록이 있어 1673년(현종 14)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발문은 5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반부는 조선의 역사지리 내용을 간략히 담고 있다. 후반부에 지도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지도를 만든

배경을 엿보게 한다. 다음은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중략)이제 「조선팔도고금총람도」를 펴낸다 여러 도의 읍호와 산천의 형세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지도를 근거로 해야 하겠지만 그 사이로 국도, 궁성, 능묘 같은 곳과 누정, 대사(臺榭), 역원, 사찰과 같은 승경을 표시하지 않은 수 없다. 역대 인물 가운데 도덕(道德), 명경(明經, 충효(忠孝), 절의(節義), 염직(廉直), 고치(高致), 사업(事業), 문장(文章), 신이(神異), 열녀(烈女)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본관이나 살던 곳, 혹은 무덤이 있는 자리에 표시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숭상한 바를 알게 되고 천고를 벗하게 하여 어리석음을 깨치고,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견문이 고루하여 모든 사람의 사적을 다 알 수 없기에 『기묘록』과 『해동명신록』을 참고하였다. 인조반정이나 병자호란 관련 사적 중에서는 하나를 기록하고 만 가지를 빠뜨렸으니, 안목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배우성, 2014, 72 쪽 참조).

발문에서 지도 수록 내용은 국도, 궁성, 능묘 사찰 외에 인물을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도덕, 명경, 충효, 열녀 등의 인물을 수록하였고, 이들을 본관이나 거주지, 무덤이 있는 고을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인물 선정은 『기묘록』과 『해동명신록』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기묘록』은 김육(金堉, 1580~1658)이 기묘사화 때 화를 입거나 사직된 인물들의 사적을 모아 간행한 책이다. 『해동명신록』은 김육이 통일신라부터 조선 후기까지 명신들의 행적을 수록한 인명록이다.

이와 같은 인물 중심의 내용은 지도의 제작 의도를 엿보게 한다. 궁성, 능묘, 사찰 등은 대부분 조선 고지도에 수록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인물이 함께 수록된 지도는 매우 드물다. 특히 도덕, 충신, 열녀 중심의 인물이 관련된 군현에 수록된 것은 고을과 인물을 연결시킴으로서 지역의 교화를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에 목판본으로 제작된 『삼강행실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2. 지도에 묘사된 조선지리

지도 구성을 보면 상단에 지도제와 주기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있으며 지도를 간인하였다. 지도제는 해서체로 쓰여 있다. 지도제 아래의 주기에는 팔도의 고을에 대한 노정(路程)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38관(官) 6역(驛) 6보(堡)가 있음을 나타내고 [東] 지평현 [西] 송도부 [南] 진위현 [北] 삭령현까지의 거리가 수록되어 있다.

① 조선의 형상과 산천

지도에 그려진 조선 강역의 모습은 실제와 매우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 북방 강역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로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동-서로 나란히 묘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평안도와 함경도가 남북으로 압축되어 왜곡된 형상을 하고 있다. 남쪽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가 상대적으로 넓게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묘사는 조선 전기의 「동람도」 유형을 따른 것에서 비롯되며, 이 왜곡은 18세기 들어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비로소 극복된다.

산지 묘사에서 산줄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등 규모가 큰 산지는 독립된 봉우리가 겹선 실선으로 그려져 있고, 고을에는 진산(鎭山)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천 유로는 겹선으로 표현하였다. 지도 위쪽에 압록강, 두만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해와 서해로 유입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백두산 서쪽으로는 ‘長白山’으로 이어지는 하천 유로가 묘사되어 있다. 한강 유로의 경우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묘사되어 있어 국도수(國都水)임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의 묘사를 보면 해파묘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지도의 유형과 동일하다. 동해에 함경도 일원에는 ‘鹿屯島’와 함께 ‘國島’가 있다. 강원도 동쪽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으며, 북쪽에 우산도가 있다. 울릉도에는 ‘方白里’가 쓰여 있어 섬의 규모를 보여준다. 동남쪽에 대마도와 일본이 그려져 있다.

② 도시와 고을

지도에는 한성부를 비롯하여 전국 336곳의 고을 지명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도성의 모습은 지도 중앙에 배치하고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과장되어 있다. 도성의 윤곽과 함께 사대문이 그려져 있으며 성안에는 종묘를 비롯하여 창경궁과 창덕궁이 묘사되어 있다. 북악산 오른 쪽에 ‘箕’가 쓰여 있는데 이는 28宿의 별자리 이름 중 하나로 도성이箕 분야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尾’가 쓰여 있는 고을도 있다.

팔도의 경계는 그려져 있지 않다. 고을은 장방형 사각형안에 지명을 써 놓아 위치를 나타냈다. 고을 옆에는 한양까지 거리, 역사적인 내용, 고을과 관련된 인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름 앞에는 ‘孝子’, ‘相’, ‘僧’ 등이 함께 쓰여 있다. 이름이 기재된 사례를 보면 경상도 삼가현에 ‘麗僧 無學’이 있다. ‘麗’는 고려인을 뜻하며 무학은 무학대사를 지칭한다. 경상도 밀양부에는 ‘休靜’, ‘卞季良’, 충청도 홍주에 ‘成三問’, 경상도 선산부에는 ‘估畢齋 金宗直’을 비롯하여 ‘金叔滋’ 등의 이름이 있다. 강원도 안변군의 ‘孝子 姜廉’이 있다. 경상도 동래부에 ‘鄭沆’, ‘宋象賢’이 있다. 정항(鄭沆, 1080~1136)은 고려 중기의 청백리로 알려져 있다. 정과정곡을 지은 정서(鄭敍)의 부친이다.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은 임진왜란 때 동래부성에서 순절한 장수이다. 지도의 이름들은 본관 혹은 출신지이거나 역사적인 사건 등으로 고을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3. 법장사본의 특징: 판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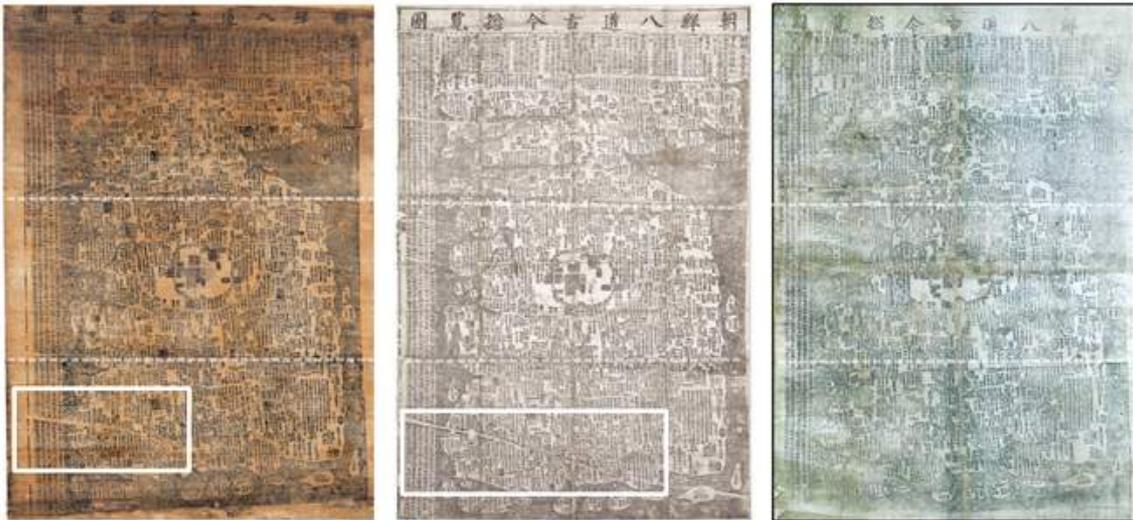
「김수홍본」은 법장사본 외에 국내에 2점이 있다[표1 참조]. 필사본의 경우 1점이 확인된다. 목판본은 서울역사박물관(이하 ‘역박본’)본과 송실대학교박물관(이하 ‘송박본’)에 소장되어 있다. 역박본의 경우 2008년 보물(제1602호)로 지정되었으며, 송박본은 당시 박물관 사정으로 지정이 보류되었다.

<표1. 「조선팔도고금총람도」 판본과 필사본>

| 유형 | 소장처 | 지도 크기 | 지정 관련 |
|-----|----------|---------------|----------------------|
| 목판본 | 서울역사박물관 | 141.1×107.0cm | 보물 지정(2008년, 제1602호) |
| | 송실대학교박물관 | 138.2×107.0cm | 지정 보류(2008년) |
| | 법장사 | 146.0×100.7cm | 지정 신청 |
| 필사본 | 서울역사박물관 | 126.7× 88.0cm | - |

* 지도별 크기는 소장처 제공 자료에 따름

이들 3점의 목판본 지도는 부분적으로 형태를 달리한다. [도2]는 지도면 전체 구성을 비교한 것이다. 지도 규모, 지도체와 주기 및 발문 배치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지도의 나눔선을 보았을 때(백색 점선 부분) 역박본과 송박본은 3장의 목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법장사본의 판목 구성도 이와 동일하다.



<도2. 조선팔도고금총람도(좌: 역박본, 중: 송박본, 우: 법장사본)>

목판 상태를 보면 역박본과 송박본에는 남쪽의 전라도 부분에 판목이 갈라진 흔적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백색 사각형 부분). 송박본의 경우 균열선이 오른쪽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는 두 판본이 동일한 목판을 이용하였고, 송박본이 역박본보다 후대에 간인된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법장사본에서 목판의 균열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3]은 지도체를 비교한 것이다. 모두 해서체로 쓰여 있으나 간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역박본의 경우 해서체의 필사로 쓰여 있다. 이와 달리 송박본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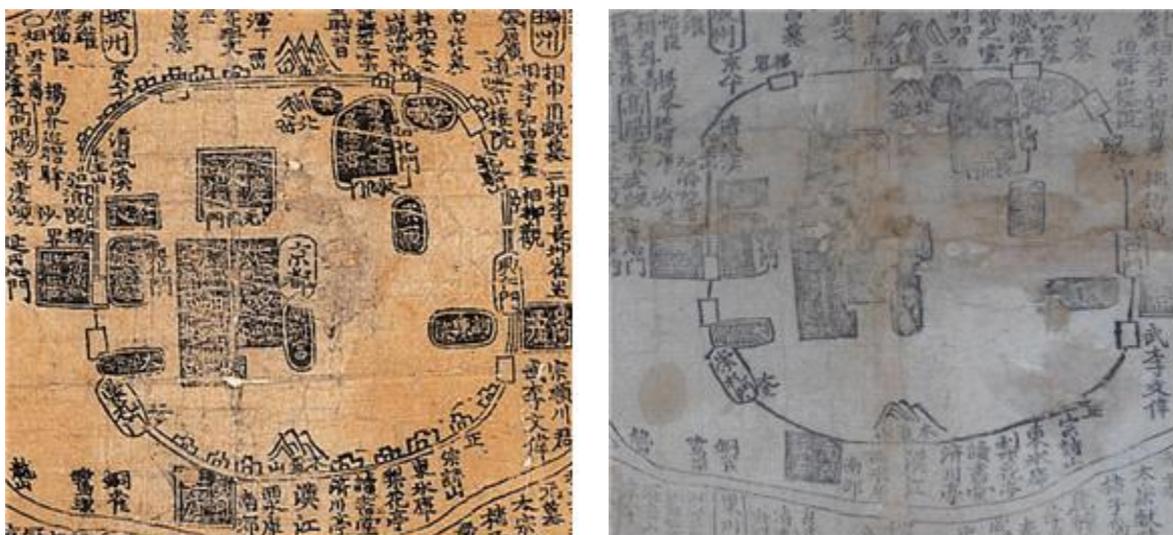
도제는 목판으로 간인되어 있다. 지도제 아래에 배치된 주기는 두 지도 모두 목판으로 간인되어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역박본이 간인될 당시 아직 지도제는 목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송실대본의 지도제는 별도로 제작하여 주기면과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3. 지도제 비교(위: 역박본-필사, 가운데: 송박본-목판, 아래: 범장사본-목판)>

범장사본의 지도제는 목판으로 새겨 있으나 송박본에 사용된 글씨체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鮮’, ‘道’, ‘今’자의 획 형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된다. 필체 수준도 송실대본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지도제 간인에 사용된 목판이 서로 다른 것임이 확인된다.

지도 묘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역박본과 송박본은 지도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범장사본의 경우 일부 면에서 이들 두 지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4]는 도성과 백두산 일대의 내용을 역박본과 비교한 것이다. 역박본의 도성 묘사를 보면 성곽이 겹선으로 묘사되고, 여장(女牆)이 그려져 있다. 북쪽에 삼각산, 남쪽에 목멱산이 묘사되어 있다. 도성 안에는 ‘京都’가 쓰여 있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비롯한 궁궐과 ‘경기감영’이 음각으로 판각되어 있다.



<도4. 도성 일대(왼쪽: 역박본, 오른쪽: 범장사본)>

확인된다. 이외에도 간인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4. 소결

김수홍의 지도는 효자, 충신, 학자 등 인물 이름이 고을에 기재된 것을 미루어볼 때 교화적(敎化的)인 목적으로 지도를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도에 그려진 내용은 17세기 당시 제작 환경이 반영된 것이다. 고지도로서는 드물게 제작자와 연도가 밝혀져 있어 지도 발달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법장사본 지도는 김수홍(金壽弘)의 「조선팔도고금총람도」를 중간한 지도이다. 지도제와 판각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목판을 새로 제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지도를 다시 만들면서 일부 내용이 보완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팔도고금총람도」가 지도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선시대에 목판본 지도가 중간되는 사례는 18세기의 목판본인 『(동람도형)여지도』이다. 도별도로 구성된 이 지도첩은 지도 내용을 달리하며 당시 조선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다. 19세기에는 『곤여전도』(1860)의 해동중간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도의 수준은 북경판·광동판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어 당시 조선의 높은 판각 기술을 보여준다.

법장사본은 김수홍본을 모본으로 하였으나 판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도성 일부에서 여장 묘사가 생략되기도 하였으며 산지 묘사가 단순해졌다. 또한 일부 면의 인출 상태도 매우 거칠게 나타나고 있다. 판각 상태로 보았을 때 김수홍본의 번각본(飜刻本) 지도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김기혁,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 실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1-6, 2006, pp.714~739.
-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의 표상-한국고지도집』, 2012.
-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4.
- 부산광역시, 『부산고지도』, 부산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2008.
- 오상학, 『한국전통지리학사』, 들녘, 2015.



○ 내용 및 특징

김수홍이 1673년(현종 14)에 제작한 전국 지도로, 자국사 상의 땅과 역사, 지역과 인물의 관계를 표현한 지도다. 상단에는 『대명일통지』와 『통전』에서 인용한 거리 정보를 적었고, 지도 좌측에는 지도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 설명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동사와 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았더니, 단군은 태백산 단목 아래에서 나왔는데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으며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가 평양에서 도읍하였다. 연나라 사람 위만이 한나라 혜제 때 기준을 몰아내고 평양에서 도읍하고 조선을 칭했다. 이른바 삼조선이란 이 세 나라다.
- ②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은 모두 호남과 영남의 경계에 있었다. 한나라 선제 이래로 신라의 박혁거세가 진한 땅에 나라를 세우니, 마한과 변한이 앞뒤로 속하였다(지금의 경주이다). 고구려의 주몽은 북부여에서 시작하였다가(북부여의 건너편은 송화강의 남쪽 경계이다), 남쪽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백제 온조는 고주몽의 아들로 위례성에서 임금이 되었는데(지금의 직산이다). 전후로 다섯 번 도읍을 옮기더니 남부여에서 끝을 맞았다.
- ③ 이성계가 왕건의 고려에 뒤이어 새 나라를 열고는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의 국호를 올려 조선의 호를 내려 받았으니, 그 칭호가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④ 이제 조선팔도고금총람도를 펴낸다. 여러 도의 읍호와 산천의 형세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지도를 근거로 해야 하겠지만, 宮城·陵墓·樓亭·臺榭·驛院·寺刹과 같은 勝景을 표시해야 한다. 역대의 인물 가운데 道德·明經·忠孝·節義·廉直·高致·事業·文章·神異·烈女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본관이나 세거지 혹은 그 무덤이 있는 자리에 표시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숭상할 바를 알게 하고 천고를 벗하게 하여 어리석음을 깨치고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
- ⑤ 건문이 고루하여 모든 사람의 사적을 다 알 수 없기에 기묘록과 해동명신록을 참고하였다. 인조반정이나 병자호란 관련 사적 중에서는 하나를 기록하고 만 가지를 빠뜨렸으니, 안목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수홍이 말한 『동사』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동국여지승람』이 기본 사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증세사의 강역과 도읍을 설명

하는 맥락이 반드시 『동국여지승람』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위례성을 직산이라고 본 것은 『동국여지승람』을 따른 것이지만, 삼한이 모두 영호남 사이에 있다고 본 것은 최치원설을 계승한 『동국여지승람』의 견해와는 다르다.

도면 안에서 발견되는 인물명과 인문지명들 중에는 단군과 기자에 관련된 사적이 있다. 지도에 등장하는 인물군은 고대부터 조선 당대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고려시대 인물일 경우 인명 앞에 ‘麗’라는 표시가 있다. 학자·충신·고관·공신·청백리·열녀·효자 등 인물군도 다양하다. 인명 앞에 있는 ‘相’·‘孝子’·‘烈女’·‘淸吏’·‘僧’·‘開國’ 등은 모두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이 인물들 중에는 나라를 열거나 위기에서 구한 경우들이 많다. 三嘉의 無學, 그리고 密陽의 休靜은 모두 승려이다. 무학은 조선을 세우는 데 관여했고, 휴정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다. 沔川의 卜智謙은 고려의 개국공신이며, 密陽의 卞季良이나 洪州의 成三問, 善山의 河緯地 등은 창업기 조선의 유공자이다. 나라를 열거나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면 그가 승려이든 관학파든 훈구파든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풍수지리의 대가인 道詵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행적은 없지만, 靈巖에 이름이 있다. 반면 조선 왕조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鄭道傳의 이름은 지도 안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성리학적 인간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다양하지만,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일 것이다. 지도에는 이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들어 있다. 경상도 陝川에 竹竹과 品釋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두 사람은 신라와 백제의 대야성 전투에 관련된 인물들이다. 백제 장군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했다. 윤충은 뒷날 의자왕에게 국가의 위기상황을 간언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충의 동생이며, 대야성의 도독은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이다. 품석과 죽죽 등이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김수홍은 삼국사기에서 죽지와 품석에 관한 에피소드를 따 왔으면서도, 김부식이 ‘남편의 손에 의해 죽었다’고 기록한 품석의 처를 ‘뒷날 백제를 공격하는 것을 도와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여자’로 탈바꿈시켰던 것이다. 지도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은 열녀이다. 김수홍은 가급적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들을 열녀라는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 그런데 품석의 처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 남편의 원수가 국가의 원수일 경우 남편을 위해 복수하는 행위는 곧 국가를 위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인물 중에서도 국가를 위해 순절하거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들이 보인다. 彦陽의 金就礪는 거란의 침략을 크게 물리친 고려 장군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임진왜란 관련 인물들이 많다. 東萊의 宋象賢(1551~1592)은 일본군을 맞아 싸우다 죽은 전사했으며, 한산도의 李舜臣은 조선 수군의 지도자이다. 玄風의 郭再祐, 光州의 高敬命과 그의 두 아들인 高從厚 高因厚 형제는 모두 의병의 지도자이다. 김포에는 권율의 행주대첩을 기리는 捷倭碑가 있다.

김수홍이 도학과의 후예라는 점에서 보면 중에서 학문이 높은 인물군을 그들의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는 우선 역대로 문묘에 들었던 사람들을 표시했다. 그 인명 뒤에 “문관이며, 문묘에 들었다(文入文廟)”는 표현이 보인다. 경주의 薛聰·崔致遠·이언적, 개성(松都)의 李穡, 장단의 鄭夢周, 현풍의 金宏弼, 함양의 鄭汝昌 등이 그런 경우이다. 문묘에 들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름과 호가 병기된 경우도 있다. 선산의 金宗직(점필재), 인동의 張顯광(여현), 경주의 李언적(회재), 예안의 李황(퇴계), 함양의 鄭여창(일두), 성주의 鄭구(한강) 연산의 金장생(사계), 파주의 成혼(우계)와 李이(율곡), 개성의 徐경덕(화담) 등이 그들이다. 지도상에서 이름 이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했다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성취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묘에 든 인물들과 호로 기억되는 인물들의 면모를 보면 서인계와 남인계 학통의 주요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몰락한 대북파의 학문적 지도자였던 조식이 ‘지리산에 들어갔다’는 사실로 기억되는 것도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말 성리학의 토대를 놓은 길재나 기묘 사림의 지도자인 조광조를 찾을 수 없다. 金宗직의 아버지 金숙자나, 金장생의 아들 金집, 그리고 뒷날 소론계의 지도자가 되는 윤선거 등이 그들의 號로 기억되지 않는 것, 북인의 학문적 지도자 중 한명인 徐경덕이 號로 기억되는 것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김수홍에게 도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도에서 정몽주-길재-金숙자-金宗직-金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의식을 읽어낼 수는 없다.

부자 혹은 삼대에 걸쳐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룬 경우라면 그 가학적 전통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連山의 金繼輝·金長生·金集은 삼대에 걸쳐 가학을 이어온 집안이다. 심지어 아들 혹은 손자 덕에 수록된 인물도 있다. 昌寧의 成世純(1463~1514)은 연산군-중종대의 문신이다. 연산군의 폭정에 실망해 은거하려는 의사가 없지 않았지만, 끝내 벼슬을 버리지는 않았다. 죽은 뒤 사숙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연산군대에 출사한 것으로 인해 약간의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중종을 크게 도왔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행적 자체로는 크게 기억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가 이 지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아들이 조광조의 제자이자 기묘사림의 일원이었던 成守琛이며, 성수침의 아들이 成渾이기 때문이다. 성혼은 파주에 그 이름이 보인다.

국가에 공을 세운 인물도 중요하고 학덕이 높은 인물도 중요하다. 高靈의 申光漢(1484~1555)은 기묘사림의 일원이다. 그러나 김수홍이 기록한 절의의 아이콘들은 굳이 기묘 사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高靈의 朴闇(1479~1504)은 26세의 나이로 갑자사화 때 화를 당한 인물이다. 합천의 宋希奎(1494~1558)는 尹元衡을 탄핵

했다가 유배를 당한 뒤 풀려나자 은거한 인물이다. 조식의 문인이던 거창의 文緯는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했지만, 뒷날 정인홍이 권력자가 되자 역시 은거를 택했다. 그들은 모두 절의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강화도는 병자호란 때 그곳에서 순절한 金尙容·沈諤·李時稷·宋時英·尹烜·權順長·金益兼과 그들을 기리는 忠烈祠로 기억된다.

○ 참고문헌

-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목판본과 필사본(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목판본(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본).
-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4.



○ 현 상

6매의 종이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 목판 인쇄를 한 것으로, 크게 두 번(정확히는 네 번) 접었던 부위에 마모와 변색이 두드러짐.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현재의 족자 상황은 근래의 것이며, 이 지도의 이용자는 지도를 접어서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족자 상황은 조선시대 이용 당시의 상태로부터 벗어난 것임. 목판 인쇄 당시의 밀림 현상이 다수 관찰되며, 접었던 부위의 마모로 특히 한성부 부분 등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일부 있음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지도 중 제작자(김수홍)와 제작연대(1673년)를 기록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주목되며, 성리학 이념을 중심으로 조선 국가의 공간과 연계된 역사정보를 지도에 수록한 특징적인 지도이다.

지도 상단에 지도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선팔도 삼백삼십관 대총노정기(朝鮮八道 三百三十官 大摠路程記)’를 수록했다. 조선 8도의 남북과 동서 거리를 시작으로, 8도 각각의 감영으로부터 한성까지의 거리를 일정과 이수(里數)로 기록했다. 끝 부분에는 제주 지지를 수록했다. 지도 왼쪽의 가장자리에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의 역사를 기록했으며, 지도 위에 기록된 인물 및 역사 정보가 『기묘록(己卯錄)』과 『조선명신록(朝鮮名臣錄)』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조선의 윤곽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국가표준지도라고 할 수 있는 정척 유형의 조선전도(국보 <조선방역지도> 유형)와는 크게 다르다. 한성에 할애된 지면의 크기로 미루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록할 내용이 많거나 강조의 필요

가 있을 경우 지형의 왜곡을 피하지 않았다. 각 고을 주위에 빼곡히 기재된 정보는 그 지역 출신이거나 그곳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했던 학자, 충신, 효자, 열녀 등이다. 예컨대 한산도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송도에는 정몽주, 서화담, 한석봉, 동래에는 송상현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평안도 구성에는 서희, 의주에는 을파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수록 범위가 조선시대의 인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려시대의 인물일 경우 ‘麗’자를 두어 구별했다. 또한 특정 인물의 행적을 범주화해서, 상(相), 효자(孝子), 열녀(烈女), 청리(淸吏), 승(僧), 개국(開國) 등의 표현을 이름 앞에 기록했다.

아울러 분야설(分野說)에 바탕을 두고 28수(宿) 중 조선에 대응하는 2개의 별자리를 곳곳에 기록해 두었다. 조선의 경계와 관련하여, 우산도와 녹둔도가 기재되어 있고, 두만강 너머에 선춘령(先春嶺)과 윤관(尹瓘)의 대첩비가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팔도고금총람도>와는 지명 표기에서 일부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 백두산 위에 ‘북해(北海)’라는 지명을 표기했고, 창령, 현풍, 영산, 밀양 등 경상도 지명 위에 ‘좌(左)’를 표기한 점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지정사례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팔도고금총람도> (2008.12.22. 보물 지정)

○ 참고문헌

- 배우성, 『조선의 중화』, 돌베개, 2014.
- 문화재청, 『한국의 옛 지도』, 2009.

10.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 (蔚山 於勿洞 磨崖藥師如來三尊像)

가. 검토사항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12.2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9.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1997.10.9. 지정)
- 명 칭 :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蔚山 於勿洞 磨崖藥師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울산광역시 북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121번지 일원
- 수 량 : 1좌(3구)
- 규 격 : 전체 최대 높이 7.0m×최대 폭 10.4m, 본존 높이 5.4m×어깨 폭 3.3m
- 재 질 : 상부-화산역암, 저부-안산암질 응회암
- 형 식 :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
- 조성연대 : 통일신라 후기(추정)
- 지정구역 면적 : 37.8㎡

| 연번 | 소재지/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
| | | | | | 성명 | 주소 |
| 1 | 울산 북구 어물동 산121 | 임야 | 9,620 | 37.8 | 김○○ | 울산 북구 황토전길 ○○○(어물동) |
| 계 | | | | 37.8 | | |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전반적으로 불상의 예술적 완성도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상과 양식적 측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 마애여래삼존상 중 본존불은 마멸과 표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도상적 특징을 판단할 수 없으나, 좌우 협시의 보관에 새겨진 둥근 보주 모양의 표식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지니는 日月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약사여래삼존상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약사여래삼존상을 새긴 마애불로는 801년의 조상기가 남아 있는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이 유일하며, 그 다음으로는 이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기에도 약사여래삼존상이 새겨진 사례가 확인된다.

이 마애불상은 일부 확인되는 부분과 표현 요소를 통해 통일신라 후반기 조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이 매우 적고 유연한 신체 굴곡선, 도식화

된 층단 주름, 우협시의 상호 표현 중 부푼 눈두덩 사이로 가늘게 표현된 눈은 범주사 마애여래좌상이나 대구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상, 김천 광덕동 석조보살입상, 함안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등 고려 초기 불상들과도 폭넓은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머리의 정수리 부분에 日月을 표현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도상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특이하여 이러한 부분도 향후 동시기 불교 문화권의 불상들과의 비교 조사도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마애삼존불상의 상부는 조각가의 의도대로 조각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하부는 응회암이 가지는 석질 타인지 의도한 대로 조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불상의 하체 부분은 조각하지 않았거나 조각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치 바위에서 나투시는 부처의 모습을 의도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 (지정 가치 미흡)

- 어물동 마애불은 마애불로서는 드물게 본존 좌상, 협시 입상의 삼존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는 영주 가흥리, 신암리 마애불, 경주 칠불암 마애불 등 주로 마애불이지만 독립적으로 돌출된 바위면에 새겨진 경우에서 발견된다. 추측하기로는 높은 절벽 형태의 마애불은 바위면에 감실 형태로 보호각을 꾸며 불상을 보호하면서도 야외라는 공간성을 염두에 둔 반면, 이처럼 단독 돌출형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은 바위 전체를 덮는 전각을 세워 완전한 법당 구성을 만들어 실내 공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드문 사례로서 주목되는 바가 있다.
- 일반적인 삼존불의 경우 본존불이 뒤편에 좌정하고 그 앞쪽에 두 협시보살이 시립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반면, 어물동 마애불에서는 본존불이 앞에 좌정하고, 두 협시보살이 뒤편에 서있는 구성을 보인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살보다 위계가 높은 본존불이 보살에 의해 가려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그러나 점차 보살의 역할이 중요시 되면서 보살이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경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물동 마애불은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드문 사례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동궁 월지 출토 금동관 아미타삼존상을 들 수 있다.
- 현재 어물동 마애불은 약사삼존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약사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약함이나 약합을 들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협시보살의 보관의 형태에 의해 본존불이 약사불로 규명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예에 속한다. 보관의 형태에서 해와 달을 상징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보관 자체가 마치 일월식 보관의 형태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월식 보

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반가사유상 중 일월식 보관(혹은 탑형 보관)을 착용한 사례가 있으나 그 표현이 다소 불확실한 반면, 만약 어물동 마애불이 약사삼존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관으로 일광·월광을 표현하는데 있어 이러한 일월식 보관에서 시작하여 점차 보관 정면의 둥근 원형 장식을 적색·백색으로 표현하여 일·월을 표현하거나 여기에 더하여 삼족오와 두꺼비(혹은 토끼)를 넣어 해와 달을 표현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약사삼존상이 표현이 드물고, 특히나 약사삼존상에서 보살상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 경우도 드문 상태에서 후대에 등장하는 명확한 일광·월광보살과 같은 보관 형식을 지닌 마애삼존상이 약사삼존이 분명하다면 도상학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의 형성기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 어물동 마애불은 비록 일부 박락된 부분이 있지만 동해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북쪽 길목인 골굴암 마애불과 더불어 남쪽 길목인 울산에 위치하여 각각 경주 동쪽 끝단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마애불이라는 점에서 골굴암 마애불(보물로 지정)과 유사한 지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물동 마애불은 본존불이 약사불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앞서 언급한 도상학적인 특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비록 이 마애불이 약사불로 지칭되고 있으나 과연 제작 당시부터 약사불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약사불로 전칭된 것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더 보완된 이후에 그 정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울산 어물동 마애불은 본존 좌상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보살을 입상으로 배치한 삼존상이다. 이러한 도상은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과 영주 신암리 마애삼존불을 비롯하여 경주 칠불암 마애불 등으로 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대에 유행되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크기가 대형이며 통일신라 하대에 약사신앙의 유행을 반영하여 조성된 불상으로 불상의 희귀성과 미술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삼존불이 모두 마멸이 매우 심해 세부 도상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고, 통일신라시대 조성되어 현재 국보·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삼존불, 경주 굴불사지 사면석불 등에 비해 조각기법이 정교하지 못하며, 신체의 양감이 떨어지고 신체비례도 다소 어색한 편이다.

또한, 어물동 마애불은 약사삼존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본존불은 약사불의 특징인 약함을 들고 있는지 조차도 마멸이 심해 잘 확인되지 않는다. 두 협시보살의 보관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표현이 새겨져 있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추정하여 약사여래삼존불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삼존불을 약사불의 도상으로 추정하는데 비교되는 함안 방어산 마애삼존불과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기

에 새겨진 약사삼존불도 좌우 협시보살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특징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통일신라 하대 약사신앙의 유행과 불상 조성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어물동 마애불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 발굴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여 보완된 이후에 미술사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 어물동 마애여래삼존상(磨崖如來三尊像)은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방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자연 암벽 위에 부조된 마애불상임.
- 중앙의 본존 불좌상 높이는 5.4m, 너비는 3.5m이고, 좌우의 협시보살입상은 높이 3.5m, 너비 1m의 크기임.
- 본존불의 얼굴, 가슴 부위, 손, 좌협시 보살상의 얼굴 등이 많이 훼손됨.
-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됨.

○ 내용 및 특징

① 제작기법

- 바위 표면에 부조된 마애불로서, 중앙의 坐佛像과 좌우의 立像 脇侍菩薩로 구성됨.
- 본존불 흉부에서 복부 사이의 훼손부 표면에 음각된 인위적인 음각 흔적은 흙이나 灰 등 보완재를 덧붙이기 위한 사전 처리 흔적으로 판단됨.
- 이 처리 흔적은 조성 당시에 함몰 부위의 보완을 위한 흔적일 가능성과, 완성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표면 박리 등 훼손부의 보완을 위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음.
- 바위 상부 좌우에 조성된 凹部는 건축 가구 고정용으로 판단됨.

② 도상, 양식, 조성 시기

- 중앙의 坐佛像과 좌우의 脇侍菩薩立像으로 구성됨.
- 중앙 좌불상은 우수 시무외인 좌수 선정인을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좌수 위 藥器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중앙 본존불은 두부가 크고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이며, 뺨, 턱, 눈 등에 상당히 발달된 양감이 표현되었으나, 흉부 이하는 낮은 저부조이며 계단상의 평면적인 옷주름 등이 표현됨.
- 본존불 두부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목 이하는 평면적으로 표현한 방식은 신라 9세기 불상에서 나타나는 표현과 동일함.
- 좌우 보살상은 머리 위 보관에 각각 원형 장식물이 조각되어 있으며, 이 원형 장식물은 각각 해(좌협시)와 달(우협시)로 추정되므로, 보살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판단됨.
-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보관의 일상과 월상 표현은 801년 작인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삼존상 등 통일신라 작품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불화에서는 14세기 작품이 最古의 사례로 알려져 있음.
- 보살상은 무릎 이상만 조각되어 있고, 불상에 가려진 보살상의 하반신은 생략됨.
- 협시보살은 불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얇고 편평하게 부조되었으며, 보살상 하반신의 腰帶와 끈 표현은 중국 金代(1115~1234) 보살상에서 보이는 특징적 표현과 유사함.
- 본존불상은 통일신라 9세기경의 양식 특징을, 보살상은 고려 12~3세기 이후의 도상·양식 특징을 보이는 점에서, 불상이 먼저 조성되고 보살상은 나중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본존불은 藥器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좌우 협시보살로 인해 약사여래로 판단된 것인데, 협시상이 고려시대 추각작일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9세기대 본존불의 존명은 확정할 수 없음.



○ 내용 및 특징

마애약사여래삼존상이 있는 곳은 어물동사지로 지칭하고 있으며, 당사항에서 서쪽 1.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사역은 어물동 산121번지로 마애여래삼존상은 ‘방바위’로 불리는 부채꼴 모양의 바위 남쪽면에 조성되어 있다. 마애여래삼존상의 서쪽 편에는 마애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사찰에서 마애여래삼존상을 관리하고 있다.

마애약사여래삼존상이 위치한 울산 지역은 불교가 수용되면서 삼국시대부터 대외 무역항이 있던 곳으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또한 신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외항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영축사, 간월사, 태화사지 십이지상 승탑, 불당골 마애여래입상 등 불교 문화도 상당히 꽃을 피웠던 지역이다.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좌상도 이러한 지역적, 불교 문화적 기반 아래에서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官·私撰 『지리지』나 『유람기』 등에서 마애불상과 그 주변의 사찰과 관련된 확인되는 인문학적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불상은 대체로 표현 기법과 양식을 통해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불상이 알려진 것은 1933년 무렵부터이다. 당시 불교신도였던 김불에게 부처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바람을 맞고 있으니 덮어다오. 나는 지금 동쪽 10리 안에 있다’라는 꿈을 꾸고 찾아보니 불상이 있었다고 전해진다.²⁸⁰⁾ 이후 1970년 동국대학교박물관 불적조사단이 이를 확인하며 세상에 알려졌고²⁸¹⁾ 학계의 연구가 시작되었다.²⁸²⁾ 1997년 10월 9일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이라는 명칭으로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바위는 남향하고 있으며, 규모는 폭 10.4m, 높이 7m의 부채꼴 모양이다. 바위의 전면은 다듬지 않고,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여 삼존상을 높은 부조로 새겼다. 마애불 상단 좌측과 우측에 각각 2곳과 3곳에 ‘ㄴ’자형의 인위적인 홈이 확인되어 별도의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위는 응회암으로 자연풍화에 대단히 취약한 재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불상 조각에는 적합하지 않다. 경주 일원에 응회암의 바위에 불상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 어물동 마애여래삼존상을 비롯하여,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과 포항 고석사 마애여래의좌상이 있다. 이 세 점 모두 표면의 마멸과 탈락이 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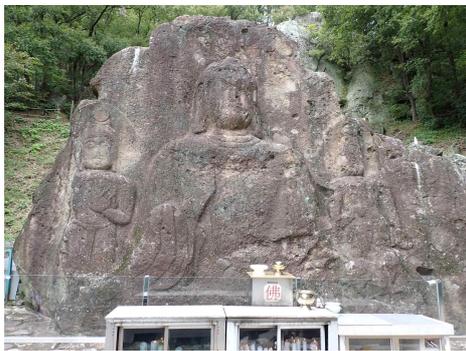
280) 강길부, 『향토와 지명』, 정음사, 1985, 311쪽.

28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사』, 2002.

282) 김길웅, 「어물리 마애약사삼존불에 관한 고찰」, 『동국사학』 2, 동국사학회, 1991.

응회암 벨트에 속하는 이 세 점의 마애불상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중앙의 본존불은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본존불로서의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다. 상부는 고부조로 높게 조각하였고, 하부 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각의 깊이가 얕다. 이러한 조각 수법은 상호 중심의 조각 기법인데, 즉 예배자의 관점과 시선이 불상의 상호에 집중하도록 의도한 조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등 삼국시대 마애불상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 마애불상에 이르기까지 널리 애용되던 표현 방식이자 마애불의 조성 기법이다.



<어물동 마애여래삼존상>



<우협시>



<좌협시>

본존불의 머리에는 육계가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고, 얼굴은 계란형의 얼굴에 양감이 풍부하다. 이목구비는 마멸되어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다. 삼도가 층단을 이루며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착의는 통견의로 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오른손은 들어 올려 설법인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왼손은 무릎 아래쪽으로 내린 것으로 추정되나 파손되어 정확히 어떠한 手印인지 알 수 없다. 상체에 비해 넓게 자리 잡은 다리 부분도 윤곽만 어렴풋이 남아 있어 주름이나 발의 표현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오른쪽 팔목을 덮고 내린 대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띠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띠 주름은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나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상처럼 9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불상에서 표현되는 평행 띠 주름들과 비교할 수 있으나, 남아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부분적인 요소만으로 전체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좌협시 보살상의 머리 뒤쪽으로는 어렴풋이 조각한 두광의 여운이 보이고, 머리에는 보관을 썼으며, 보관에는 둥근 보주형의 표식이 새겨져 있으나 반쯤 파괴되었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형상을 확인할 수 정도로 마멸이 심하다. 오른손은 복부에 두었고, 왼손은 허벅지 아래로 내렸으나 수인은 확인할 수 없다. 상체의 옷주름도 원래부터 나신으로 표현하였는지 마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허리에는 요포를 묶은 띠 자락이 양 대퇴부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다. 무릎 이하는 새기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두었다. 마치 바위에서 나투시는 보살상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협시 보살은 좌협시 보살상과 달리 원형의 두광을 뚜렷하게 새겼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보관의 상부에는 초승달 모양의 받침 위에 둥근 보주형 표식을 새겨 놓았다. 그 아래에도 2중원으로 된 보관 장식이 표현되었다. 상부의 圓形 보주는 좌협시 보살상의 원형 보주와 마찬가지로 이 보살상의 도상을 특징하는 표식으로 읽힌다. 보관의 아래쪽으로는 보발의 표현이 보이고, 이마는 좁게 표현되었다. 눈 두덩은 행인형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 사이로 가늘게 뜬 눈이 표현되었다. 귀와 입술은 마멸되어 확인이 어렵다. 턱 선은 방형에 가까우며 귀는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길게 늘어져 있다.

상체는 천의를 걸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여운이 남아 있지 않아 나신처럼 보인다. 오른쪽 어깨 부분은 파손되었고, 왼쪽 어깨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팔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팔목에는 띠 모양의 팔찌를 차고 있다. 오른손은 내려 허벅지 부근에 둔 것으로도 보이는데, 엄지와 검지 두 개의 손가락이 허벅지에 보인다. 하의로는 군의 위에 요포를 두른 것으로 보이는데, 허리춤에서 요포 자락을 헛바닥처럼 뒤집었고, 요포를 묶은 띠 자락이 양 다리 사이로 길게 드리워져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사리함에 새겨진 보살상들과 비교가 가능하지만, 무릎 이하의 부분은 원래부터 조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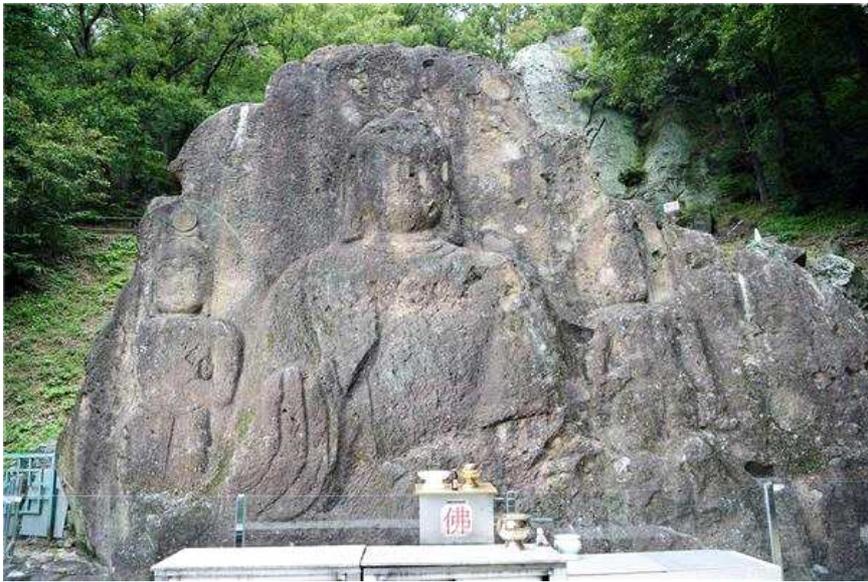
이 마애여래삼존상에서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은 좌우 협시의 보관 위쪽에 표현한 둥근 보주 모양의 표식이다. 좌우측 보살에서 똑같이 이와 같은 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일월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존상의 도상이 정확하지 않으나 좌우 협시의 도상적 특징을 통해 본존이 약사여래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약사여래본원경』에 따르면 약사여래의 협시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등장하지만 정확한 도상적 특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대개 일광보살은 이마나 보관에 해를 표현하고 월광보살은 달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독상으로 조성될 때는 손에 日月을 지물로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도상은 13세기에 성립된 도상 집성서인 『阿婆縛抄』에 “일광보살은 왼손에 해를, 월광보살은 왼손에 월륜을 들고 있다.” 하여 일월을 지물로 취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물동 마애불상의 좌우 협시는 보관에 표현되어 있어 『아사박초』의 내용과는 다르다.

이 삼존불상은 전체적으로 신체의 근육은 탄력이나 부피감이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신체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부드러운 양감과 유연한 선묘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통일신라를 지나 고려 초기에 고려 개포동 마애보살상,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상이나 조성된 불상들에서 보이는 요소와 일맥상통하지만, 양감이 강조된 측면에서 이들 양식보다는 선행한다고 하겠다.

□

○ 현 상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은 울산 북구 어물동 산12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방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자연 암벽의 남쪽면에 새겨져 있다. 주변은 작은 무룡산, 우가산, 새바지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으로는 어물천, 북쪽으로는 금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두 하천은 마애불에서 동쪽으로 600m 정도 지점에서 합류하고,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500m 정도 흘러 당사 해변에 이르러 동해로 이어진다. 동해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경우 북쪽으로는 길목에 골굴암 마애불이 있다면, 남쪽인 울산에서 들어가는 경우 이 어물동 마애불이 그 길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불 전경>

야트막한 기슭에 자리 잡은 새로 단장한 축대 위의 넓은 바위에 마애불이 새겨져 있는데, 불상이 새겨진 공간 외에는 그다지 여백이 많지 않은 단독의 돌출된 바위이다. 본존불 부분이 가장 높고, 좌우로 갈수록 낮아지는 대략 삼각형 모양의 바위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좌우 대칭은 아니어서 우협시쪽의 공간은 좁고, 좌협시쪽으로는 공간이 더 이어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우협시보살의 오른쪽 팔이 결실되어 보이는데, 오른쪽으로도 바위가 더 연결되어 있다가 붕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측면에서 보면 우협시보살의 광배 부분은 분명히 일부 결손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른쪽 팔 부분은 이미 오른쪽의 바위면 경사가 안쪽으로 꺾여 있고, 이것을 의식하여 오른쪽 팔도 측면에 새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이 침식되어 마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위가 바위면의 오른쪽으로 일부 더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박락된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바위는 조각을 하기에는 매우 거친 암질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마치 경주 남

산 삼릉계 마애석가여래좌상처럼 불두 부분은 비교적 고부조로 조각하고, 하체로 내려올수록 저부조로 처리하고 있다. 저부조로 처리한 부분은 그마저도 마멸되어 하체 부분은 본존불의 결가부좌한 하체의 윤곽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본존불 불두 좌측면>

<본존불 오른팔 세부>

<마애불 반측면>

마애불의 도상은 본존불은 좌상, 좌우 협시보살은 입상인 삼존불 구성이다. 본존불은 오른손은 들어 설법인을 하고 있지만, 왼손은 박락이 있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다만 전체적인 윤곽은 선정인에서의 왼팔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즉 손바닥을 위로 하여 배 앞에 두고 있는 수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마애불에 대하여 약사여래라고 지칭하는 것에 의하면 이 왼손바닥 위에 약함이 들려 있어야 하지만, 현재 약함을 들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마애불을 약사여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좌우 협시보살의 정수리에 있는 둥근 원반장식을 해와 달로 보고 이들 보살을 일광·월광보살로 보면서 본존을 자연스럽게 약사여래로 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협시보살입상 전경 (붉은선은 본존불의 우측면 윤곽선)> <우협시보살상 우측면> <우협시보살상 보살두 세부>

본존불은 육계가 낮고 안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풍만한 모습이다. 이목구비는 마모가 심하지만, 옆에서 볼 때 코 옆으로 불과 이루는 움푹 패인 윤곽선과 입술의 양감은 잘 남아 있고 턱 아랫부분이 돌출된 부분 등 원래는 입체감이 잘 살아난 조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귀도 매우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꺾불의 살집이 잡힌 부분은 잘 남아 있는 편이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착의법은 다른 옷주름선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오른손의 설법인 팔뚝 아래로 늘어진 소매자락을 통해 통견착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손목을 중심으로 소매가 바깥으로 흘러내린 것과 손목 안쪽, 즉 배 쪽으로 흘러내린 것을 구분하고 소매 일부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가슴 아래, 복부를 덮고 흐르는 가사의 끝단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듯한 옷주름이 보인다.

오른손 설법인은 흐릿한 윤곽이지만 엄지와 중지 끝은 맞대 범륜을 형성한 수인으로 보인다. 그 외의 다른 표현은 가부좌한 두 다리의 무릎까지의 윤곽선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이 하체 부분에 조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조각을 하다가 미완성으로 중간에 방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본존불의 무릎은 희미한 윤곽으로만 남아 있지만, 좌우로 매우 넓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좌상의 본존불의 육계 정수리 끝에서 양쪽 무릎 끝을 이어보면 밀변이 긴 이등변 삼각형의 윤곽선을 이룬다. 특히 이렇게 무릎이 넓게 펼쳐지다 보니 좌우의 협시보살은 양쪽 무릎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 보살의 무릎 정도부터는 본존불의 무릎에 가려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협시보살이 본존불의 뒤편에 위치하여 무릎이 가려지게 한 것은 몇 가지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바위의 생김새 자체가 아래쪽은 돌출이 되어 있어 이것을 다 깎아내고 보살상을 새기는 것보다는 돌출된 부분을 본존의 무릎으로 놔둔 것이다.

둘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살상은 무릎 위만 새겨도 되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두 협시보살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존불과 더 거리를 두고 서 있게 하려면 바위면의 공간이 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럴만한 공간이 없으므로 본존불에 가깝게 서있게 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제작상의 편의성보다도 불상을 보살상이 가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깊게 배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하 보살상을 살펴보면서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우협시보살상 수인 세부>

<우협시보살상 하의 착의>

<좌협시보살입상 전경>

협시보살은 표현양식은 대동소이하나 우협시가 더 잘 남아 있고 좌협시는 마모가 더 심한 편이어서 세부 관찰이 어렵다. 더 잘 보이는 우협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주목되는 것은 둥근 원반장식이 달린 정수리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보관에 특징적인 상징물이 표시되어 관음보살이나 세지보살 등 존명을 구분하게 되는데, 어물동 마애불의 경우는 보관이 아니라 정수리에 높게 묶은 상투에 이 원반이 달려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마 앞에도 둥근 장식이 붙어 있어 이 안에도 어떤 상징적 조형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정수리 부분에 달려있는 원반이 더 크고, 다른 보살상들의 보관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일(日)·월(月)을 상징하는 일광·월광보살만의 상징성을 넣으려고 의도했다면 이 부분에 표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생략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붉은색 원반이 태양, 흰색 원반이 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상세하게 표현되는 경우는 붉은 원반 안에 삼족오, 흰 원반에 두꺼비(혹은 토끼)가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물동 마애불과 같은 마애불의 경우는 채색으로 해와 달을 구분하거나 그 안에 동물을 그려 넣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원반만 표현하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원반 안에 미세한 선각 등으로 해와 달을 부

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육안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다. 혹시 이 마애불을 완전한 목조 전각으로 덮어 일반적인 목조 건축 법당처럼 만들었다면, 마애불 표면에 채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 자체를 둥근 해와 초승달을 위아래로 결합한 일월식 보관으로도 볼 수 있다.

얼굴은 다소 방형에 가까운 둔중한 윤곽이며, 이마 위로 타래진 머리카락이 보관 아래로 보인다. 양쪽 눈 위의 눈썹은 활 모양으로 M자를 뚜렷하게 그리고 있다.

두 협시보살은 각각 본존불을 향한 쪽 손을 가슴높이로 들어 올렸는데, 손등을 바깥으로 하고 손바닥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나머지는 구부린 손 모양이고, 반대편, 즉 바깥쪽 손은 아래로 늘어뜨렸는데, 좌협시는 손등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엄지와 중지 혹은 검지를 맞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말아쥘 듯하고, 우협시는 손바닥을 편 채 허벅지에 붙인 듯한 모습이다. 우협시보살의 왼손 손목에는 장식이 없는 띠 모양의 팔찌를 착용한 것이 보이는데, 아마 오른손 및 좌협시보살의 경우도 이러한 팔찌를 착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착의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상체에는 천의를 걸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하체에는 허리를 묶은 띠와 여기서 가운데 부분에서 매듭을 짓고 아래로 늘어뜨린 옷자락 하나가 늘어뜨려진 것이 보인다. 양쪽 허벅지 쪽으로도 선각이 일부 남아있는 것 같지만, 형태를 알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릎 아래로는 본존불의 가부좌한 무릎에 가려져 있다.

○ 내용 및 특징

어물동 마애삼존불은 우선 1불 2보살의 삼존구성인데, 본존불이 좌상인 점이 특징이다. 이런 구성은 삼국시대 삼존불에서도 보이고, 또 마애불의 경우 불상 단독으로 새겨질 때 불상이 좌상인 경우는 여러 예가 있지만, 마애삼존불 구성에서 이처럼 “본존 좌상+보살 입상”의 사례는 흔치 않은 편이다. 통일신라 초기의 영주 가흥리 및 신암리의 마애불이 그러한 예에 속하고, 경주 남산 칠불암의 존상들 중에서 암벽에 새겨진 삼존불도 이러한 조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이 어물동 마애불이 다시금 이 도상을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식적으로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로 보고 있어서 영주 가흥리 및 신암리 마애불에서 시작하여 칠불암 삼존불을 거쳐 어물동 마애불로 이어지는 계보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 도상 자체가 드문 것은 아니지만, 마애불로는 드물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마애불로서 이와 같은 삼존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조각과 회화를 구분해서 볼 때 고려 불화 이후의 사례에서는 삼존 구성일 때 “본존좌상+보살입상”의 구성이 기본적인 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상 구성은 조각사에서는 비교적 부차적인 도상이지만, 회화사에서는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현

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존좌상+협시입상 마애삼존불의 예-
좌로부터 영주 가흥리 마애불, 영주 신암리 마애불,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삼존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래 좌상은 야외공간을 암시하는 마애불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도상이었지만, 좌상이 사용된 마애불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지붕을 덮어 법당 내부 공간과 동일한 공간으로 간주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물동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 위와 뒷면에 있는 목조 부재의 결구 흔적들은 이 마애불이 단순한 감실 형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당 구조물 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한다.



<어물동 마애불 암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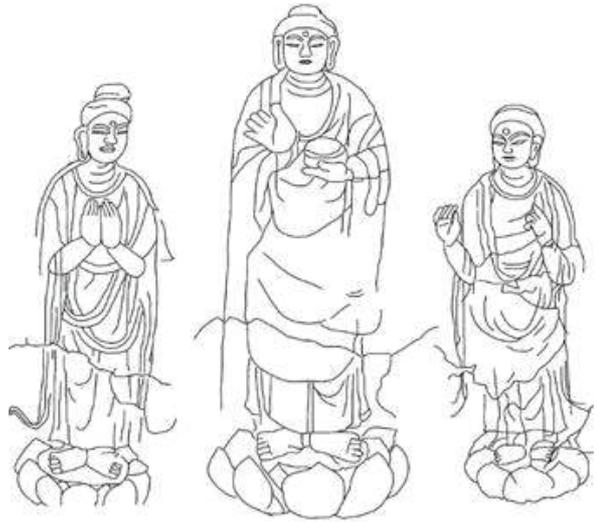
<어물동 마애불 암반 측면>

또한 어물동 마애불의 협시보살은 본존불의 바깥쪽 좌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존불 무릎 뒤에 위치한다. 혹자는 이것을 협시보살의 무릎 이하가 생략된 것이라고 하지만, 본존불의 소매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협시보살이 서 있는 공간까지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궁 월지 출토 금동판 아미타삼존불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동궁 월지 출토 삼존불은 비록 보살상의 하체 전체가 본존불의 무릎 뒤에 위치한 것은 아니고 본존불을 향한 안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살짝 가려진 정도이지만, 이처럼 협시보살이 본존불의 뒤에 서있는 개념은 동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시보살은 본존불의 앞에 서 있어서 오히려 협시보살에 의해 본존불의 무릎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처럼 보살을 뒤에 위치하게 한 것은 그만큼 본존불을 가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생각되며, 이처럼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겹쳐서 표현할 때 보살이 뒤로 가도록 하는 것은 고려~조선시대 불화에서 앞에 위치하도록 한 것에 비해 더 고식(古式)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케 한다.



<동궁 월지 출토 금동아미타관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불>

끝으로 이 마애불은 약함(藥函)이라는 약사불의 특징적인 지물이 없이도 약사불로 지칭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보살상의 띠 모양의 보관 정면에 있는 동근 장식과 보계에 달린 커다란 원반 장식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일본 나라 도다이지 법화원의 일광·월광보살상과 야쿠시지 금당 약사삼존상의 두 협시보살상의 사례가 지정 신청서에서 비교 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나, 야쿠시지 금당 협시보살의 경우는 이러한 위·아래 동근 원반이 달린 보관이 꼭 일광·월광보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법화원 일광·월광보살상의 꽃잎 같은 동근 장식 역시 일·월을 상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방어산 마애불의 경우나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기에 새겨진 약사삼존의 경우도 좌우 협시보살이 일광·월광보살의 특징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사삼존불의 경우 협시인 일광·월광보살의 보관 표현에 주목하고 있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정말로 보관에 일·월을 상징하는 조형을 넣어 표현한 것인지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앞서 도다이지나 야쿠시지의 경우 분명한 일·월 표현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13세기 도상집인 『아사박초』에 의거하여 일광·월광보살이

손에 연꽃줄기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그 끝이 연꽃이 아니라 둥근 원반이고 그 안에 해와 달이 그려진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광·월광이 보관의 형태로만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기 약사삼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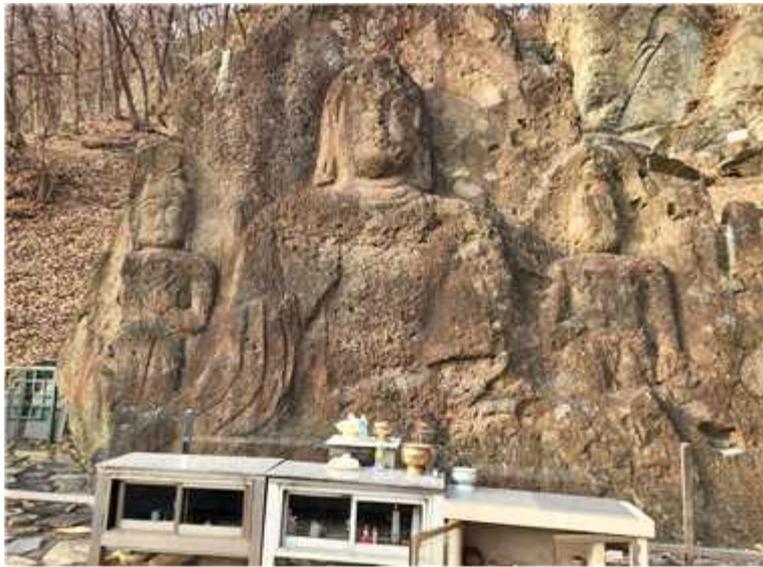
<보스턴미술관 소장, 조선 16세기,
약사십이신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전기의 약사불회도에 등장하는 협시보살에서와 같이 보관 위에 둥근 장식을 달고 해와 달을 상징하는 조형을 넣어 일광·월광보살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물동 마애불 협시보살의 보관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관의 일·월 장식으로 약사불의 협시를 표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지만, 만약 어물동 마애불이 정말로 약사삼존불이라면, 보관에 원반을 달아 해와 달을 표현하여 일광·월광보살을 표현한 이른 시기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양식적으로도 그 시기가 통일신라 후기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일광·월광보살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현 상

울산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122번지의 ‘방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자연 암벽 위에 돌을새김으로 새겨져 있으며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폭 10.4m, 높이 7.0m의 반원형에 가까운 암벽은 삼존불의 광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애불 바위 상단 좌우에는 좌측에 2개, 우측에 3개의 ‘ㄴ’자형의 홈이 확인되어 별도의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1. 울산 어물동 마애삼존불>

이 마애불은 좌상(坐像)의 본존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立像)의 협시보살상이 배치된 삼존불이다. 본존불 크기는 높이 567.5cm, 무릎 너비 417.0cm이고, 좌우 협시보살상은 각각 높이 417.4cm, 397.2cm이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며, 특히 신체의 하단부와 얼굴의 손상이 매우 심하여 세부표현을 확인하기 어렵다.

본존불은 결가부좌의 자세에 신체에 비해 큰 얼굴이 특징이다. 고부조(高浮彫)의 얼굴에는 도톰한 볼과 길게 늘어져 어깨까지 닿도록 귀를 표현하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보인다. 눈, 코, 입은 거의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윤곽으로 보아 본래는 양감 있는 얼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신체 또한 마모가 심하나,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팔 아래로 늘어지는 U자형 옷주름의 흔적으로 볼 때 양어깨 위로 대의를 두른 통견의(通肩衣) 착의방식으로 보인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하였다. 왼손은 아랫배 부근에 올리고 있는데, 본래는 약합과 같은 지물(持物)을 받쳐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협시보살은 높은 보관(寶冠)을 쓰고 정면을 향해 서 있으며, 신체에 비해 유난히 머리 부분이 길고 크게 표현된 점이 특징이다. 본존의 오른쪽에 위치한 우협시 보살은 오른손을 아래로 내렸으며, 왼손은 가슴 부위로 들어 손가락을 구부렸다. 좌협시 보살은 우협시 보살과 대칭으로 오른손을 들어 가슴 앞에 두었다. 두 보살의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중앙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 원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약사여래의 협시보살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을 도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물동 마애불은 본존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협시로 둔 마애약사여래삼존불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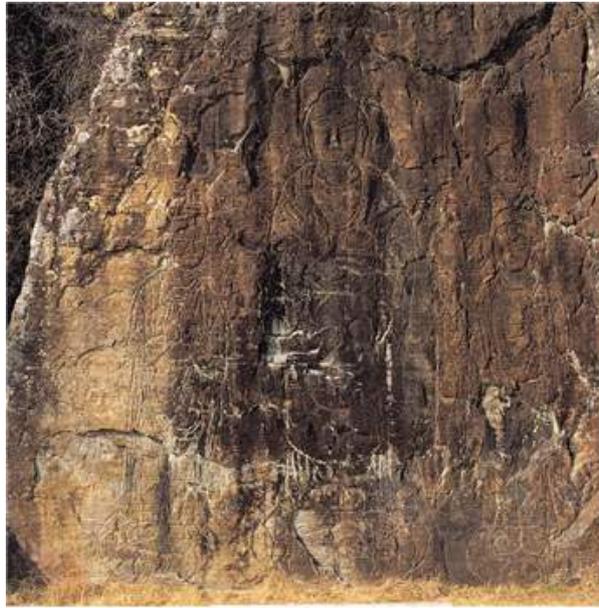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어물동 마애불은 좌상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협시보살을 배치했는데, 이러한 형식의 삼존불은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 영주 신암리 마애불, 경주 남산 칠불암의 삼존불 등 통일신라 초기에 조성된 삼존불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술했듯 어물동 마애불은 머리 보관 중앙에 해와 달이 표현된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협시한 것으로 보아 본존은 약사여래로 추정된다. 『약사여래본원경(藥師如來本願經)』에 따르면 약사불의 동방 유리광정토세계는 아미타불의 정토와 같고 그 좌우에는 일광과 월광의 두 보살이 있으며, 권속으로는 12신장을 거느린다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사불이 처음 제작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7세기 중엽부터는 약사불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8세기 중엽 이후 다수 조성되었다. 8세기 중엽 조성된 작품으로는 경주 굴불사지 동면 약사여래좌상, 경주 남산 칠불암 동면 약사여래좌상, 경주 남산 미륵곡의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의 광배 뒷면에 조각된 선각약사여래좌상 등이 있다. 이들 약사여래좌상은 모두 약합을 들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약합을 든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협시를 배치한 약사여래삼존불은 801년 조성된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과 863년 제작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탑 출토 금동사리외함에 새겨진 약사여래삼존상 등이 있다.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은 바위에 선각된 불상으로 본존인 약사불입상은 약합을 들고 있으며, 협시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본존을 향해 비스듬히 선 채 합장을 하고 있다. 한편 863년 제작된 약사여래삼존상은 민애왕(敏哀王, 재위 838~839)을 위하여 건립했다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속에 넣었던 금동사리외함의 네 벽에 선각된 사방불 중 하나이다. 이 약사여래삼존상은 가운데 약그릇을 든 약사불좌상을 두고 그 좌우에 입상의 보살상이 배치된 사례로 어물동 약사여래삼존상과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도2.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보물)>

즉, 울산 어물동 마애불상은 좌상의 본존을 중심으로 입상의 보살상이 협시했다는 점에서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 영주 신암리 마애불, 경주 남산 칠불암의 삼존불 등과 유사성을 보이며, 약합을 든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일광, 월광보살이 좌우에 협시했다는 점에서는 함안 방어산 마애약사여래삼존불입상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의외함에 새겨진 약사여래삼존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삼존불의 형식 및 약사여래삼존불의 도상적 특징을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얼굴 부분을 고부조(高浮彫)로 두드러지게 표현한 조각 수법, 불신(佛身)에 비해 얼굴이 큰 비례, 좌상의 본존불과 입상의 보살상 형식, 그리고 신라 하대 약사 신앙의 유행이 확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어물동 마애약사여래삼존상은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3.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기 약사삼존>

다만, 삼존불이 모두 마멸이 매우 심해 세부 도상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되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삼존불, 경주 굴불사지 사면석불 등에 비해 조각기법이 정교하지 못하며, 신체의 양감이 떨어지고 신체비례도 다소 어색한 편이다. 또한, 마애불 주위에는 많은 기와 조각이 있고, 암석 뒤편에 연목을 걸쳤던 자리로 추정되는 홈이 파여 있어 이전 시기에는 마애불을 보호하는 역할의 전각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마애불의 조성 배경이나 이후의 역사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본 마애불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 발굴 및 역사 자료 확보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로서 보물 지정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

가. 검토사항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05.11.7. 지정)
- 명 칭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장륙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장육사1길 172, 장륙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46.0×259.5cm, 화면 227.0×231.0cm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군도 형식의 족자
- 조성연대 : 1764년(조선 영조 40)
- 제작자 : 두훈(杜訓), 재옥(在玉), 전수(典秀), 성충(聖攄), 자희(自希), 탈윤(脫潤), 서잠(瑞岑), 지한(智閑), 인성(忍成)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화면 하단에 기록된 화기를 통해, 1764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와 장륙사라는 봉안 사찰, 영산회라는 그림의 주제, 그리고 당시 불화 제작에 참여한 다양한 소임자와 불화를 그린 화사들까지 그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원래의 봉안 사찰에서 제작 당시의 목적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신앙되어 오는 과정에서 자연적·인위적 퇴락과 손상은 확인되지만 크게 변형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 보존되고 있어 장황 형식, 배첩 방식, 안료 등 미술사적 이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장륙사 영산회상도 제작을 이끈 수화승 두훈은 18세기 의겸과 더불어 조선 불화 화단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임한파에 속한 화승이다. 처음에는 중부권에서 활약하던 칠혜의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1759년 양산 통도사 단청 불사를 계기로 임한의 화풍을 접하고 임한의 화풍에 젖어든 것으로 이해된다. 두훈은 임한파 화승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화승이자 임한의 작풍을 잘 계승하면서 자신의 색채를 가미하여 18세기 후반기를 불교 화단을 이끈 대표적인 화승이다. 이 작품은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한 본존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하나의 회상을 이루는 영산 회상도로, 좌우 대칭의 엄격한 질서적 배치 구도가 주는 경직됨을 보완하고자 중간 권속부터 원형 구도를 응용하여 화격을 높이고 있다. 색조는 적녹의 강렬한 보색 대비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중간색조의 색을 時宜適切하게 설채하여 높은 화격을 더하고 있다. 이 작품은 두훈이 수화승으로서 참여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자 대표작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3호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는 화면 하단 중앙의 畫記를 통해 수화승 두훈(料訓)을 비롯하여 총 9명의 畫員이 1764년에 제작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석가모니의 상호 표현이나 색채 사용, 괘불화에 주로 사용되던 범자문과 장황 부분의 마름모꼴 문양 등에서 1767년에 통도사에서 괘불화를 제작한 料訓의 화풍을 엿볼 수 있다.

본 불화는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양식을 대표하는 불화일 뿐만 아니라, 당시 영남지역에서 큰 축을 담당하던 任閑의 화풍을 이은 料訓, 再玉, 典秀, 聖攄으로 연결되는 불화승 계보와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참고로 두훈이 참여한 작품으로는 먼저 강원도 건봉사에서 조성한 국청사 감로도(1755년, 현재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소장)가 있으며, 본 지정 대상인 장륙사 지장도(1764년), 장륙사 영산회상도(1764년), 대적사 천룡신중도(1765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범주사 괘불도(1766년), 통도사 괘불도(1767년), 수다사의 시왕도와 사자도(1771년, 현재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통도사 팔상도(도솔래의상, 1775년) 등이 현전하고 있다.

이처럼 화승의 교류에 관해서 영남권과 강원권의 연결고리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寶物)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제작 화승 두훈이 수화승으로 작업한 첫 작품으로 두훈의 화풍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며, 그의 가장 두드러진 화풍 특징인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화문 장식을 사용한 회화기법과 짜임새 있는 구도를 보여주는 공간 처리 방법 등을 통해서 그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상도이다.
-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영산회상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불화로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임한이 그린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34년) 구도를 토대로 경상도 영산회상도 화풍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한 두훈의 화풍을 보여준다. 원형 이중 광배와 화려한 화문을 장식한 광배 장식 문양 등이

경상도 지역에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과정과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선구적 작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이 불화는 건륭 29년 갑신(1764)에 장륙사 대응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이다. 화기에 ‘新畫成靈山會’라고 기록하고 있어 석가모니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 장면을 묘사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을 그릴 당시 주체인 연화질에는 증명, 송주, 공양, 지전, 화주, 별좌, 도감, 삼강, 화원에 이르기까지 불화 제작에 참여한 역할과 소임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이 불화는 제작 이후 修理와 큰 변형 없이 화면과 축, 회장과 변아, 배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변의 회장에는 녹색 바탕에 백색의 보리수 꽃²⁸³⁾이 시문되었고, 좌우 변아에는 梵字圓文으로 각각 五輪種子, 入悉地, 出悉地 등 15字의 복장 진언을 적어 넣어 격식을 갖추었다.

중앙에 크게 석가모니불을 배치하였다. 그 주위로 10위의 보살과 10대 제자, 제석·범천, 4위의 타방불, 팔금강, 왕과 왕비 등이 큰 원을 그리며 에워싼 형식이다. 화기는 화면의 하단 좌우측 2곳에 기록하였다. 왼쪽에는 제작 시기와 봉안 사찰과 연화질을, 오른쪽에는 시주질을 기록하였다.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권속들이 둘러싼 형식은 조선 후기 불화에서는 일반적인 배치 구도이다.

화면 하단 좌우측에 청색과 황갈색 채색 구름을 배경으로 사천왕상이 약간의 원근감을 유지한 채 거의 수평배치법으로 배치하였다. 사천왕은 눈을 굴리며 도량을 옹호하는 위협적인 자세로 표현되었다. 화면의 좌측에는 북방 다문천과 동방 지국천왕이 배치되었고, 화면의 우측에는 서방 광목천과 남방 증장천이 배치되었다. 북방 다문천왕은 합장을 하였고, 지국천은 보검을, 남방 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서방 증장천왕은 당과 보탑을 들고 있다. 사천왕상이 화면의 하단에 좌우

283) 통상 학계에서 불화의 회장에 그려진 사업의 꽃무늬를 마엽문으로 불렀다. 그러나 불화가 갖는 상징과 성격을 생각하면 사업문은 불교의 상징수인 보리수 꽃잎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으로 배치하는 형식은 좌우 상하로 배치하는 형식 보다는 덜 애용된 배치 방식이지만, 18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의겸파와 임한파의 작품에서는 더러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북방 다문천왕을 합장인으로 등장시킨 것도 의겸파와 임한파의 작품에서 확인되므로, 두 화파 간의 교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도1.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도2. 화기>

석가여래의 양대 보살인 문수와 보현은 석가여래의 무릎 바로 아래쪽에서 측면관을 하고 서 있다. 문수는 여의를 들었고, 보현은 연봉을 들었다. 여의는 17세기 대부터 문수보살의 지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의겸파와 임한파가 그린 영산회상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좌우로 지그재그로 단체 사진을 찍듯 10위의 보살과 제석과 범천, 아난과 가섭, 타방불, 왕과 왕비, 팔금강 등 회상에 참여한 수많은 권속들을 위계에 맞춰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위계가 높은 불, 보살, 존자는 녹색 두광을 갖추었고, 이들에 비해 비중이 낮은 권속들은 광배 없이 표현되었다. 10위 보살 중 4위의 보살은 경권과 금강저, 백련과 백련 위에 경책을 올려놓은 지물을 쥐었고 나머지 보살상은 여래를 향하여 합장하거나 대중을 향해 합장하였다.

본존은 낮은 육계에 둥근 정상계주와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가지고 있다. 계주에서는 서광이 발하고 있다. 파배기처럼 애교스럽게 처리한 앞머리가 특징적인데, 이러한 머리 모양은 범주사 괘불(1766년)과 통도사 괘불(1767년)에도 적용되고 있다. 둥글넓적한 얼굴에 적절한 크기의 코가 균형을 잡으며 단정한 이목구비를 구현하였다. 눈썹은 상큼한 풀잎처럼 연출하였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는 하얀 점을 찍어 백호를 나타내었다. 눈은 반개하여 침잠한 표정이며, 콧날은 반듯하게 내려와 둥근 콧방울로 이어지고 있다. 입은 작고 도톰하며 입술 끝을 조그맣게 뒤집어 열은 미소를 연출하였다. 턱수염은 3가닥의 수염이 ‘川’ 모양으로 처리하여 S자형으로 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염과는 다르다. ‘川’자형의 턱수염은 1767년

작 통도사 괘불탱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두훈의 표식이 되고 있다. 파배기처럼 토실토실하게 빗질한 앞머리와 입가를 뒤집어 표현한 입술의 표현, 川자형 턱수염은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의 석가여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좀 더 도식화된 모습으로 처리하였다. 귀는 길게 늘어졌으며, 콧불이 밖으로 외반되었다. 세부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상호의 표현은 임한이 수화승으로 그린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년, 보물) 본존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본존불의 어깨는 시원하게 드러낸 목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긴장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향마촉지인을 결한 오른손은, 엄지를 살짝 벌리고 나머지 4指를 오므린 형태로 표현하였다. 수평으로 처리한 긴장한 어깨선과 4지를 오므린 촉지인은 고성 운흥사 영산회괘불탱(1730년, 首 의겸, 보물),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34년, 首 임한, 보물) 등 18세기 전반기에 이미 등장하는 것으로 이 불화는 이러한 앞선 시기의 시대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광배에는 화려한 색감으로 연화넝쿨문을 시문하였다. 연화넝쿨문의 연꽃은 연꽃위에 석류동, 향아리, 돌레주화, 녹화로 구성된 연화머리초의 형태를 보인다. 연화머리초를 응용한 넝쿨무늬는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 중 영산회상도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다. 이와 같은 頭·身光에 화려한 꽃 넝쿨 문양을 시문하는 경우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광배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불화에서는 17세기 제작된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2년, 보물)의 身光,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탱(1649년, 보물)의 身光, 안성 청룡사 영산회괘불탱(1658년, 보물)의 頭光,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1687년, 보물, 身光)의 신광 등 대형의 괘불도에서 널리 수용되어, 18세기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1703년, 보물)의 두광과 신광,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1727년, 首 白基) 등을 거쳐 광배의 주요 시문 방식 중 하나로 전개되고 있다.

대의 깃에는 광배와 같이 연화머리초로 시문되었고, 균의는 녹화갈모금문으로 변화를 주었다. 균의 녹화갈모금문 역시 임한과 불화승들이 균의에 즐겨 사용하던 문양이다. 대의의 주문양으로는 구름원문이 사용되었다. 구름원문은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8년 작)의 시원하게 베풀어진 구름원문에서 좀 더 밀도가 높아진 모양이다. 이곳의 문양은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1730년, 首 의겸)과 곡성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30년, 수 채인)에서도 보이며, 1734년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首 임한), 1740년 통도사 극락전 아미타설법도,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7년, 수 임한)에서 사용된 주문양과 동일한 계통이다. 두훈 등 장륙사 화원들이 주로 임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畫業을 해왔기 때문에 의겸 보다는 임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구름 원문의 전개 양상이 단순에서 복잡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한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이지만, 의겸과의

교유 관계도 확인된다. 즉 임한이 수화승으로 그린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40년, 수 임한) 주존과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1730년, 首 彩仁)의 주존이 같은 밑그림을 토대로 그려졌음이 확인된다.²⁸⁴⁾ 따라서 두 화파의 화승들이 비슷한 시기에 영남과 호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경쟁과 교류를 통해 발전하였으므로 그림의 도상과 양식에서 상호 관련성이 엿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대좌의 구성은 크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쪽은 방형으로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었다. 하대와 상대에는 소용돌이문이 시문되었고, 중대를 중심에 두고 위·아래에서 양련과 복련이 마주 보게 그렸으며, 중대에는 소용돌이와 화문, 녹화문으로 이루어진 길상문을 시문하였다. 이곳의 대좌의 구성과 형태, 문양은 임한이 수화승으로 그린 울산 석남사 영산회상도(1736년)의 대좌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사천왕상 4위는 최하단 좌우 모서리에 거의 수평으로 배치되었다. 본존불의 팔꿈치 아래로는 양대 보살을 비롯한 보살과 가섭과 아난존자가 자리하였고, 어깨 부위에는 제자 4위와 타방불 2위가 좌우에 각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육계가 큼직하게 돌출한 타방불의 형상과 타방불 사이에 제자 1위를 둔 모습이다. 그 위에는 왕과 왕비, 팔금강이 구름 속에서 불법을 찬탄하고 있다. 육계가 바위처럼 우뚝하게 솟은 타방불의 형상과 홀을 든 왕과 합장한 왕비를 두광 좌우 구름 속에 배치한 모습도 임한의 작품에서도 한결같이 등장하는 인물 표현과 배치 방식의 특징이어서, 두훈의 화맥이 임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타방불의 우뚝하게 솟은 독특한 형태의 복발형의 육계는 1693년 천신 작여수 홍국사 영산회상의 6위의 타방불 중 4위가 이러한 육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겸파와 임한파의 화승들에게도 이러한 도상이 전승되고 있다.

대좌와 광배에 화문과 소용돌이문, 대의의 구름원문, 옷깃과 광배 등에 시문된 다양한 금문과 연화머리초 등은 그가 인물의 묘사와 구도, 그리고 문양의 시문 등에서 임한의 영향 속에 있는 화승임을 알 수 있고, 임한의 작품을 탐구하며 그의 화풍과 화맥을 잘 이어가고 있음을 장륙사 영산회상도와 통도사 괘불탱 등 두훈의 작품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훈은 임한의 화풍을 계승한 임한파 화승이다. 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임한의 화풍을 잘 계승하면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화풍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곳에 새겨진 문양은 단청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으로, 수화승 料訓은 1759년 양산 통도사 단청 불사를 이끌었던 만큼, 불화에도 단청의 문양과 소재도 폭넓게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료층은 비늘처럼 갈라져 있고, 오염도 군데군데 끼여 있다. 제작 이후 큰 변형 없이 원래의 장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인공인 여래를 돋보이게 배치하고 권속들은 여래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안정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수

284) 최엽,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보물 조선불화』 I, 문화재청, 2021, pp.174~175.

직으로 상승하며 원근법이 적용되고 있고, 구도는 원형 구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 등은 1734년 임한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의 도상과 양식, 인물의 구성과 구도를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다. 1736년 작 석남사 영산회상도 역시 임한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렸으나, 인물의 표현과 설채법과 선묘 등은 1734년 작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등장인물의 구성과 구도의 변화를 주었다. 석남사 영산회상도는 본존불을 중앙에 두고 권속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형 구도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중앙의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ㄷ’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천왕상의 배치와 지물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러모로 장륙사 영산회상도는 통도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를 잘 따르고 있다. 다만 통도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중앙에 크게 자리 잡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측 하단에서부터 인물들이 위계질서에 입각하여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질서 있게 배치하였으나, 장륙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도와 구성을 존중하되 권속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둥근 원을 그리며 수직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안정되고 균형 잡힌 구성력을 보여준다. 붉은색과 녹색의 빈도가 높은 색의 분포, 수평에 가까운 어깨와 시원하게 드러난 목, 단청 문양을 적용한 대의 깃 문양, 여러 가지 구름이 뭉쳐 이룬 독창적인 구름원문 등은 임한 작품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지만, 본존 중심으로 권속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형 구도는 임한의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이는 수화승 두훈 나름의 작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두훈이 본격적으로 임한의 화풍과 연관을 맺게 된 것은 1759년 임한이 수화승으로 주도한 통도사 단청 불사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 불사 이후 두훈은 통도사에서 포관과 함께 1775년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제작을 이끌었다. 그는 임한을 만나기 전에는 휴봉과 함께 국청사 감로도를 조성하였는데, 국청사 감로도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제작하여 남한산성 국청사에 봉안한 것이다.²⁸⁵⁾ 또 같은 해 태전을 도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를 제작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보면, 그는 처음에는 금강산과 설악산 등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1759년 통도사 단청 불사를 계기로 임한을 만나게 되고, 임한과 작업을 펼치면서 임한의 화풍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두훈은 1764년 장륙사 영산회상도부터 수화승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듬해(1765년) 북지장사 지장보살도를 시작하여 법주사 괘불(1766년), 통도사 괘불(1767년) 등 초대형 작품에 참여하였다. 끝으로 그는 1775년 우리나라 팔상도 중 가장 크고 표현력이 뛰어난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제작을 주도하였다.²⁸⁶⁾

285) 국청사 감로도 화기에 따르면, “乾隆貳拾年乙亥○月日金剛山乾鳳寺甘露會畢功仍安于南漢國清寺……”라고 기록되어 있다(『韓國의 佛畫 畫記集』, 정보문화재연구원, 1996, 975쪽).

286) 『2024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문화재위원회, pp.365~366.

<표1. 수화승 두훈의 활동>

| 연번 | 작품명 | 제작 시기 | 재질 | 크기(cm) | 화사 | 비고 |
|----|--------------------------|-------|------|-------------|---------------|-----------|
| 1 | 광주 국청사 감로도 | 1755년 | 견본채색 | 159×196 | 斗薰 2/5(首 携鳳) | 프랑스 기메박물관 |
| 2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견본채색 | 355.2×406.4 | 斗訓 8/10(首 泰巔) | 신흥사 보물 |
| 3 | 通度寺己卯年 改金幀畫丹腹事 施主記 | 1759년 | | | 斗薰 4/22(首 任閑) | 단청 화원 |
| 4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견본채색 | 181.5×179 | 料訓 3/9(首 典秀) | 장륙사 |
| 5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견본채색 | 228×230 | 杜訓 1/2 | 장륙사 |
| 6 | 청도 대적사 신중도 | 1765년 | 견본채색 | 77.3×68.8 | 杜訓 2/2(首 性聰) | 국립중앙박물관 |
| 7 | 보은 범주사 괘불도 | 1766년 | 마본채색 | 1,424×679 | 料訓 1/14 | 보물 |
| 8 | 보은 통도사 괘불도 | 1767년 | 마본채색 | 1,204×493 | 抖薰 1/14 | 보물 |
| 9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마본채색 | 136×212 | 抖薰 | |
| 10 | 구미 수다사 사자도 | 1771년 | 마본채색 | 128×111 | 抖薰 | |
| 11 | 직지사 불상 개금 | 1771년 | | | 料薰 7/9(首 尙淨) | |
| 12 | 양산 통도사 팔상도 | 1775년 | 견본채색 | 233.5×151 | 抖薰 | 보물 |

<표2. 영산회상도 참여 화원들의 활동>

| 화원 | 작품 | 제작 시기 | 참여 순위 | 수화원 |
|----------------|--------------|-------|-------|-----|
| 料訓(斗訓, 抖薰, 料訓) | 광주 국청사 감로도 | 1755년 | 2위 | 携鳳 |
|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8위 | 泰巔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1위 |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3위 | 典秀 |
| | 청도 대적사 신중도 | 1765년 | 2위 | 性聰 |
| | 보은 범주사 괘불도 | 1766년 | 1위 | |
| | 양산 통도사 괘불도 | 1767년 | 1위 | |

| 회원 | 작품 | 제작 시기 | 참여 순위 | 수회원 |
|---------------|-----------------------------|-------|-------|-----|
|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1위 | |
| | 구미 수다사 사자도1 | 1771년 | 1위 | |
| | 양산 통도사 팔상도 | 1775년 | 1위 | |
| 再玉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5위 | 泰巔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2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2위 | 典秀 |
| 典秀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1위 |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3위 | 料訓 |
| | 대구 동화사 신중도 | 1765년 | 2위 | 性聰 |
| 聖攄(性聰)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9위 | 泰巔 |
| | 광주 국청사 감로왕도 | 1755년 | 4위 | 携鳳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4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4위 | 典秀 |
| | 대구 동화사 신중도 | 1765년 | 1위 | |
| | 청도 대적사 신중도 | 1765년 | 1위 | |
|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2위 | 抖薰 |
| | 구미 수다사 사자도2 | 1771년 | 1위 | |
| | 영천 묘각사 아미타불상 개금 | 1775년 | 2위 | 抱冠 |
| | 강우상주목북운달산김룡사청하전이건대성암 상량문 | 1800년 | 시주질 | |
| 自希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5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5위 | 典秀 |
| 脫潤(脫閏)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6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6위 | 典秀 |
| | 양산 통도사 괘불 | 1767년 | 8위 | 抖薰 |
|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 1769년 | 8위 | 尙淨 |
| 瑞岑(惠岑: 지장시왕도)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7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7위 | 典秀 |
|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4위 | 料訓 |
| 智閑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8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8위 | 典秀 |
| | 보은 법주사 괘불 | 1766년 | 4위 | 料訓 |
| | 양산 통도사 괘불 | 1767년 | 10위 | 抖薰 |
| 忍成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9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9위 | 典秀 |

○ 문헌자료

<화기> 붉은색 화원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日慶

尙左道寧海府西嶺雲

棲山莊陸寺奉安于新畫

成靈山會

設道大功德主比丘 性閑 保体

證明比丘 勝仁 保体

性閑 保体

金魚山人比丘 料訓 保体

再玉 保体

誦呪比丘 思淨保体 典秀保体

月鵬保体 聖摠保体

戒琳保体 自希保体

敬訓 脫潤保体

供養比丘 保体

敏悟 瑞岑保体

持殿比丘 快日保体 智閑保体

化主比丘 瑞文保体 忍成保体

別座比丘 呂覺保体

都監比丘 最雲保体 淨桶居士 智坦保体

首僧 妙和

三綱 三補 宗運 保体

持殿 克順

施主秩

婆幘大施主 嘉善比丘 信寶保体

嘉善丁泰雄兩主 保体

嘉善李七奉兩主 保体

朴萬平兩主

基布大施主

大施主 嘉善金晚成兩主 保体

大施主 業武申處興兩主

大施主 朴神忞兩主 保体

大施主 千潤福兩主

大施主 李寧平兩主 保体

施主 嘉善金啓興兩主
 施主 業武白龍潭兩主
 保体
 施主 幼學李守敏兩主
 施主 通政朴俗邦兩主
 保体
 施主 崔大光兩主
 施主比丘 戒琳 保體
 比丘 致還 保體
 嘉善比丘 瀨堅 保體
 同生極樂之大發願

○ 기 타

1764년 영덕 장륙사에 대웅전 상단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로, 제작 이후 지금까지 제작 당시의 목적대로 봉안되어 오고 있는 불화이다.



○ 현 상

- 현재 대웅전 후불도로 봉안된 <영산회상도>의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 세부적으로 본존의 두광부 향 좌측에 약 12cm 정도의 바탕질 훼손과 안료의 박락이 확인되며, 화면 중간 석가의 대좌 아래쪽에 안료의 변색과 화면의 꺾임 등이 보인다.
- 화면의 좌우 끝부분이 잘린 흔적이 있으나, 화기의 기록은 온전히 남아 있다.
- 복장유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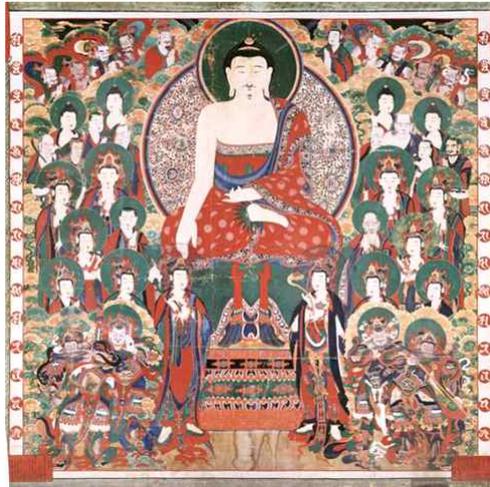
- 장륙사 대웅전(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8호) 내에 석가삼존불상의 후면에 봉안된 후불화(後佛畫)이다.
- 본 <영산회상도>는 석가가 영취산에서 여러 불·보살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본존 석가여래가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수와 보현보살을 포함한 열 명의 보살과 십대제자, 四位의 분신불,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중(神衆)들이 본존불을 중심으로 사다리꼴로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화면의 하단에는 사천왕이 여러 권속들을 호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면의 바깥 둘레에는 많은 범문을 써 놓았다.

- 1764년에 두훈을 비롯하여 총 9명의 화사가 지장시왕도와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아래 화기에 의하면 화사의 이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日慶尙左道寧海府西嶺雲樓山裝陸寺, 安干新畫成炁山會, 設道大功德主比丘性閑保体, 證明比丘勝仁保体, 性閑保体, 金魚山人比丘 料訓保体, 再玉保体, 誦呪比丘 思淨保体, 典秀保体 月鵬保体, 聖摠保体, 戒琳保体, 自希保体, 供養比丘 敬訓保体, 脫潤保体, 敏悟 瑞岑保体, 持殿比丘 快日保体, 智還保体, 化主比丘 瑞文保体, 忍成保体, 別座比丘 呂覺保体, 都監比丘 最雲保体, 淨桶居士 智坦保体, 三綱 首僧 妙和 三補 定運保体 持殿 克順 施主秩 婆頓大施主嘉善比丘信寶保体 嘉善丁泰雄兩主保体 嘉善李七奉兩主 保体 朴萬平兩主 基布大施主 大施主嘉善金晚成兩主保体 大施主□武申處興兩主 大施主朴神□ 兩主保体 大施主千潤福兩主 大施主李寧平兩主保体 施主 嘉 善金啓興兩主 施主□ 武白龍潭兩主保体 施主 幼學李守敏兩主 施主 通政朴 俗邦兩主保体 施主 崔大光兩主 施主 比丘戒琳保体 比丘致還保体 嘉善比丘保体 同生 極樂之大願
- 석가모니의 상호 표현이나 색채 사용, 괘불화에 주로 사용되던 범자문과 장황 부분의 마름모꼴 문양 등에서 두훈의 화풍이 완성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

○ 현 상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는 비단 바탕에 1764년 4월에 조성한 불화이다. 향좌측부터 31.0+40.0+40.0+40.0+39.7+40.0+29.5cm로 7폭을 이어 붙인 화면에 제작한 채색불화로 현재 대응전 정면 후불탱화로 봉안되어 있다.



<장륙사 석가여래회도, 1764년, 비단 채색, 224.0×230.0cm, 장륙사 대웅전>



<대웅전 봉안 현황>

장륙사 대웅전 상단탱화로 그려진 <장륙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명한 장면을 도해한 내용으로 커다란 원형 이중 광배를 갖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8대 보살, 10대 제자, 제석·범천, 사천왕, 용왕·용녀, 팔부중 등을 군도 형식으로 좌우 대칭 구도로 배치하였다. 석가여래는 원형 이중 광배와 수미대좌로 화면 정중앙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권속이 본존 좌우로 분리되어 있다. 화면 하단에 보현보살의 옆에는 동방 지국천왕과 남방 증장천왕, 문수보살의 옆에는 북방 다문천왕과 서방 광목천왕을 2위씩 나누어 배치하였다. 문수·보현보살은 연꽃과 여의를 들고 대좌 양옆에 측면관으로서 있으며, 광배 주위로 팔대보살과 정면을 향한 아난·가섭존자와 비교적 자유로운 자세의 10대 제자를 상체만 표현하였고, 화면 상단에는 용왕과 용녀, 그리고 팔부중을 좌우 대칭으로 자리하였다. 화면 좌우 화변은 약간씩 훼손되었지만,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를 두고 붉은색 원안에 흰색으로 적은 범자(梵字) 다라니를 양쪽에 각각 15자씩 두어 불화를 장엄하였다.

화면은 총 40위의 불보살을 비롯한 권속이 빈틈없이 표현되었지만, 석가모니의 상호를 비롯하여 여러 인물이 매우 수려한 얼굴 모습이고, 신체 표현의 비례가 적

절하여 매우 조화로운 화면을 형성하였다. 색채는 붉은색과 녹색을 중심 색으로 황토색, 청색, 흰색, 먹색 등 전통적인 채색을 사용하면서도 균청색으로 바림질하거나 천의와 광배 등에 화문(花紋)을 사용하여 불화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문양은 불화를 화려하게 구체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화면 상단의 팔부중과 화면 하단의 갑옷을 입은 호법신인 사천왕의 얼굴 및 피부는 강한 바림 채색으로 입체감을 잘 살렸고, 작은 지물까지 매우 정밀하게 묘사하였다. 부드러운 황색을 띠 바르고 녹색과 흰색으로 강조된 문계구름은 권속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여 공간감을 살리는 요소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권속이 많은 화면이지만 세밀한 붓질과 매우 적절한 비례구성으로 화면이 안정적이고 아름답다.



<광배 문양>



<팔부중 바림 채색>

불화 제작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적은 화기는 화면 좌우로 두 곳에 기록하였다. 향우(向右) 측에 제작 시기를 비롯하여 증명, 화승 등 연화질을 기록하고, 향좌(向左) 측에 시주질(施主秩)을 적었다. 대공덕주 성한(性閑)이 1764년 4월에 조성하여 장륙사에 봉안한 불화로 제작 화승은 두훈(料訓)을 수화승으로 재옥(再玉), 전수(典秀), 성총(聖摠), 자희(自希), 탈윤(脫潤), 서잠(瑞岑), 자한(智閑), 인성(忍成) 등 총 9명의 화승이 참여하였다.

화면 상태는 현재 화면 하단 대좌 아래로 심하게 얼룩이 생겨서 확인되며, 꺾임과 박락 등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는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된 대웅전 후불화로 봉안된 상단탱화이다.

장륙사 대웅전에 봉안된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과 전수가 현재까지 확인되는 작품 가운데 처음 수화승으로 각각 작업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두 불화는 대웅전의 상단탱화와 중단탱화로 같은 공간에 봉안되어 18세기 삼단탱화의 봉안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두훈이 처음 제작에 참여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1755년, 도1)와 같은 화풍으로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으로 발전한 차별화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불화는 구성과 색채, 문양 등 많은 친연성을 볼 수 있는데, 가로로 넓은 화면에 권속이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화면 상단 팔부중의 모습과 배치, 황색 구름, 수미단 등의 공통요소를 보인다. 그러나 커다란 배 모양 광배를 사용한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달리 두훈은 장륙사 영산회상도에서 화려한 화문이 가득한 원형 이중 광배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두훈은 이중 원형 광배에 화려한 화문(花紋)을 장식하거나 밝은 색채를 사용하면서 자신만이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입한 화승 이후 18세기 후반경에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전하는 이중 원형 광배와 섬세한 화문의 유행을 이끈 선구적 화풍이다. 그리고 1764년의 장륙사의 불화 제작에 참여했던 화승 가운데 두훈, 재옥, 성충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도 함께 작업했던 화승으로 이들은 이후에도 두훈과 여러 작품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어서 수화승으로 두훈이 작업한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가 그들의 고유한 화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그의 초기작인 1755년 <국청사 감로도>와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수화승인 휴봉(樞鳳)과 태전(泰巔)은 다른 작품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들의 화풍과 두훈의 초기 화연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두 불화의 증명은 청허 휴정의 범맥을 이은 대선사 천주(大禪師天柱)이다. 이 불화는 청허 휴정이 금강산 백화암에 거주한 인연과 금강산 건봉사에서 제작하여 감로회를 마치고 남한산성 내에 국청사로 이동하여 봉안하였다고 하므로 금강산에서 활동한 화승과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이 어렵다.



<도1.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1755년, 비단 채색, 335.2×406.4cm>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의 구도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구도를 이루며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작게 묘사되었다. 이 형식은 많은 권속을 배치한 영산회상도에서 권속의 위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성행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년, 도2) 이후 형성된 18세기 전반경 경상북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화풍으로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6년, 도2)에서부터 보이는 장식 문양이 세밀한 배 모양 광배[연관형 광배]와 넓게 벌린 향마촉지인 수인, 위로 솟은 육계와 정상계주, 원형 구도를 이루며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배치 등에서 경상북도 지역의 불화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들 불화는 세로로 긴 화면에 불·보살상이 엄숙한 표정과 균형 잡힌 신체 비례를 하고 화면에 가득 차게 표현된 구성을 통해 불보살의 위계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엄정한 종교화의 분위기를 구현하고 있다. 영산회상도는 조선 후기 18세기 본격적으로 대응전이나 영산전의 후불도로 봉안되면서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1688년)에서 보이는 영산회상도의 형식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승 임한(任閑)이 그린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1734년, 도3)로 이어진다. 임한이 작업한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는 커다란 배형 광배를 두고 수미단에 앉은 석가여래를 그렸는데, 권속의 구성 배치, 수미단 위에 넓게 펼쳐진 연꽃무늬가 새겨진 천을 늘어뜨린 대좌와 그 위에 표현된 낙영 등에서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와 많은 친연성을 보인다. 이러한 임한(任閑) 화풍의 수용은 두훈이 양산 「통도사 기묘년 개금탱화단확사시주기현판」(1759년) 기록에서 ‘丹青畫員 任閑 玉尙 守性 斗熏 思玉 浩心 義悅 守雲 尙心 成益 典守…’ 등의 내용으로 두 사람 사이의 교류가 확인된다. 통도사 단청작업에 참여한 두훈은 <통도사 영산회상도>(1734년)의 임한 작품을 습득하여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에 반영하였다.



<도2.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1686년, 삼베 바탕, 348.2×301.3cm> <도3. 양산 통도사 영산전 영산회상도, 1734년>

특히 크게 강조된 화면을 반으로 나누는 듯한 석가여래의 배치나 사천왕의 배치, 화면 상단의 팔부중 형태, 황색 채운, 본존과 권속의 크기 비례 차이 등은 매우 비슷한 구성을 따르고 있다. 다만, 중앙의 석가여래를 장엄하는 불꽃무늬가 그려진 이중 배형 광배가 화문이 가득한 이중 원형 광배로 변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도4. 보은 법주사 석가여래 괘불도, 1766년, 삼베 채색> <도5.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도, 1767년, 모시 채색>

두훈은 이후 <법주사 괘불도>(1767년, 도4)와 <통도사 석가여래괘불도>(1768년, 도5)에서 화려한 색채와 유려한 필선이 특출한 화풍이 완성되었다. 이 두 괘불도는 연화 줄기를 든 보살형 여래가 화면 가득 서 있는 간략한 구성으로 화면 가장자리의 범자문(梵字紋), 화려한 화문, 밝고 맑은 색채 등에서 그의 기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은 <법주사 석가여래 괘불도>(1766년)는 보관을 쓴 보살 형태의 독존도로 화면 전체에 석가여래가 원형 두광과 오금을 든 거신광을 배경으로 서있다. 1766년(영조 42) 5월에 두훈(杜訓), 광감(廣臧) 등 14명의 화원이 그렸다. 이 괘불도는 이듬해 9월, 두훈, 광감 등이 그린 <양산 통도사 괘불도>(1767년)의 모본이 되는 작품이다. 이 괘불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화려한 화문이다. 얼굴 상호는 영덕 장륙사의 것을 보이면서 화려한 화문 장식은 두훈의 화사한 색채감각을 잘 반영한다.

이처럼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는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영산회상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작품이면서도, 두훈이 수화승으로 작업한 첫 작품으로서 이후 <법주사 괘불탱>(1767년)과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1768년)에서 꽃피운 그의 화가적 역량의 토대가 되는 특징을 선구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다. 그리고 두훈의 화풍 연구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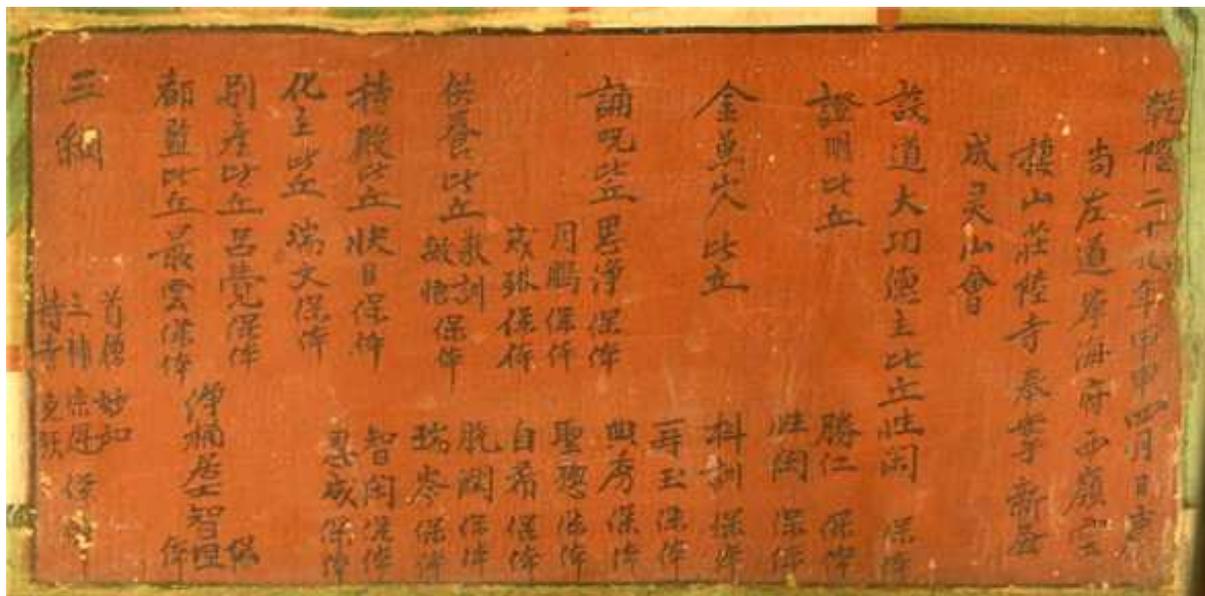
<표1. '두훈' 작업 현황>

| 연대 | 작품명 | 참여 내용 |
|-------|---------------------------|---|
| 1755년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泰巖 七惠 憍鳳 泰湘 再玉 義律 順明 斗訓 性聰 再性 |
| 1755년 | 광주 국청사 감로도 | 携鳳 再玉 斗訓 性聰 再性 |
| 1759년 | 양산 통도사 기유년개금탱화단확사시주기 | 통도사 대광명전 단청 任閑 玉尙 守性 斗熏 思玉 浩心 義悅 守雲 尙心 成益 典守 戒澄 自安 興悟 宜初 伊活 智玄 普演 自淨 太雲 |
| 1764년 | 영덕 장륙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 金魚山人比丘 料訓 再玉 典秀 聖口 自希 脫潤 瑞岑 智閑 忍成 |
| 1764년 | 울진 장륙사 대웅전 지장시왕도 | 金魚山人 比丘 典秀 再玉 料訓 聖摠 自希 脫潤 惠岑 智還 忍成 |
| 1765년 | 청도 대적사 신중도 | 良工 性聰 料薰 |
| 1765년 | 북지장사 지장보살도 | 料訓 |
| 1766년 | 보은 범주사 석가여래괘불도 | 金魚料訓 廣城允幸 智還 曇淑 法贊 淸習 聖岑 戒明 戒允 弘湜 善悟 法照 順宇 |
| 1767년 |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괘불도 | 敬畫 比丘抖薰 比丘性澄 比丘悅幸 比丘通益 比丘守性 比丘定安 比丘快定 比丘脫閨 比丘淸習 比丘智還 比丘志悅 比丘旻初 比丘奉正 比丘守一 |
| 1771년 | 선산 수다사 시왕도(1, 2, 3, 4, 5) | <第一秦廣大王> 良工比丘 抖薰 性聰 |
| 1771년 | 선산 수다사 사자도 | 畫員 比丘 抖薰 有鳳 |
| 1771년 | 김천 직지사 불상개금시주질 | 불상 개금 화원 |
| 1775년 | 양산 통도사 팔상도 | 華月堂 抖薰 □□ □□ □□ 有城 曉□ 定寬 □奉 志言 興悟 戒□ 第寬 學□ 大奉 副□ 靜□ 守佛 □□ 守擘 □□ 幸□ 廣□ 待□ 坦□ 若善 肯□□ 會□ 有仁 芭一 定玉 守旻 志悅 悟守 定淳 斗眼 尙悟 廣信 戒湜 厚文 |
| 1775년 | 양산 통도사 영산전 단청 | 華月抖薰 畫師抱冠 定聰 內監宇明 壬平 就澄 副畫師有誠 曉能 官再奉 志言 興悟 戒禹 策官 學演 大奉 仲一 靜坦 守仁 坦察 定眼 守擘 勝演 幸澄 廣益 □惠 坦悟 若善 肯悟 會漢 有仁 色一 定玉 旻守 志悅 悟守 |

○ 문헌자료

<화기 1> 향우(向右)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日慶」 尙左道寧海府西嶺雲」 樓山裝陸寺奉安干新畫」 成 靈
 山會」 設道大功德主比丘性閑保体」
 證明比丘 勝仁保体」 性閑保体」
 金魚山人比丘 料訓保体」 再玉保体」 典秀保体」 聖摠保体」 自希保体」 脫潤
 保体」 脫潤保体」 瑞岑保体」 智閑保体」 忍成保体」
 誦呪比丘 思淨保体」 月鵬保体」 戒琳保体」
 供養比丘 敬訓 敏悟保体
 持殿比丘 快日保体
 化主比丘 瑞文保体
 別座比丘 呂覺保体
 都監比丘 最雲保体
 淨桶居士 智坦保体
 三綱 首僧 妙和」 三補 定運保体」 持殿 克順



<향우(向右) 화기>

<화기 2> 향좌(向左)

施主秩

婆幘大施主嘉善比丘信寶保体」 嘉善丁泰雄兩主保体」 嘉善李七奉兩主 保体」 朴
 萬平兩主」

基布大施主

大施主嘉善金晚成兩主保体」 大施主業武申處興兩主」 大施主 朴神忞兩主保体」
 大施主 千潤福兩主」 大施主 李寧平兩主保体」 施主嘉善金啓興兩主」 施主業武白
 龍潭兩主保体」 施主 幼學李守敏兩主」 施主 通政朴俗邦兩主保体」 施主 崔大光

兩主」 施主 比丘戒琳保体」 比丘致還保体」 嘉善比丘 瀨堅保体」 同生極樂之大發願」



<향좌(向左) 화기>

○ 참고문헌

- 경상북도,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조사보고서」.
- 김경미, 「속초 신흥사 석가여래회도의 화맥 연구」, 『불교학보』 93, 2020.

○ 기 타

영산회상도의 화기에 제작 시기와 봉안처 등이 확인되며,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조선 사찰 대장에서도 대응전에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가 전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12.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

가. 검토사항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5.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05.11.7. 지정)
- 명 칭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장륙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장육사1길 172, 장륙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00.0×197.5cm, 화면 186.0×191.0cm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지장보살삼존과 시왕으로 구성된 군도 형식의 족자
- 조성연대 : 1764년(조선 영조 40)
- 제작자 : 전수(典秀), 재옥(再玉), 두훈(杜訓), 성충(聖攄), 자희(自希), 탈윤(脫潤), 혜잠(惠岑), 지환(智還), 인성(忍成)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1764년 장륙사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함께 기획되어 그려진 중단 불화이다. 정확한 제작 시기(1764년), 제작 주체, 제작자, 시주자 등이 모두 밝혀져 있고, 18세기 후반기의 화풍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수, 재옥, 두훈, 성충 등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화로서 이들의 작품 동향과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들 중 전수와 재옥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제작을 이끈 인물로, 현재 두 작품만이 현존하여 그의 활동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는 주로 강원 동해안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두훈과 성충, 탈윤, 지환 등이다. 이들 중 성충과 지환, 탈윤은 두훈과 함께 꾸준히 작품 활동한 화승들로 두훈과 마찬가지로 임한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전수와 두훈 두 화파가 합심하여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사찰 내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에서 화파 간 내지 참여 화원들의 분업과 협업 양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전반적인 도상과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포즈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과 채운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도 두드러진다. 특히 섬세한

붓터치와 바림 기법을 토대로 명부존상의 엄정함 속에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가미하여 자칫 지옥중생의 구제라는 무거운 주제로 보일 수 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 구제 이후의 즐겁고 유쾌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작자의 독창적인 표현력뿐 아니라 뛰어난 화격과 예술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기의 화파와 양식, 화승간의 분업과 협업, 승려와 불사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보존 과정에서 다소 간의 손상이 있지만 제작 당시 원형 그대로의 화면과 장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불교 회화사 뿐만 아니라 서화류(특히 불화)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면 하단 중앙의 畫記를 통해, 수화승 전수(典秀)를 비롯하여 再玉 料訓, 聖攄, 自希 脫潤 惠岑, 智還, 忍成 총 9명의 畫員이 1764년에 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의 지장보살삼존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시왕과 사자, 판관, 장군, 동자, 옥졸, 육광보살 등 총 31구의 존상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화면 상단부에 여섯 육광보살을 좌우 3위씩 배치한 도상은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한 도상이다. 그리고 채색은 녹색과 주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양식을 대표하는 불화일 뿐만 아니라,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수화승 典秀가 남긴 뛰어난 화풍의 작품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본 지정 대상 <지장시왕도>는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양식을 대표하는 불화이면서 당시 영남지역에서 큰 축을 담당하던 임한의 뒤를 이은 두훈, 재옥, 전수, 성충으로 구성되는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寶物)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영덕 장륙사 지장보살도[지장시왕도]의 제작 화승은 수화승 전수(典秀)와 보조 화승 재옥(再玉), 두훈(料訓), 성충(聖攄), 자희(自希), 탈윤(脫潤), 혜잠(惠岑), 지환(智還), 인성(忍成)이 참여하여 1764년에 제작한 작품이다.
- 화면 중앙에 높은 수미대좌를 두고 지장보살이 화면 윗부분에 결가부좌하고 화면 아래 대좌를 중심으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협시한 채 양옆에 여러 권속을 가득 배치한 도상은 조선 전기부터 발전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1616년 광주 빙발암(氷鉢庵)에서 판각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변상(1616

년) 등 판경이 발전하면서 확산하여 17, 18세기에 경상도 지방에서 유행하던 도상이다. 이러한 구도는 <북지장사 지장시왕도>(1725년), <동화사 지장시왕도>(1728년, 보물), <은해사 지장시왕도>(1747년, 운부암 원통전 소장본), <영천 한천사 지장시왕도>(1748년)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덕 장륙사의 지장시왕도는 보다 장식성이 많은 의습선 처리와 밝은 채도를 보여주고 있어 전수의 화풍을 반영한 경상도 지역의 지장시왕도의 한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 이 작품은 전수가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유일한 작품으로 그의 화풍을 파악할 수 있고 경상도 지역의 18세기 작품의 보편적인 미적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수의 화풍 연구에 중요하며, 경상도 지역의 지장시왕도 화풍 특징을 잘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 이 작품은 지장보살과 시왕을 함께 표현한 형식이므로 지장시왕도로 명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지장보살삼존과 시왕상, 그리고 권속을 한 폭의 화면의 그린 지장시왕도이다. 대체로 한 화면에 모든 권속을 표현하는 경우는 주불전의 중단에 걸기 위해 조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이 그림은 대웅전의 상단 탕화인 영산회상도와 함께 대웅전의 중단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중단 탕화이다. 현재 장륙사 대웅전의 우측벽에 봉안되어 있다. 불화를 보존하기 위해 임의로 사방 테두리에 종이 테이프를 발라 놓고 있다.

이 불화는 1764년(영조 40)에 장륙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冥府會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함께 봉안되어 있는 영산회상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해 같은 달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대웅전의 중단 불화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에는 性閑과 勝仁이 증명을 맡았고, 수화승 典秀를 비롯한 再玉, 料訓, 聖摠, 自希, 脫濶, 惠岑, 智還, 忍成 등이 함께 그렸다. 대체로 영산회상도에 참여한

화원들이 지장시왕도 제작에도 참여하였는데, 다만 차이가 나는 점은 지장시왕도의 수화승은 典秀이고, 영산회상도의 수화승 두훈은 3위의 화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화승간의 도상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탓으로 판단된다. 일을 주관한 化主도 영산회상도는 서문이고 지장시왕도는 智岩이어서 두 불사는 동시에 일어났지만 주관하는 사람과 시주자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 불화 제작을 주도한 화승 중 재옥, 두훈, 성충은 이보다 9년 전에 그려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제작에 보조 화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태전, 칠혜, 휴봉 등이 1~3위의 화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차화원 칠혜는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불괘불도, 서울 학림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제작에 참여한 바 있고, 휴봉은 광주 국청사 감로도를 수화원으로 제작하였고, 두훈과 성충도 휴봉의 작품에 보조한 바 있다. 따라서 초창기 두훈과 성충, 재옥 등은 태전·칠혜·휴봉 등 강원·충북권에서 활약하던 화승들로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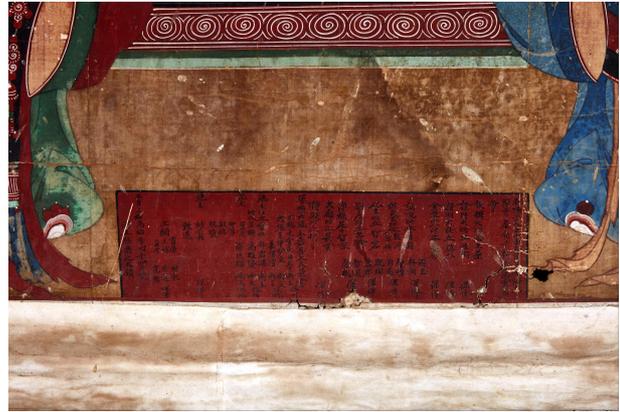
이 지장시왕도 제작에 참여한 전수, 두훈 등은 18세기 전반 통도사를 중심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임한의 화맥(畫脈)을 잇고 있다. 불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시주한 대표 시주자로는 婆嶼大施主 嘉善大夫 最雲와 대시주 金日華, 申安文 등 승속의 인물들이 동참하였다.

이 불화는 한 화면에 본존인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리고 십대왕, 판관, 사자, 동자, 牛頭·馬頭옥졸(仰髮獄卒), 장군, 육광보살 등을 엄격한 좌우 대칭 원칙에 입각하여 그린 군도 형식의 지장시왕도이다. 화면은 녹색과 황갈색 구름으로 이분하고, 하단에는 시왕과 사자, 판관, 장군 등 지장보살의 주요 권속이 배치되었고, 상단의 구름 속에는 선악동자와 천녀, 육광보살, 옥졸 등이 배치되었다.

대체로 10대왕의 배치는 경책관(經冊冠) 내지 일월관(日月冠)을 쓴 염라대왕의 위치를 통해 십대왕의 배치를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좌우측에 각각 2위의 대왕들이 경책관을 쓰고 있는 대왕을 배치시켜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체로 지장보살의 좌측에 도명존자와 홀수대왕을 두고, 우측에 무독귀왕과 짝수대왕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이러한 배치법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1.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1764년>



<도2. 화기>

화면의 중앙에 방형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지장보살이 크게 묘사되었다. 지장보살은 4~6빛으로 이루어진 둥근 두·신광을 갖추고 있다. 두광(頭光)은 짙은 녹색으로, 신광(身光)은 밝은 하늘색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으로 본존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오른손은 어깨 앞까지 들어 둥근 투명 보주(寶珠)를 들었고, 왼손은 무릎 아래쪽에서 육환장의 하단부를 잡고 있다. 둥글넓적한 얼굴에 활 모양의 눈썹과 가늘고 긴 눈, 둥글린 코와 입 등 이목구비는 비교적 작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18세기 전반기의 인물 표현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점이다. 붉은색 가사의 깃에는 원색과 중간색이 어우러진 3~4빛의 길상문을 배풀어 고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곳에 배풀어진 길상문은 일종의 구름무늬의 변형으로 청량산 괘불탱 군의 깃에 배풀어진 것과 같은 종류이다. 가슴을 가로지른 군의의 단에도 같은 색조의 녹화결련금을 넣어 장식하였다. 지장보살은 조가 그려진 붉은색 가사를 걸쳤고,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고정한 끈과 큼직한 화문의 가사 장식이 달려 있다. 가사는 가사화문장식에서부터 나팔 모양으로 멋스럽게 드리워져 있다. 결가부좌한 무릎에 흰색 바탕에 花雲圓文과 화문을 시문하였고, 노출된 오른 발목에는 풀잎 모양의 치레 장식을 묘사하였다. 귀와 팔, 가슴 등에는 장신구로 장엄하였다.

설채된 색채와 세부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장보살의 도상과 양식은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1744년, 수 효안)의 지장보살상을 따르고 있으며, 지역은 다르지만 장륙사 지장시왕도 보다 2년 늦은 1766년에 제작된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또한 장륙사 지장시왕도와 동시기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시기에 활동한 화사들은 앞선 시기의 도상을 토대로 나름의 화풍을 만들어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지장보살의 무릎 아래쪽에는 짙은 녹색 두광을 갖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지장보살 쪽으로 몸을 틀어 합장하였다. 도명존자는 회청색 장삼 위에 조가 그려진 붉은색 가사를 걸쳤고, 무독귀왕은 원유관을 쓰고 붉은색 면복을 착용하였으며 표정이나 이목구비의 표현은 지장보살상과 같이 단엄하다. 시왕상은 조각상이 대체

로 倚坐像으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모두 입상으로 표현된다. 배치는 통상대로 화면 좌측 앞 열에 제1·3대왕을, 뒷 열에 제5·7·9대왕을, 화면 우측 앞 열에 제2·4대왕을, 뒷 열에 제6·8·10대왕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인 도상적 특징을 살펴보면, 제1대왕은 양관위에 경책을 올려놓았으며, 오른손으로 수염을 매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도상은 조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제3대왕은 두 손으로 홀을 잡았다. 뒷 열에 배치한 제5대왕은 경책이 올려진 양관을 썼다. 오른손으로 풀어진 관모의 끈을 쥐었고, 왼손으로 혁대를 잡고 있다. 제7대왕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앞쪽에 서 있는 제3대왕의 관모를 왼손으로 장난치듯 건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제9대왕은 두 손으로 홀을 잡고 있다. 제2대왕은 입을 합죽 다물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고 있다. 왼손으로 혁대를 잡고 있다. 제4대왕은 변형된 양관을 쓰고 있으며, 합장한 두 손으로 홀을 잡고 있다. 제6대왕과 제8대왕은 합장한 두 손으로 홀을 받쳐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제10대왕은 해가 그려진 경책관을 쓰고 왼손으로 수염을 매만지고 있다. 언뜻 도상의 배치에서 엄격한 좌우 대칭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듯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좌우의 시왕상의 표정과 자세에 변화를 주어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화면 상단은 황갈색과 녹색의 채운 속에 육광보살과 선악동자, 천녀, 옥졸 등이 배치되었다. 육광보살은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등장하며,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는 地藏菩薩, 龍樹菩薩, 救苦觀世音菩薩, 常悲菩薩, 陀羅尼菩薩, 金剛藏菩薩이다. 지장보살이 화면의 주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대신하여 지지보살이 육광보살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옥졸은 말머리와 소머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지장시왕도에서 일반적이다. 선악동자 중 왼쪽 동자는 웃고 있고, 오른쪽 동자는 무표정하게 표현하여 극적 대비를 이루게 했다. 특히 상단에 표현된 인물들은 상서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채운 구름 속에 나투듯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육도중생을 구제하는 육광보살을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彩雲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얼굴 표현과 의습선 표현에는 일관되게 섬세하고 가는 먹 선을 위주로 하였고, 일부 강조할 필요가 있는 선은 백묘(白描)를 올려 강조하였다. 특히 십대왕 일부와 권속들에는 열은 바림 기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불어넣었고, 미세한 표정 변화와 섬세한 수염과 손짓 등은 일반 초상화를 그리듯이 세밀하고 섬세한 붓질과 선묘를 통해 생동감을 끌어 올렸다.

인물의 피부는 맑고 화사한 육색을 얹게 설채하고, 옷이나 배경이 되는 바닥이나 하늘, 구름 등은 짙은 적색과 녹색, 황갈색 등으로 설채하여 존상의 얼굴이 부각되게끔 효과를 주었다. 한편 높은 채도의 적·녹색의 대비 속에 온화한 황갈색 바닥과 채운(彩雲)으로 인하여 종교화 본연의 성스러움과 중생구제라는 분명한 메

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표1.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참여 회원들의 활동>

| 회원 | 작품 | 제작 시기 | 참여 순위 | 수화원 |
|----------------|-----------------------------|-------|-------|-----|
| 典秀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1위 |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4위 | 料訓 |
| | 대구 동화사 신중도 | 1765년 | 2위 | 性聰 |
| 再玉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5위 | 泰巔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2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2위 | 典秀 |
| 料訓(斗訓, 抖薰, 料訓) | 광주 국청사 감로도 | 1755년 | 2위 | 携鳳 |
|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8위 | 泰巔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1위 |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3위 | 典秀 |
| | 청도 대적사 신중도 | 1765년 | 2위 | 性聰 |
| | 보은 범주사 괘불도 | 1766년 | 1위 | |
| | 양산 통도사 괘불도 | 1767년 | 1위 | |
|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1위 | |
| | 구미 수다사 사자도1 | 1771년 | 1위 | |
| | 양산 통도사 팔상도 | 1775년 | 1위 | |
| 聖聰(性聰) |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 1755년 | 9위 | 泰巔 |
| | 광주 국청사 감로왕도 | 1755년 | 4위 | 携鳳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4위 | 料訓 |
|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4위 | 典秀 |
| | 대구 동화사 신중도 | 1765년 | 1위 | |
| | 청도 대적사 신중도 | 1765년 | 1위 | |
|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2위 | 抖薰 |
| | 구미 수다사 사자도2 | 1771년 | 1위 | |
| | 영천 묘각사 아미타불상 개금 | 1775년 | 2위 | 抱冠 |
| | 강우상주목북운달산김룡사청하전이건대성암 상량문 | 1800년 | 시주질 | |
| 自希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5위 | 典秀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5위 | 料訓 |
| 脫潤(脫閏)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6위 | 典秀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6위 | 料訓 |
| | 양산 통도사 괘불 | 1767년 | 8위 | 抖薰 |
| |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 1769년 | 8위 | 尙淨 |

| 회원 | 작품 | 제작 시기 | 참여 순위 | 수화원 |
|---------------|--------------|-------|-------|-----|
| 惠岑(瑞岑: 영산회상도)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7위 | 典秀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7위 | 料訓 |
| | 구미 수다사 시왕도 | 1771년 | 4위 | 料訓 |
| 智還(智閑)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8위 | 典秀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8위 | 料訓 |
| | 보은 법주사 괘불 | 1766년 | 4위 | 料訓 |
| | 양산 통도사 괘불 | 1767년 | 10위 | 抖薰 |
| 忍成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 1764년 | 9위 | 典秀 |
| |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 | 1764년 | 9위 | 料訓 |

○ 문헌자료

<지장시왕상의 화기>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日寧海莊

陸寺奉安于新畫成冥府

會

設辦大功德主兼

證師大比丘 性閑

證明大比丘 勝仁

金魚山人比丘 典秀 保体

再玉

保体

料訓

聖摠

保体

自希

脫潤

保体

惠岑

智還

保体

忍成

誦呪比丘 月鵬

供養比丘 敬訓

敏悟

化主比丘 智岩
別座比丘 呂覺
淨桶居士 智坦
大都比丘 最雲

保体

持殿比丘 快日

婆幘大施主嘉善大夫 最雲

保体

大施主金氏日華兩主

大施主申必文 兩主

保体

姜渭濱 兩主

朴岩廻 兩主

保体

高雄贊 兩主

梁巨福 保体

施主比丘 贊性

比丘 月暎

施主 呂覺

智明

敏悟

瑞瓊

妙眞 保体

致遠

三綱 首僧 妙和

三補 宗運 保体

直舍 克順

三月上絃爲始告功于四月望

同生極樂之大願

○ 기 타

1764년 영덕 장륙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중단 불화로, 제작 이후 지금까지 제작 당시의 목적대로 봉안되어 오고 있는 불화이다.



○ 현 상

- 화면 최상단부의 향우측 육광보살 2위의 광배 부분에 바탕질의 훼손으로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 본존인 지장보살 및 시왕 등의 옷 부분에 안료의 박락이 보인다.
- 화면의 꺾인 자국이 심해서 안료의 박락이 계속 진행되는 등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 화면의 좌우 끝부분이 잘린 흔적이 있으나, 화기의 기록은 온전히 남아 있다.
- 복장유물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 추후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면 하단 중앙의 畫記를 통해, 수화승 典秀를 비롯하여 총 9명의 畫員이 1764년에 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화면 중앙에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를 표현하였으며, 그 좌우에 시왕과 사자, 판관, 장군, 동자, 옥졸, 육광보살 등 총 31구의 존상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 화면 상단부에 여섯 보살을 좌우로 배치한 도상은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한 도상이다.
- 채색은 녹색과 주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였다.
- 수화승 典秀(진수)는 장륙사 <영산회상도>에 수화승 두훈과 함께 작업에 참여했던 화승으로서, 본 <지장시왕도>에서는 수화승에 이름을 올렸다.
- 화면 하단 중앙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日寧海裝陸寺安干新畫成冥府會，說辦大供養主兼 證師大比丘 性閑保体，證明大比丘 勝仁保体，金魚山人比丘 典秀保体，再玉保体，料訓，聖摠保体，自希，脫潤保体，惠岑，智還保体，忍成
誦呪比丘 月鵬 供養比丘 敬訓 敏悟 化主比丘 智岩 別座比丘 呂覺 淨桶居士 智坦大都比丘 最雲 持殿比丘 快日保体 婆幘大施主嘉善大夫最雲保体 大 施主 金氏日華兩主 大施主申必文 兩主保体 姜渭濱兩主 施主比丘 贊性 朴岩 廻兩主 保体 比丘 月映 高雄贊 兩主 施主 呂覺 梁巨福兩主保体 智明 敏悟 瑞璜 施主 妙眞保体 致遠 三綱 首僧 妙和 三補 定運 直舍 克順保体 三月上絃爲始告功于 四月望 同生極樂之大願
- 현존 작품이 많지 않은 典秀가 수화승으로 남긴 뛰어난 작품이다.

□

○ 현 상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비단 바탕에 채색된 후불탱으로 화폭은 전체 세로 200.0cm, 가로 197.5cm 크기로 1764년에 제작되었다. 세로 186.0cm, 가로 191.0cm로 좌로부터 35+40+40+40+33cm 크기로 5폭을 가로로 연결한 화면에 지장보살도를 중심으로 권속이 가득 찬 군도식 채색불화다.



<수화승 전수,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 1764년, 비단 채색, 영덕 장륙사 대웅전>

현재 지장보살도는 대웅전 안에서 왼편 벽에 코끼리를 탄 문수보살상 벽화 아래의 부분 벽에 부착되어 있다. 고리가 3개 달린 상축을 걸어 봉안하고, 불화의 네 면 가장자리를 종이를 덧대 벽과 붙여 놓아서 벽체 뒤의 현상을 살펴볼 수 없지만, 복장물이 불화 뒤에 있는 것 같지 않다.

화면 상단에 양쪽으로 낙영이 표현되고, 화면 아래 중앙에 화기를 두 줄로 기록하였다. 본존 지장보살은 4겹의 색 테두리를 갖춘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불탁(佛卓) 위 연화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본존 얼굴은 성문의 모습으로 나투신다는 경전 내용처럼 승려의 민머리를 하고 완만한 눈썹, 긴 코가 오뚝한 수려한 용모를 볼 수 있으며, 풍채도 권속보다 아주 크게 표현되었다. 수인은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서 투명 보주를 가볍게 잡고 있고, 왼손은 육환장(六環杖)을 가볍게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비스듬히 들고 있다. 양어깨를 감싼 가사에는 조(條)가 검은색으로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화면 권속은 수미단 아래 양옆으로 젊은 승려의 모습으로 표현한 도명존자와(왕의 모습을 한) 무독귀왕을 비롯하여 시왕, 사자, 팔부중, 쌍상투의 동자와 동녀, 천인 등이 화면 가득 구름을 경계로 하면서 좌우 대칭으로 그려졌다. 현재 지장보

살도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화의 구도에서 지장보살과 시왕을 함께 묘사한 형식은 지장시왕도로 볼 수 있다.

화면의 중심 색은 붉은색과 녹색의 옷차림과 함께 살빛, 흰색, 먹색 등 전통적인 18세기의 차분한 색조를 바탕으로 황토색 바림을 한 구름, 녹색 두광, 군청색을 부분적으로 옷자락에 사용하여 강조하는 18세기의 전형적인 채색법을 사용하였다. 문양을 생략하고 강한 채도를 사용한 권속의 옷 선과 단순한 지물 채색에 비해서 각각의 존상 얼굴은 눈매, 수염, 바림법을 달리하여 사실성을 강조하고, 선명하고 깔끔한 필선이 수려한 용모를 보여준다.

구도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권속이 둥글게 자리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배치로 위계를 표현하였다. 색 테두리를 갖춘 원형 두신광을 갖춘 본존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같은 화려한 영락 장식 장신구를 갖춘 모습이며, 가사 끝자락과 무릎의 치레 장식 등에서 세밀하고 작은 연화문, 녹화문을 촘촘하게 표현하여 장식하였다. 대좌의 위판에 목리문(木理文)을 그리고, 수미단 앞면은 연주문을 변형한 연결문으로 장식하였다.



<본존 지장보살상>



<지장보살상 화문>

화기는 화면 중앙에 세로 10.5cm, 가로 39.0cm로 붉은색 화기란을 두어 먹으로 조성연대를 포함한 봉안처, 연화질, 시주질을 기록하여 제작 시기와 소장처, 제작 화승 등 불화 제작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다. 화기에는 송주(誦呪) 월봉(月鵬), 공양 경훈(敬訓)과 민오(敏悟), 화주(化主), 별좌(別座), 정통(淨桶), 대도(大都), 지전(持殿) 등 조성에 참여한 승려들의 소임과 이름이 표기되었다. 시주는 과탱대시주(婆幟大施主), 대시주(大施主), 시주(施主)로 구분하여 가선대부 최운(崔雲)을 비롯하여 일반인과 여러 승려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불사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하고 있다. 불화의 제작 화승은 수화승 전수(典秀)를 비롯해 재옥(再玉), 두훈(料訓), 성총(聖摠), 자희(自希), 탈윤(脫潤), 혜잠(惠岑), 지

환(智還), 인성(忍成)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하였다. 이들 화승은 장륙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도 함께 조성하였다.

불화 바탕 표면은 물리적 훼손과 화면 오염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화면 안료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화면에서 녹색 부분은 붉은색보다 더 많이 박락된 상태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되며, 화기의 아랫부분, 상단 육광보살의 광배같이 여러 부분에서 바탕 화면이 찢어져 있거나 촛농 및 습기로 인한 얼룩과 변색이 많이 진행되었다.



<화면 훼손 현황>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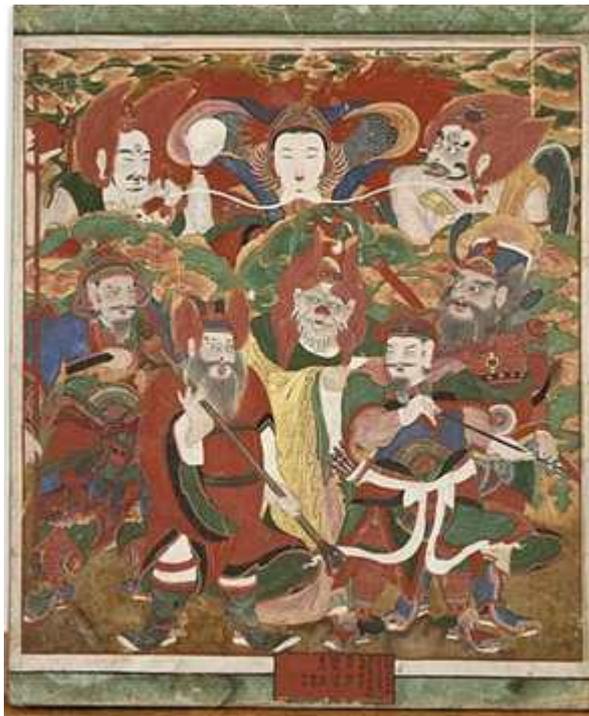
장륙사는 경상북도 영덕군 운서산(雲棲山)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불국사의 말사이다. 고려 공민왕 4년(1355)에 나옹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장륙사는 조선 세종 때에 산불로 전소되었고, 임진왜란 시기에 폐사되었다가 중창되었다. 현재 장륙사에는 보물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이 있다. 이 불상 안에서 발견된 원문(願文)과 개금묵서명(改金墨書銘)을 통해 홍무 28년(태조 4년, 1395)에 고려조에 판사를 지낸 백진이 공덕주가 되어 영해부사 이귀산(李貴山)과 후임부사 심천우(沈天雨) 및 마을 사람들의 시주로 만들었고, 태종 7년(1407)에 다시 금칠한 불상이다. 원래 태조 이성계와 비(妃), 그리고 세자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처음에는 인근의 신기리(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위장사(葦長寺) 선당(禪堂)에 봉안하였다가 위장사가 폐사(廢寺)되면서 장륙사로 옮겨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는 대웅전에 영산회상도와 함께 사찰 주 전각인 대웅전의 중단탱으로 봉안된 불화이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사찰 재산대장』에 기록된 영덕 장륙사의 재산 목록에서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 산신탱이 대웅전에 봉안되고 있어서 18세기 후반에 불화가 대웅전 안에 삼단으로 봉안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화면 구도는 중앙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면서 여러 권속이 구름을 경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작게 원형으로 본존을 둘러싸는 군

도 형식이다. 권속은 신체 비례가 균형이 있고 부드러운 색채와 깔끔한 붓질로 표현되어 화승의 뛰어난 기량이 돋보인다. 세부 붓질에서 엿보이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비롯한 신체 표현에서 가지런하면서도 균일한 굵기를 보이는 능숙한 필선이고, 여러 색과 문양을 잘 조합한 화려한 화문이 잘 묘사되었다. 화면에 부분적으로 변색과 얼룩이 보이지만, 부드럽게 바림을 잘 사용하여 깊이 있는 안료 채색기법을 보여주어 화면이 온화한 분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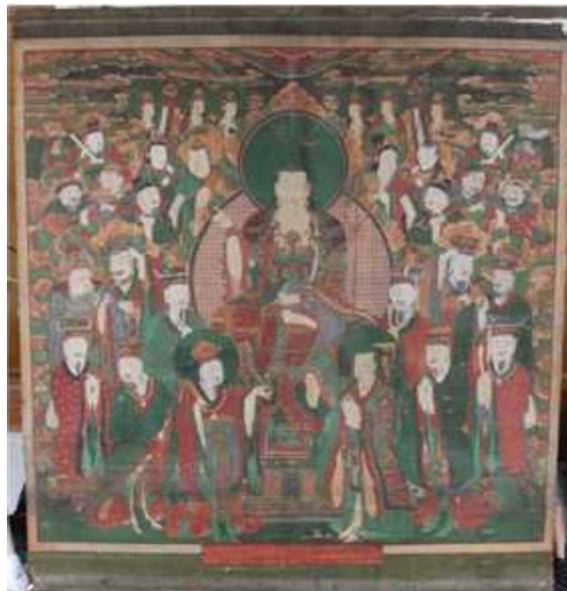
이러한 화풍 특징을 보이는 수화승 전수는 유일하게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를 수화승으로 제작하였다. 그는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를 1755년 6월에 제작하고, 그해 10월에 <광주 국청사 감로도>를 제작하면서 그림 작업이 처음 확인되는데, 이때 성총, 두훈, 재옥과 첫 인연을 맺은 후 많은 작품을 그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성총과 전수의 화연 관계는 성총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대구 동화사 천룡도>(1765년, 도1) 외에도 여러 불화를 함께 제작하면서 확인된다. 참여 화승 가운데 두훈은 당호는 화월당(華月堂)으로 料訓, 斗熏, 杜訓, 抖薰 등의 법명(法名)을 사용하고 있다. 두훈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1755년)와 <광주 국청사 감로도>(1755년)를 전수와 함께 조성한 이후 장륙사의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제작에도 함께하였다.



<도1. 대구 동화사 천룡도, 1765년>

수화승 전수를 비롯하여 성총, 두훈, 재옥은 여러 불화에서 꾸준히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듯 존상 형식은 각각 독자적 화풍을 형성하였지만, 명도가 높은 붉은색과 녹색을 사용한 밝은 색채감이나 화려한 꽃문양 등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다. 채색은 성총, 전수 등이 참여해 조성한 그들의 활동 후반기 작품인 <대구 동화사 천룡도>(1765년, 도1)에서도 확인되지만, 장륙사 지장시왕도에서 보이는 섬세한 꽃문양을 사용하여 가사를 장엄하는 전수의 화법과 달리 <동화사 천룡도>는 문양을 거의 생략하고 단순한 채색법을 사용해서 수화승 성총의 특징이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수의 화풍은 함께 조성된 장륙사 영산회상도와도 차이를 보인다. 장륙사 영산회상도를 제작한 수화승 두훈의 기법은 연꽃과 덩굴문을 조합하여 광배 안을 화려하게 가득 메운 장식기법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두훈의 불화가 화려한 화문으로 가득 채운 광배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높였다면, 전수는 더 차분한 색조와 더 간단한 문양을 사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화풍의 차이는 두 화승이 같은 시기에 각각 수화승으로 작업한 두 작품을 통해 대조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들의 화풍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도2.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1714년, 세관>



<도3.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 1728년, 의균>

한편,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 전반의 경상북도 지장시왕도 양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1714년, 도2)는 직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화승 세관이 1714년에 삼옥, 월륜, 서징, 순간, 존혜, 우평, 응잠과 제작하여 남장사 무량수전에 봉안되었던 불화이다. 붉은색과 녹색이 중심색을 이루는 색상과 세밀한 필선, 안정된 신체 표현, 작고 섬세한 이목구비 등에서 세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 불화 광배는 이중 원형 두신광을 사용하였고, 신광 안을 특이하게 격자문으로 장엄하였다. 권속은 중앙에 있는 지장보살을 둘러싼 권속이 위로 갈수록 작게 표현되는 원근법을 사용하여 황색 구름을 사용하여 경계를 두었다. 또한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1728년, 도3)는 수화승 의균(義均)이 조성한 작품으로 원래 대웅전 중단 탱화로 봉안했던 불화이다. 이 불화에서도 많은 권속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인물을 위로 갈수록 작게 표현한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화면 상단과 권속 경계에 황색 구름을 배치하여 화면을 안정감이 있게 보이는 효과 역시 같은 계통의 기법이다. 이 불화의 수화승 의균은 동화사를 중심으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승으로 경상북도 사찰 불화에 큰 영향을 미친 화승이다. 이러한 구성은 쾌민이 그린 <북지장사 지장시왕도>(1725년)에서도 친연성을 보여주는데, 쾌민과 의균이 함께 <영천 법화사 영산회상도>(1724년)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 불사에서 동참 화승의 교류가 확인되기 때문에 서로 화풍을 교류하고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덕 장륙사 지장보살도와 같은 구도를 보여주는 <은해사 운부암 원통전 지장시왕도>(1747년)는 이러한 지장보살도의 전형적이지니 모습은 17세기 판경이 보급되면서 도상 형식이 정형화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임진왜란 이후 1616년 광주 빙발암(氷鉢庵)에서 판각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변상(1616년, 도4)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군도형의 권속이 원형으로 표현된 구도를 보여주는 양식의 시발점이 된다. 이것은 1610년 남장사에서 판각된 경변상도가 측면관을 한 지장보살의 모습인 것에 비해 정면향을 한 것이다. 이러한 구도의 판경은 1765년 약사전간행본, 1791년 송광사간행본같이 18세기에 같은 판본이 지속해서 제작되고 있다.



<도4. 지장보살보원경관화, 1616년, 빙발암간, 장서각 소장>

이처럼 <영덕 장륙사 지장보살도>는 18세기 경상도 지역의 지장시왕도 양식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변상(1616년, 빙발암간행본)의 구도가 발전한 형식으로 수화승 전수의 담백한 색채감, 뛰어난 필력 등의 화풍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그의 화풍을 이해하는데 유일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 문헌자료

<화기>

乾隆二十九年甲申四月日寧海裝」 陸寺奉安于新畫成冥府」 會」
 說辦大功德主兼」 證師大比丘性閑 保体」 證明大比丘勝仁 保体」
金魚山人比丘典秀 保体」 再玉」 料訓 保体」 聖摠」 自希 保体」 脫潤」 惠岑
 保体」 智還」 忍成 保体」
 誦呪比丘月鵬」
 供養比丘敬訓 敏悟」
 化主比丘智岩」
 別座比丘呂覺」
 淨桶居士智坦」
 大都比丘最雲」
 持殿比丘快日 保体」
 婆幘大施主嘉善大夫最雲」 大施主金氏日華 兩主 保体」 大施主申必文 兩主」 姜

渭濱兩主 保体」 朴岩廻 兩主」 高雄贊 兩主」 梁巨福 兩主 保体」
 施主比丘贊性」 比丘月映」
 施主 呂覺」 保体」 智明」 敏悟」 瑞瓚」
 施主 妙眞 保体」 致遠」
 三綱 首僧 妙和」
 三補 定運 保体」 直舍 克順」
 三月上絃爲始告功于四月望」 同生極樂之大願



<화기>

○ 참고문헌 및 전자자료

- 경상북도, 「영덕 장육사 조사보고서」.
- 경상북도,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하), 2018.
- 박도화, 「조선시대 간행 지장보살본원경 판화의 도상」, 『고문화』 53, 1999.
-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index>

○ 기 타

지장시왕도의 화기에 제작 시기와 봉안처 등이 확인되며,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조선 사찰 대장에서도 대응전에 영산회상도와 지장보살도가 전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13.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가. 검토사항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2.8.12.)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8.2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2022.11.10. 지정, 본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1988.12.21. 지정, 협시)
- 명 칭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목우암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법천길 482-85, 목우암
- 수 량 : 3구
- 규 격 : ① 아미타여래 높이 186.0cm, 무릎폭 128.5cm
② 관음보살(좌) 높이 184.5cm, 최대폭 53.0cm
③ 대세지보살(우) 높이 191.0cm, 최대폭 55.0cm
- 재 질 : 나무
- 형 식 :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
- 조성연대 : 1614년(조선 광해군 6)
- 제작자 : 각심(覺心), 응원(應元), 취경(就綱), 덕현(德玄), 경륜(敬倫), 인균(印均), 이환(離幻)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주존 아미타여래와 좌우의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의 협시가 완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 임진왜란 종전 직후인 1610년대에 제작된 불상은 매우 적으며, 전각의 주존으로 봉안된 대형 불상은 더욱 희소하다.
- 좌상의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한 형식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사례는 많으나, 조선 후기의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 좌우의 협시보살은 보통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고 좌우 대칭의 자세를 취한 사례들이 많으며, 이 삼존상처럼 복제가 다른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 1614년 2월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 覺心의 이름이 명확한 주요 사례이다.
- 조각승 覺心의 이름은 여타의 사례에서 알려져 있었으나, 수조각승으로서 제작한 불상은 이 불상이 유일하여, 조선 후기 호남 지역 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 전체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조각 양식을 보이는 불상으로, 임진왜란 직후 호남 지역 조각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원래의 조성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본존 불상의 바닥면에 조성과 제작에 참여한 목서를 통해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과 1614년이라는 제작시기, 각심 등의 제작자 등 불상 조각을 이해하는데 중요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조각사에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삼존상은 규모가 186.0cm에 이르는 대형의 불상으로, 전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반듯하고 종교적 감성이 잘 발현된 상호, 늘씬하고 장대한 신체 비례, 직선과 곡선의 완급 조절이 완벽하게 구현된 활달한 선묘, 신체와 불의가 마치 별개의 조각처럼 연출한 입체적인 조각 기법, 긴장감 있게 표현된 섬세한 손짓 등 17세기 조각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아미타여래삼존상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의가 있고, 특히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도상이 1333년 작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5세기),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610년) 등 시대를 통틀어 많지 않다는 점도 높게 평가되는 이유이다.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양대 전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조성된 불상으로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단계의 조각승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1614년, 즉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조선 후기 조각의 성립과 발전 과정, 조각유파의 성립과 분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이다.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조각승들은 개별 유파로 분파하기 전 초기 단계의 조각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초기 단계는 일군의 조각승들이 서로의 조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우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수장급 조각승은 석준, 현진, 원오, 각민, 각심, 태전 등 손꼽을 정도이며, 이들은 서로 불상 조각이라는 매개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조각적 기술과 역량을 다져나갔고 다가올 조각 유파의 황금 시절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610년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되며, 목우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이러한 시대의 조각승의 활동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자료이다. 즉 수조각승 각심은 16세기 후반부터 활동을 한 석준·원오, 현진 등 16~17세기 초창기 활동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보조 화원으로 등장하는 인물 중 응원과 인균은 이후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하며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에서 비중 있

는 유파로 성장, 발전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응원·인군 유파의 원류가 각심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데 중요한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다.

○ (지정 가치 있음)

-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은 조선 후기 조각상 중에서도 비교적 연대가 앞서는 만력 41년(1614) 작품으로서 본존불과 좌협시 관음보살상의 높이는 180cm를 넘고 우협시 세지보살은 190cm를 넘는 등 대규모 불상에 속한다. 이렇게 대규모이면서 입상의 협시보살을 갖춘 예는 화엄사, 갑사 등 몇몇 큰 사찰들에서만 볼 수 있는 편이다.
- 목우암 삼존불은 목서명을 통해 조성연대와 조각승, 존명 등이 분명하게 밝혀져 조선 후기 조각사 연구에서 중요한 기준작이 된다. 특히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조각승 각심이 주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불상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심은 공주 청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 조성에서 부화원으로 등장한 사례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나아가 함께 참여한 화승들이 이후 불교조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심의 목우암 삼존불은 16세기와 17세기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미술사적인 의미가 크다.
- 목우암 삼존불은 17세기 전반기 제작되어 조선 후기 불상 조각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옷주름 처리에서 더 섬세한 변화를 주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식적인 양식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이 시기 조각가들이 조각적인 운율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 협시보살의 경우는 서로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도 착의법, 의습선 등에서 의도적으로 차이를 두어 변화를 주었으며, 우협시보살의 경우는 찢꼭지까지 표현하는 등 조선시대 조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적극적인 인체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목우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서 특히 17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작품성 또한 뛰어나고, 조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목서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널리 알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좌상의 아미타여래상과 입상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상이다.
- 세 존상은 모두 같은 양식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아미타여래상 밑면에 목서된 기록에 따라 조선 후기 1614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성기」에 의하면, 이 삼존불상은 1614년 2월에 조성되었으며, 수조각승 覺心을 비롯하여, 應元, 就綱, 德玄, 敬倫, 印均, 離幻 등 6명의 보조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졌다.
- 「조성기」에 봉안 사찰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높이 186.0cm, 무릎폭 128.5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이며, 봉안처가 산지의 암자임을 감안한다면, 원래부터 목우암에 봉안된 불상들일 가능성이 높다.

○ 내용 및 특징

- 불상을 조성한 覺心, 應元, 就綱, 德玄, 敬倫, 印均, 離幻의 7명의 조각승들 중 각심, 응원, 인균 등은 호남 지역 조각승들 중 중요한 역할을 한 조각승들이다.
- 특히, 응원과 인균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호남 지역 조각승 계보의 태두에 해당하는 중요 조각승들이나, 그들의 스승에 대한 기록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조 조각승 시기 응원의 수조각승으로는 太顛, 淸憲 등이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사승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오-각민 계보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심이 새로이 수조각승으로 등장한 것인데, 17~18세기의 응원-인균-삼인-천신-색난으로 이어진 호남 조각승 계보의 先代 조각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각심은 1606년 3월의 <公州 東鶴寺 木造三方佛坐像> 조성 불사에서 覺敏 아래의 차조각승으로 참여한 이후, 1614년 2월의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성 불사에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조각승으로, 임진왜란 종전 직후부

터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하나이다.

- 목우암 아미타삼존상과 같이 주존이 좌상이고 좌우 협시상이 입상인 삼존상은 서산 개심사 아미타삼존상(13세기)이나 평양역사박물관 소장 아미타삼존상(15세기) 등처럼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성행하였으며, 안동 서약사 목조아미타삼존상(1567년), 합천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삼존상이나 여주 신록사 소조아미타삼존불좌상(1610년)처럼 17세기 초반까지도 제작되었던 방식이다.
- 아미타여래상은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불상들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며, 신체 표현에 소극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불보살상의 가슴에는 명치의 횡격막을 주변에 근육이 표현된 점, 목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옷에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점, 본존상 두부에 정상계주가 표현되지 않은 점 등에서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상>처럼 임진왜란 이전의 불상 양식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점은 각심을 비롯한 1610년대에 활동한 조각승들이 임진왜란 이전의 조각승 계보에 이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아미타불상은 (裙)-僧祇支 위에 변형편단우견 방식의 大衣를 착용하고 있지만, 覆肩衣를 착용하지는 않았다. 석가모니불을 제외한 모든 불상이 부견의를 착용한 조선 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도상학과 달리 부견의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해인사 원당암의 16세기 아미타불상의 복제와 상통한다.
-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얼굴과 신체에서 본존 여래상과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옷은 두 협시상이 서로 다른 복제를 택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군-승기지-부견의-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착용하고 있어 부견의를 제외하면 주존상과 동일한 복제를 보이고 있으나, 대세지보살은 군-승기지-천의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존상이나 관음상과 다르다.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착용한 승기지는 상단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는 같으나, 관음보살의 승기지는 별도의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은 모습에서 대세지보살과 다르기도 하다. 대세지상은 팔에 腕釧과 臂釧을 모두 착용하고 있으며, 관음상은 腕釧만을 착용하고 있고 臂釧은 확인되지 않는다.

○ 문헌자료

<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造成記>²⁸⁷⁾ 1614년 2월, 상 밑면에 묵서

萬曆四十一年甲寅二月日

西方大教主阿彌陀佛觀音大勢至

兩大++造成

證明雨峰

持殿悅禪

287) 2017.10.9. / 2021.6.12. 고경 조사 및 석문.

| | |
|------|---------|
| 畫員覺心 | 飯頭彦岑 |
| 畫員應元 | 熟頭智澗 |
| 就綱 | 大化主窮進 |
| 德玄 | 助緣 |
| 敬倫 | 助緣 |
| 印均 | 成造堂中 宝和 |
| 離幻 | 無筆硯折楊以書 |



○ 내용 및 특징

무안 목우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좌상의 아미타여래와 입상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 형식이다. 이 삼존상이 봉안된 건물은 ‘冂’자형 평면을 가진 인법당 형식의 건물인데, 좌측 2칸을 극락보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상의 앞은 높이가 186.0cm 가량 되는 대형의 불상으로, 불전이 좁고 낮아 삼존이 딱 들어차 비좁은 모습이다.

목우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이며, 무안군 몽탄면 승달산의 북쪽 능선상에 위치한다. 목우암은 바로 아래 쪽에 자리한 法泉寺의 속암으로 法燈을 이어왔다. 우선 목우암의 본사인 법천사는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6 務安縣 山川條와 佛宇條 등에서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개략적인 유래와 유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山川條에 “승달산은 현의 남쪽 이십리에 있는 鎭山이다. 원나라 때 臨川寺 圓明이 바다를 건너와 풀을 엮어 암자를 만든 후, 그 제자 500명이 이곳을 찾아 도를 이루어 승려가 도를 이룬 산, 즉 ‘僧達山’이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불우조에 “법천사는 승달산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원명이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원나라 승 원명과 관련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柳馨遠(1622~1673)이 1656년에 편찬한 『東國輿地誌』 권5 산천조와 사찰조에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소이하게 기록하고 있다. 목우암 축성각에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이 불상이 1666년 5월에 전라도 무안현 법천사 목우암에서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목우암은 일찍부터 법천사 속암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 편찬된 기록에서는 16~17세기에 편찬된 지리지와 약간 다른 기록이 등장한다. 우선 1760년에 간행된 『輿地圖書』 寺刹條에는 “법천사는 현의 남쪽 20리 승달산 아래에 있으며, 당나라 開元 13년 서역 金地國 승려 淨明이 개창했다. 남송 고종 紹興 연간에 臨川付 승려 圓明이 중창했다고 하여, 창건 시점을 당

개원 13년(725)으로 올려서 서술하고, 중창주를 원이 아닌 남송의 원명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후에 간행된 지리지에는 대체로 『여지도서』의 기록을 따르고 있고, 19세기 중반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志』와 1895년 간행된 『湖南邑誌』, 그리고 1909년에 작성된 『寺刹考』 등에는 유존 사실만 알리고 있다.

조선 후기 목우암에는 많은 고승대덕들이 주석하며 사찰 중흥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18세기 교학과 문장의 대가로 손꼽히는 蓮潭有一(1720~1799)과 관련이 깊은 사찰이다. 유일은 1738년 법천사 성철스님에게서 출가하였고, 1799년 입적하자 문도들이 대둔사, 미황사, 법천사에 그의 탑을 세웠다. 목우암 입구에는 연담유일의 승탑이 현재까지 유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華潭靈源(1766~1849), 晦山普慧, 慈雲天祐(1817~?), 梵海覺岸(1820~1896), 淸峯世英(1855~?) 등 당시의 선지식들이 목우암에 주석하거나 인연을 맺으며 사찰 중수에 기여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무안군지』(1922년), 『속수면성지』(1925년), 『조선환여승람』(1933~1935년) 등 여러 자료에서도 앞서 언급한 유사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다. 현재 목우암 극락보전에는 1922년에 그려진 신중도가 봉안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작품으로 보이는 작은 중도 봉안되어 있다.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목우암의 귀중품 목록에는 6척 3촌의 아미타불, 6척의 관세음보살, 6척의 대세지보살을 비롯하여 석가여래, 미륵보살, 가라보살, 지장보살, 가섭존자, 나한존자 2구, 금강신 2구, 사자상 2구, 부도 6기, 법화경 7점이 고시되어 있다. 그중 6척 3촌의 아미타불과 6척의 관세음·대세지보살상은 현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삼존상과 동일한 존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성 이래 지금까지 목우암의 주존으로 봉안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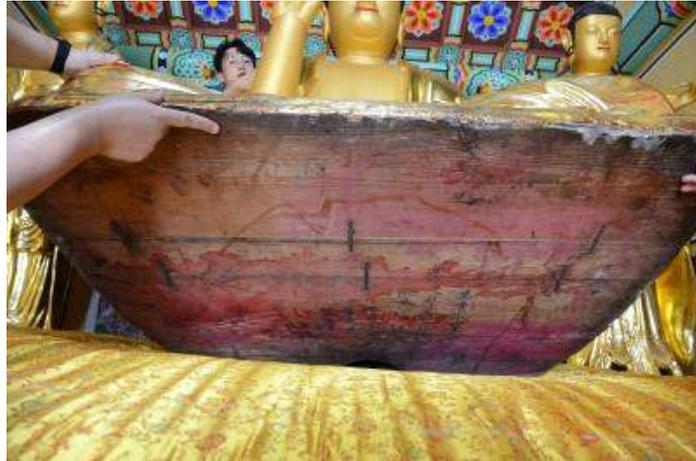
<관음보살입상>



<관음보살의 발표현>

이 불상은 좌상의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상이 시립한 아미타여래삼존상이다. 본존 불상의 바닥면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꺾쇠 못으로 이어 붙였고, 엉덩이 쪽에는 원형의 복장공이 남아 있다. 그 앞쪽 판재에 묵서로

조성과 관련된 기록을 남겼다. 다음과 같은 목서가 남아 있다.



萬曆四十一年甲寅二月日
西方大教主阿彌陀觀音大勢至
兩大++造成
證明 雨峰
畫員 覺心
畫員 應元
就綱
德玄
敬倫
印均
離幻
持殿 悅禪
飯頭 彦岑
熟頭 智澗
大化主 窮進
助緣
助緣
成造堂中 宝和
無筆硯折楊以書

<본존불 바닥 조성 목서>

이 목서를 통해 목우암 삼존불상은 1614년에 조성된 아미타·관음·대세지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삼존상 제작은 大化主 窮進의 주도로 雨峰이 증명을 맡았고, 覺心, 應元, 就綱, 德玄, 敬倫, 印均, 離幻 등 7명의 조각승이 협력하여 불상을 제작하였다. 조각승 각심은 1606년 수화승 覺敏²⁸⁸과

공주 동학사 석가여래삼불좌상(계룡사 청림사 조성) 제작 시 차조각승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찍부터 覺敏-覺心-應元-印均으로 이어지는 조각 계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각민은 1600년대 초반에 활동한 원오와 함께 조각활동을 펼친 이력이 확인된다. 다시 원오는 1583년 안동 광흥사 동종에 화원으로 참여하였고, 1599년에는 석준을 도와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과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을 중수하였다. 따라서 원오는 석준과 더불어 16세기 후반에 활동을 시작하여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판단되며, 16세기 조각에서 17세기 조각으로 연결시켜 주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응원은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 공사의 연화질에 처음 이름이 보이며, 그 다음이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이다. 이듬해(1615년)에는 수조각승 태전과 함께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을 제작하였고, 1617년 조각승 행사가 주도한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제작 때에는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1622년에는 수조각승 현진과 더불어 자수사·인수사 11존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외 순천 송광사 응진전 불상(1624년, 수조각승),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년, 수조각승),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1634~1636, 수조각승 응원·청현) 등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1650년 수조각승 응매가 제작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김제 금산사 대장전) 조성 때에도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응원은 인균과 짝이 되어 1630년대까지 크게 활약한 조각승이며 인균에게 조각적 영감을 가장 크게 준 선배 조각승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균은 응원과 거의 같은 시기부터 활동한 조각승이다. 그는 목우암 아미타삼존불상(1614년, 수 각심)을 시작으로, 김제 금산사 독성상(1615년, 수 태전), 자수사·인수사 11존(1622년, 수 현진)을 제작하였으며, 1633년 처음으로 김제 귀신사 석가삼존 및 16나한상을 수조각승이 되어 제작하였다. 이후로도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1634~1636년, 수 청현·응원),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36년, 首), 청도 장연사 목조보살좌상(1643년, 首),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1648년, 首), 순천 송광사 부도암 목조보살좌상(1654년, 首),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1655년, 首), 전주 학소암 목조약사여래좌상(1662년, 首) 등의 작품을 남겼다.

5위 조각승 경륜은 1612년 태전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1612년 해남 대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성 때 수조각승 태전을 도왔고(7위), 1617년 행사가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²⁸⁹⁾ 조성 때에는 5

288) 각민은 1604년 현진, 석준, 원오 등과 함께 전주 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4/4)을 조성하였고, 1606년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조성하였으며, 1610년을 전후하여 수조각승 원오의 작품에도 참여한 바 있다. 1614년에는 수조각승으로 순천 송광사 대웅전 비로자나불삼존상을 조성하였다(최선일, 『조선 후기 장인 인명사전 - 불교조소』, 양사재, 2007) ; 이규봉(정덕), 「전주 불정사 1604년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 『동악미술사학회』 30, 동악미술사학회, 2021.

289) 1617년에 조성된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증명 法正, 畫員 幸思, 德玄, 天潭, 熙淳, 敬倫,

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6위 조각승 이환은 1628년 응원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에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

삼존불의 개략적인 도상과 형식은 본존불은 변형 편단우견식 착의법이며, 좌협시는 대의식, 우협시는 착의법으로 표현하여 서로 대응시켰다. 이와 같은 삼존불의 구성은 조선 초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하여, 1603년 안성 청룡사 광원암 목조석가여래삼존상으로 이어지며, 응원의 순천 송광사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응원·인균작으로 추정되는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본존상부터 세부 현상을 살펴보면, 육계와 머리는 구분 짓지 않고 반구형의 머리형을 가지고 있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부에는 큼직한 반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표현하였다. 이마는 넓고 양미간에는 작게 돌출한 백호를 표현하였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시선은 예배자의 관점에 맞춰져 있고, 표정은 엄숙하고 근엄하여 장부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턱이 길고 두툼하며 아래턱이 약간 돌출하여 주걱턱 모양을 보인다. 귀는 위쪽 이륜이 당나귀 귀처럼 뽕족하고, 삼각와는 쇠기 모양으로 깊게 파내었으며, 耳孔은 ‘3’자 모양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특히 2줄기 머리발처럼 표현한 이병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목에는 삼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가슴은 노출되어 적당히 오른근육과 작은 단추 모양의 젖꼭지가 드러나 있다.

佛衣는 변형 편단우견이며, 왼쪽 팔꿈치 부근에는 ‘M’자형의 주름이 잡혀 있고, 무릎에는 좌우측으로 3단의 주름을 속도감 있게 펼치고, 무릎 앞에는 율동적인 부채살 주름을 펼쳐 주름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 특히 결가부좌한 오른쪽 발목에는 무릎 주름과 역방향으로 처리한 때 주름이 탄력적으로 감겨 있고, 반대쪽 무릎 아래로는 앞 형의 주름이 오른쪽 발목 주름과 같은 방향으로 바닥까지 드리워져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곳에서 표현된 주름과 유사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이보다 8년 후인 1622년에 현진·응원이 주도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가여래좌상(서울 칠보사, 원 자수사·인수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보인다. 가슴에 수평으로 걸친 군의는 꽃잎형으로 입체적이고 율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두께감과 율동감을 두루 갖춘 군의 단의 표현은 1603년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좌상의 군의 표현과 비교할 수 있다. 오른손은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두어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변형 편단우견에 설법인을 취한 수인은 전형적인 아미타여래의 설법인이지만,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영산회상도(1565년, 보물)와 안성 청룡사 영산회괘불도(1658년, 보물),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8년, 보물), 등 일부 영산회상도에서도 설법인의 석가여래 도상에도 확인된다.

心淨, 應梅, 性崑, 性宗이 참여하였다.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해서는 김광희,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 2018, pp.167~195 참고.

좌협시 관음보살상의 머리는 보계를 뿔아 올려 둥글게 뒤로 말았으며, 花形 보관을 착용하였다. 보관의 표면에는 꽃 넝쿨을 음각하였으나 두텁게 개금되어 있어 잘 확인되지 않는다. 보관의 표면에는 별도로 만든 구름과 연꽃, 화염보주 등을 꽃아 장식하였다. 보관의 좌우 측면에는 S자형의 늘어진 관대를 부착하였다. 보관의 안쪽 면에는 음각으로 ‘觀世音’이라 써 놓았다. 얼굴은 본존과 마찬가지로 턱이 길고 앞으로 약간 돌출한 주걱턱 모양으로 특색이 있다. 오른손은 허리 아래로 내려 엄지와 검지로 정병의 고리를 잡았고, 왼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불화에서의 관음보살상은 대개 두 손을 허리춤에 내려 오른손은 설법인을 왼손으로 정병을 쥐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천의는 통견식이며, 천의 자락이 허벅지 위로 U자형을 그리며 유려하게 드리웠는데, 한쪽 모서리 부분을 슬쩍 반전시켜 변화를 모색하여 단조로움을 피했다. 가슴에는 裙衣의 단이 표현되었고, 단은 사선으로 한번 접고 나비 매듭으로 묶었다. 군의는 수직 주름으로 속도감 있게 흘러내렸고, 발등 위에서 요형으로 주름을 잡아 직선이 주는 힘찬 기세를 율동적인 주름으로 마무리하여 완급 조절을 적절하게 구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관음보살에서는 신체와 천의를 실제 착용한 것처럼 천의가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17세기 조각에서는 이러한 조각 기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1490년경에 조성된 해인사 원당암 아마타여래삼존상 중 관음보살상에서 이와 유사한 조각 기법을 찾을 수 있다.

우협시 대세지보살은 머리에 보관을 썼다. 머리는 틀어 올려 양 갈래로 닿고 그 끝을 돌돌 말아 마무리한 四稜形의 보계를 이루고 있다. 보관으로 가리는 머리는 면 처리하고 보관의 턱을 이루는 보발은 머릿결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다.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자연스럽게 맞대었고, 왼손은 허리춤으로 내리고 寶印을 쥐었다.

양 팔뚝에는 비천을, 팔목에는 팔찌를, 발목에도 발찌를 착용하였다. 착의는 상체에는 천의를, 하체에는 군의를 걸쳤다. 천의는 한 장으로 이루어졌다. 양 어깨를 걸치고 내린 천의는 각각 복부와 허리를 가로질러 팔목을 타고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바닥까지 늘어뜨렸다. 군의는 젓가슴 아래까지 바싹 끌어올려 입었다. 약간 벌리고 선 다리 골 사이로 수직의 주름이 폭포수처럼 시원스럽게 흘러내렸고,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으로 구분하여 2단의 U자형으로 처리하였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주름으로 연출하기 위해 U자형의 주름을 살짝 엇박자로 표현하였고, 신체의 굴곡진 부분과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그 특징을 살려주기 위해 주름 끝을 살짝 돌출시켰다.

삼존상은 좌우 폭 보다 상하 폭이 긴 계란형 얼굴을 가졌고, 아래턱이 두툼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아래턱이 발달한 둥그스름한 얼굴에, 무릎은 낮고 넓으며 허리가 길고 늘씬하여 장대한 조형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조형미는 1610년대 전후

한 시기에 조성한 현진, 원오, 각민, 태진 등의 불상들과 시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

<표1. 목우암 아미타여래삼존상 조각승들의 주요활동>

| 사찰 | 봉안 장소 | 작품명 | 조각승 | 수량 | 조성 연대 | 비고 |
|------------|----------|---------------------|--|----|---------------------|------------------------------------|
| 동학사 | 대웅전 | 목조 석가여래삼불상 | 證明, 釋俊, 畫員, 覺敏, 覺心, 幸思, 休一, 德岑 | 3 | 1606년 | |
| 대흥사 | 대웅전 | 목조 석가여래삼불상 | 太顯, 義根, 明默, 松幹, 德普, 釋湖, 敬倫, 愛仁, 思印 | 3 | 1612년 | |
| 목우암 | 극락전 | 목조 아미타여래 삼존상 | 覺心, 應元, 就綱, 德玄, 敬倫, 印均, 離幻 | 3 | 1614년 | |
| 금산사 | | 독성상 | 太顯, 應元, 守衍, 法令, 印均 | 1 | 1615년 | |
| 갑사 | 대웅전 | 소조 석가여래삼불 및 사보살입상 | 幸思, 德玄, 天澤, 灝淳, 敬倫, 心淨, 應梅, 性豈, 性宗 | 7 | 1617년 | 시주질 應元 |
| 지장암 | | 목조 비로자나불상 | 玄眞, 應元, 守衍, 玉明, 法玲, 明豈, 清虛, 性仁, 普熙, 印均, 敬玄, 志修, 太鑑 治匠: 性玉, 勝一, 密衍, 義仁 | 1 | 1622년 | 원 자인수양사 현 국립중앙 박물관 |
| 송광사 광원암 | 연화 보대 | 목조 아미타불좌상 | 應元, 高閑, 心淨, 思舜, 印均, 釋參, 宗海, 性宗, 天曉, 鳳翼 | 1 | 1624년 | |
| 송광사 | 응진당 | 목조 석가여래삼존 및 소조16나한상 | 應元 | 25 | 1624년 | 송광사 사적기 |
| 송광사 | 천왕문 | 소조사천왕상 | 應圓, 高閑, 釋湖, 法海, 戒雄, 釋森, 懷澗, 天翼, 離幻, 天然, 性悅, 三忍, 信懷, 法端 司果, 印均 | 4 | 1628년 | |
| 귀신사 | 영산전 | 석가삼세불 및 16나한상 | 印均, 大悟, 信戒, 寬海, 懷鑑, 天沾, 處心, 靈寬, 靈印, 沾敬, 尙義, 學沾 | 25 | 1633년 | |
| 화엄사 | 대웅전 |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좌상 | 應圓, 清憲, 印均, 法玄, 省根, 英頤, 圓澤, 天曉, 印熙, 尙儀, 尙日, 智學, 雲密, 法密, 學清, 懶欽, 善堅 | 3 | 대좌 묵서 (1634년) | |
| | | | 清軒, 應元, 印均, 法玄, 省根, 英隲, 員澤, 善允, 天曉, 印熙, 尙義, 尙一, 智學, 雲密, 法密, 學浩, 懶欽, 善堅 | | | 노사나 시주질 (1635년) |
| | | | 清憲, 應元, 印均, 法現, 省根, 英頤, 元澤, 善允, 天曉, 印希, 善見, 懶欽, 學浩, 法密, 雲密, 智學, 尙日, 尙僅 | | | 석가 시주질 (1635년) |
| | | | 清憲, 英頤, 印均, 應元 | | | 사적기 (1636년) |
| 백운사 | 대웅전 |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 印均, 尙儀, 慈敬, 善河, 明湛, 秋生 | 1 | 1643년 | |
| 장연사 | | 목조 보살좌상 | 印均, 尙儀, 慈敬, 善河, 明湛, 秋生 | 1 | 1643년 | 청도 소재, 백운사 |

| 사찰 | 봉안 장소 | 작품명 | 조각승 | 수량 | 조성 연대 | 비고 |
|-----|-------|------------------------|---|----|-------|---------------|
| | | | | | | 불상의 협시로 추정 |
| 성전암 | | 목조여래좌상 | 印均, 尙儀, 慈敬, 善河, 明湛, 秋生 | 1 | 1644년 | 진주 |
| 흥국사 | 무사전 | 목조 지장시왕상 및 권속 | 印均, 尙義, 慈敬, 靈侃, 智玄, 善河, 淳玉, 淳一, 清學, 德軒, 明淡, 丁峯, 應梅, 寬海, 性律, 魯元, 思俊, 雷忍 | 21 | 1648년 | 施主秩 應元 |
| 사자암 | | 목조 보살좌상 | 印筠, 海益, 天信, 河勒 | 1 | 1654년 | 송광사 성보박물관 |
| 흥국사 | 응진당 | 목조 석가삼세불 및 16나한상 | 印均, 三忍, 慈敬, 海翼, 清敏, 思舜, 義坦, 戒宗, 天信, 若六, 鞭後 | 27 | 1655년 | |
| 학소암 | 자음전 | 목조 약사여래좌상 | 印均, 天信, 河得, 色難 | 1 | 1662년 | 원 화순 유마사 |

□

○ 현 상

목우암 아미타삼존상은 목우암의 중심전각인 대방 형식의 극락보전 안에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다. 본존은 결가부좌한 좌상이며, 좌우 협시보살은 입상으로 구성된 삼존불이다. 상들의 높이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좌상과 입상의 전체 높이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현재는 삼존 모두 대좌가 없이 전하고 있는데, 만약 각각의 대좌를 갖추고, 더불어 불단에 어떻게 봉안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높낮이에는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



<무안 목우암 대방 내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본존불은 오른손은 어깨높이로 들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왼발 오른발 위에 얹은 상태에서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소위 중품중생인을 결한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아미타불 수인이다. 먼저 불두를 살펴보면 육계 부분이 뚜렷하지 않아 정수리가 둥그스름한 편인데 옆에서 볼 때 중간계주를 중심으로 정수리와 중간계주 부분에 단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수리를 솟아오르게 표현한 것이 보이므로 육계가 전체적으로 솟아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발은 발제선 부분만 작은 나발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크기의 나발을 사용했다.



<본존불 오른손 수인>



<본존불 반우측면>



<본존불 반좌측면>

안면표현을 보면 윤곽은 대체로 달걀형의 둥근 형태이고 눈은 가늘고 날카롭게

뜨고 있는데, 양끝이 추켜올라간 것이 강조되어 있다. 백호가 있는 넓은 미간을 시작으로 콧등도 넓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코가 크지만 옆에서 보면 높은 콧날을 아니다. 또한 콧볼의 윤곽선은 얼굴 쪽에서 콧등 방향으로 직선에 가깝지만 약간의 호를 그리며 길게 움푹 패여 있다. 또한 코와 입술의 간격이 비교적 좁고 코에는 콧구멍도 표현되어 있어서 인중 부분이 매우 복잡해 보인다. 더불어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듯한 입술과 턱선이 서로 유사한 곡선으로 표현되었고 입술 끝의 추켜올라간 곡선과 양쪽 눈의 끝단의 추켜올라간 곡선이 서로 대구를 이루듯 유사한 곡선이어서 얼굴의 표정이 전체적으로 도안화된 느낌을 준다. 입술이 다소 위에 붙은 관계로 턱이 더 넓어 보이고, 또한 옆에서 보면 턱이 앞으로 돌출된 상태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는 좌우 협시보살상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콧볼의 이륜(耳輪)과 이맥(耳脈) 부분은 마치 여의두문처럼 처리된 것도 특징이며, 특히 보통은 하나로 표현되는 이주(耳珠)를 낮게 2단으로 처리한 것도 특징이다.



<본존불 불두 정면>



<본존불 불두 반우측면>



<본존불 상체>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고 가사 사이로 노출된 상체는 양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양쪽 가슴 근육과 함께 명치의 도드라짐도 표현되어 '역Y자' 형태의 양감이 보인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아미타불의 착의법은 통견이지만 목우암 아미타불은 편단우견이다. 그래서 들고 있는 오른손 설법인의 팔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편단우견 아미타불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국박 소장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삼척 천은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을 들 수 있다.

가슴 아래에는 군의(裙衣)의 상단이 주름져 있는데, 안쪽에 수평선으로 한번 감싸고, 그 바깥으로 ㄱ형으로 굽게 주름진 옷주름이 덮여 있어 2중으로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복부는 옷주름이 없지만 배의 양감에 따라 살짝 부푼 것처럼 표현되었

는데, 균의자락 위로 노출된 명치 부분의 양감과 이어진 듯 표현되어 자연스럽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가사는 큰 호를 그리며 오른팔 팔굽을 지나 오른쪽 허벅지를 거쳐 복부를 살짝 감싸면서 다시 왼쪽 어깨 위로 올라가면서 왼팔의 상박을 덮고 있다. 그 테두리가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 한번 \wedge 모양으로 꺾이고, 왼쪽 어깨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접힌 부분이 표현되는 등, 가사가 이루는 곡선이 과감하게 흐르면서도 세밀한 변화를 주어 섬세한 느낌을 준다. 왼쪽 어깨를 덮고 흘러내린 가사의 테두리는 측면에서 보면 Ω 형으로 굽은 주름이 잡히며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매우 입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이 가사 자락 아래로는 왼팔에 입고 있는 상의의 소매자락이 보인다. 손목 위를 흐르는 상의의 주름은 크게 3단 정도로 주름져 있지만 그 안에 작은 주름이 미세하게 보이고, 좌측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S자형의 주름을 이루며 접히는 등 변화를 주어 이 역시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왼쪽 등으로 넘겨진 가사 자락은 끝단이 V자형으로 흘러내리는데, 가운데 부분은 수직선의 옷주름으로 표현되고, 좌우 테두리는 S자형으로 자연스럽게 구불거리며 흘러내린다. 뒤에서는 목둘레의 옷깃이 접힌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표현은 없다. 전체적으로 상체도 앞으로 굽었고, 고개로 앞으로 많이 숙인 상태인데 조선후기 불상 중에는 이처럼 앞으로 구부린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점이 더 강조되었다. 원래는 비교적 높은 불단에서 내려다보는 설정으로 봉안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존불 좌후면>



<본존불 후면>



<본존불 우후면>

결가부좌한 하체의 옷주름도 특이한 변화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균의의 끝단이 종아리 부분에서 결가부좌한 두 발의 발목이 교차하는 부분으로 하나로 호를 그리며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발목 부분에 마치 바지를 접어 입은 것처럼 수평적인 주름이 접혀있다. 실제로 그래서 복숭아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차된 발목 아래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이 펼쳐지는 것은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양상을 따른다.



<본존불 결가부좌 세부>



<본존불 바닥면 목서>

불상의 바닥면은 붉은 칠을 한 흔적이 있고, 중앙보다 뒤편에 쏠려서 둥글게 뚫린 복장공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목서가 보인다. 현재 복장공은 개봉된 상태로 있다.

협시보살상은 얼굴의 표현은 본존 아미타불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표정에 있어서 좌협시는 거의 본존과 동일하지만, 우협시는 입술이나 눈의 끝이 추켜올라간 부분이 조금 덜하고 입술도 미세하게 더 작아 보인다. 머리 모양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투를 틀었고, 보관에 가려지는 머리 부분은 머리카락 표현이 없지만, 보관 아래 부분은 수직 및 수평선으로 보발을 표현하고 있다. 보관 아래 부분은 둥글게 타래진 보발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관되게 수직선으로 간략히 새기고 몇 가닥씩이 모여 끝에서 둥글게 마무리된다. 귀 앞에서 흘러내린 보발의 두 가닥을 귓볼의 늘어진 부분을 넘어 귓볼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목을 타고 어깨로 내려와 둥글게 매듭지어진 다음 세 가닥으로 나뉘어 어깨의 앞, 옆, 뒤로 각각 길게 흘러내리고 있다.



<협시보살 두부 세부-관음>



<협시보살 두부 세부-세지>

<협시보살입상[좌: 우협시보살(세지), 우: 좌협시보살(관음)]>

두 협시보살은 착의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좌협시는 상의와 하의를 입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친 승복에 가까운 형식이라면, 우협시는 상의를 입지 않고 피건(披巾)만 걸친 모습이다. 그래서 좌협시는 가슴이 조금만 노출된 편이고, 우협시는 가슴이 많이 노출되어 젖꼭지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흔치 않은 사례다. 우협시보살은 노출된 팔뚝에 완전을 착용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두 보살은 각각 본존불을 향한 쪽 팔은 내리고, 반대방향의 손을 들고 있으며, 내린 손에 각각의 지물을 들고 있다. 좌협시 관음보살은 지물로서 정병을 들고 있으며, 현재는 정병 맨 위에 철사 같은 것을 연결하여 손에 걸었는데, 정병의 모습이 마치 위와 아래에 모두 병목이 달린 것처럼 정병 아래에 긴 굽이 달린 것이 특이하다. 우협시 세지보살은 마치 인장처럼 생긴 것을 지물로 들고 있는데, 이 역시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협시보살상 상체 및 발 부분 비교-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좌협시 세지보살상 상체 및 발 부분, 우협시 관음보살상 및 발 부분>

또한 좌협시는 균의자락은 수직으로 일관되게 흘러내리고 그 위에 상체와 팔뚝을 덮고 있는 상의가 허벅지 높이로 U자형을 그리며 덮고 있는 형식인데 반해 우협시는 균의 자락이 양쪽 다리에 각각 U자형을 그리며 내려오고 소위 이중착의 형식으로 허벅지에 또 하나의 짧은 균의를 덧입은 것처럼 옷자락이 흐르고 있다. 우협시의 상체를 덮은 천의는 오른팔 손목에 걸친 천의가 왼쪽 옆구리를 타고 왼쪽 어깨로 올라가 목을 한번 감싼 다음 오른쪽으로 흘러내려와 배를 가로질러 다시 왼팔 손목에 걸쳐진 모습이다. 양쪽으로 흘러내린 피건의 끝자락은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균의자락 끝단의 처리도 두 협시보살은 차이가 있다. 우협시는 균의 끝단이 발등을 바로 덮지 않고 약간 위에 떠있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좌협시는 발등을 완전히 덮고 있다.

보관은 목재로 만들었으며 관음보살의 보관에만 음각으로 ‘觀世音’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구분하고 있다. 정면 중앙이 삼각형으로 솟고 관의 상단 테두리는 여의두문 형태로 다듬어진 관대에 화염보주, 구름문양의 장식이 달려있는데, 관음과 세지보살을 상징하는 화불과 정병 표현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관대 양쪽에서 늘어져 있는 띠는 2중의 ‘역?자’ 형태로 휘날리고 있고, 그 위로 한 가닥의 짧은 띠가 뒤로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음이 새겨진 보관 안쪽면>



<좌협시 관세음보살상 보관>

○ 내용 및 특징

본존 아미타불좌상 바닥면에는 다음과 같은 묵서가 쓰여 있다.

萬曆四十一年甲寅二月日
 西方大教主阿彌陀佛觀音大勢至
 兩大++造成
 證明雨峰 持殿悅禪
 畫員覺心 飯頭彦岑
 畫員應元 熟頭智潤
 就綱 大化主窮進
 德玄 助緣
 敬倫
 印均
 離幻
 助緣
 成造堂中宝和
 無筆硯折楊以書

위 기록을 통해 목우암 아미타불좌상은 만력 41년(1613, 그러나 ‘갑인’ 간지에 따라 1614년) 2월에 조각승 각심(覺心)과 응원(應元)을 위시하여 취명(就明), 덕현(德玄), 경륜(敬倫), 인균(印均), 이환(離幻)이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각심은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수화승으로 이끈 목우암 삼존불을 통해 매우 뛰어난 조각승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그가 이전에 함께 작업했던 조각승이나, 그의 아래에서 목우암 삼존불 조성에 참여한 화원들 중에 이후 조선 불교 조각계를 선도한 조각승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통해 그의

영향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목우암 불상은 17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어 이후 조선 후기 조각 양식의 기반이 된 불상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안면이나 옷자락 처리에 규칙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아직 도식화된 경향이라기보다는 맺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운율이 느껴진다. 특히 옷주름의 자연스러운 흐름,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지만 날카롭게 응시하는 시선 등은 종교 조각상으로서의 부드러움과 위엄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두 보살상은 등신대를 넘는 규모로 보기 드문 입상의 협시보살이다. 이러한 대규모 불상으로 입상의 협시보살을 갖춘 예로는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의 협시보살상,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상의 협시보살상,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상 협시보살상 등 주로 다불조성에 있어 협시보살로 조성이 되었고, 삼존불의 협시가 입상인 예로는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석가삼존불의 협시보살상 등이 대표적이다. 익산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입상은 현재 단독상으로 전하고 있는 정도이다. 비교적 작은 크기의 입상 협시보살은 여러 사례가 있지만, 입상으로서 이처럼 등신대 크기로 조성하는 것은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불사였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안 목우암> <구례 화엄사> <공주 갑사> <하동 쌍계사> <완주 위봉사>

또한 목우암의 경우 좌·우 보살의 착의법을 다르게 하고 각각의 조각적 개성을 담아낸 점이 주목된다. 특히 우협시보살의 경우는 과감하게 상체를 노출하고 젖꼭지까지 표현하는 등 인체 표현에 적극적이어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굽게 휘물아치는 듯한 옷자락의 흐름은 매우 역동적이고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유기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 사항

14. 2024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24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황 및 그에 따른 현상변경 승인에 대해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1)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원형보존 등을 위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 2024년 국고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개별 현상변경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 및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 추진경과
 - 국·공·사립 기관의 소장품(국보·보물)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위임 ('20.4.)
 - '23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심의 총 65건(가결 7, 조건부 가결 52, 보류 6건)

다. 주요내용

- 1) '24년 대상사업: ‘보물 월인석보 권7,8 정밀진단 및 기록화’ 등 59건[붙임 1]
- 2)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교부(자치단체 보조), 보존처리계획(현상변경) 검토 및 승인, 사업추진 점검(국비 7,07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감독관) 및 예산집행
 - 해당 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자문회의는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 개최)

3)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운영 계획

- 개요 및 목적: 개별 사업 보존처리계획서 내용(공정·재료·산출내역 등)의 적절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 시행을 유도하고자 함
- 구성인원: 문화재위원, 유형문화재과 담당직원, 관련전문가 포함 3인 이상
- 개최주기: 매월 3째주 금요일(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2024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 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 ※ 단, 탁본 또는 영인(影印)의 경우, 별도 허가를 거쳐 실시(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 사업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15. 공예(동종) 분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추진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의 선제적 지정조사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분야별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의 선제적 지정조사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4.2.29.)
 - ▶ 공예(동종) 분야 중 추진 대상의 시대적 범위는 조선 전기로 함

다. 검토대상

- 추진 분야: 공예(동종)

【동산문화재 유형별 지정 현황】 '23.12.31.현재

| 구분 | 회화 | 전 적 | 서적 | 조각 | 과학기기 | 공예 | 계 |
|-----|-----|-----|-----|-----|------|-----|-------|
| 국 보 | 27 | 73 | 1 | 45 | 9 | 104 | 259 |
| 보 물 | 293 | 666 | 105 | 203 | 81 | 296 | 1,644 |
| 계 | 320 | 739 | 106 | 248 | 90 | 400 | 1,903 |

【공예 분야 지정 현황】 '23.12.31.현재

| 구분 | 도토기 | 선사고분유물 | 불구류 | 동종 | 기타금속 | 목공예 | 민속공예 | 계 |
|-----|-----|--------|-----|----|------|-----|------|-----|
| 국 보 | 54 | 27 | 11 | 5 | 4 | 2 | 1 | 104 |

- 추진 대상 범위: 조선 전기

【동종 지정 현황】 '23.12.31.현재

| 구분 | 통일신라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 계 |
|-----|------|-------|-------|-------|-------|----|
| 국 보 | 2 | 2 | 1 | 0 | 0 | 5 |
| 보 물 | 1 | 4 | 3 | 8 | 18 | 34 |
| 계 | 3 | 6 | 4 | 8 | 18 | 39 |

라. 향후계획

- 1단계: 소위원회 개최, 대상 선정('24.4월)
- 2단계: 대상 지정조사('24.5월~12월)
- 3단계: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 ▶ 지정('25년 상반기)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